

건축사

1997 **01** vol. 333

칼럼 정보양식의 변화와 건축계의 대응

작품리뷰 용문청소년수련원

기획특집 외국사와의 공동설계—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8]—이천승(1)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U R E



차례 1997 01 333호



48

52

129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심영섭, 박재환, 양남철
 편집·취재 : 양원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ih-Sang, Shim Young-Sub,
 Kwak Chae-Hwan,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신년사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향해	김영수	22
칼럼	정보양식의 변화와 건축계의 대응	동정근	24
시론	건설회사의 설계·시공 겸업요구에 대하여	최찬환	26
작품리뷰 / 용문청소년수련장			
	용문청소년수련장	김영섭	32
	대담-호기심과 은유의 마을	송인호	37
	비평-건축과 공간기하학	최 욱	44
회원작품			
	쌍용종합기술훈련원	김영덕+주영정	48
	이대공학관	정림건축	52
	국립중앙박물관	윤석우	56
	고등기술연구원 용인연구센터	(주)서울건축	58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강철구	60
	동아백화점 수성점	최병국	62
	광주 230	한진수	64
기획특집 ①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67
작품노트	성남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중앙도서관	이성관	10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圓]-이천승(1)	권태문	114
현상설계			
	강릉시청사		118
	김해종합운동장		121
	안산시종합운동장		124
	경기도청사		127
	수원영동·용인수지2지구 공공도서관		130
통계	96년도 11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32
해외잡지동향			134
협회·건축계 소식			140

New Year Address

A Stance on Globalization in Architecture	Kim Young-Soo	22
---	---------------	----

Column

The Change of Information Media in Architecture	Dong Jung-Kuen	24
---	----------------	----

Focus

About the Integ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Choi Chan-Hwan	26
--	----------------	----

Review / Yongmoon Youth Training Center

Yongmoon Youth Training Center	Kim Young-Sub	32
Interview : Village with the Curiosity and Metaphor	Song In-Ho	37
Critique : Architecture & Space-Geometry	Choi Wook	44

Works

Ssangyong Technical Training Center	Kim Young-Duk & Joo Young-Jung	48
Engineering College of Ihwa Women's University	Junglim Architecture	52
National Museum of Korea	Yoon Seok-Woo	56
Institute of Advanced Engineering, Yong-in	SAC International, Ltd.	58
Yonsei Univ. Economic & Commercial College	Kang Cheol-Goo	60
Dong-A Department Store	Choi Byeong-Gook	62
Kwang Ju 230	Han Jin-Su	64

Special Issue ①

The St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67
--	--	----

Work Note

Seongnam Women's Welfare Center & Library	Lee Sung-Kwan	108
---	---------------	-----

Serial

Korean Architect ㉔ - Lee Cheon-Seung(1)	Kwon Tae-Moon	114
---	---------------	-----

Competition

Kangreung City Hall	118
Kimhae Sports Complex	121
Ansan Sports Complex	124
K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127
Public Library of Yeongtong & Suji 2 District	130

Statistics

	132
--	-----

Journal Trend

	134
--	-----

News

	140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강북구건축사회/(933-3425)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서구건축사회/(604-7163)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동대문구건축사회/(323-6213)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마포구건축사회/(333-6251) · 송파구건축사회/(423-5153)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서초구건축사회/(552-8463) · 은평구건축사회/(388-1485) · 동작구건축사회/(815-3023) · 강남구건축사회/(517-3371) · 노원구건축사회/(933-8378)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금천구건축사회/(437-73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구로구건축사회/(86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수원지역건축사회/(031)43-6662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58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61)876-3458 · 송탄지역건축사회/(033)666-5153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6902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80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38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철원지역건축사회/(52-3307)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53-7342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389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535-2277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37 · 금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서천지역건축사회/(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844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6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3868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2-3721 · 칠곡지역건축사회/(0543)974-7025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3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51)745-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65-4945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990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산청지역건축사회/(0553)33-9770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향해

A Stance on Globalization in Architecture

김영수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Young-Soo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丁丑年 새해 새이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시고 원년내내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첫날부터 瑞雪이 내려서인지 모든 것들이 더욱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서 보다 새로운 꿈과 크나큰 기대를 갖게 하는 새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1997년!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건축의 이상과 건축사의 미래를 새롭게 되새겨 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올 한해 우리 건축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우리의 건축사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WTO출범, OECD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여파와 국제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밀려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내 건축상황 역시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경기의 연속선상에서 극복의 한계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계 내부적으로는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건축수준에 부응하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필연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丁丑年 올 한해는 우리 건축과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 건축의 운명과 건축문화의 장래를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날의 의식, 어제까지의 관행에 안주하면 우리는 그나마 지금의 자리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념과 의지로 뭉쳐져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히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는, 21세기를 맞이할 우리 건축 및 건축사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는 말그대로 우리건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사의 설계능력만을 높이면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 각종 건축관련 법률 및 정책, 그리고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등이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학계의 설득은 물론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축전문조직으로서 건축사협회의 선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협회는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로 건축사의 생존권 확보와 건축사의 자존심 회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명제로서 건축관련 법률 및 제도정비, WTO대책수립, 건축의 대국민 홍보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연구소와 건축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회원들의 업무능력과 설계수준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한국건축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그 둘째는, 목표를 강력히 실천해나갈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인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천을 위한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을 때는 한낱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건축계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건축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축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축문화의 수준향상을 통해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계 전체를 위해서는 건축3단체의 발전적인 대동합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내 건축전담국의 신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과의 실질적인 건축정보공유를 위한 Network도 신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건축사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15개 시도건축사회를 포함한 협회조직과 운영체계를 보다 새롭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확대문제, 대의원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정관 등도 현실성있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분야별로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 채용과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사무처의 전문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지난달 협회내에 신설된 협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축정보센터추진위원회, 회관재건추진위원회,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97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와 WTO대책위원회 등은 모두 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추진기구들입니다.

그 셋째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수시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협회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내의 공식회의체와 홍보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회원들이 협회가 하는 일을 신속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과 협회가 원활한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건축관련 현안과제 및 장단기 협회추진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한국건축의 세계화는 우리 건축사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건축계에 만연해 있는 파벌주의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분파주의 동도 우리건축의 앞날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무대가 아닌 세계무대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타파하지 않으면 안될 급선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건축사가 공동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제 小我의인 자기이기에 서 탈피하여 모든 건축사가 大乘의로 하나로 뭉쳐져야 합니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건축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인들이 하나로 뭉쳐 대응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화려한 이상에 비해 그것을 실천할 토양조건과 확고한 의지부족으로 인해 빈번히 시행착오와 후회를 함께 경험한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러한 잘못된 前轍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丁丑年 새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모두 새롭게 도약합시다. 새해 새아침의 瑞雪과 햇살은 목표를 향해 성실히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성공으로 더욱 빛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건축사가 심기일전하여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로운 지평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때, 그 앞에는 언제나 저희 집행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올 한해도 회원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보양식의 변화와 건축계의 대응

The Change of Information Media in Architecture

동정근 /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Dong Jung-Kuen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떠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의 일방향(1way) 미디어인 인쇄물을 하루에 수십 종을 접하고 있고, 유무선 방송 채널은 수십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당황하게 만들고, 디스켓이나 CD에 수록된 엄청난 정보는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다. 또한 PC통신의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양이 우리의 주위를 흘러 다니고 있다. 정보양식은 벌써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벌써 정보화사회 속에 깊숙이 빠져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계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양질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각 단체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디지털정보를 제공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정보양식이 변화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건축 정보화의 방향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정보이용자로서 느끼는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첫째, 정보는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정보는 썩는다.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들이 욕심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돌다가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더 나은 국내 혹은 외국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국내 굴지의 설계사무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설계지원시스템으로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정보의 빈약함과 낮은 완성도로 인해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외국의 프로그램에 밀리는 아쉬운 일도 생기지 않았던가?

둘째, 정보의 貧富貴賤 富貴富 현상이 우려된다. 건설회사나 대형 설계업체의 경우 자신들의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려 들 것이다. 정보의 소유욕은 금전의 그것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없는 사람들의 귀중한 정보를 자신들이 가진 싸구려 정보와 맞바꾸는 일도 생기게 된다. 과거의 산업경제사회에서는 물자의 흐름에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흐름에 시간 제약이 없고 인력이나 자본과 같이 물리적인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빨리 발생한다. 문제는 정보사회에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극복된다는 데 있다.

즉 미국의 거대 정보회사에서 나온 양질의 정보를 대부분의 이용자가 놓치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하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특정 검색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것처럼 미국의 한 대학생이 만들어 놓은 건축DB에 모든 한국의 건축계가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건축설계에 이어서 건축정보 시장마저도 외국에 뺏기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보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건축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현대 건축인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는 동일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하며 동일한 데이터의 가공에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투자는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흥미거리만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세도를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를 자주 보지만 정작 쓰고자 하는 디테일을 찾기는 어렵고 이미 상당수 남아버린 데이터들이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건축허가를 위한 그 많은 양식들이나 시방서마저도 각 사무실마다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건축통계나 건축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전문화된 정보를 통해 초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그 가치의 차이는 아주 크다. 사실 대부분의 最高價 정보를 쓰레기나 다름없는 정보들의 전문적인 가공에 의하여 재창출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의 고부가가치에는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되며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정리된 정보는 새로운 쓰레기를 만드는 결과이며 이러한 정보는 천대발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모조에 대한 문제, 지적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 시점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표어는 걸어 놓았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면 정보화시대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예측되는 문제들을 빨리 발견하고 즉시 해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시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몇가지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정보의 흐름을 위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정보는 통신망에서 흘러 다닐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보를 통신상에서 가져가는 이용자가 있고 주물럭거리다가 또다시 정보의 바다에 뿌려지고 이를 또 다른 이용자가 가져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정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 있는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건축단체·건축사·학교·연구소·기타 관련자들은 정보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인 것이다. 이를 묶어주는 시스템(Network로서의)들이 있어야 하며 그 배경이 인터넷이든 별도의 통신망이든 많은 대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에서는 정보의 종합DB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의 선정과 운영에 대하여는 업체나 단체수준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연구원의 DB를 이용하고 시스템과 기술지원을 받아 각 건축단체나 학교에서는 단체특성에 맞는 전문영역을 설정하고 건축관련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보는 어떤 한 개인, 단체나 기업만이 독점할 수는 없다. 정보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非統制된 상태로 창조적 부가가치를 위해 가공되어 스스로 進化해야만 정보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일단은 많은 정보창출이 있어야 하겠지만 살아 움직이면서 진화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한다. 설계정보의 경우 대기업이나 그밖에 뛰어난 여러 회사들 모두가 자기욕심을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고여서 썩어질, 썩지 않더라도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화된 정보들 보다 틀림없이 낡게 될 정보를 과감히 공개하자.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최첨단 대기업보다 더 나은 기술을 계속해서 앞질러 갈 자신이 있다면 예외겠지만... 정보 독재는 허황된 꿈일 뿐이다.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생각은 관련단체나 업체의 중복투자로 인해 귀중한 자원이 손실될 뿐이다.

정보의 공개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보란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기업 혼자서 만들어 낼 수 없다. 정보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형성되는 방식은 도시형성과정과 유사하다. 어떤 정보의 도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정보의 도시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와 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즉,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들은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도시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의 도시에서도 현실의 도시와 같이 도시하부시설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토지공개념이 있듯이 정보공개념이 성립되어야 한다. 공개념 하에서 정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건설되어야 한다.

건설회사의 설계 · 시공 겸업요구에 대하여

About the Integ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건축물의 설계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을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대표는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이 건축사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설회사가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에도 설계업무 수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설계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종합적인 건설기술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공과정에서 경험 및 기술이 설계과정에 환류(feed-back) 되지 못하여 건설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제기가 발단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이하 "한건연"이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오래 전에 그리고 여러번 계속해서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시도해 왔던 종합건설업면허, 설계와 시공의 겸업 또는 통합 수행, 건설회사의 설계권부여 등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법제도개선요구는 모두 같은 개념속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2. 경위

지금까지 설계와 시공이 분리 발주하여 왔던 규정을 설계 · 시공 · 감리등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일반 건설회사의 종합건설업면허(설계권획득)요구가 정부에 접수되었으나 검토결과 반려된 바 있으며, 이어 국회에서 법개정을 위한 시도와 함께 몇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거친결과, 한건연의 주장과 요구는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94년에 한건연에서 국민제안형식으로 신청한 설계겸업 허용에 대해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설계와 시공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동의(不同意)하고 이어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부동의 확정으로 설계와 시공의 분리방식이 결정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1995년 발족한 건설교통부의 "건설제도개혁기획단"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고, 건설분야를 포함한 관계전문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1996년 2월에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건설사업관리회사(PM 또는 CM)가 직접 설계 ·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96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 문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논의 · 검토 되었고 그 부당성이 입증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96년 8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설계 · 시공 일괄수행을 허용해 달라는 한건연의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마련중인 「경쟁제한 법령개선방안」에 포함시켜 상정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이번에 다시 공정위에서 거론되게 되었다. 물론 새로운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확정되기 전에 제기된 사안이어서 상당한 여건변화에 따라 한건연의 입장과 태도가 달라질수 있음에도 현안의 문제로 계속 남아있다.

3. 관계부처와 관련단체의 의견

3-1. 건설교통부 의견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검토결과와 같이 건설회사가 설계·시공업무를 겸업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되는데 특히 상호견제기능(check & balance)이 상실되어 부실시공의 은폐와 부조리의 조장이 염려되며,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경제활동이 주가 되므로 시공편의 위주의 설계로 건축사의 창의력(design, idea)이 상실되어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과 건축설계비가 총사업비의 3~4%에 불과하므로 설계가 공사수주와 입찰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설계의 독창성이 없어진다는 생각과 정부시책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부문별 전문화가 필요하므로 설계와 시공의 겸업은 전문화와 설계업의 지원육성에 역행되는 것으로 업역구분의 필요성, 건축문화와 건축경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2.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

건축사협회는 건설교통부의견에 동의하면서 설계와 시공의 특성과 차이점에 따른 역할분담 그리고 독립성과 본권화의 필요성, 특수분야의 전문성, 사회적인 일반관행, 여러 외국에서의 사례와 제도 운영, 대기업이 중소기업영역의 침해와 잠식으로 인한 설계업체의 도산,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의 지배와 종속관계의 폐해와 부작용이 있고, 건축문화의 발달 및 전문성과 협력설계의 필요성 등을 들어 설계·시공의 겸업을 근본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3-3. 한건연의 의견

한건연에서는 설계·시공의 분리는 건설업체가 시공과정에서 획득한 신기술이 설계과정에 환류되지 않아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건설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있어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설계하더라도 법규정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의 형식적인 확인을 받게되어 경제적·행정적으로 이중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 영세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에 의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거나 대규모 건축설계는 수행이 곤란한 실정인 점을 지적하여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설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회사는 단순시공능력 위주로 성장하여 왔으며, 건설시장 개방과 함께 설계·시공 등 종합적 기능을 보유한 선진 외국업체들의 국내건설 및 설계용역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현재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시공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4.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

현행제도가 건축설계시장에서 진입규제 및 건축사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 측면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건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제기한 상호견제기능의 상실 우려에 관련하여서는 건설분야에서의 설계·시공은 일련의 작업과정으로써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상호보완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선진국의 경우 두 분야의 분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오히려 건설업체의 대형화, 종합화 추세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시공편의 위주의 설계로 인한 건축설계의 창의성 및 건축문화발전저해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건축물이 창의성·예술성을 고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창의성 등에 의한 기술발전은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때 촉진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부문별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국제화, 고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시장개방으로 설계·시공 등 종합적 기능을 보유한 선진외국업체들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건설업체의 시공·설계 등 종합적인 기능수행이 필요하며 시공업체에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하면 설계시장 참여를 허용하되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98년에는 설계, 시공일괄입찰(Turn-Key) 대상인 대형 공공 건설공사(100억원이상)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99년도에는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5 의견의 종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차례 논의결과 지금까지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이 보다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었으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체적 의견은 종전과 달리 한건연의 의견에 거의 동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건설교통부는 여러차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행정쇄신위원회, 국회, 건설제도개혁기획단,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주무부처의 입장을 결정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성 등에서 입장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4. 설계와 시공의 겸업에 대한 의견

4-1 현황내용

1) 대형건설회사 계열 설계사무소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독립된 설계사무소를 계열회사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업무를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설계용역도 맡아서 업무수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건설회사의 공사수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아 상호 공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는 현행법 규정안에서 외형적으로 독립된 등록 건축사사무소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회사에 종속된 경우도 많아 법상으로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었지만 설계시공의 겸업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두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한건연의 논리는 기왕에 설계사무소를 변칙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여 법적인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 계열 설계사무소 보다는 설계전담부서로 건설회사인에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건축사협회에서는 건설회사가 지금과 같이 요건에 맞추어 설계사무소를 등록, 운영할수 있는 데 무슨이유로 건설회사의 설계전담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건설회사가 설계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조차 못마땅한데, 인사, 예산, 회계 등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건설회사가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를 독점·지배하고 시공을 위주로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설계·시공겸업을 허용한다면, 3가지 유형의 회사로 구분된다. 설계와 시공을 겸업할 회사(대형건설업체)와 설계를 하는 회사(건축사사무소), 시공만을 하는 건설회사(일반건설회사 및 전문건설회사) 등이다.

이렇게 되면, 중무장한 덩치 큰 종합건설업체가 설계회사나 중소 시공건설회사를 지배, 종속할 수 있고, 현재보다 격차가 더욱 커져 경쟁상대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설계업무를 시공수주와 입찰을 위한 수단으로 하거나, 시공을 위주로한 설계를 하게된다는 점 때문에 기존 사무소는 거의 도산할 위기에 있다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대목이다. 아울러 건축경제에 밀려 건축문화는 뒷전에 밀린다는 논리이다.

2) 편법적인 허가대행

건설회사에 설계부서를 두고 실제로 설계를 한 뒤 등록건축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확인절차

때문에 행정적, 경제적 이중부담이 되고 불편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 것 자체가 명의 대여행위로서 법규정에 위반된다. 건설회사는 설계를 요식절차로 생각하여 허가를 위한 설계로 인식하게 되며 허가를 위탁받은 건축사는 자기가 설계하지 않은 설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점은 극히 불합리 할 뿐아니라 설계의 실명제(實名制)에 어긋나는 명의대여 행위이므로 설계의 부실을 조장할 수 있으며, 행위자 모두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이다.

4-2 문제의 제기

1) 건축설계와 시공의 겸업여부에 대한 문제는 건축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건설회사의 설계·시공겸업 문제는 건축계의 명운(命運)과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축계의 3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와 건설사업단체(건설협회, 한건연 등)의 의견 및 행정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건연이 관련당사자로 되어 두단체만의 공방전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더더욱 비전문가가 모인 각종 위원회 등에서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2) 경쟁제한과 진입규제개선은 동일 업종이나 업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정(rule)을 경쟁제한으로 보거나 진입규제 등의 불평등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건설회사는 건설회사와 경쟁을 그리고 설계사무소는 설계사무소간의 전문업역에서 합리적 경쟁을 유도해가야한다. 경쟁제한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건설회사의 설계·시공겸업과 종합화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규정을 무시한채 같은 종목이라고 어린이 씨름경기에 당치 큰 어른이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과 같고 자전거경주에 종목이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경쟁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설계가 전문업역인 설계사무소와 시공이 전문업역인 건설회사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상호보완 해야할 협력자(Team Play Partnership)이지 경쟁제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같은 업역의 동일 목표를 가진 의사와 한의사가 개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과 분리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설계와 시공은 큰 특성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정에 있다하며

3) 외국의 대형건설회사는 건설사업관리(PM 또는 CM)회사이지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건설업체

(General Contractor)가 아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여러 전문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Know-How를 가진 특수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업역을 키운 대형화와 종합화 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단대사공회사로 성장해온 건설회사로서는 외국의 우수한 건설관리회사가 국내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진출하게 됨으로써 위기감을 가지고 새로운 전환과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획, 기술력을 보강하고 Know-How를 축적하는 등 내부의 기능보강을 우선해야지 거대한 자본과 조작을 배경으로 진입규제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기존의 영세한 설계·시공시장의 여건과 질서를 무시하고 종합화로 설계·시공을 겸업내지는 통합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국의 CM회사는 일반건설회사가 할수 없는 특수분야의 특수 복합공종에 국한하여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회사와는 긴밀한 협조와 보완적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전문화와 협력설계를 전제로 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system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도 단대사공회사에서 벗어나 건설관리회사로 E·C화 (Engineering Construction)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루 빨리 이를 실현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도록 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의 건설제도개혁기획단에서 CM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공사와 같은 대규모 복합공사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제도적 준비를 한셈이다. 그러므로 이제 외국 대형건설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였으니 기술개발과 전문화, 고도화 등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건축설계와 시공의 특성

건설분야에서 건축설계와 시공은 일련의 작업과정으로만 인식하기 쉬우나 지향하는 목표, 추구하는 가치, 업무특성이나 성격, 인원구성, 조직 등에 큰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과 기술력, 예술성과 실용성, 문화논리와 경제논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어느쪽이 더 강한지의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가부(可否)의 선택(all or nothing)을 하기 보다는 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보완적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부문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회사가 시공을 주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를 할 경우 건축물의 공공성이나 예술문화성은 도외시되고 이익 극

대화에 치중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건설회사가 설계·시공겸업을 원하는 것이 설계를 위한 디자인과 첨단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시공을 위한 사전정보와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건설회사는 시공분야의 시장개척과 기술개발 그리고 시공관리에 전념하여 진력하여야 하며 전문업종인 설계분야(용역금액 3~4%)에 새로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업역확대로 인식될 수 있다. 외국의 건설회사(CM)와 마찬가지로 일반설계회사가 할수 없는 특수전문분야 설계에 국한(건설산업기본법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Bechtel 회사

대규모 세계적, 다국적 용역관리 회사 (consulting) 또는 건설기술관리(PM 또는 CM) 회사로서 우리나라의 일반건설업체와는 다르다. 주된 사업은 원자력 및 발전사업, 석유화학, 비료, 정밀사업, 자원개발사업, 통신, 우주항공사업, 공항사업, 항만사업, 군전력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특수 플랜트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복합공사에 Know-How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종합설계실에 여러개의 전문설계부서(Division)를 두고 있고 EC회를 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을 보면 기초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용역과 일반설계용역회사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적, 특수한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설계와 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건설회사라기보다는「Engineering + Consulting + Project Management」회사이다. 기술관리체계는 PM 또는 CM관리 전문인에 의해 품질관리, 정보관리, Engineering, 전산관리 등 기획에서 유지보수 등을 일괄수주할 수 있으며, 수많은 전문회사와의 협력하에 업무가 수행된다. 일반건축물은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전문설계회사, 예를 들면 S, O, M 등에 설계를 위탁하고 공사는 건설회사에 발주로 하청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형건설업체는 거의 대기업(재벌)에 속해 있는 것이 외국과는 다른 특징이며, 기획, 운영 등의 기술력보다는 수주와 하도급(하청)에 의존하고 있고, 단순 시공능력위주로 성장해 왔고 최근에 Engineering회사를 설치하여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2) 일본의 大成建設과 三井建設

건설회사에 종합설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시공을 겸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사무소와 협력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된사업은 CM 회사와 마찬가지로 화학 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기하도시건설

프로젝트, 지진구조 연구 및 설계, 공항 등 대규모 복합공사의 건축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이 어려운 특수한 것이 대부분이며, 독립된 설계실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건축물의 설계는 전문설계회사에 외주처리하고 있다. 특히, 건설회사에서 종합설계실을 두고 설계와 시공조직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술사자격제도가 없으므로 건축사가 기술사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공사에서는 건설회사가 설계입찰을 할 수 없으며 설계경기(현상설계)에 당선될 경우 설계한 건축물의 공사를 동일업체 또는 계열회사에서는 시공을 금지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분리함으로써 상호견제기능과 공공성 유지가 가능하고 시공편의 위주의 설계를 하지 못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3) 독일과 프랑스

설계와 시공의 분리가 필수적이며 매우 엄격하게 되어있다. 독일은 건설회사가 일체의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없으며, 거의 모든 설계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분담하고 건설회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프랑스는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실시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상세설계 등은 건설회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분담의 범위가 다르나 설계와 시공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는 훌륭한 건축문화유적을 가지고 뛰어난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예술, 창의성,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건설조직과 운영방법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4-5. 건설회사의 설계·시공 겸업허용시 부작용

1) 설계업의 도산우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여 중소기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 연간 건축설계용역비는 96년도의 경우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상위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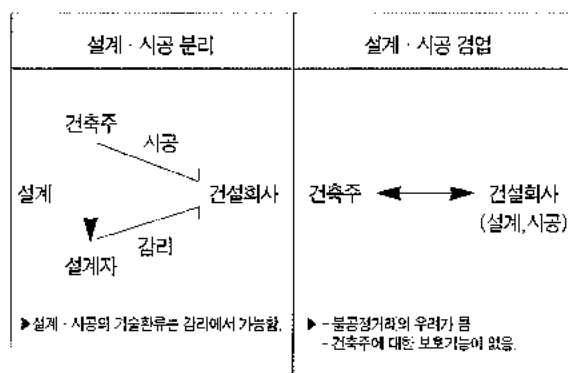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설계사무소	▶전체 건축설계사무소 4,620개 ▶등록 건축사 수 6,259명 ▶근무종업원 수(보조원) 50,000여명	'96년 11월 기준
건설회사	▶일반 건설회사 수 3,798개 ▶전문 건설업체 수 20,000여개	'96년말 기준

1개 건설회사의 연간 수주액이나 매출액 각각 5조원~7조원의 1/4에 불과하여 설계용역업이 특수전문화 중소기업종으로 대기업인 건설회사와의 경쟁은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으며 부당하다. 당치로만 예를 들어 본다면, 건설회사는 코끼리 중대(한건연)가 설계사무소라는 개미사단(대한건축사협회)과의 힘 겨루기(업역다툼)같기도 하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설계·시공겸업허용은 설계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게 되며 설계사무소는 건설회사에 종속되거나 무더기로 도산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설계업(용역비 3~4%)이 시공(사업비 100% 전액)에 통합되어 그 존망이 위태롭다. 또한 31개 대형건설업체(한건연소속)가 설계를 겸업할 경우 우월적 지위로 중소건설회사(한건연에 소속되지 않은 3,767개 건설회사와 20,000개의 전문건설회사)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중소건설회사는 수주에 타격이 예상된다.

2) 상호견제기능 상실

설계·시공의 겸업이나 통합은 상호견제기능(Check&Balance)이 상실되고 감리가 어려워 부실공사의 온



폐와 조장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조직에서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분리와 독립성보장은 상호견제기능과 역할 분담을 위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조직체계는 일원화되는 것이 좋겠지만, 견제기능과 역할분담이 없다면 독주와 전횡의 가능성이 크다.

3) 건축주의 보호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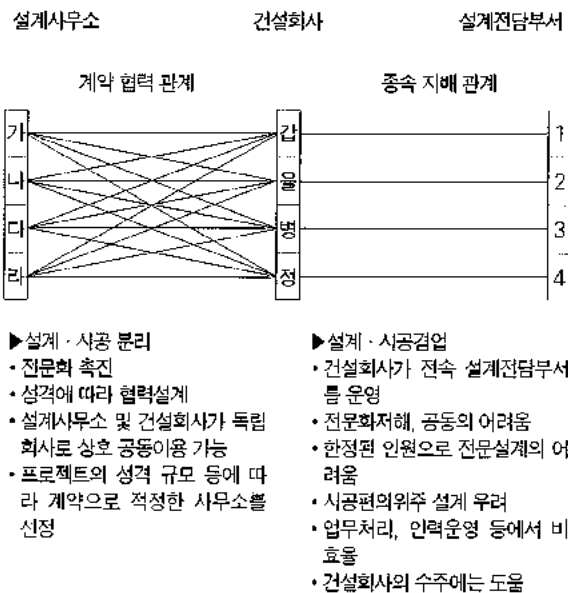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를 건설회사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없어진다. 설계자는 건축주를 위한 전문협력자로서 감리를 통해 건설회사에 대응해야 하나 설계와 시공을 겸업할 경우 건축주 보호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4) 전문화역행

전문화에 역행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는 모두 분야별로 전문화,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시공의 겸업과 다른 업종간의 종합화는 전문화에 역행되며 설계부분에서 대형화와 종합화 및 계열화와 하청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은 결코 아니다. 역할분담과 전문화 및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이 갖추어 질 수 있다. 오케스트라에서 독특한 서로 다른 악기소리로 화음을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듯이 전문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비효율적 조직과 중복투자

건설회사에서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위한 도면작성(시공상세도면) 등의 업무를 위한 것 일뿐 성격이 다른 설계업무와 시공을 함께 묶음으로써 조직의 2원적 운영과 중복투자의 비효율이 우려된다. 전문화업체를 육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회사로하여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최상의 협력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1개업체에 전문부서로 소속하는 것은 업체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며 중복투자가 된다.

6) 운영관리문제

소속 건축사의 등록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불평 등의 우려가 있다. 등록건축사는 행정위임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처벌). 그러나 소속건축사의 등록 그리고 법적책임한계의 불명료성과 불평등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7) 건설사업관리(CM)회사의 업무한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CM)업무수행시 5개 대규모 복합공사(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의 설계·감리업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기설계(현상설계)에는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와 설계부서가 있는 경우 응모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설계권(설계 및 허가)을 인정한다. 단, 설계한 건축물의 공사는 동일업체 또는 계열회사에서는 시공을 금지한다(설계와 시공의 분리와 상호견제기능 부여). 예를들면, 일본에서는 공공공사와 경기설계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철저히 분리한다. 경기설계과정을 거치면 설계의 수준과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함으로써 공공성유지가 가능하고 시공편의 위주의 설계를 방지할 수 있다.

5. 결 론

시장개방과 더불어 건설분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확보가 최우선의 과제이며, 기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보수, 운영 등 일련의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설계업과 시공업은 상호발전에 대한 견해와 시각차가 있어 여러차례 논쟁이 벌어졌으며, 설계와 시공을 겸업하는 소위 종합화를 주장하는 일부 건설회사의 요구와 설계와 시공의 분리 및 전문화를 내세우는 건축시험회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다. 이는 업역의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문제, 상호보완적이고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의 구축과 공존공생의 방법 등을 뚜렷하게 설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제갈 길이 어디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좌표도 분명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기획이라는 전력과 기술, 고도의 정보력, 뛰어난 디자인, 첨단 기술, 운영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

건축의 문화예술성과 경제성은 어느쪽도 무시할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대형건설회사는 CM회사의 업무에 주력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계사무소는 본연의 설계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전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화가 업무영역을 넓힌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경쟁이 치열해져 업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전문화는 상호불필요한 경쟁이 적고 업무영역도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며, Know-How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용문청소년수련장 Yongmoon Youth Training Center

김영섭 /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Sub

용문 청소년 수련장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각 성당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의 장으로 계획된 것이다. 수용인원 300인 기준의 수련시설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집회를 위한 실내의 시설과 집단 숙사동으로 형성되어있는 숙박시설, 이들을 위한 식당 및 부대시설, 각종 회합장으로 쓰이는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지원시설로서 사제와 수도자 및 지도자가 거주하는 사제관과 수녀원 그밖에 관리인들이 사는 관리동이 있다. 청소년수련장이 위치하고 있는 용문산 계곡은 경관이 수려하고 부지 내에서 밖을 내다보는 조망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부지를 계류가 휘감아 돌기 때문에 진입초기단계에서는 건물전체가 조망되지 않는다. 처음 나타나는 건물scene은 사제관棟이지만 건물의 하얀 외곽라인은 그 뒤의 검은 숲을 배경으로 뚜렷한 호기심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 진입도로가 북쪽을 휘어지는 곳에서 건물 전경이 숲 사이로 펼쳐지는데 '숲 사이로 보이는 전경'은 사실 건물을 배치하면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았던 건물 전면의 빛나무들이 만든 효과이다.

진입 마지막 단계인 다리 위에서 (나는 최초의 스케치를 바로 이 다리 위에서 했다. 건물 모두가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모든 건물이 기존 산세와 재형을 따라 전개되어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수련장 내부는 길과 집들로 짜여져있다. 작은 마을을 들어서는 기분은 첫번째로 마주치게되는 검은 계

단 때문에 다소 바뀌게되는데 계단 위로 지나가는 먼 지붕 사이로 자연경관이 보이는 풍경이 이 마을을 들여다 보게되는 강한 유혹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건물과 야외시설들은 토목공사 량을 줄일 선택도 되지만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배치된 것이다. 이것은 기실 무엇보다도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수수만년을 때묻지 않은 자연의 처녀성을 간직한 산 자락에 인공의 매스를 가한다는 불경을 조심스럽게 저지르는 마음이 이 설계과정에 있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방들은 제각기 고유의 위치에서 자연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의 장인 강당에서조차도 자연은 큰 배경으로 건물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즉 건축가가 의도했던 청소년들에게 건축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시 보게되는 자연과의 친화라는 주제가 이 프로젝트에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의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매개공간, 마당과 계단, 경사로, 다리들과 벽들로 구성된 다양한 공간구성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청소년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공간체험을 유도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수련장의 높은 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상념에 잠긴다. 활짝 펼쳐진 먼 돌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소년들의 재잘거림이 사라진 적막한 수련장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마당을 거니는 노사제의 그림자를 더욱 길게 만드는 시간과 눈 덮인 밤의 시간도 생각해아하는 것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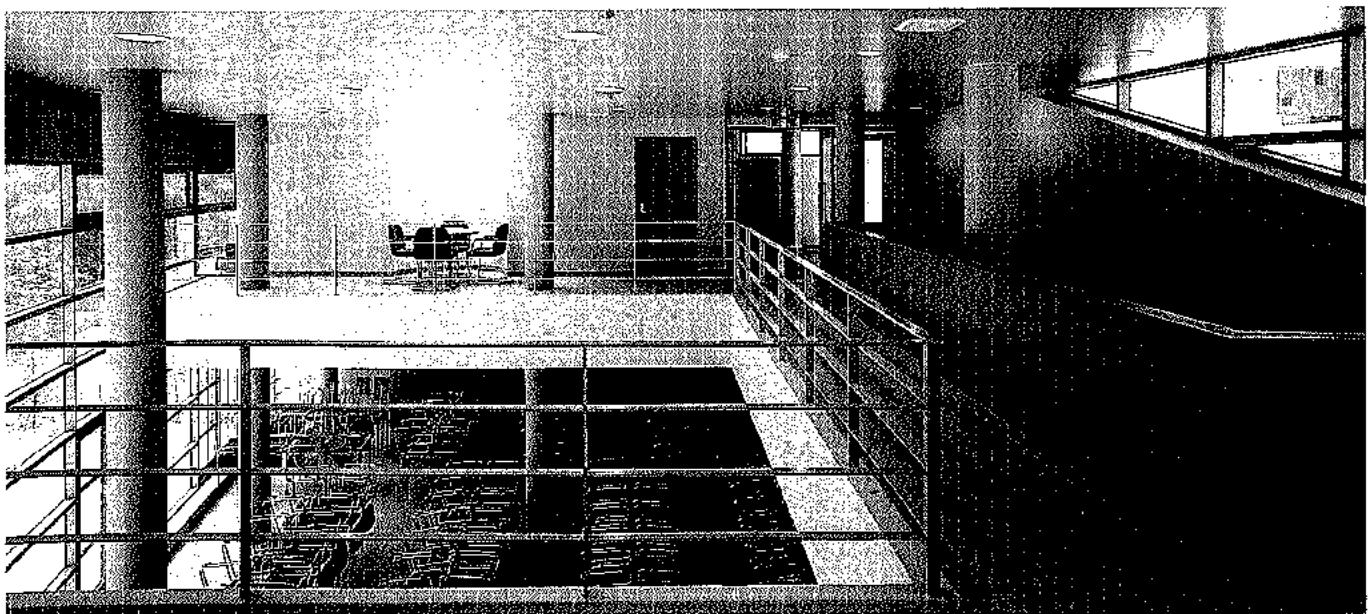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천리 145
대지면적	7,500㎡
건축면적	1,613.86㎡
연 면 적	2,687.06㎡
건 폐 율	21.5%
용 적 륜	35.8%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철골조
최고높이	9.5m
총 고	3.0m
주요설비방식	관람집회시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
주요용도	종교시설

외부마감	벽-드라이비트, 지붕-아스팔트 상글
내부마감	벽-아크로그로스, 천장-아크로그로스
주차대수	23대
조경면적	1,991.52㎡
설계담당	진인호, 도현학, 김소민
설계기간	93.11 ~ 94.7
공사기간	94.8 ~ 96.8
구조설계	명일구조기술사사무소
설 비	범창엔지니어링(주)
전 기	서창엔지니어링(주)
조 경	이운정 조경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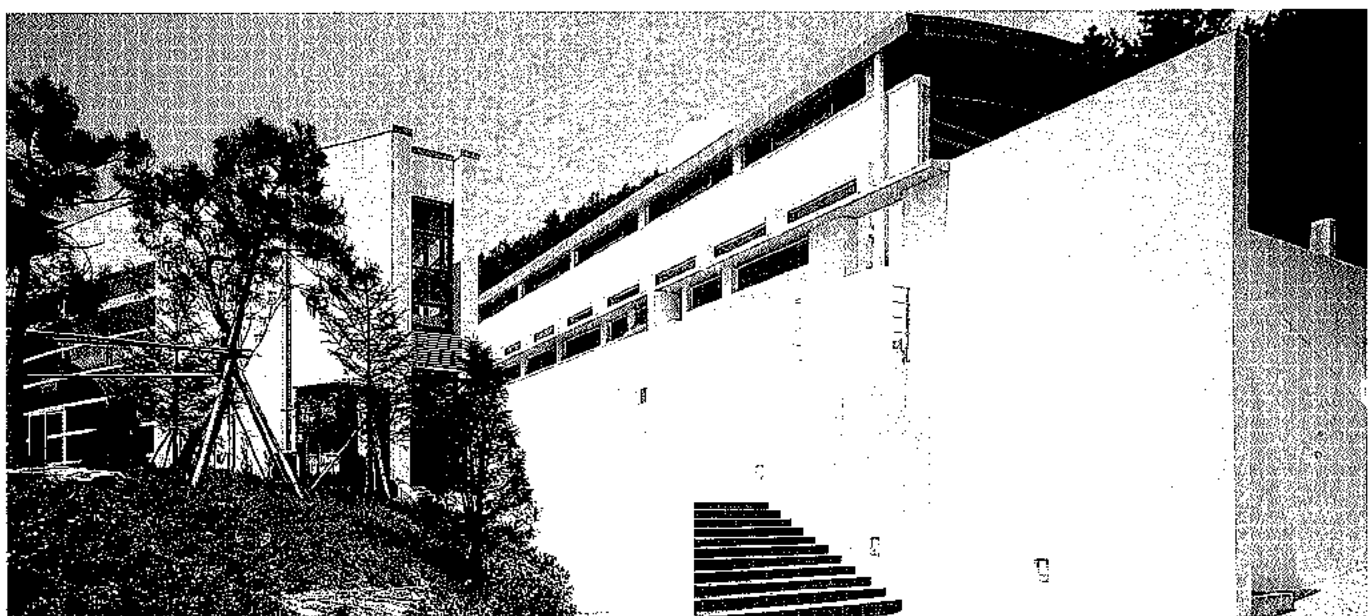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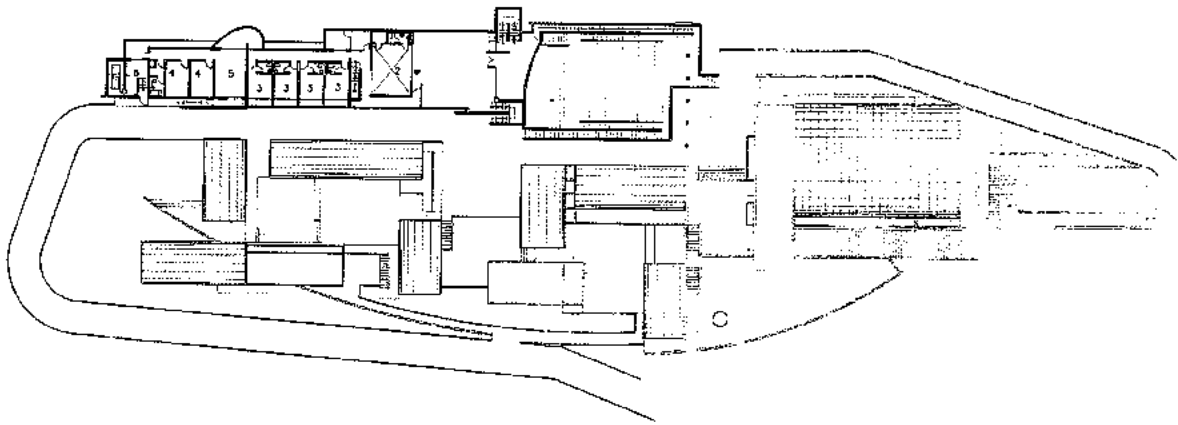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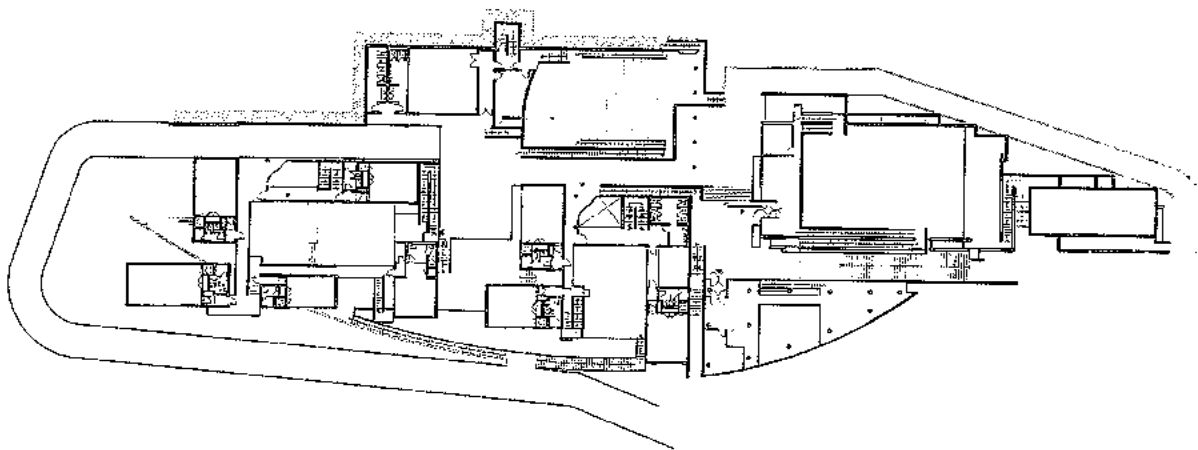
식당 내부, 호로 둘러친 매스안에 전층이 오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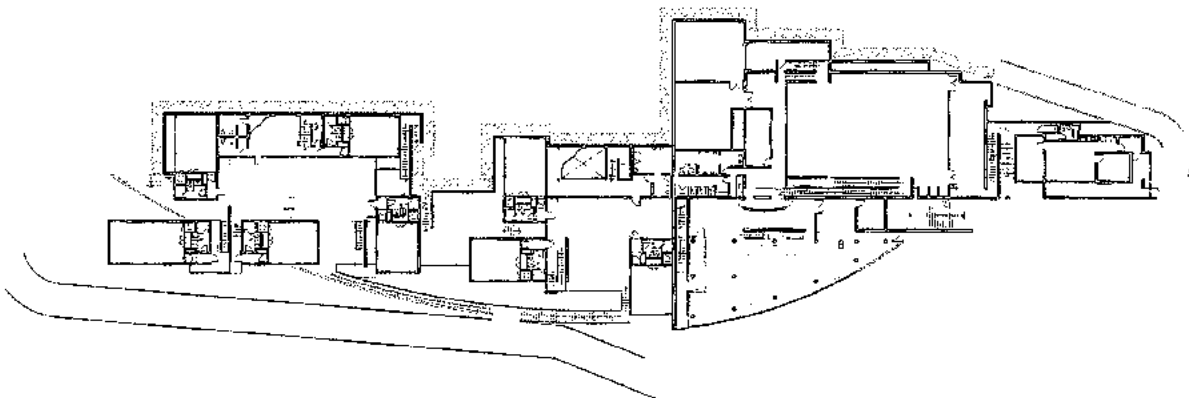
수련장의 첫 진입부, 우측 건물이 대강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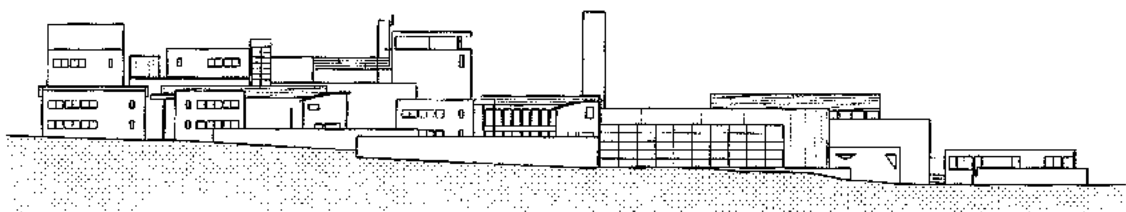
+ 11000 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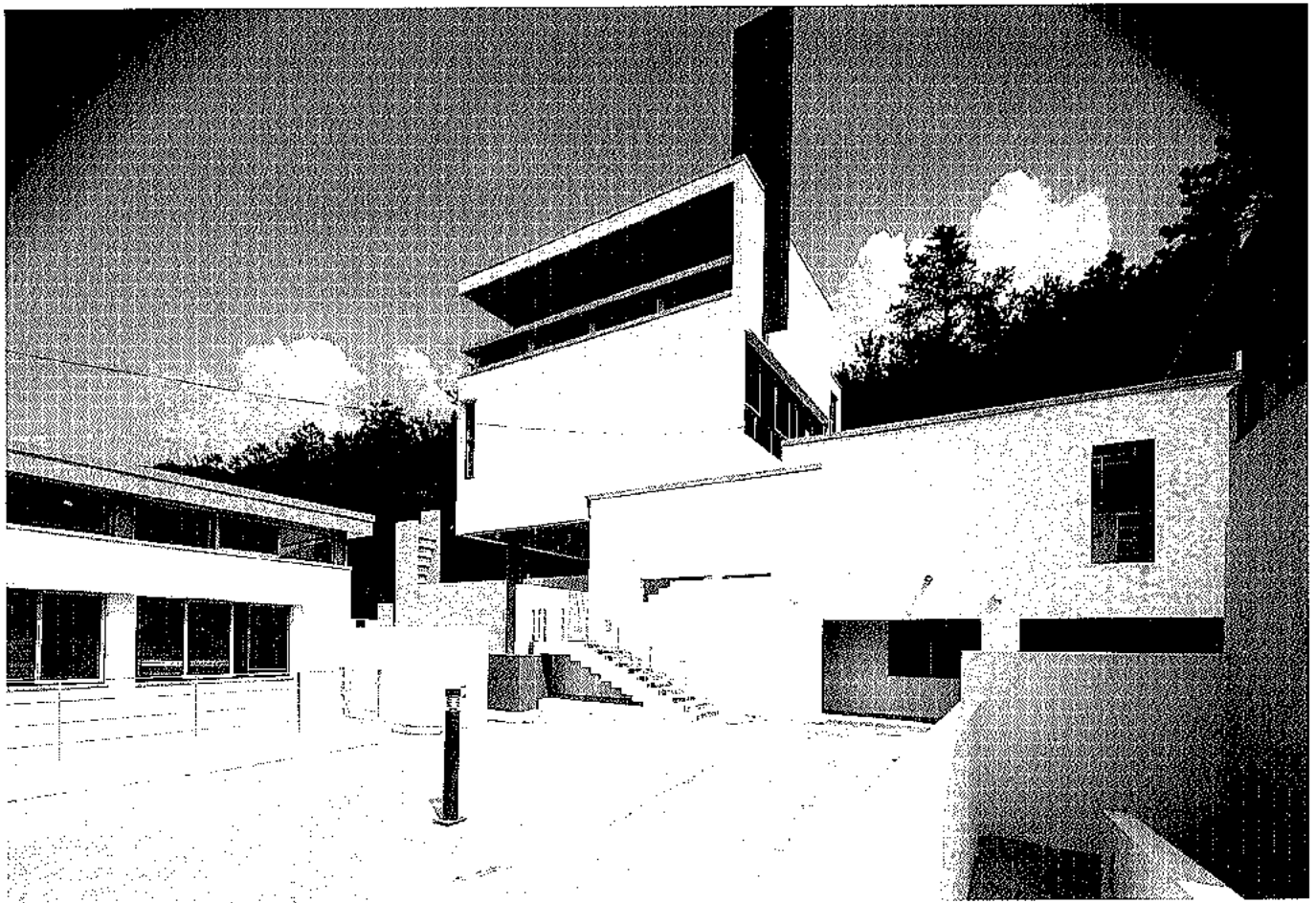
+ 9000 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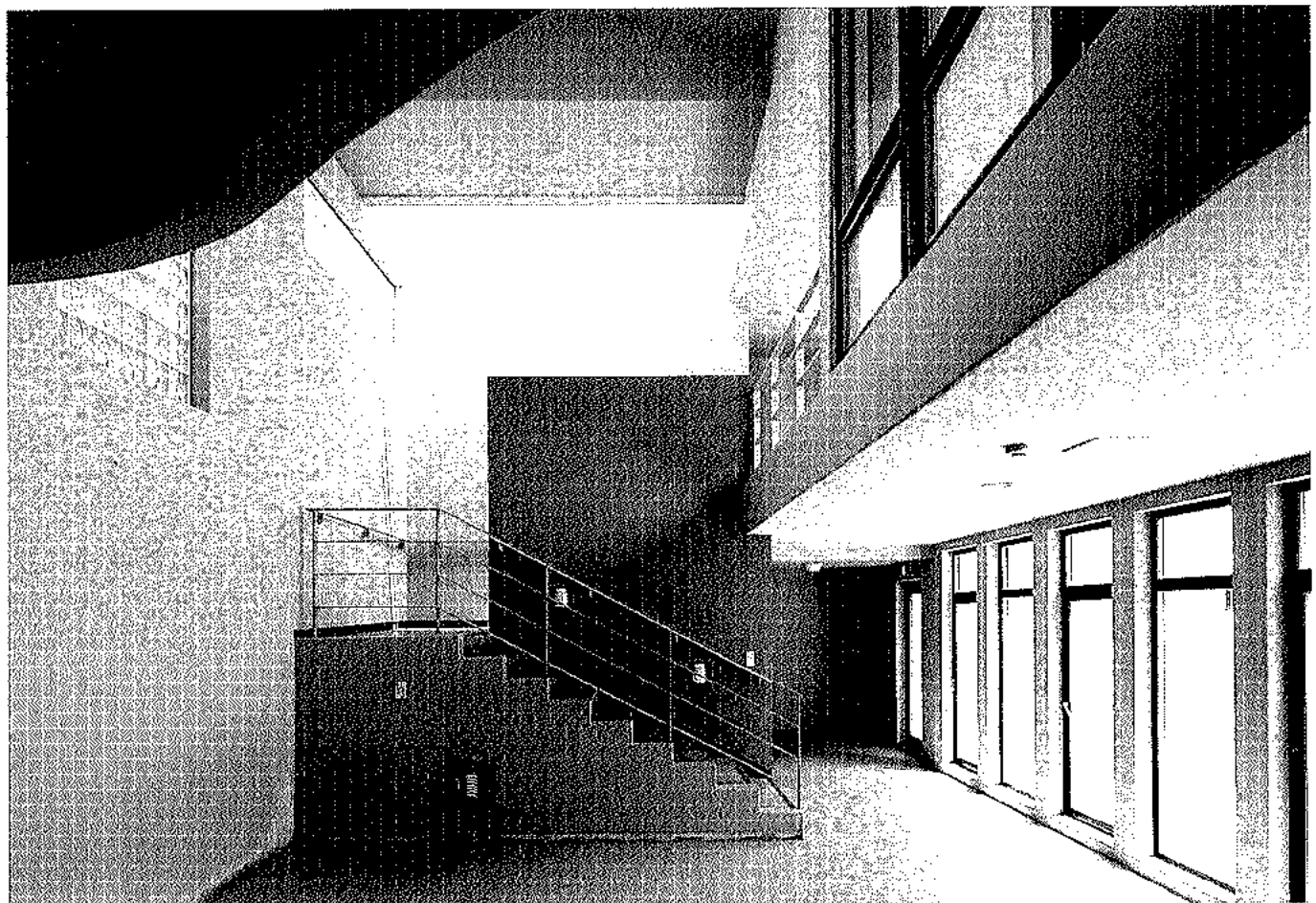
+ 6000 레벨 평면도



남측면도



사제관과 교리동으로 둘러싸인 수련장의 중앙광장격인 마당



휴게실로 사용되는 교리동 로비, 햇살을 한껏 머금고 있다.

호기심과 은유의 마을

Village with the curiosity and metaphor

대담자 /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

일 시 / 1996년 12월 18일 오전

장 소 /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건축가 김영섭과 비평을 쓰기로 한 건축가 최욱과 함께 용문수련원을 보고, 남한강을 따라 서울로 돌아 오는 길에, 문득 씨에나의 화가 시모네 마르띠니(Simone Martini, 1284~1344)의 '귀도리치오 다 폴리아노(Guidoriccio da Fogliano)'라는 프레스코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사람 모두 이탈리아에 이런 저런 항수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라, 각자 자기 감상에 젖어 이탈리아의 이 도시 저 도시에 대하여 기억을 되새김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설계사무소 건축문화에서 대담이 있었다. 용문수련원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듯하여, 이탈리아 씨에나, 시청 이층 홀의 벽에 그려져있는 그 그림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송인호 시모네 마르띠니의 이 그림에서, 말을 타고 가는 귀도리치오 장군의 모습도 좋지만, 그 배경이 되는 산위의 마을들이 인상적입니다.

김영섭 우연하게 이 그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검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려진 산성도시와 그곳으로 오르는 길 때문에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검고 푸른 색은 씨에나 화가들이 즐겨쓰던 독특한 색깔인데, 용문수련원에서 배경이 되는 뒤편 검은 숲을 보면서 그 그림을 연상하였습니다. 검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탑이 올라있는 풍경 때문이었는지...

그림이라는 것이 화가에 의하여 재해석되어진, 즉 프레임들 속에 담겨진 자연이지요. 그것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라는 평면에 압축되어있는 의미를 음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중세나 르네상스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항상 주제도 주제이지만 그 너머의 배경에 관심을 갖지요. 주제 인물들의 배경에는 항상 길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상실한 사람의 마음', 고향으로 되돌아



(좌: 김영섭, 우: 송인호)

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는 꿈이, 마을과 마을로 가는 길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성은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산성도시의 형태적 이미지,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 그 두가지 이미지가 중첩된 그림이어서 그날 시모네 마르띠니의 그림을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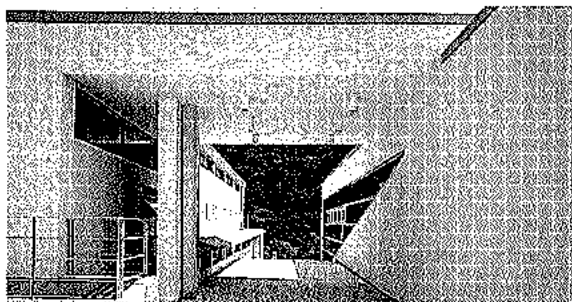
송인호 산성도시는 그 위에 깃발이 날리고있는 높은 성루가 있고, 붉은 경사지붕을 한 집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용문수련원도 서로 다른 형태의 작은 건물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김영섭 이것이 결코 단일 건물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자연의 스케일에 맞서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도 비롯되었지만, 그에 앞서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공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와 채를 나누어 그 사이에 마당을 두고, 레벨 차이를 두어 오르고 내리고, 다리를 건너며 내려다 보고 하는 것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공간구성에 대한 재미를 체험하도록하고, 공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획일적 형태의 도시 아파트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에게, 마을이 갖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일상과 축제의 기능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도시라는 것이 너무나 기능 위주의 구성이어서, 이곳은 사는 곳이고, 이곳은 쇼핑센터이고,



전경



진입계단을 올리면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 봄

이곳은 놀이터이고, 이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나누어져 버렸죠. 그런데 삶이란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을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일상속에 담기는 구조였지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간경험을 통하여 고향의 이미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을과 길이라는 주제는 시모네 마르티니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에서와 같이 '고향을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첫번째 대화의 주제는 마을이다. 마을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낼 때는 사실 집들이 모여 있음, 곧 집합이라는 물리적인 형상에 대한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건축가 김영섭은 그 대답 대신, 계속 '고향상실' 또는 '공간의 체형'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그에게 '마을과 길'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건축어휘나 구성방식이라기보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송인호 _____수련원 뒤편의 원만한 능선이 아름답습니다. 산자락을 휘감아가는 강물과 건너편의 가파른 산, 그리고 오른쪽으로 첩첩이 겹쳐지는 능선의 실루엣, 풍광이 좋습니다. 평소에 자연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십니까?

김영섭 _____도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의 흔적들을 유추해서 그것을 기억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적인 문제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작업할 때는 그 시간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인 사실로 들어 옵니다. 오래된 나무나 마모된 바위라든가, 또 산 끝자락을 휘감아가는 물줄기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의 퇴적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연의 상태로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엄숙한 현실이지요. 우선 못짓을 여미고 겸허하게 제가 당선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하는가 하고 질문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기까지 기다려, 그 대답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그 대지에 가서 생각하라'라는 말이 중요한 교훈을 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대지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기의 안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자연에 교묘하게 앉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꾀를 내기위해 애쓰지요. 저는 자연에 마주하여 작업을 할 때 마음은, 그러한 영리함이나 꾀 보다는 자연이 이야기 해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다루어야하는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연을 다룰 때는 마치 처녀를 다루는 것과 같은 조심스러움과 경건함. 그리고 순수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자연은 도전해야 하는 대상이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옛 선인들의 생각과 같이 순응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자연이 이야기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인호 _____자연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경건함을 더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대지에서 그 자연이 선생님께 말해준 것은 무엇인지요. 지형과 경치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섭 _____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우선 검은 숲을 배경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얀 건물들의 군상이었으면 좋겠다. 산세에 맞추어 커를 이루면서 중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총론적으로는 이 곳의 포토그래피, 곧 지형을 가능한 한 건드리지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순응이라는 명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형에 자칫 잘못 손을 대면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절토량 때문이지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가능한한 지형을 유지하면서, 마치 포크레인으로 땅을 긁어내듯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레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기초를 했을 때는 제 자신도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포토그래피를 포함하여, 수없이 중첩된 면에 대한 입체적인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땅 위에 구성되는 건축적인 공간 뿐 아니라, 땅 아래의 채워져 있는 땅덩어리에 대해서까지도 더불어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절감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송인호 _____자연에 손을 대어 마을을 만들 어갈 때, 건물을 작은 단위로 분절하여 구성하셨습니다. 건물

을 분절하면 그 사이에 마당이 생기고 또 자연이 끼어들게 됩니다. 분절된 채와 그 사이의 외부공간은 짝을 이루는 개념이겠지요.

김영섭 _____ 사실 마당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근래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에 토스카나의 산성도 시들을 여행할 때나, 우리의 전통건축을 답사할 때 그저 지나가면서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계동으로 이사와서 한옥에 살면서 문득, 마당이라는 것이 아 채에서 저 채를 바라보게 하는 거리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당은 그저 비워져 있는 외부공간이 아니라, 두 채 사이의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당의 깊이와 비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아서 저쪽을 바라보면 왜 그윽하게 보이는가, 뒤쪽 문을 열어 놓고 대청에 앉아있을 때, 뒤뜰의 대나무가 바람에 휘익 소리를 내면, 조금 뒤에 그 바람이 대청을 지나서, 안마당의 능소화가 후루룩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앞 뒤의 마당이 마치 화성처럼 울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의 중심에 서서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이쪽에서 마당 너머 저쪽을 바라보거나,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은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하고, 주위의 건물에 대해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당이 비어있을 뿐 아니라, 살아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흐르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마당은 독립되어 있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레벨 차이가 나면서 서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 작은 마당이 비어있는듯 보입니다만, 예산이 마련되면 앞으로 마당에 테라코타로 만든 큰 항아리를 놓고 일년생 화초를 심으면, 분위기는 훨씬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송인호 _____ 서양의 중정과 우리의 마당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에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서양의 것이 블럭에서 중심 부분을 비워낸 것이라면, 우리의 것은 마당을 중심으로 채들이 에워싸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보다 의미있게 느껴집니다만.

김영섭 _____ 서양의 중정이 바라보기 위한 것에 가깝다면, 우리의 마당의 개념은 바라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행위들이 담길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당에는 반드시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그 공간은 죽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는 숨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구나 출구가 한 눈에 그냥 보여지기 보다는, 어디에서 꼭 돌아 들어온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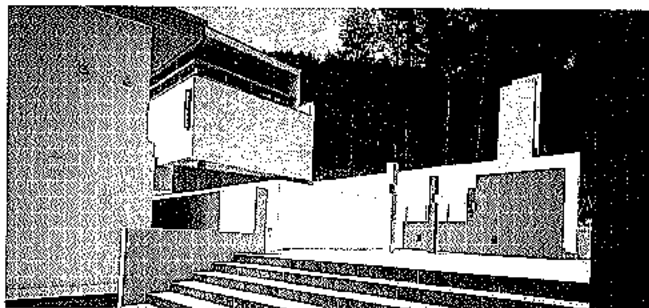
서, 항상 기대와 새로운 부딪침이 있을 때, 마당의 생명력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마당으로 어떻게 진입하는가, 마당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는 것이, 마당의 비례와 깊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굳이 마당을 두어야 하는가, 외벽량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더 들고, 열손실이 많아지고, 동선도 길어지는데 왜 마당을 고집하는가. 사실 대답이 궁색해지지요. 마당은 만들어 놓고나면 실용적이지만, 만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실용적으로 느껴진다 말이지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아예 건축주에게 이 집의 개념은 '마당과 길'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마당에 대한 그의 생각은 건강하고 실감있다. 한옥에 사는 사람으로써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마당을 멈추어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생활이 담기는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그의 용문수련원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것은 비평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마을의 공간구성에 대한 건축가의 구상을 더 들여보자.

송인호 _____ 이 마을은 얹혀 있는 미로와 마당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흰 벽과 좁은 길과 계단들은 마치 지중해의 섬마을과도 같은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공간구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_____ 먼 길을 온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서, 줄을 지어 다시 좁은 경사로를 따라 내려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이 대성당입니다. 학생들은 제일 먼저 이 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우선은 시원하다는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그저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무심히 보았던 자연이 커다란 유리창에 가득 보일 때, 학생들은 어딘가 근사한 곳에 왔구나하고 느끼게 되지요. 오줌이 마려우면 다시 좁은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화장실로 가게 되는데, 미로와 같은 길을 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 계단을 올라서면 수련장 주요길이 펼쳐진다.



야외극장 입구

장자인데,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상자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 또 전혀 다른 사건이 전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공간을 재미있어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을 만나게되면, 그 건물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또 다른 한 그룹이 들어 온다면, 야외극장으로 인도되어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이 곳은 야외배나 영화감상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강당과는 대조적인 공간이지요. 강당이 내부이지만 시야가 열려있다면, 이 곳은 외부이지만 시야는 닫혀 있지요. 바깥이면서 안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강당 또는 야외극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들은 각각 A숙소동과 B숙소동으로 배정됩니다. 두 그룹은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순서의 공간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저는 이처럼 건축가가 마치 모노로그를 풀어 나가듯이, 공간과 장면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건물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뛰어 노는 여름 뿐 아니라, 재잘거리며 떠들던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의 시간에 대해서도, 낙엽이 흩뿌려져 있는 야외계단의 가을이라든지, 눈이 쌓여있는 밤의 시간이나, 또는 운퇴한 노사제가 그림자를 끌며 거나는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마을이 아니라 영화세트장을 만들 어버릴 위험이 있지요.

건축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마을이 영화세트장, 또는 그저 세련된 형태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었으리라. 그는 연출, 호기심, 생명력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통로를 따라 이 마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젊어서부터 혼자서 계획없이 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호기심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빠지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호기심을 예술적으로 잘 해석해서, 그위에 은유를 덧입히는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잘 정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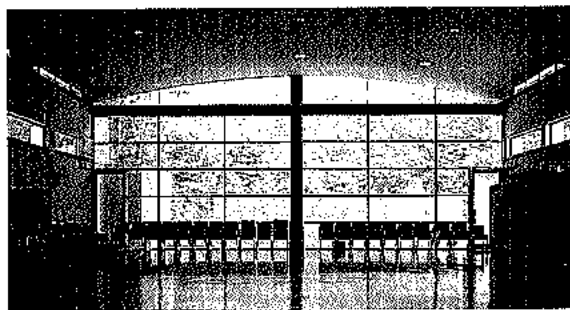
순하게 여행하기를 즐겼는데, 그 여행들에서 그는 일상과 건물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인상들을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마치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리듯, 그 장면들은 그집안내 어 구성하고 있노라고 설명하였다.

송인호 외람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치된 형태를 보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교 좌표 체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지형의 미세한 차이를 따라서, 또는 좋은 경치를 향해서 조금씩 틀어 앉을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마을들이 갖는 공간구성처럼 말입니다.

김영섭 저는 도시에 지어지는 건축과 자연에 지어지는 건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는 컨텍스트에 따라, 사선이나 원호, 부정형 형태들이 도시의 경직된 질서를 깨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의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자연곡선들이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자연과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면,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고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 풀어나갈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연에 대하여는 모범생처럼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연과 잘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앞에서는 자유곡선이라든가 사선을 쓴다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저는 안도의 건축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를 그가 자연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조되는 인공적인 어휘를 쓰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작업했던 정몽의 수녀원도 매우 복잡한 평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혀 자유곡선이나 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엄격한 선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나무가 추상화되는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자연적인 모습의 나무가 몇 단계를 거쳐서 분절된 기하학적 선들로 미분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자연이 추상화되는가,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



성당내부, 눈앞에 펼쳐지는 대자연을 물리적장치의 스크린을 두어 걸어보게 된다.

디서부터 인공인가. 자연도 이렇게 완전히 추상화되어 버릴 수 있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이 용문수련원의 배치도를 질 나쁜 복사기로 여러번 복사하다 보면 그 몬드리안 그림과 같이 될 겁니다. (웃음)

건축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축구성 요소는 단순한 형태라 하여도 그것이 배치되는 방식은 조금씩 호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에 있는 우리 옛 절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절과 다른 모습은 그러한 구성방식이 아니던가. 전각들은 일핏 직교 좌표 위에 구성이 된 듯 하지만, 지형에 따라, 바라보는 산에 따라, 또는 진입하는 각도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 앞에서 질문했던 산자락을 휘감아가는 강물과 건너편의 가파른 산, 그리고 오른쪽으로 첩첩이 겹쳐지는 능선의 실루엣, 이러한 경관들이 조금씩 호트러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대지 입구쪽 다리에 서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배치도에 보이는 긴 원호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작게 분절된 건물들을 다시 묶어주는 건축적 장치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원래 계획에는 앞쪽에 낮은 기단과 같이 긴 경사로를 계획했었다고 한다. 그랬으면 건물들이 대지와 좀 더 밀착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열지어 서있던 빛나무들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설계를 조정했다고 한다. 지금 그 나무들은 없는데 그 나무들이 남아 있었다면, 건물 앞에 한 컷가 더 생기는 셈이니, 검은 숲을 배경으로 건물들이 더욱 깊이감 있게 보일 듯하다.

송인호 마을 안을 걷다보면, 자연을 바라보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장면으로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지요.

김영섭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다 읽히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를 때, 사람들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됩니다. 건축도 그러한 연출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눈에 다 읽혀지는 건물이 아니라, 호기심과 은유로 가득한 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들이어서, 건물 사이사이에 구성된 장면과 토막난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곳이 전망대입니다. 이 곳은 지붕이 덮힌 옥상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그룹의 교육장으로도 이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전체를 내려다 볼 수도 있고, 들어오는 길과 주변의 산들을 둘러볼 수 있는 장소이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 햇



대지 앞쪽 외부 길에서 수련장 전면을 봄

빛이 강한 한 낮에 보는 자연은 눈부심, 그냥 빛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명이나 해가 뉘엿뉘엿 자는 황혼에 바라보는 자연은 중첩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건축에 자연을 끌어 들어하려 할 때 빛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감과 그림자를 가지고 빛을 연출하려면 채와 채의 분할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하나의 건물로 했더라면, 자연과 건축이 서로 관입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때 건물의 형태 뿐 아니라 질감과 색도 장면을 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재료를 붉은 벽돌로 처리했었다면, 긴 벽이나 매스를 따라서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긴장감이 훨씬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연을 건축에 담으려할 때, 근경을 취하는 것은, 도시에서처럼 어느 정도 풍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문수련원에서와 같이 근경과 원경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을 건축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채와 채 사이로 분절되어 보이는 경치가 원경이라면, 성당에서 바라보는 맞은 편 산은 일종의 중근경인 셈입니다. 원호화된 프레임 안에 풍경이 가득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창 밖의 낮은 콘크리트 담은 근경을 지우고 그 너머 중근경만을 취하도록 현장에서 그 높이를 조절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전통건축에서 너무 높지 않게 담을 치고, 그 너머로 자연을 취하는 방식에서 배운 것이지요. 그 수법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거리감을 분명하게 주고, 조정된 스케일에 따라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사제실에서는 마치 내가 자연 안에 나가 앉은 것과 같은 느낌이기를 바랬습니다. 근경을 취하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장면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곳이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는 천정면으로 하늘을 꿰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큰 그림처럼 보이도록 처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마을 안에 구성된 장면들은 카메라를 통하여 보는 파인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채와 채 사이로 보는 원경은 마치 망원렌즈처럼 카메라의 렌즈를 줄여서 장면 장면 자연을 잡는 수법이지요. 한편 성당 안에서 바라보는 중근경은 광각렌즈를 활짝 열어서 잡은 장면이지요. 창에 앞산이 가득 들어오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제관 안에서는 마치 내가 숲에 나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크게 펼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외같이 근경과 원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소위 영화적인 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는 어떠한 렌즈를 쓸 것인가, 어떠한 각도로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듯이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경은 다리에서 이 마을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직적인 전망대라든가, 몇 개의 가리게 벽들을 수평적인 건물들 위에 랜드마크와 같은 요소로 분절시켜서 구성하였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는 장면들이 건물 형태에 의하여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대화 중에 나는 야외집회장 옆 경사로를 오르면서 바라보는 장면과, 전망대에서 서서 둘러보는 풍경이 꼭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플러스 잡지(9609)의 표지사진에서 보듯이, 낮은 곳에서 경사로 따라 오르면서 보는 숲은 마치 퍼스펙티브처럼, 깊이 방향으로 보인다. 자연을 향하여 그 높이가 줄어드는 청색 청회색 벽이 시선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한편 높은 전망대에서 서서 둘러보는 앞산과 들은 파노라마하게 펼쳐진 장면들이다. 긴 벽 대신에 깊은 천정면이 시선을 조정하고 있다. 각각 대조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는, 벽과 천정면의 역할이 흥미롭다.

송인호 _____ 흰색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색들을 사용하였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색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외부에 쓰인 색과 내부에 쓰인 색은 어떻게 선택하신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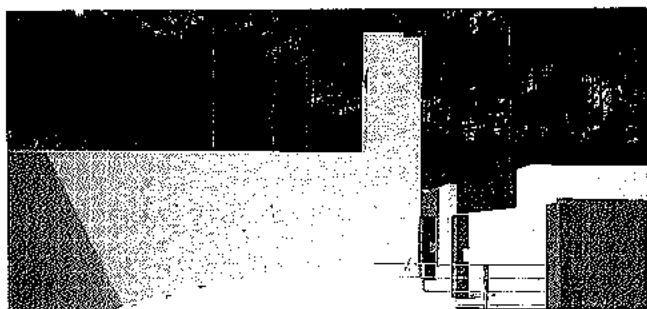
김영선 _____ 요즈음 저는 '색감의 회복'이라는 명제를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색에 대하여 아주 풍부하고, 또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색구성을 보여주는 조각보 전시회를 보면, 일상생활에 까지도 색을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 벽이나 단청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고려시대는 무척

색이 화려했던 시대였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색을 절제했었던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러한 색에 대한 미학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분청사기에서 보듯이 단색 톤이면서도, 오히려 색은 더욱 세련되고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갑자기 그 전통이 끊기게 되고, 우리는 색에 대하여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서구의 색깔, 르꼬르뷔제 등의 건축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빨강 노랑 파랑과도 같은 강렬한 원색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갖고있던 다양하고 은유적인 색깔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가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바라간의 건축을 봤을 때, 색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라간이 쓰고있는 주색이라던가 분홍색이라던가 하는, 굉장히 튀는 색들이 결국 그들의 풍토색이더군요. 그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 색깔이고, 그 땅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간에 대한 특별한 이해 없이도 그 색에 대한 이해가 쉽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에게 '색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서구의 영향으로 우리는 공간이나 매스, 또는 빛과 그림자와 같은 몇가지 기법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을 뿐, 질감이나 색에 대해서는 금기시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금기로부터 좀 해방되어, 우리 선조들의 뛰어났던 색에 대한 감각들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즈음의 프로젝트에서는 의도적으로 색을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색을 쓸 때 주변과 조화되면서, 나름대로의 미학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시어들을 생각할 때마다 메모하듯이, 여행을 하면서 보는 색들을 기억해두곤 합니다. 이 색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면 좋겠구나.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실험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쓰고 있는 색들이 충분히 한국적인 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색에 대한 컴플렉스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서는 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쓰인 색들은 주로 자연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은 건물의 주조색을 뒤의 검은 숲과 일탈되는 흰 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연과 만나는 부분의 색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곡면지붕에 사용된 어두운 올리브 색은, 뒤편 숲의 어두운 색을 한 단계 죽여서 흰 색에 정착시키려는 의도이지요. 앞쪽의 녹색 필로티와 그 사이사이에 채워진 통나무도 지면과 만나는 부분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밖의 외부에 쓰인 색들은 자연으로 시선을 유도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악센트를 준다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한편 내부의 색은 추운 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값



야외집회장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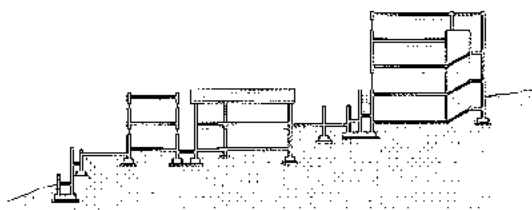
싸게 지은 집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게하기를 바랐습니다. 중간색을 많이 썼는데, 좋은 색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계몽주의적인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엘로우보다는 차자색을 내려고 애썼지요.

송인호 _____ 건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후배 건축가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영섭 _____ 우리 한국의 건축가 교육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물은 이 땅 어디엔가 꼭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세워야 하는 것은 현실이고, 건축은 현실을 구현하는 것이지요. 건축가는 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어휘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축가를 볼 때, 조금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건축가는 이른바 전문가인데, 어떠한 상황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료의 물성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질감과 구법, 그리고 재료가 말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았으면 합니다. 건축가는 끊임없이 아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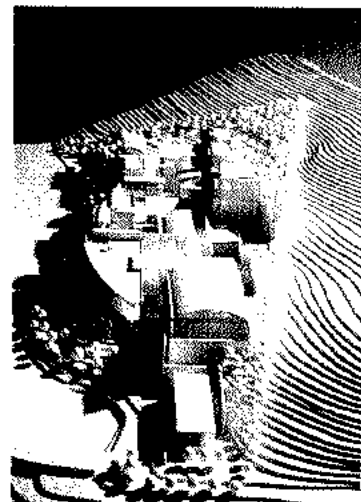
그런데 건축학도들은 요즈음 모형을 만드는 재료가 흰색이어서 그런지, 공간과 덩어리에 대한 대조라던가, 빛과 그림자의 대조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피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요. 골격과 핏줄이 드러날 때 인간은 결코 아름답지 않지요. 건축도 마찬가지로 표피가 구조와 공간, 동선을 감싸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건축의 표피를 이루는 재료들의 가공방법이나 경제성 등, 그 재료의 물성에 대하여 충분히 익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지나치게 공간구성과 같은 개념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재료의 스케일이나 만남의 문제, 질감 등과 같은 실용적인 것이지요. 저 스스로도 플랜만 남아있고 실체는 사라져버린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작업합니다.

그리고 건축가에게는 독서량이 매우 중요하다



중단면도

고 생각합니다. 단지 책임기 뿐 아니라 여행이나 모든 만남에 대한 여러가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대학시절 확장실에 갈 때, 고급 호텔에서 불일을 보곤 했습니다. 용변을 보면서 그 고급재료며 마감디테일과, 비례와 스케일을 들여다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부잡스럽게 이런 저런 정보를 다양하게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형

건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호기심, 인간에 대한 연구가 어떤 건축형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작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쥐어짜내듯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일을 한다 말이지요. 아까 자연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안에 살 사람들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건축적인 언어로 계속 환원시키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들을 잘 짚 수 있는 문장력만 있으면 무척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나의 삶에 대한 태도, 자연에 대한 태도이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행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앞의 이야기가 실무적인 이야기라면, 뒤 이야기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이겠지요.

송인호 _____ 생활하면서 항상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작업을 하면서 물성에 주목하라는 교훈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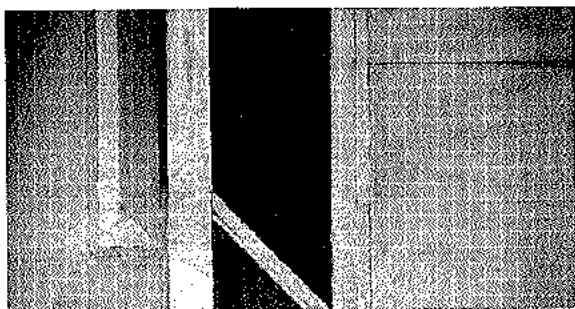
그의 건축은 얼핏 어디에서 본 듯하고, 그래서 익숙하고 또는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양한 건축어휘와 구성방법, 그리고 장면들로 구성된 입체적인 플라주와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숨겨 놓고, 그리고 입체와 장면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과정에 그가 가진 건축가로서의 능력이 드러난다. 일상적인 단어들에 담긴 호기심과 은유, 한 편의 소설을 읽는 재미와 감동에 건줄 만하다.

건축과 공간기하학

Architecture & Space-Geometry

최 욱 / K&C 건축사사무소

by Choi Wook



리처드 디벤콘(Richard Diebenkorn)의 거리풍경을 그린 후기 작업

건축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건축가의 작업을 평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비평의 목적이 사사로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름함이 아니며 역사적·문화적 문맥에서 사물의 절대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역사가와 달리 건축가는 가능성을 찾아 행하는 자로써 사물을 미학적 오브제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탄계겐조나 오스카니마이어는 당시대의 거목이었다.

그러나 현대건축사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페이지는 없다. 건축가의 세계가 기대와 미래의 미지를 여는 쓰거움이라면 역사가가 속한 세계는 간 시간의 흐름속에 관조해야 하는 차가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비평은 작가가 그 시대에 향해 던지는 문제의식에 주목해야 한다. 비평의 역할이 작가와 그가 속한 사회, 시대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개인과 역사와의 관계에서 무엇이건 건축가는 비평의 정확한 수행자는 아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저급 대중문화의 양적 우위에 노출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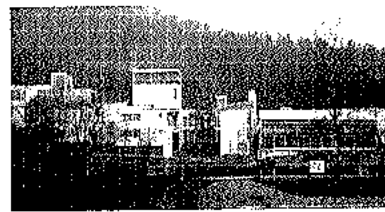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중세산성도시인 구비오(Gubbio)의 전경

자본이 건축의 한계를 결정짓는 구체적요소로 작용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에 맡겨진 건축은 보다 물리적이고 파상적이 되었다. 오늘날의 건축은 분명 국제 공통언어의 확립을 위해 전쟁을 벌이던 50년대의 현실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업화가 가속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의 비평은 말이 아니라 작가의 성실한 도면으로 그 자리를 메꾸어야 한다고 타꾸리는 이야기했다.

건축은 오랫동안 사회나 문화 이념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역할하여 왔다. 음악이나 미술보다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안과 미래의 예견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TV나 컴퓨터 등의 가상현실문화의 발달은 정보전달 매체로써의 건축의 역할을 축소하여 왔다. 건축은 보다 건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건축가 김영실의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일고자함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이며 작가의 밖으로 던져진 작업의 단편을 체험하는 즐거움 일 것이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 리처드 디벤콘(Richard Diebenkorn)이 있다.

그는 수십년에 걸쳐 미국 서부의 도로를 그렸다. 그의 그림은 풍경화에 가까운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몇개의 선과 면을 가진 색채로 바뀌게 된다. 그가 수십년동안 그린 것은 도로가 아니라 사물에 관한 무엇이며 사물을 단순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물의 무엇에 관한 끝없는 질문으로 그 물음에 점점 가까와졌을 것이다.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앞선 일련의 작업에서 사물에 관한 그의 질문 혹은 일련의 반복되는 공유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축에서의 기하학은 건물의 고유한 기능의 부여처럼 명백히 그 건물의 성격을 가름하게 된다. 김영실은 건축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된 적용은 아니나 서로 다른 기하학의 적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기하학은 공간을 정제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서로 중첩하여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한 도구이며 형식언어의 출발로 보인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하학적 구축에 의한 건축은 아니다.)

“서대신동 주택”의 경우 사용된 두개의 축은 실제 공간에서 인지되는 기준 혹은 상징이 아닌 건축의 화두를 푸는 도구로 사용되어 다양한 공간 연출의 지속적인 축추가 되어 있었다. “양재동 빌딩”에서는 이



진입로인 다리에서 바라본 용문 청소년 수련장 전경

미 규모검토에서 형성된 볼륨의 해결책으로 주세페 테라니의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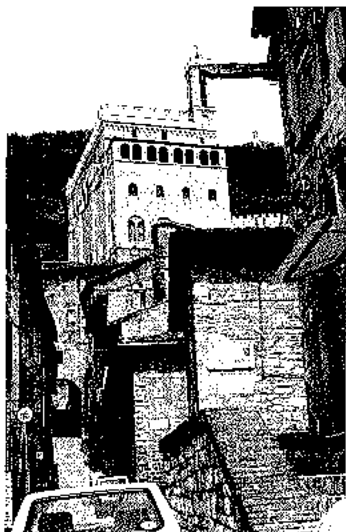
양재동 빌딩

사 텔 파쇼'의 정면이 은유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테라니는 기하학이 주는 미학적 가치는 계급이나 지식,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미학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건물의 부분을 감정을 배제하며 수의 집합처럼 분해하고 구축하여 건축을 이루어냈다.

“대나무집”에서 인용된 라메종 드 베르(La Maison de Verre)의 유리 불럭이 만드는 이중 파사드는 주거전용지역에서의 식당이라는 기능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주택군과 면하는 대각선 가로에 설치하여 스크린 속으로 내부를 감춤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건축의 화두를 푸는 일련의 연속적이고 상이한 해결책의 건축어법과 기하학의 적용이 그의 건축의 궁극적 결과는 아니다. 이러한 형식언어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간과 건축구법이 점차로 김영섭화 되어지는 까닭이다. 그의 작업의 출발을 가져오는 이러한 모티프는 작업에 전제된 결과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고를 가능케하는 자극이며 에너지일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작업이 만들어 내는 지속성은 계단의 위치, 계단실의 배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건물의 계단을 길의 연장으로써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의 건축은 길의 연속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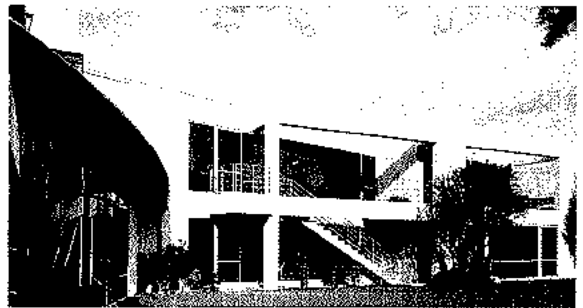
외부와 같은 내부 혹은 내부와 같은 외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면을 관찰하면 그가 인용하는 기하학의 적용이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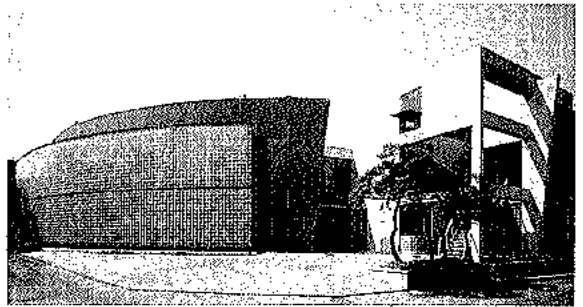
시각적 중심을 이루는 전망대를 가진 구비오의 전경



시각적 중심을 이루는 전망대를 가진 용문청소년수련장



서대신동 주택 (전시시설)



대나무집

언어는 부분의 해결로 이용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김영섭 건축의 또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공간이 분절되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일소점 투시의 공간이 극히 자제되어 있는 점이다. 분절되어진 서로 다른 성격으로 공간이 병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길의 연속으로 이해되어지는 공용공간이 강조되어지는 엑소노메트릭적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공간을 가진 건축을 투시도로 그리면 그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가 만드는 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아니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마당과 같은 연속체로써의 길이다.

용문 청소년 수련장의 평면도를 처음 본 것은 96년 12월 초, 비가 조금씩 내리는 흐린날 용문산 계곡으로 향하는 차안이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로 여러개의 건물이며 이루어진 집합체로 레벨이 있는 땅에 건축되어진 건물이었다. 복잡한 레벨 때문인지 많은 계단과 교차되는 동선 때문에 건물을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동서의 긴 축상에 몇개로 절곡된 도로를 배치하여 (이 도로의 절곡점에 마당이 있다) 크게 상하로 나누어 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는 점과 서로 다른 두



자연지형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물 전면 부분



구비오(Gubbio)의 골목



웅문청소년수련장의 학생기숙사 중정

기능을 남북선상의 축이 공허부로 향하여 건물의 경관을 배려하고 있는 배치는 짐작이 되었

고 건물의 하부에 반달 모양의 기단부가 하부에서 상부로 향하여 형성되어 있었다.

역시 계단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경계에 형성되어 공간의 조형형성과 함께 건물의 주요부로 부각되어 있었다. 수려한 경관의 웅문산 계곡의 입구에서부터 측면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수련장은 진입로인 다리에 이르면 주변의 지세와 균형을 이룬 전모가 드러나는데 배치도에서 보이는 정형성과는 달리 작은 스케일의 건물군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 사이로 공간과 측면이 시야에 들어와 풍부한 공간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진입로인 다리의 방향과 연장선상에 있는 남북의 긴 축이 건물군을 가로질러 웅문산의 숲을 향하고 그 좌측에 시각적 조망의 중심이 되는 아와수업장이 담처럼 배치되어 그 좌우로 수평의 긴 건축군을 형성하였다. 이 다리 조음의 조망은 이탈리아 중부의 중세 산성도시인 구비오(Gubbio)를 연상시켰다. 이탈리아의 중세도시들은 로마시대부터 전례되는 동서의 가로중심에 마을의 상징이 되는 교회가 있고 그 중심으로 주거군 형성권 부정형의 도시이다. 이러한 중세도시들은 무척 따뜻한 인간미가 풍기



Girolamo Nadal(1595)에 의한 Adnotationes et Meditationes in Evangelia

는데 상징물이 배경이 된 골목길과 사람들의 중첩된 층이 형성하는 깊이감 그리고 돌과 나무의 자연재료가 만들어내는 안정감 때문이다. 웅문수련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었다. 드라이비트는 재료 본래의 물성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의 한계를 빛과 그림자 색채, 조형의 다양성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실 이러한 한계가 르 꼬르뷔제에게는 창작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기도 하다. 웅문수련장의 외관은 흰색으로 마감되어 있다. 드라이비트의 흰 벽면이 만들어내는 면의 추상성에 부조처럼 얇게 떠인 창 의 표피와 지면에서 필로티로 떠 있는 하부의 질은 초록색이 전체 건물을 지면에서 떠올려 건물이 지면과 접지하고 있지 않은듯한 인상을 주었다. 계획상에 나타나는 기단부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시공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고 하부 필로티의 색깔이 건물의 외벽과 같은 색으로 처리했으면 이러한 분리 현상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흙으로 반원형의 기단이 사실 형성되어 있기에 흙과 건물의 접지는 무척 이 건물에서 중요하다. 건물의 연장으로써 기단(흙 부분)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의 공간과 골목(?)길을 산책하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건물의 곳곳에서 중세산성도시 혹은 지중해의 벽이 만드는 건축, 르 꼬르뷔제의 파편, 바라강의 색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패러디화되어 있는 이 건축이 왜 놀상의 김영섭건축인가 하는 점이다. 웅문 수련장의 배치도를 수직(동서방향)으로 세워놓고 이 공간을 동양의 수묵화의 기법 즉, 하부에서 상부로 공간을 나열시켜 놓은 공간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표현은 기법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의 근원적 다름이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르네상스의 일소점 회화를 이집트식 그림으로 옮길 때 표현의 변화가 아닌 사고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부연하여 한 예를 설명하

던 일소점투시화법으로 그려진 이탈리아의 성화를 중국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탈리아인에 의해 다시 등각투시도법으로 옮겨 놓은 그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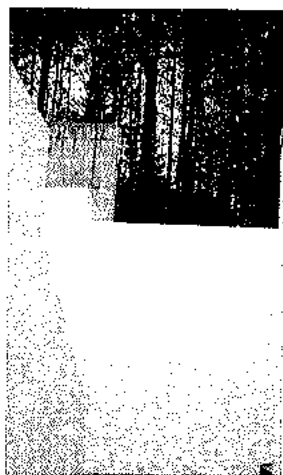


Giovanni da Rocha(1620)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복제품

주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일소점투시의 화면이 등각투시도로 바뀌는 순간 주변과의 상황, 관계가 동일시 되어 주제의 무제의 상대적인 관계가 묘사되는



담이 만드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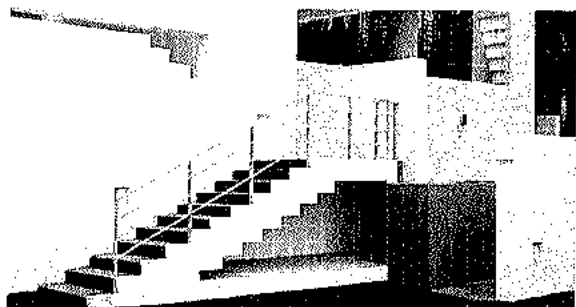


담이 만드는 풍경

그림으로 바뀌게 된다. 마치 일본의 영화감독 오즈가 카메라를 방에서 마당으로 고정시켜 놓고 주변에서 (카메라 앵글에 잡히 않는)의 소리, 그림자, 움직임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 동양의 공간을 묘사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건축가 김영섭의 병치된 공간의 수법은 목조건축이 가지는 공간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중첩되는 소리의 겹침, 빛이 만들어내는 혹은 빛이 닿지 아니

하는 부분의 공간화, 결코 폐쇄되지 않는 공간의 자연스런 체득의 발로는 아닐까? (그는 한옥을 사랑하고 한옥에서 살고있다) 그의 건축은 완성도에 세심한 배려가 숨어있다. 그가 설정한 목표를 위한 치열함보다는 현실의 가능성 위에 설정해 놓은 한계에서 계산된 그의 교묘한 전략을 이룬다. 용문수련장의 지붕의 마감 재료는 노출된 방수재 그 자체로 아이빔 구조 철물이 물 흐름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도는 그의 건축의 장점이지만 궁극적 그의 건축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건축가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원단(도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천의 얼굴이어야 한다.” (Plus 9607, 김영섭)는 그의 말은 실은 그의 건축이 종종 일관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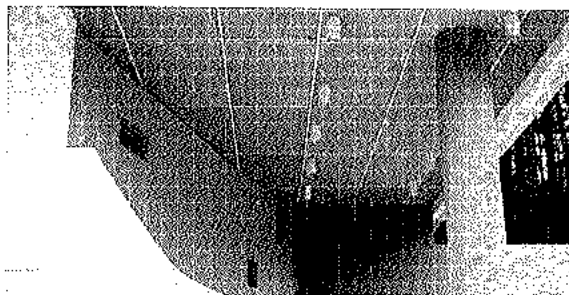
의 지속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용문수련장에 쓰인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어휘는 적절히 조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언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도 많다.

로 포르뷔제는 재료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의 균형을 위한 색채 사용 (내·외부, 빛을 받는 부분과 역광이 들어오는 부분 등의 차별 배려), 빛을 받아 들어오는 문제(빛은 창과 더불어 반사할 수 있는 면에 의해 빛의 질이 좌우된다), 삼차원적 물체의 매스감 등 일련의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언어를 유지함으로써 표현으로 드러난 것과 감추어져 에너지로 남을 수 있는 내적 완결성을 집약함으로써 감동적인 공간을 남겼다.

그가 이야기하는 “천의 얼굴”은 잠시 그가 머물러 지나가는 방패막이었으면 한다. 그는 현실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냉정히 한계를 파악하여 현실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의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김영섭의 건축을 보면서 보다 내적 완결성이 있는 작업으로 진행되리라 믿어진다.

날날이 건축의 해부를 글로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는 한 작가가 시대에 대해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졌으며 모든 정보가 열렸고 쉽게 교환되는 이 즈음에 우리 건축계의, 건축가의 자기 정체성 찾기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문제가 되었다. 케네디 프램프톤은 “비평적 지역주의”를 이야기한다. 이에 이탈리아의 신흥리주의자들 중 일부는 “비평적 국제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응답하였다. 하나의 이름(-ism)이나 스타일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다.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업 대중문화의 확산에 대응하는 화두로 삼으려는 지적 전략인 것이다. Interval이 없는 시대라 한다. 생각할 틈 없이 다음 행동으로 강요받는 시대이다. “잃어버린 interval을 찾아서”, interval이라는 개념의 상실 혹은 멸종속에 우리 모두는 같은 배에 있다.



중심마당의 조형 및 색채의 사용

※ 위의 두 사진(담이 만드는 풍경)과 아래의 두 사진은 서로다른 건축어휘로 사용되어 다른 건물처럼 느끼게 한다

쌍용종합기술훈련원 Ssangyong Technical Training Center

김영덕+주영정 / (주)에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Young-Duk & Joo Young-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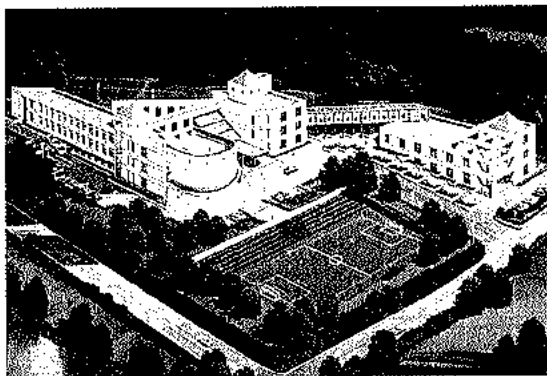
쌍용 양하의 동해 시멘트공장 근처의 대지에 위치하는 연수원으로서 무릉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조성되어 있다. 초기안은 생활동과 실습동의 매스분리를 기본안으로하여 계획되었다. 두 개의 용도별로 분리된 매스는 브리지를 통하여 기능적인 결합을 하며 건물배면에는 경사지를 절토하여 어메니티(amenity)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건물 후면의 대지경계는 초기에 콘크리트옹벽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자연석을 써서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하였다. 이 건물은 비록 현재는 경제적인 이유로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초기에는 직원연수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었다. 즉 지방특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혼식이나 모임의 장소로서 지방행사에 제공되는 시민화관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매스를 분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슬림형매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의 로툰다와 브리지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실습동의 역할은 우선적으로는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지만 지역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사의 인력으로 흡수하는 역할뿐 아

니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염두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 실습동에는 OA실이나 CAD실, 재료실습실 등의 전문교육공간을 확보하였다. 대교육장은 내부적으로는 오픈된 공간으로서 외부적으로는 장방형매스군에 원형매스로 변화를 주었다.

건물은 대지활용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되었으며 에너지절약 및 환기에 유리한 슬림형을 택하였다. 숙소쪽은 채광을 위해 동남형의 편복도형식으로 되어 있다. 편복도는 매스 계획상 1.5m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좁아보여 밝은 색으로 내부를 마감하였다. 생활동에는 숙소와 식당 등과 함께 강의실과 같은 교육시설을 수용하였다.

외부의 전체적인 색조는 주변 임야의 배경에 의해 밝은 핑크색으로 하였으며 버티컬라인은 회색으로 되어 있다. 드라

마비트를 이용한 외단열구조로 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벽은 미관상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지붕은 각지붕으로 액센트를 주었으며 동판각접기를 하여 외벽과 단색조로 어울리는 색감을 주었다. 입구는 캐노피에서 로비에 이르는 아트라운드로 계획되어 외부에 실내로 유입하는 효과를 의도하였으며 조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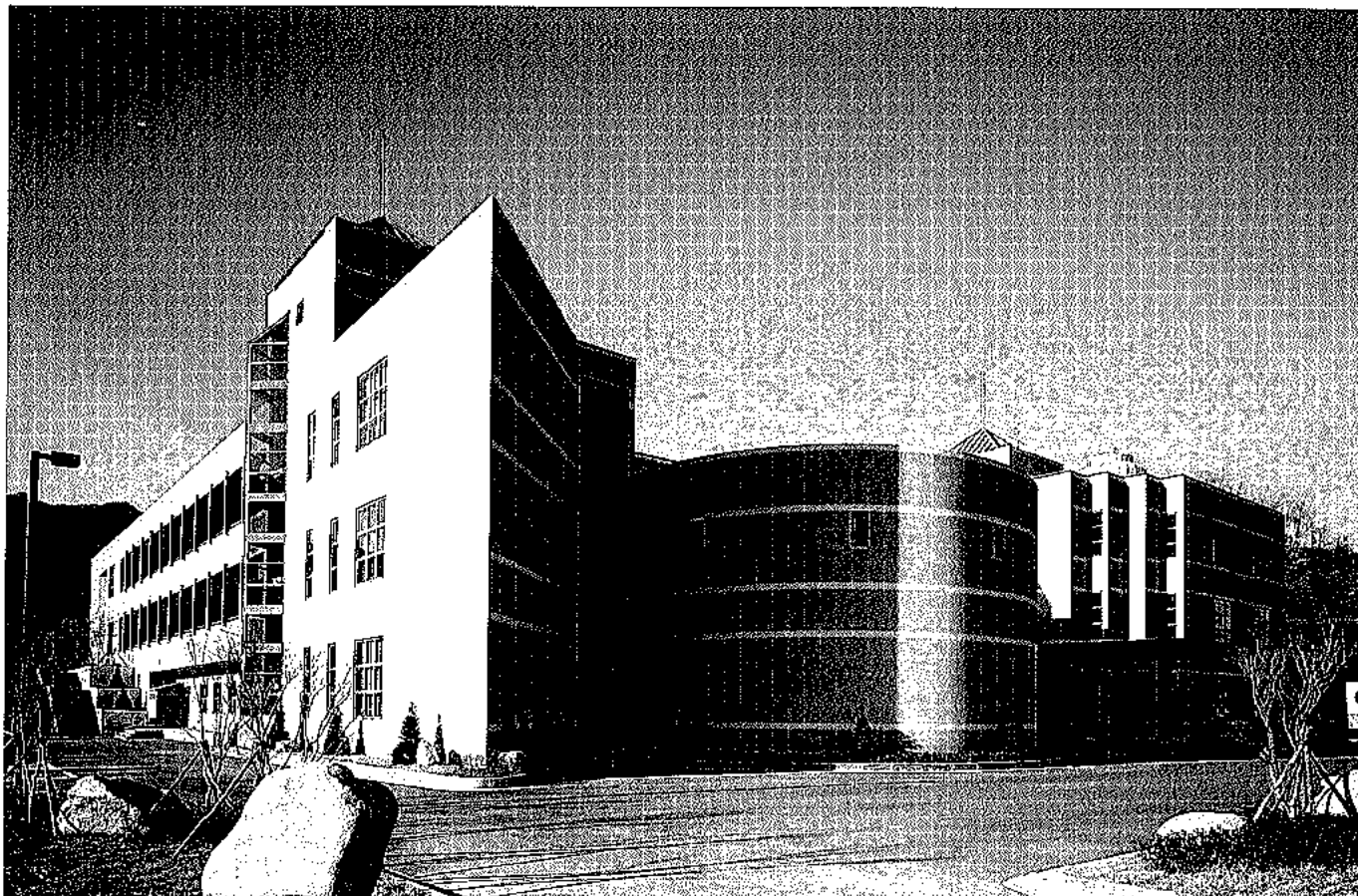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491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전용 공업 지역
대지면적	10,563.05㎡
건축면적	2,302.32㎡
연 면 적	5,424.74㎡
건 폐 율	21.79%
용 적 륜	3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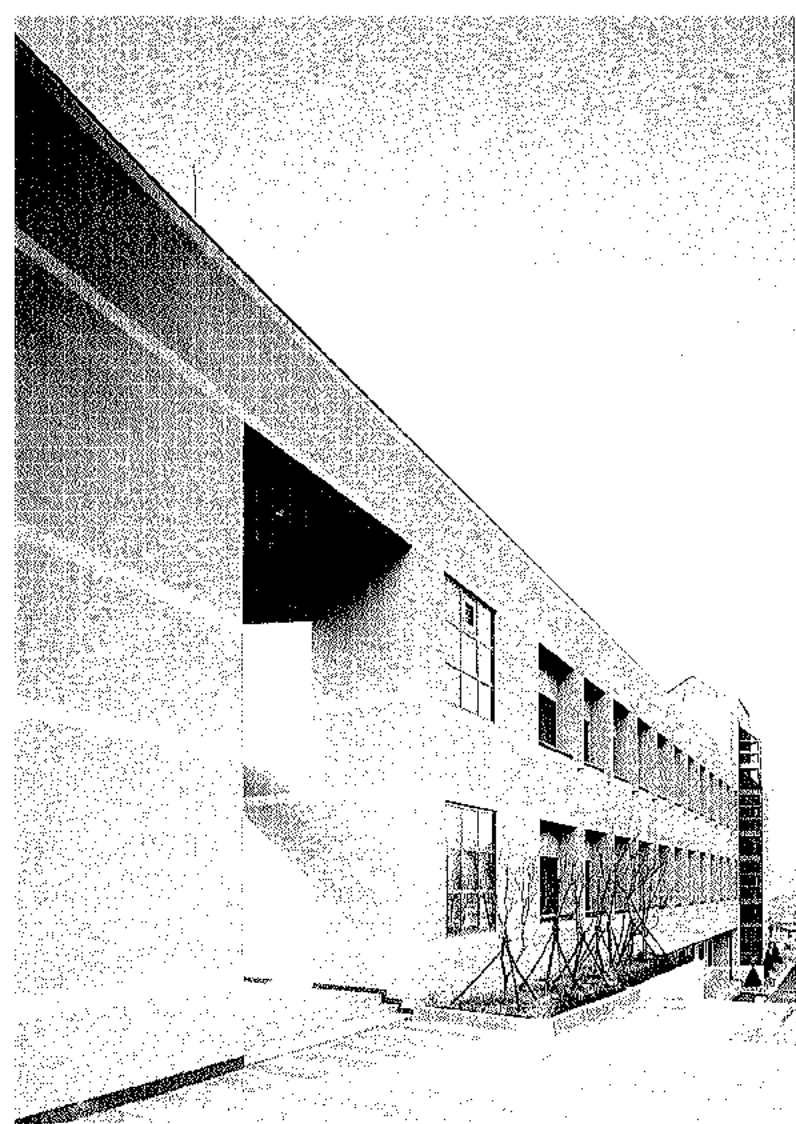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재 료	외장 - 벽/지정색 드라이비트 지붕/㉠ 0.4 동판 각접기 창호/18mm 컬러 북층유리 내부 - 바닥/㉠ 3 지정디럭스타일 벽/마직천, 지정에멀전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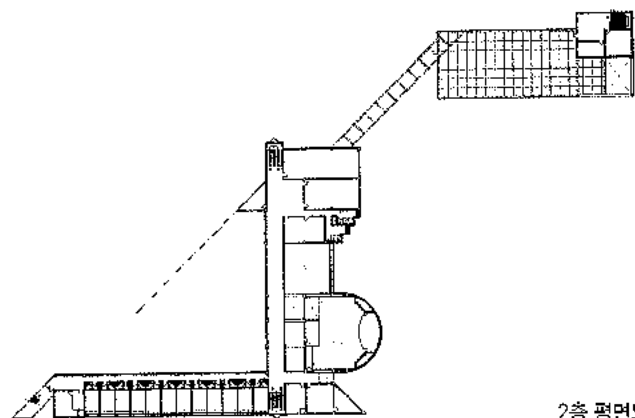
실습동에서 바라본 생활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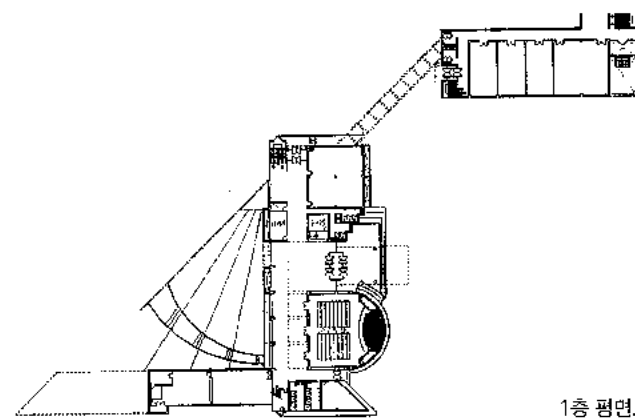
진입로에서 바라본 생활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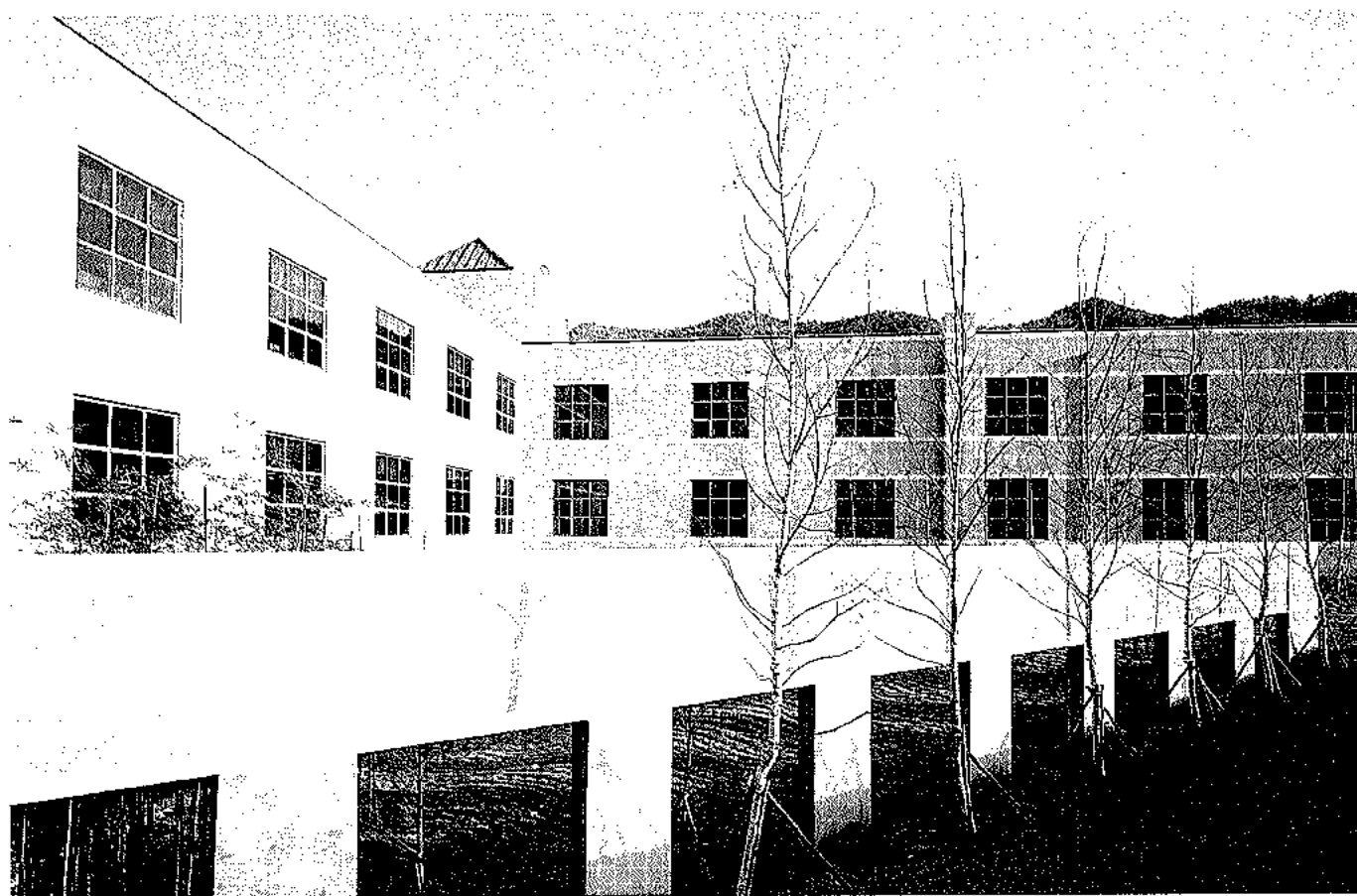
생활동의 VOID된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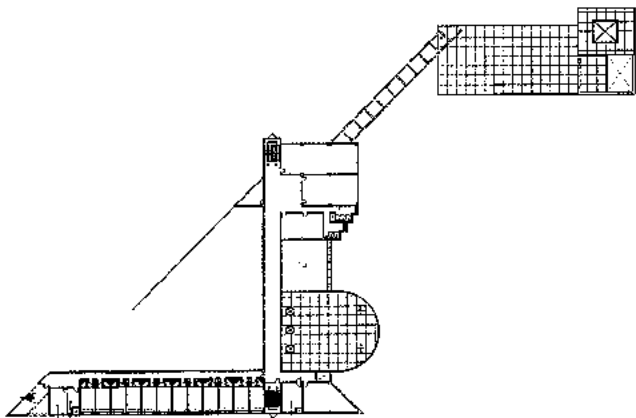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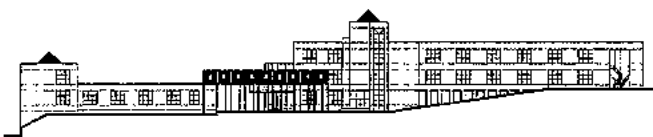
생활동 후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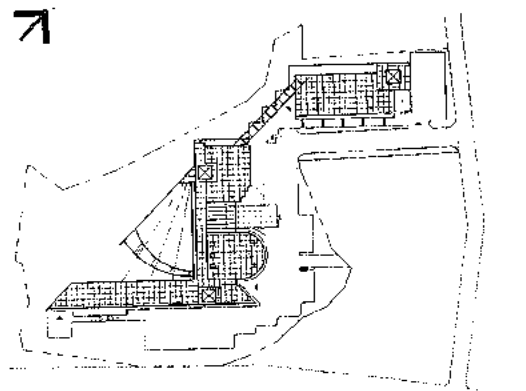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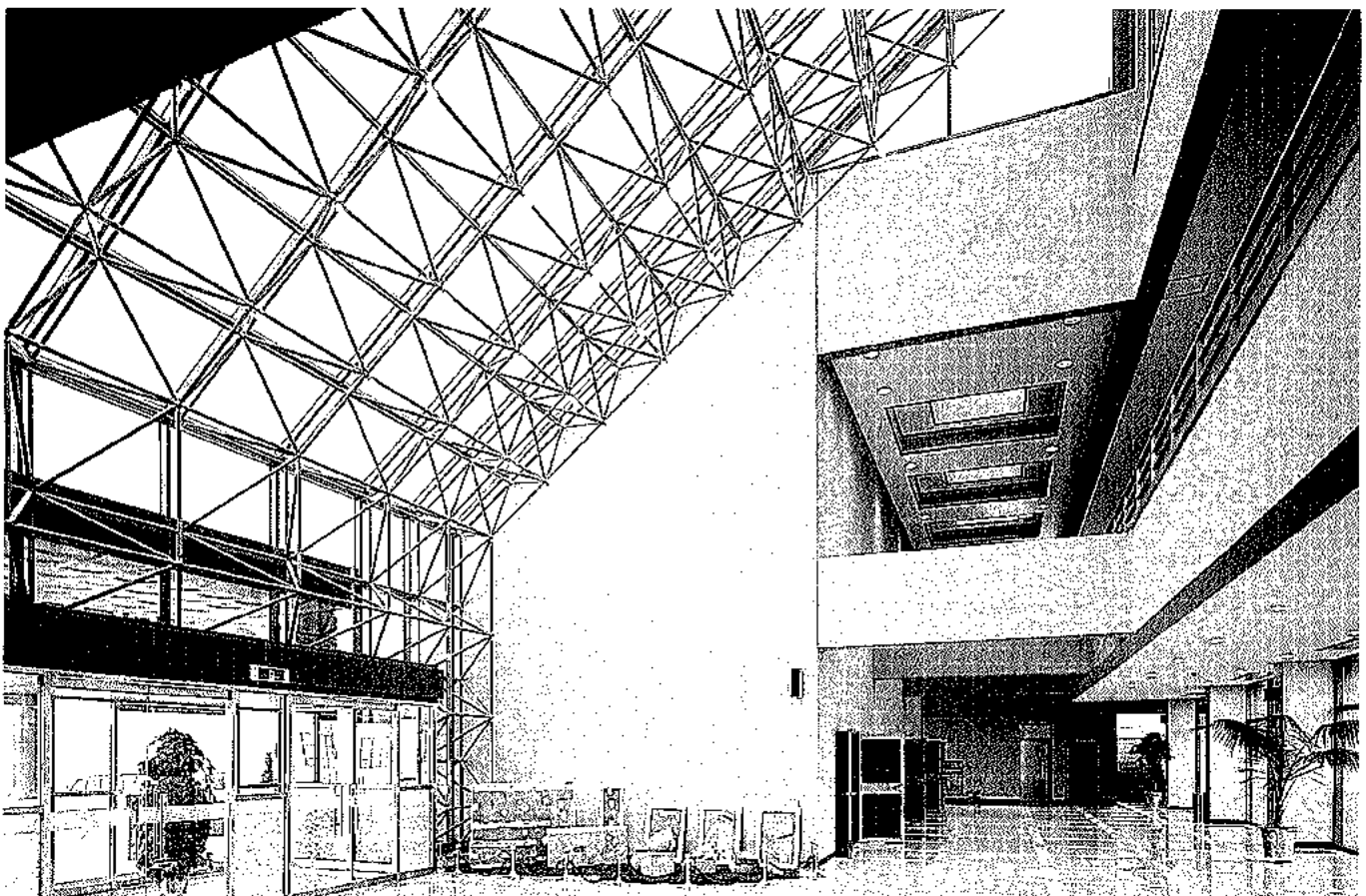
강당 내부



우측면도



배치도



생활동 MAIN HALL 내부

이대 공학관

Engineering College of Ihwa Women's University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공과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가 21세기를 대비한 학교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장기적으로 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증축 원칙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비좁은 학교 내에서 공과대학의 대지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러 후보지 중 현 대지가 장래 증축의 기능성과 접근성이 양호하여 선택되었다. 대지는 풍치지구로서 조례에 의하여 층수와 건물 높이가 제한을 받고 있다. 해발 75m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높은 곳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층수는 5층으로 건물 높이는 20m로 제한이 되는 곳이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한계선이다. 그보다 낮은 곳에 건물을 배치할 수도 있었으나 장래 증축의 가능성을 고려, 하부의 평탄한 대지는 유보지로 남겨놓았다. 또한 건물의 증축은 wing 단위로 경사면을 따라 현재의 건물에 평행으로 증축이 되어나가는 개념으로 배치계획을 했다.

대지가 조망이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계획 초기부터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했다. 대지의 고저차와 위치로 인하여 건물로의 진입은 전면과 후면에서 가능토록 계획했다. 초기의 계획에서는 토공량을 줄이기 위하여 등고선을 따라 선적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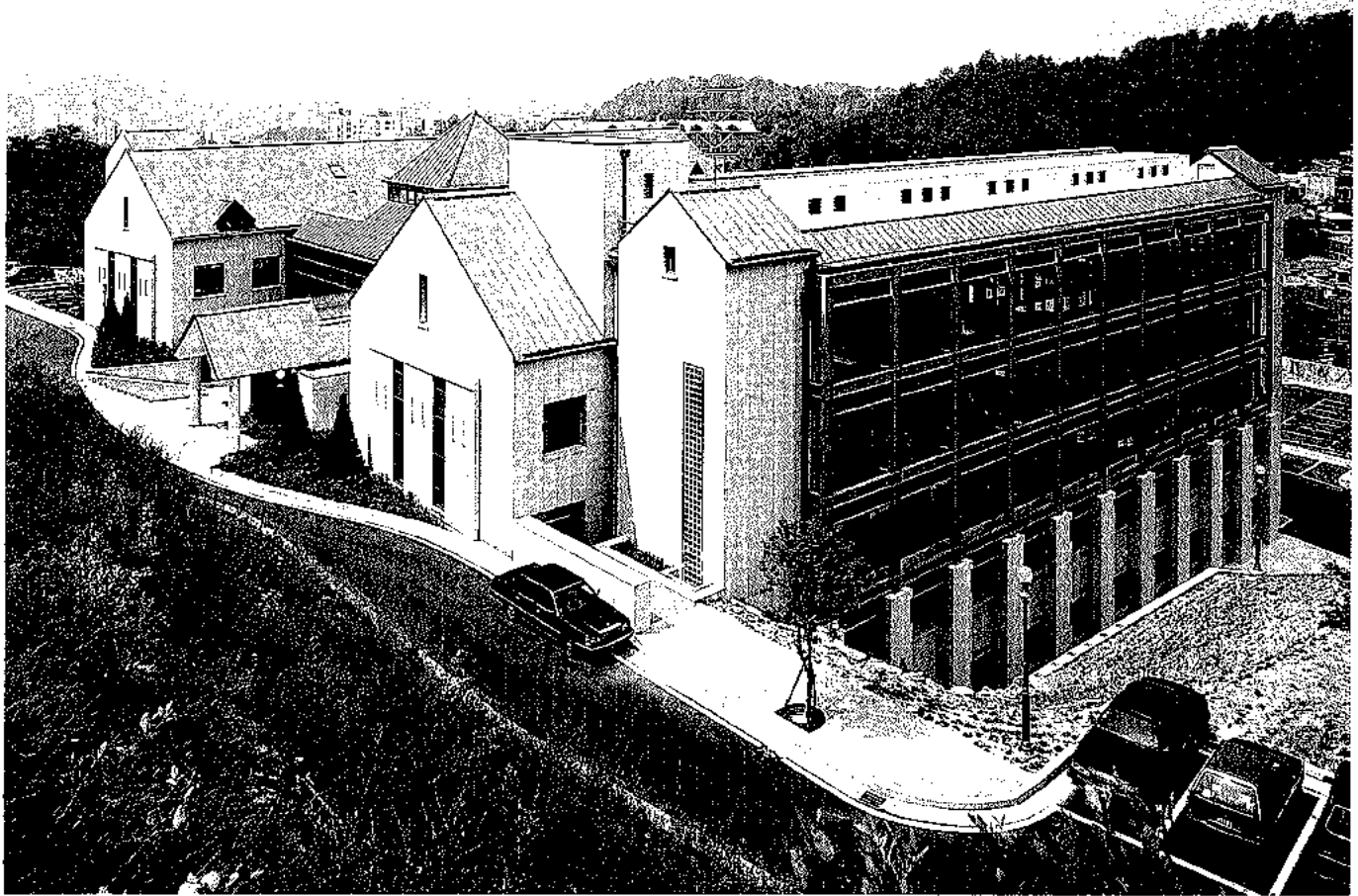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으나 그러한 선적 배치는 일부 실에서는 좋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으나 건물이 동서향 배치가 됨으로써 향적 조건이 불리해지므로 건물을 등고선에 직각방향으로 배치하였다. 건물의 규모상 현 대지내에서 한동의 건물로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을 2동으로 계획하였다. 두건물을 연결복도로 연결시키고 그 연결복도에 후면 출입구를 계획하였다. 특히 후면 출입구는 대지의 고저차 때문에 3층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2동의 건물 사이로 탁트인 조망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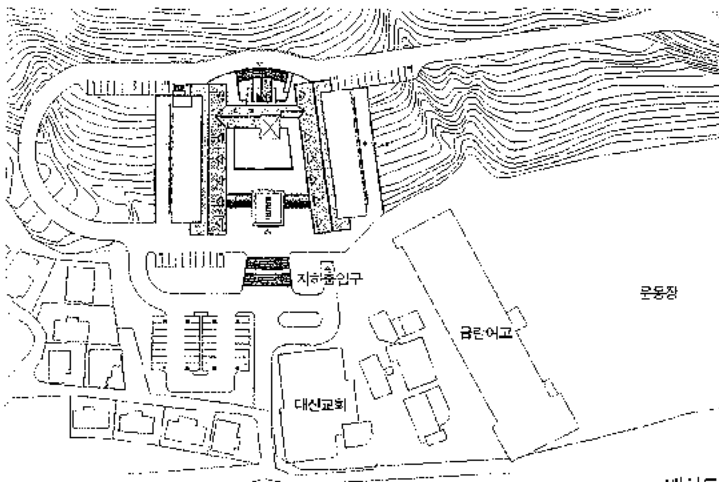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
대지면적	536,78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최고높이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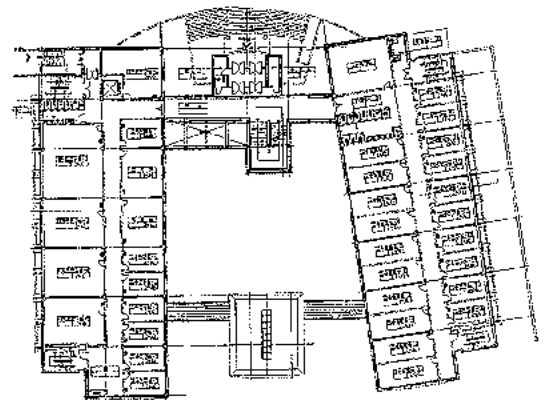
건축면적	2,430.10㎡
연면적	10,478.35㎡
건폐율	7.19%
용적률	36.11%
외장	외벽 - THK 30mm 확장석버너구이 지붕 - THK 0.8mm 동판접기 창호 - THK 24mm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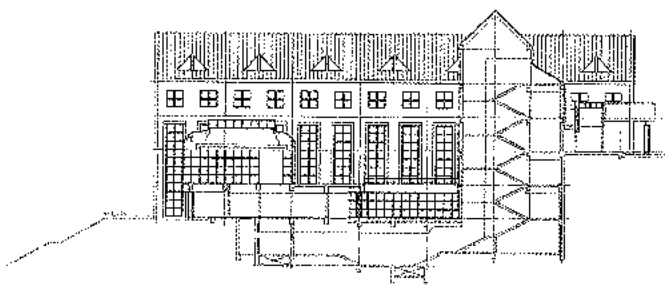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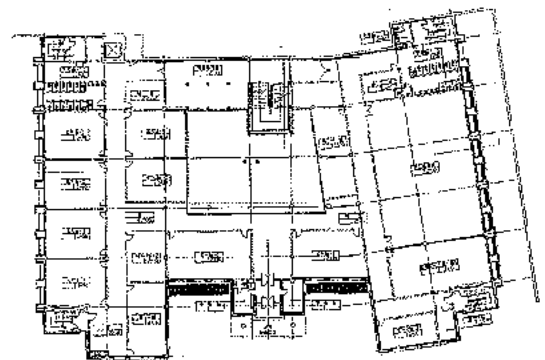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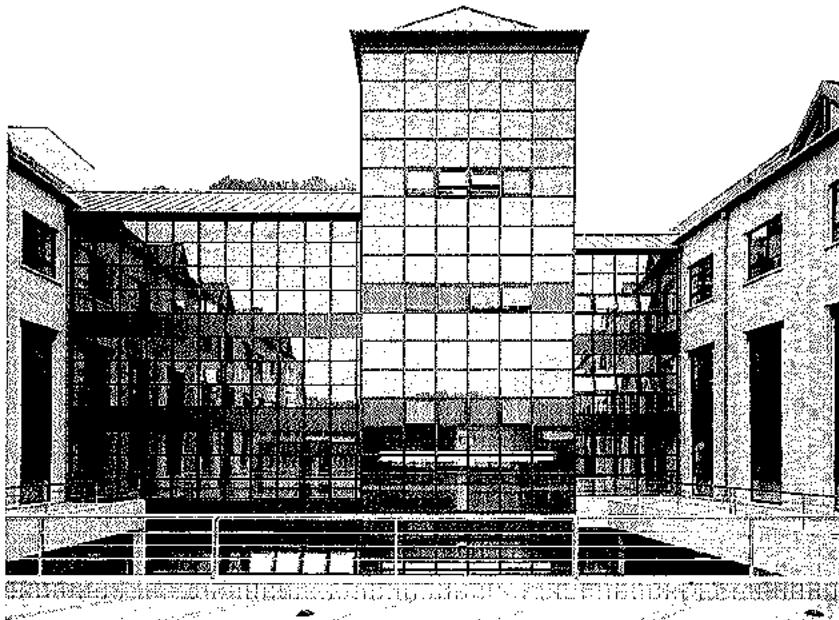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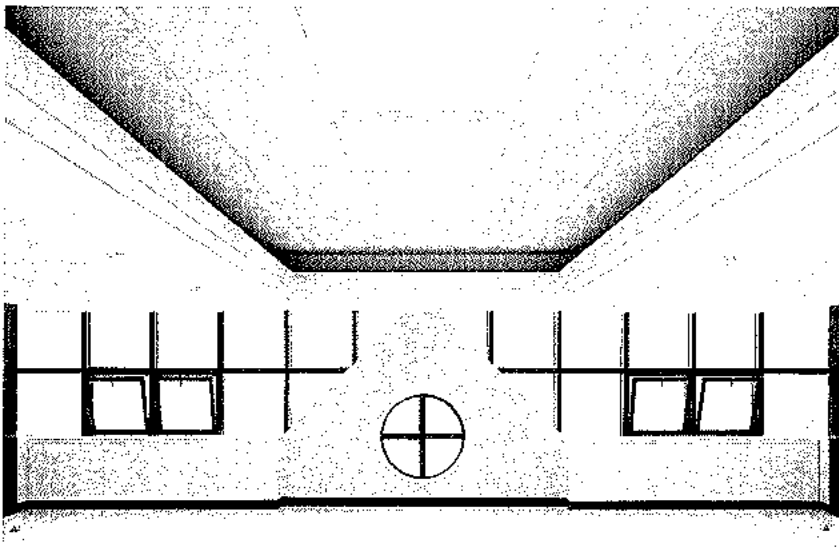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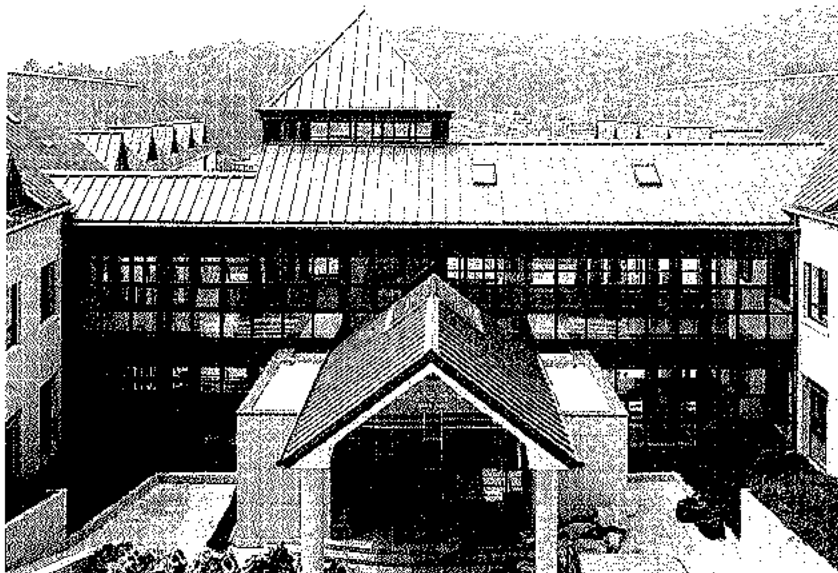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중정에서 바라본 계단탑



다목적실 내부



3층 부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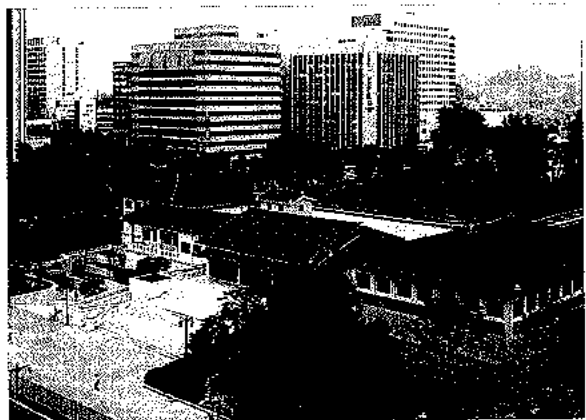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윤석우 / (주)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n Seok-Woo

공간구성

이 박물관 건축은 경복궁내 건립에 따른 전통성의 표현과 신축되는 박물관이 경복궁 복원 의미에 퇴색되지 않도록 서남측의 기존 사회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저층중심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층부분에 반영하여 저층중심의 공간구성은 전시부문의 정적공간의 확보로 주변 문화공간과 괴리감을 갖지 않도록 비례성을 주었다. 저층의 정적을 동적전환의 계기로서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된 전통적 조경방식인 화계와 건물주변에 전통수종의 수목 배치를 통한 과거와 현재를 정적과 동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성격을 갖는데 의미를 두었다.

내·외부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정적 전시공간으로서만이 아닌 확대성을 갖는 박물관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존, 연구, 사회교육, 사무공간 등에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전시관람객의 전시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진출입 동선을 고려한 전시공간과 사회교육,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저층의 사무공간은 남측 선릉을 통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각층별 전시조닝계획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각 전시공간의 원활한 접근과 전시물을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중앙박물관으로서의 이미지 및 위치를 고려, 외부와의 적극적인 공간을 유도하고 지역적인 통일성을 감안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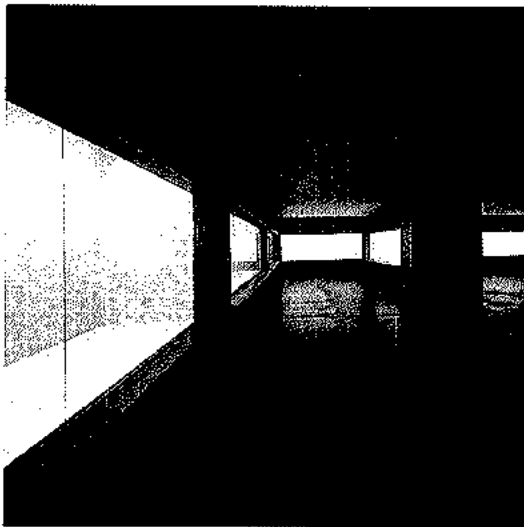
형태구성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는 지리적 역사성을 감안하여 한양 절충식의 표현과 중앙 주출입구를 한국인의 척도를 기준으로 형성하고 양측면의 강조된 곡선기와 지붕을 높여 궁궐건축의 의미를 표현하고, 회랑식에 돌출된 기둥, 전통적 벽면의 표현, 한식 문양창호 등의 디자인 요소로 경복궁과 조화있는 형태를 이루어 주 동선 진입시 확대해석된 형태의 재료를 지양하여 주변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려 박물관건물에서의 현대적 전통이미지를 감득케하는 형태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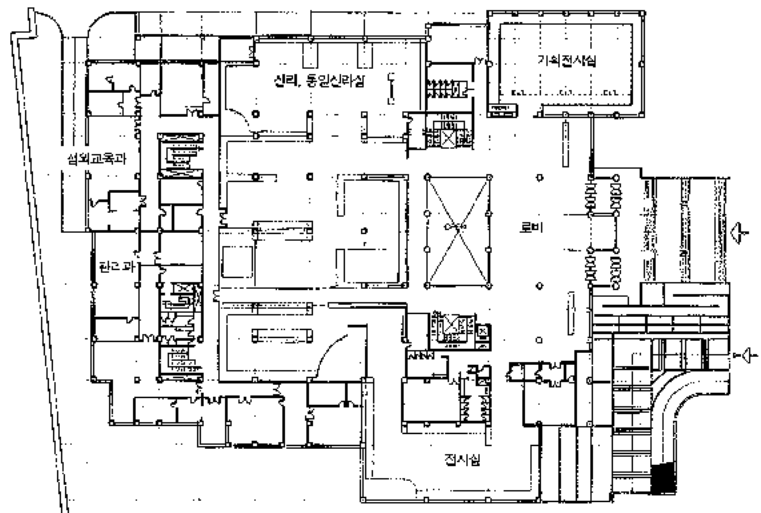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동치지구, 3종미관지구
주요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100,612㎡
건축면적	6,033㎡
연 면 적	18,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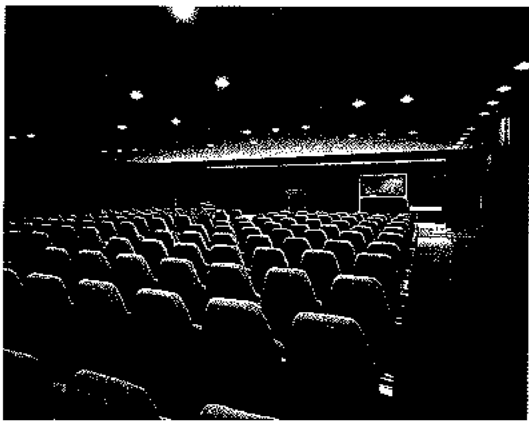
건 폐 율	15.26%
용 적 률	48.7%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 마감	화강석 버너구이(한식문양창살)
시공기간	1994. 7~1996. 7



전시실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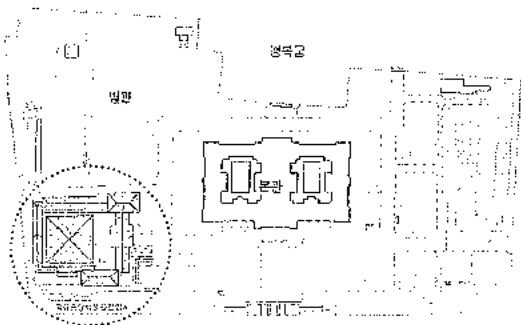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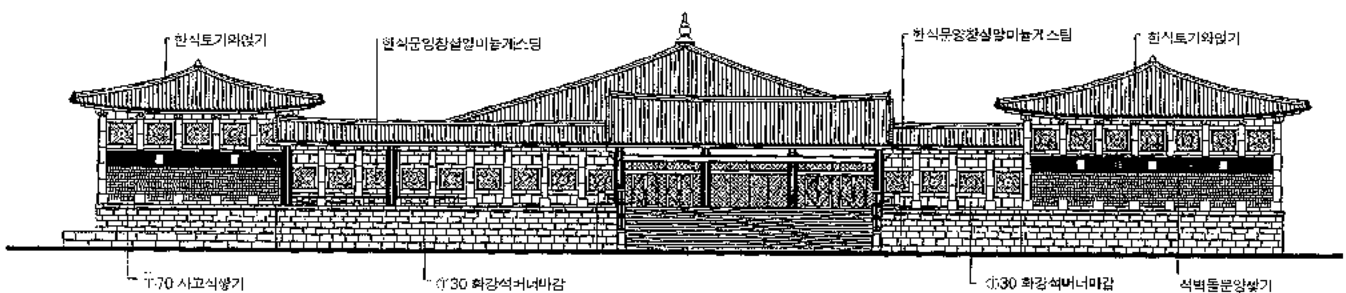
사회교육을 위한 강당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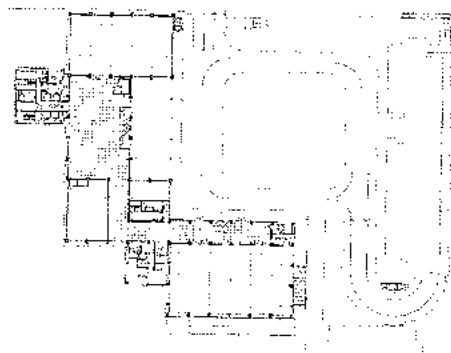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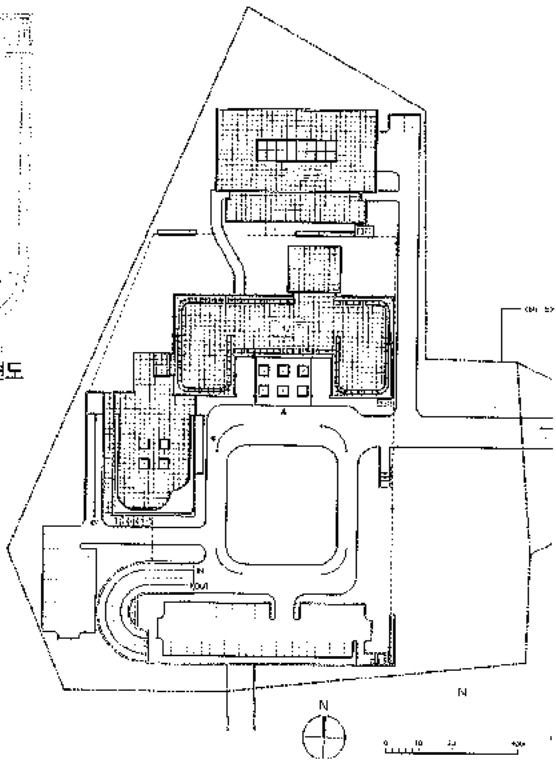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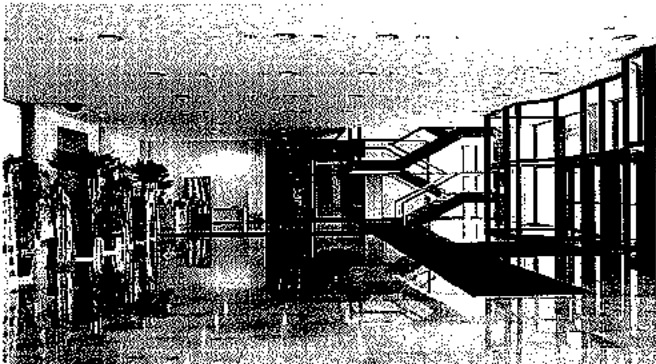
4층 식당



1층 평면도



배치도



1층 로비



남동측전경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Yonsei Univ Economic & Commercial College

강철구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Designed by Kang Cheol-G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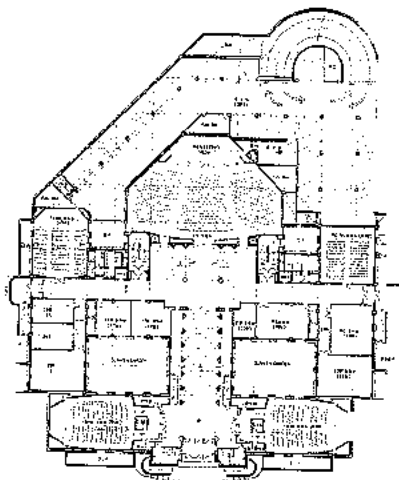
전경

설계의 전제는 대지여건에 부합되고 주변건물과의 기능적 유대를 고려하며 강의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평면, 입면, 단면을 구성, 기존건물의 입면구성방식과 조화를 이루고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마스터플랜 상에서 '백양로'를 중심으로 축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 축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축'인 것은 물론, 캠퍼스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나타낸다. 이 건물의 위치는 이 축상의 정점에 해당하는 곳으로 캠퍼스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방향을 남 동쪽을 정면성을 두어 일조시간의 길이를 고려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전정부분은 언더우드관 앞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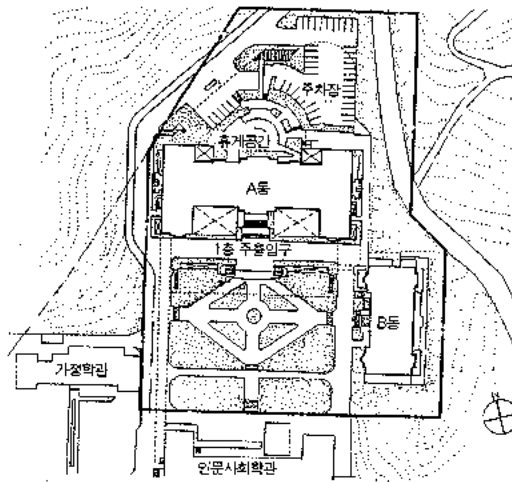
경과 맥락을 같이하여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후정부분은 이 계획의 특징인 학생휴게공간으로서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모임공간으로의 역할에 합당한 계획의 일환으로 설정되었다. 주차장부분은 대지의 고저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보행자 건물진입은 건물 중앙부로 진입과 정면성을 주고 측면으로의 부출입구를 설정하여 출입을 용이하게 동선을 유도하였다. 차량동선은 건물 양측의 기존도로를 확장 개편하여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중복을 최대한으로 피해 계획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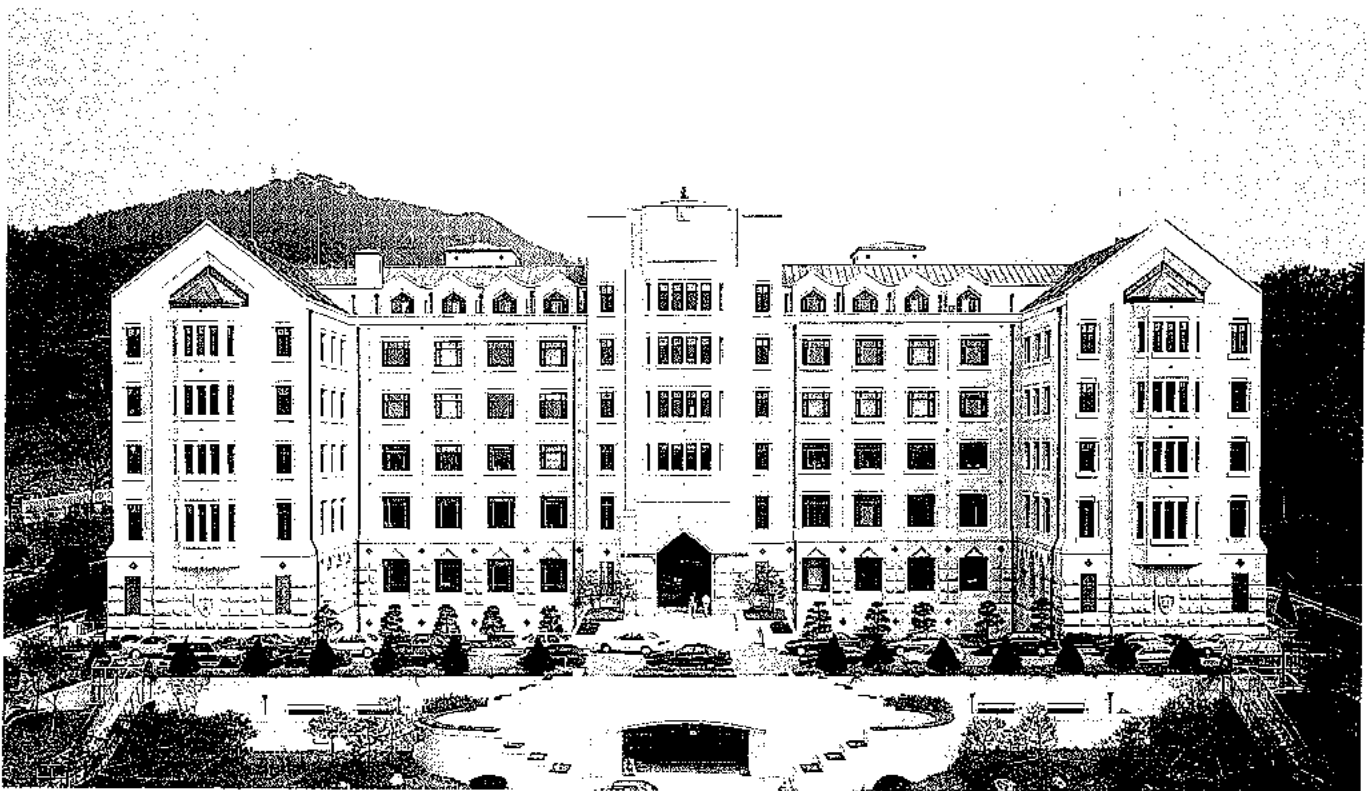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대강당 지붕-철골트러스)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연 면 적	33,403.10㎡ (A동 : 29,050.84㎡, B동 : 4,352.26㎡)
용 도	교육연구시설	주차대수	420대(옥내 376대, 옥외 44대)
규 모	A동-지하 4층, 지상 6층 B동-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외벽재-화강석, 지붕-동판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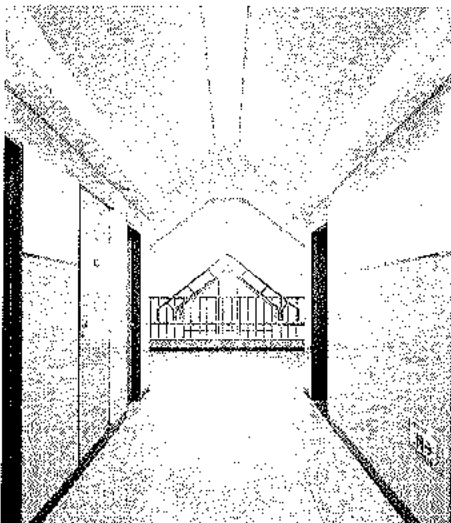
A동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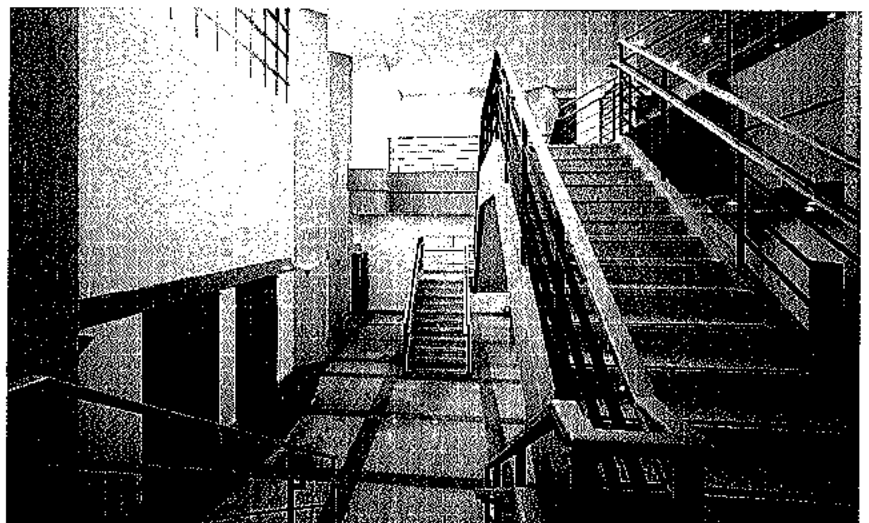
배치도



본관 전경



6층 복도



지하 홀 계단

동아백화점(수성점)

Dong-A Department Store

최병국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
Designed by Choi Byeong-Gook

외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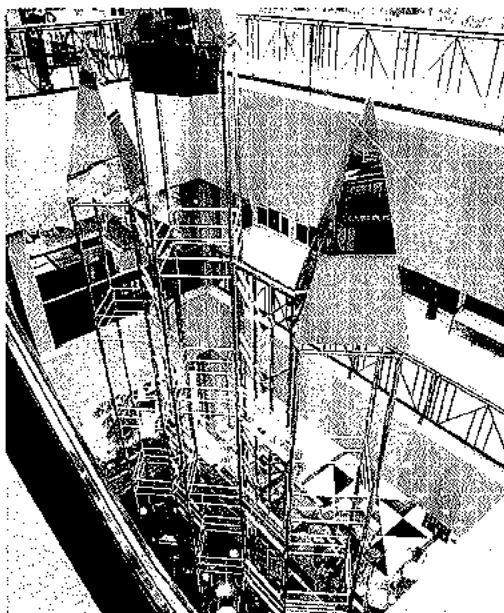
건물외관의 상단부 라운드는 꽃봉우리가 열리는 듯한 모습과 손바닥으로 고객을 받드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항상 고객과 함께 하는 고객지향적인 건축주의 기업이념을 담고있다.

또한 주변 아파트와 통일감을 줄 수 있는 Mass를 구성하였고 건물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좌우대칭이 되게 하였다.

특히 수평과 수직의 단순하고 확실적인 주변미를 살려 전체적으로 통일, 대칭, 변화인美의 3요소를 가장 잘 표현한 지역의 Land-mark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고객 및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역내 건축문화를 한단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건축공법적 특성

공법적 특성으로 본관은 SRC조이며 건물의 외부에는 화성산업이 국내최초로 개발, 특허를 획득하고 ISO 9001을 인증받은 의성 P.C공장이 자체 생산한 칼라콘크리트 P.C판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건물외부의 P.C색상은 우리나라 전통색인 황색을 주조로하여 온화함과 화사함이 배어나오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별관은 화성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HIS공법을 적용한 완전 조립식(ALL P.C)빌딩으로 건물의 골조인 슬라브, 기둥, 보 및 벽체를 P.C 또는 P.S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함으로써 공기단축은 물론 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 등의 발생을 억제해 주변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하였다.

또 고객의 안전성을 최대한 내진시스템, 완벽한 방범, 방재 그리고 구난안전시스템, 장애자와 유모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슬로프입구와 자동문 그리고 3STEP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에너지 절약과 시력 보호를 위한 삼파장 및 SKY BEAM 조명램프 등 고효율 조명 자동제어시스템과 인체에 가장 쾌적한 실내의 체감환경을 조

성해주는 자동온도 및 습도 제어시스템, 청정 음용수를 제공하는 최첨단 정수시스템의 완비에 이르기까지 환경백화점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부설 기술연구소에서 별도로 구조검토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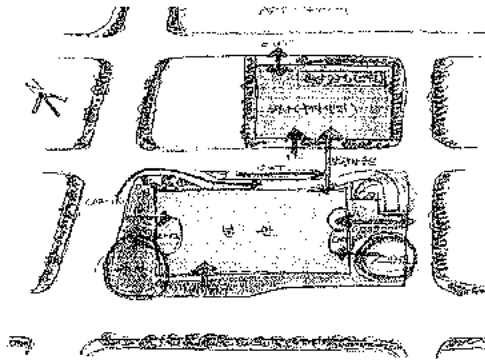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 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273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방화지구
용도	판매시설, 관람접회시설
대지면적	4,657.20m ²
건축면적	2,314.29m ²
연면적	38,761.77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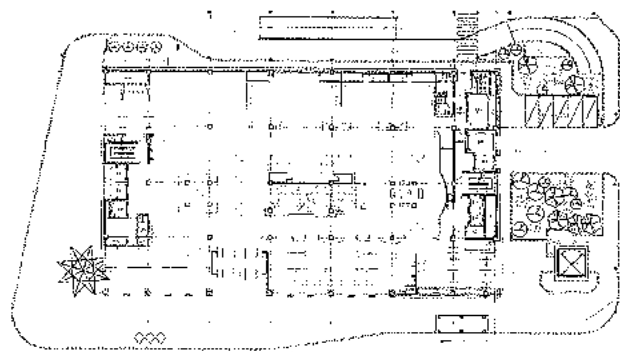
건폐율	49.69%
용적률	417.84%
조경면적	785.60m ²
규모	지하 5층, 지상 9층
구조	철골 철근 콘트리트조
외부 마감	컬러 P.C콘크리트, 화강석, 컬러 목충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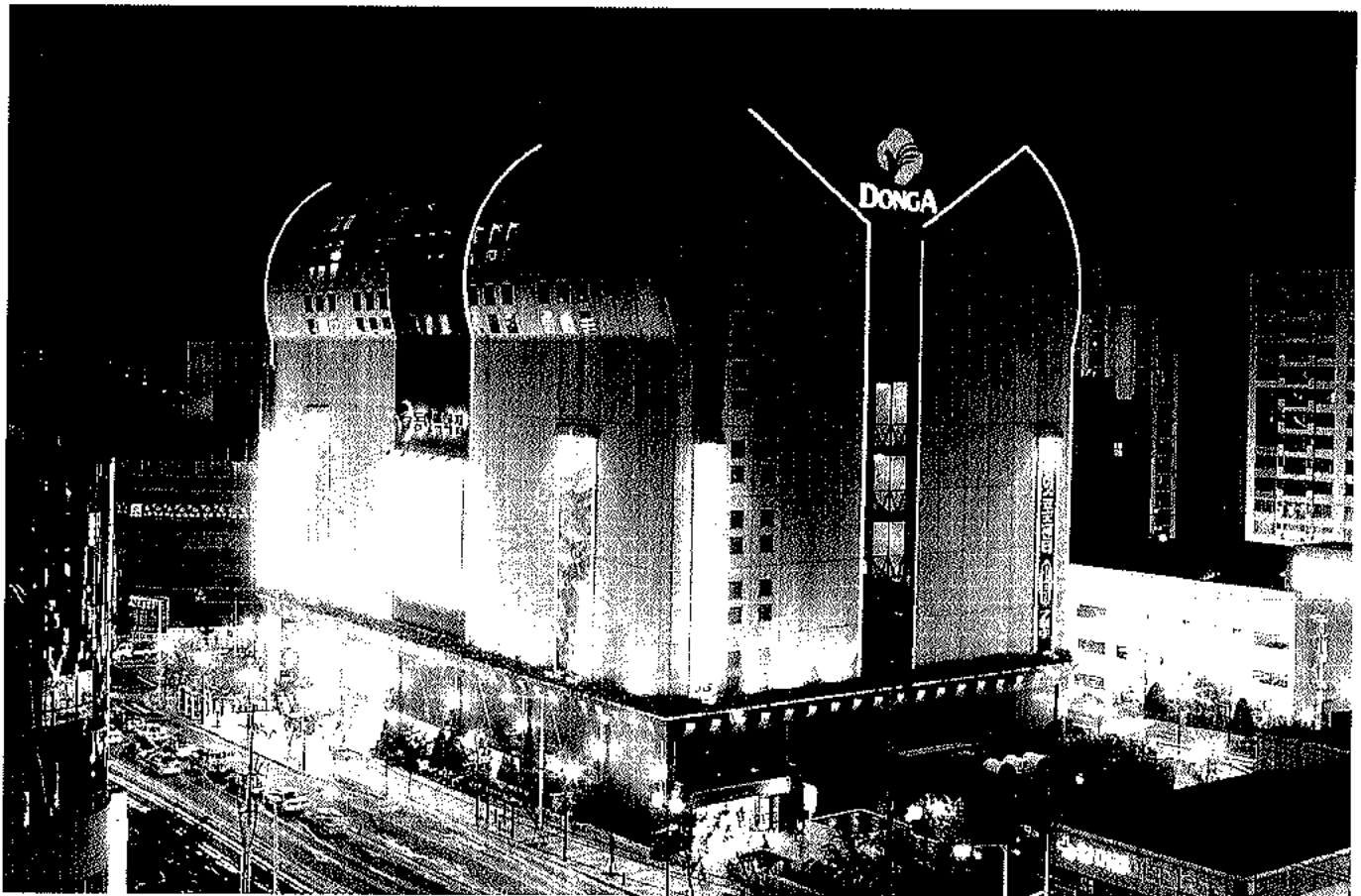
옥상 조경시설



배치 개념도



1층 평면도



광주 230

Kwang Ju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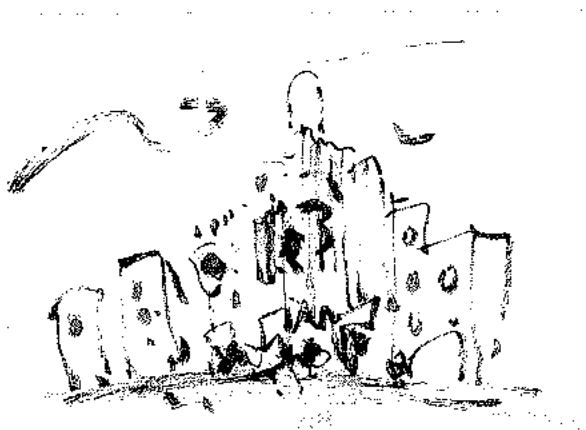
한진수 / 건축사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Su

오래된 하천을 복개하여서 그런지 다소 꿈틀거리고 있는 가로를 따라 3, 4층의 작은 빌딩들이 무표정하게 나열되어져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로 자체가 갖고 있는 폐쇄적인 이미지에서부터 환기, 탈피시켜주는 매개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도시 속의 작은 빌딩에서는 건축법이 형태를 규제하며 그 집합체가 거리의 표정을 결정진다고 볼 때 이 대지는 도로가 2면에 접해있어 다소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일조권을 고려하여 건물을 도로에 밀착 배치시켰으며, 아울러 도로형상에 맞추어 도로 전면 부분에는 곡면을 사용하였으며, 코어를 한곳에 모으고 남는 후면에는 주차공간을 두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한정된 공간과 하늘을 향해 트인 계단의 동선을 상징적으로 보임으로써

공간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표현하고, 자연광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중앙 윙벽의 절개된 부분을 통하여 개방감과 함께 시각적 요소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지하 공간은 대지와의 틈을 만들고 수공간과 계단을 끼워 넣어 동선의 원활과 자연요소를 활용코자 하였으며, 옥상에는 휴게공간을 두어 하늘과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다.

비탕이된 곡면의 콘크리트 벽은 풀라주 기법에 의해 작은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들이 공간을 인식하면서 비스듬히 주름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표정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무채색의 건물이 빛에 의한 음영공간으로 인해 한층 더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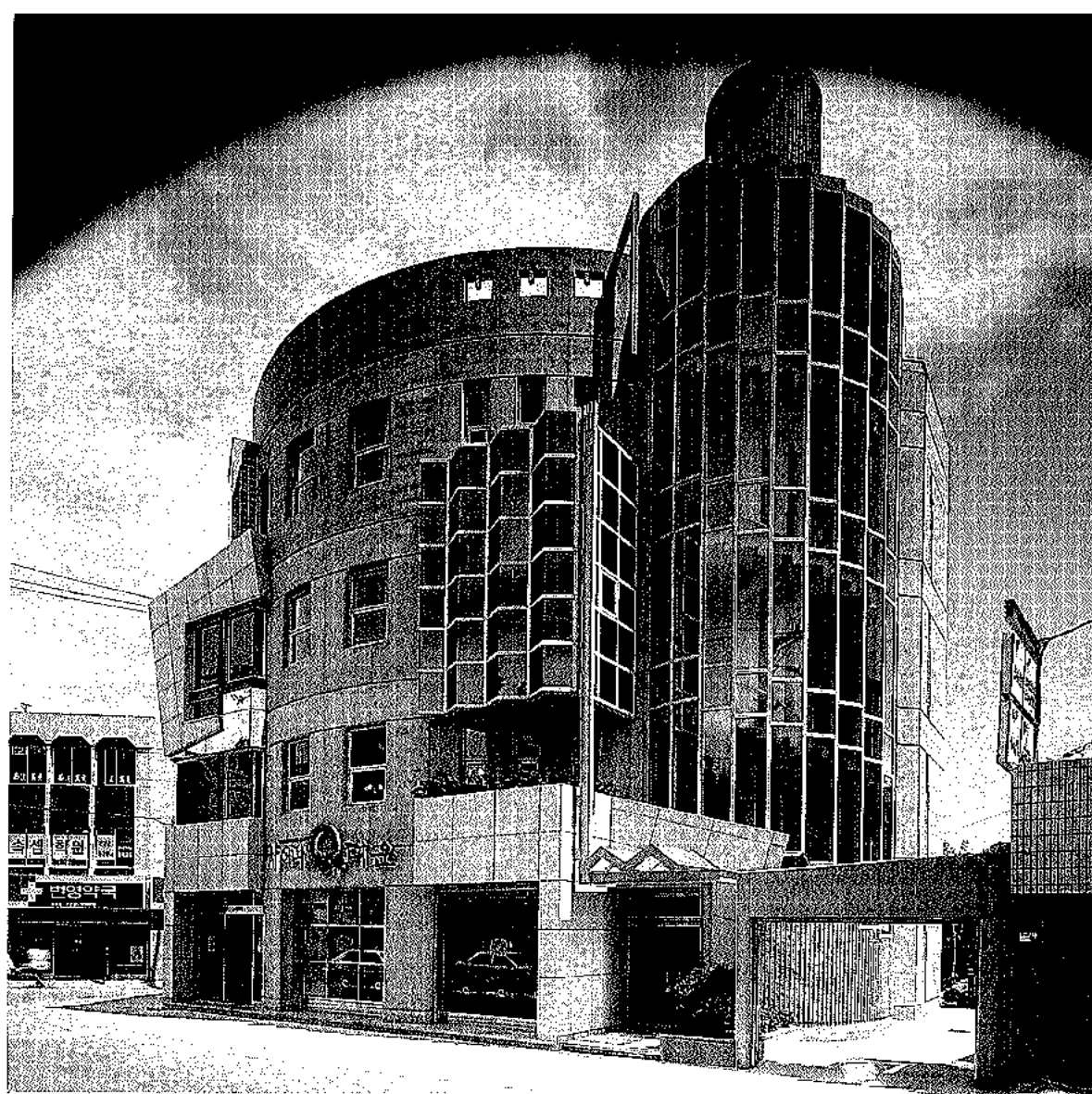


무등산을 배경으로 본 원경

건축개요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동영동
대지면적	334.31㎡
건축면적	155.82㎡
연면적	741.10㎡
건폐율	46.61%
용적률	179.77%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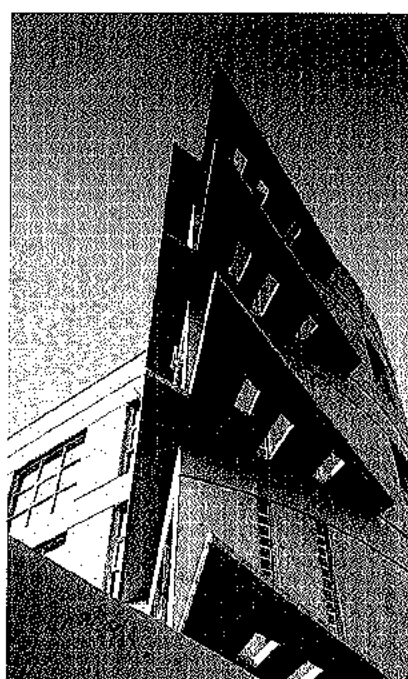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외장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김민수, 신훈유, 안재홍
구조설계	이구조 연구소
기계설계	(주)환경설비 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우림 컨설턴트
시공자	대화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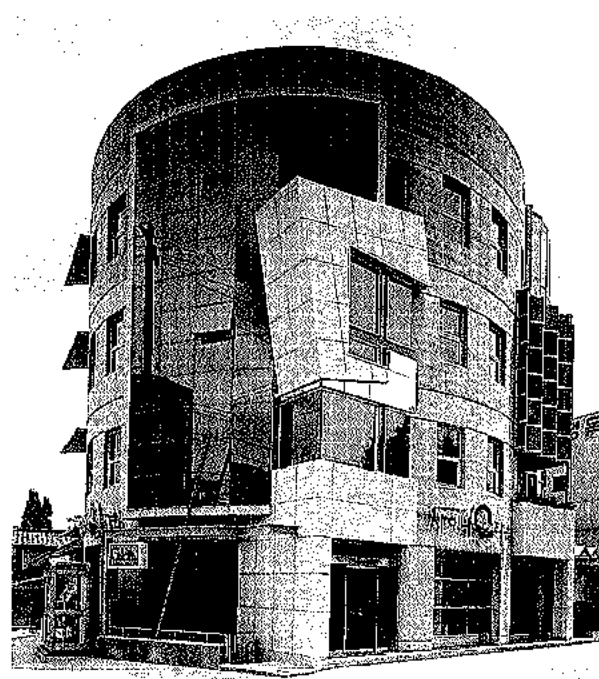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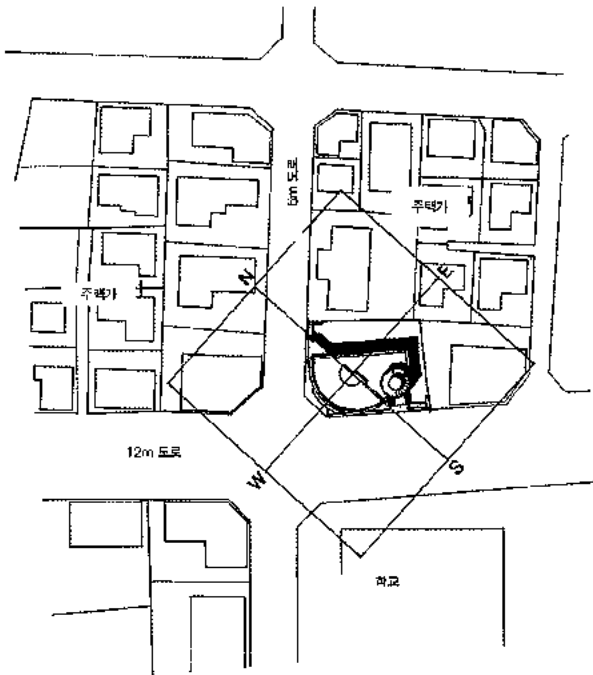
자연광을 적극 수용한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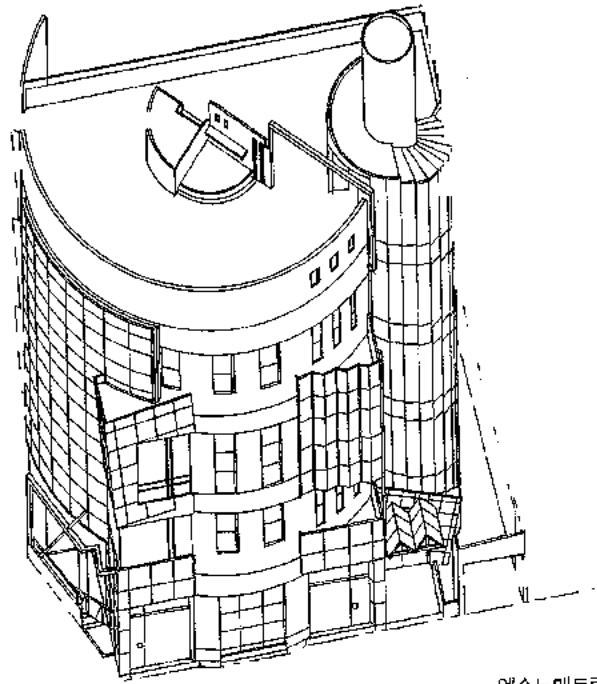
북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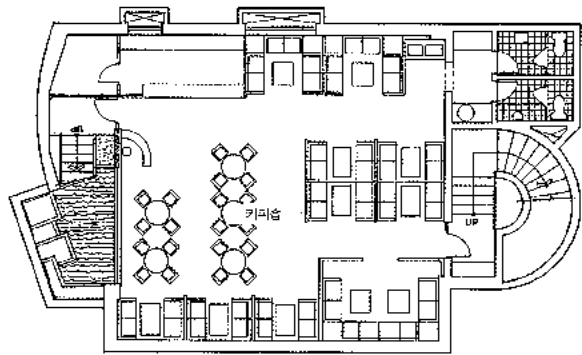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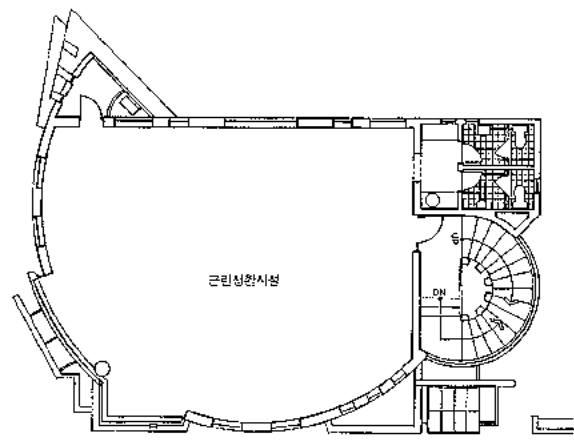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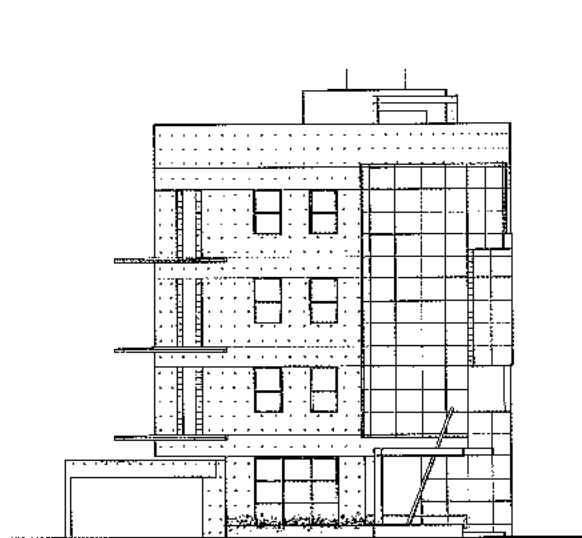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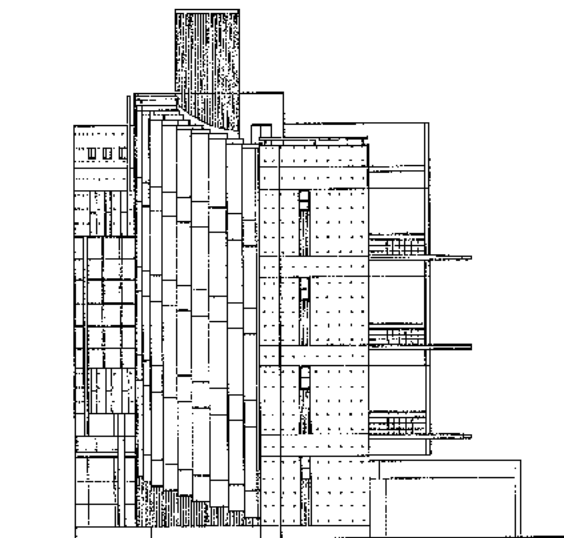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St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과거에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설계사무소와 공동설계 형식으로 행해지던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동설계작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설계사무소가 계획설계(디자인)를 주도하고 국내사무소는 실시설계(실시도면 작성, 법규검토, 허가 등)를 맡아하는 역할분담하에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와는 다르게 여러 형태로 외국건축가가 국내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건축의 현실과 정체성이 무시된 채 여러가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공동설계방식은 한국건축의 대외 종속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본지는 이번 특집을 통해 외국건축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작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건축시장개방에 따른 공동설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다만, 이번 특집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작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정확한 핵심을 짚어내고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적·현재적 당면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한국건축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활발한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외국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호에 다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이어 다음호(97년 3월호)에는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 현황과 진단	이정수
공공건축 설계경기에서 외국업체 공동참여 규정의 문제점	최찬환
건축설계시장의 개방과 대응방안	임창복
국제설계공동작업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환경에 대하여	이범재
바람직한 국내·외 설계협력의 방향	김병현
설계시장개방과 우리의 자세	정기용
외국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작업, 그 실상과 허상	최동규
바람직한 국내·외 공동설계작업의 방향	허승희
판단은 우리가	황두진
국제공동설계 - 혼란과 초점	김진구
공동설계작업의 실례와 바람직한 공동설계	정영균
건축시장 개방과 우리 건축가 찾기	신재순

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 현황과 진단

Make a Change for the better

이정수 /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Lee Jeong-Soo

1. 시작하는 말

1996년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 따라잡기조차 힘들 정도의 많은 건축적 사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계화'의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건축계의 행군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건축계의 '세계화'는 외국설계시장에의 진출이라는 측면과 국내시장이 외국 설계사무소의 경영연장으로 침식되고 있다는 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내시장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는 유행처럼 밀려드는 외국 설계사무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1996년 한해동안 진행된 현상설계의 당선작-대구무역회관 및 종합전시장((주)한국건축+레오나드 파커사), SBS 방송센터(일건 싸엔씨+리차드 로저스), 수도권 신공항 복합교통센터(삼우설계+테리 파렐 & 파트너스+DMJM), 국민은행 본점(희림건축+K.M.D.), 고속철도 부산 통합역사 현상설계((주)건원건축+니콜라스 그림쇼 & 파트너스) 등을 살펴봐도, 실제로 대형 현상설계 당선작들은 외국 설계사무실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설계사무실 입장에서야, 외국설계사무소와 협업을 함으로써 현상설계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은 실익이 있었겠지만, 국내 건축계는 전반적인 이 현상을 두고 어떻게 가치판단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실로 당혹스럽기가 그지없다. 어떻게 보면, 구한말 개항 이래로 우리 건축계에서 외국건축가들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 결과 근대건축에 대한 인식의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서구 문물의 유입과정에서 이입된 양식건축,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한 공공건물, 전후 복구사업기간 동안의 미국 중심의 영향을 간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새로운 양식 선택, 새로운 기능 수용을 위한 새로운 건축유형의 도입, 새로운 재료와 기술사용 등의 문제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도 그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외국건축가들의 국내건축계에서의 활동, 즉 1960년대, 1970년대가 정치적 영향으로 외국건축가의 활동이 국내 건축계에 강요되어지던 시절이 있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분명 자본가의 논리에 의해 더 나은 역량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외국 건축가의 이입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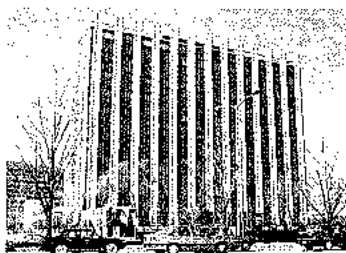
본 원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도 세계화 정책이후 외국건축가의 역할과 그것이 국내 건축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디자인의 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의 흐름'에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외국 건축가 또는 설계사무소가 한국을 무대로 벌인 건축활동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1990년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외국 설계사무소와 국내 설계사무소의 공동작업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1970년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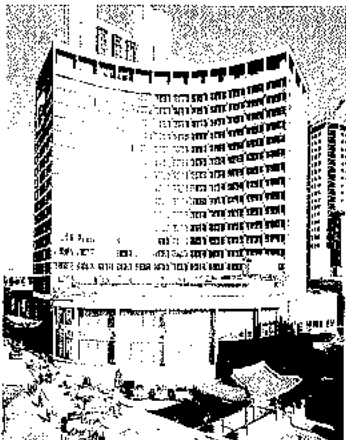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고난 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었던 국내 건축계의 부흥계획은 반도호텔의 실내 개조공사(Norman R. De Hann, 1953), 국립의료원(G.Birth Lindgren, 1956-58), 경제기획원 USOM 사무소(빈넬사, 1959) 등에서 외국 건축가의 활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50년대의 외국인 건축가의 국내 참여는 외국에 의한 원조자원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었다. 구체적인 직접적인 외국건축가의 국내 진출은 정부종합청사 설계(P.A. & E, 1967)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부종합청사 신축과정에서 외국 설계업체의 참여는, 기술적인 문제 제기의 빌미를 들

〈표 1〉 1970년대의 프로젝트

구분	1956	1960	1967	1970	1974	1975	1976	1977
업무 시설		●1960 경제기획원 USOM Office(빈넬사)	●1967 정부종합청사 (P.A. & E)					
호텔				●1970 조선호텔 (W.B.Tabler)	●1974~76 플라자호텔 (다이세이건설+정림건축)		●1976~78 하이얏트호텔 (후지다건축+정림건축)	
						●1975~79 신리호텔 (다이세이건설+정림건축)		
기타		●1956~58 국립중앙의료원 (G.B.Lindgren)		●1970 서울대학교 마스터플랜 (D.U.P.A)				



정부종합청사(P.A. & E)



조선호텔(W.B. Tabler)

어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1950~60년대 외국 건축가의 국내 참여는 외국의 원조에 의하거나, 정부에 의해 직접 외국 설계업체에게 설계가 발주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은 재벌 기업을 등장시키고, 한국경제시장은 외국 기술의 도입과 자본 투자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상업 및 업무용 건물들이 본격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한다. 특히 1970년대는 호텔건축의 시대였다. 조선호텔(W.B.Tabler, 1970), 플라자 호텔(다이세이건설+정림건축, 1974~76), 신라호텔(다이세이건설+박춘명, 1975~79), 하이얏 호텔(후지다건설+송만구, 1976~78), Lotte 호텔(호다건축+엄이건축, 1979) 등이 건축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정책적으로 재일동포의 고국 투자 유치 및 일본인의 투자가 허용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건축주로 하는 호텔건축이 성행하게 되며, 주설계자 역시 다이세이(大成)건설, 후지다(藤田)건설, 호다(戸田)건축 등 일본건축업체가 선정되게 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설계의 난이도 등에서 호텔건축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없었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 건축가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나, 일본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호텔의 설립목적과도 부합하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외국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던 1960년대의 협력체계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국내 건축가와외의 협력·실제적인 협력의 정도를 떠나에 의한 설계작업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1960년대의 설계작업과는 구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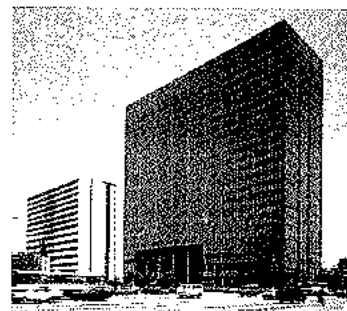
3. 1980년대

1980년대를 접어들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국 설계업체와의 협력이 전개된다. 1980년대는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도심재개발을 통하여 많은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건축이 독려되는 시기였다.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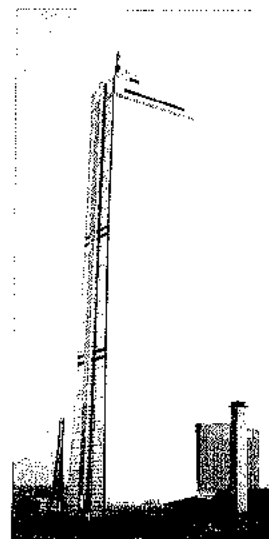
후반, 대한교육보험(Ceasar Pelli+엄이건축, 1978~83), 신동아 63빌딩(S.O.M+예건축, 1979~86)으로 부터 시작되었던 업무용 건물에 대한 건축 붐은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본격화된다. 삼성생명 및 중앙일보 사옥(Welton Becket+삼우건축, 1981~85), 국제그룹사옥(CRS+동해건축, 1983~85), 럭키금성 트윈타워(S.O.M+창조건축), 한국무역센터 무역회관 및 전시관(나켄세케이+원도시, 정림, 1984~88), POSCO21 서울(나켄세케이+간삼, 1988) 등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업무용 건물들이 외국 설계 사무소와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건축되었다.

1970년대부터 계속되었던 호텔건축은, 1980년대를 들어 새로운 국가적 이벤트인 올림픽에 대한 준비로 수요 급증을 맞이하게 된다. 경주 코오롱 호텔(大成건설+정림건축, 1985), 무역센터 인터콘티넨탈 호텔(KRA+범건축, 1985), 하얏트 제주 리젠시(WAT&G+건원국제, 1988), 스위스 그랜드 호텔(W.BLT+서울건축) 등이 올림픽 준비기간 동안 건축되었다. 하지만, 이는 1970년대의 경우와 자본의 성격이나 건립의 동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일본도의 외국 설계업체 참여로부터 탈피하여 미국설계사무소의 국내 진출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 특이할 만한 점은 대형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유통 시설의 신축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Lotte 쇼핑센터(호다건축+엄이, 1980), 신세계 영동포점(Welton Becket+삼우설계, 1982), 현대백화점(KRA+범건축, 1985), 미도파 상점점(東急 Agency+간삼, 1988~89) 등의 건축으로 대형 유통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며, 테마 파크인 Lotte World(기쇼 구로카와, Battaglia Associates, Inc+예건축, 1985~89)가 복합화 건축으로서 기획 건축되어진다. 이는 한국무역센터(1984~88)를 뒤이어, 기존의 도시맥락내 삽입되는 '필자별 건축



대한교육보험(Ceasar Pelli+엄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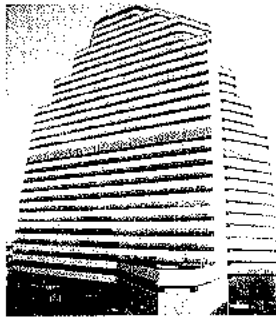
신동아 63빌딩
(S.O.M+예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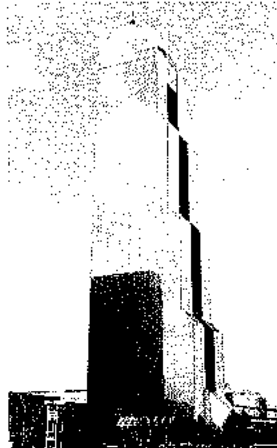
삼성생명사옥(Welton Becket+삼우설계)

개념'에서 벗어나, 블록 또는 수퍼블록의 개념에 의하여 24시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속의 또하나의 도시(city within the city)' 건설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1980년대 후반 건축계에서는, 새로운 기업 '연구소' 분야에 대한 건축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지만, 연구소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관계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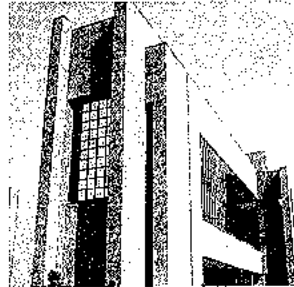
국 건축가의 협력을 통한 설계작업들이 진척을 보이기 시작한다. 금성사 중앙연구소(日本設計+간삼, 1984~85), 선경그룹 대덕연구소(CRSS, Earlwalls+정림건축), 삼양사연구소(Perkins & Will+정림건축, 1990)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국제그룹사옥(CRS+동해건축)



한국무역센터(나켄세계이+원도시, 정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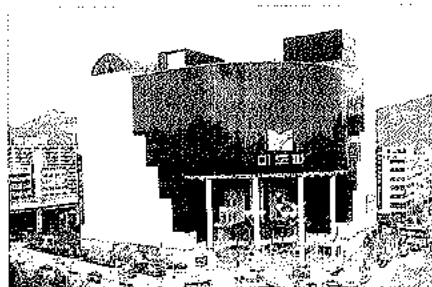
금성사중앙연구소(日本設計+간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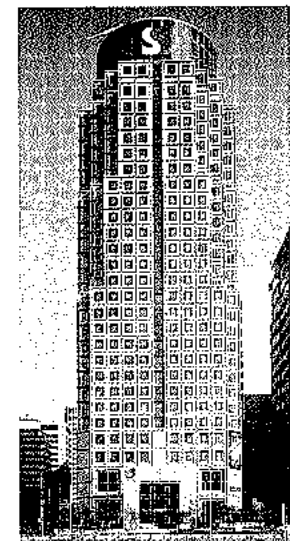
현대무역센터 현대백화점(KRA+범건축)



스위스그랜드호텔(W.BLT+서울건축)



미도파상점(東急 Agency+간삼)



쌍용투자증권사옥(Ellerbe Becket+원도시)

〈표2〉 1980년대의 프로젝트

구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업무 시설							●1984~88 한국무역센터 무역회관+전사관 (나켄세계이+원도시, 정림)						
		●1978~83 대한교육보험 (Ceasar Pelli+임이건축)		●1981~85 삼성생명사옥 (Welton Becket+삼우설계)						●1987 쌍용투자증권 사옥 (Ellerbe Becket+원도시)			
		●1979~86 신동아 63빌딩 (S.O.M.+예건축)				●1983~87 국제그룹사옥 (C.R.S.+동해건축)					●1988 POSCO 21 서울 (나켄세계이+간삼)		
						●1983~87 럭키금성타워 (S.O.M.+창조건축)				●1987 서울증권 사옥 (CRS+부림건축)			
				●1981~85 중앙일보 사옥 (Welton Becket+삼우설계)									
호텔		●1979 Lotte 호텔 (호디건축+임이건축)						●1985 한국무역센터 호텔인터콘티넨탈 (KRA+ 범건축)		●1988 하얏트 리젠트 제주 (W.A.T&G+건원국제)			
										●1988 제주신라호텔 (W.A.T&G+삼우설계)			
										●1988 스위스 그랜드 호텔 (W.BLT+서울건축)			
백화점			●1980 Lotte 쇼핑센터 (호디건축+임이건축)		●1982 신세계 영등포점 (Welton Becket+삼우설계)			●1985 한국무역센터 현대백화점 (KRA+ 범건축)		●1988~89 미도파 상점점 (東急 Agency+간삼)			
								●1985~89 Lotte World (기소 쿠로가와, Battaglia+예건축)					
연구소							●1984~85 금성사 중앙연구소 (日本設計+간삼)		●1986 선경 대덕연구소 (CRS, Earlwalls+정림)				
							●1985~86 포항공대 Master Plan (Rice & Williso, Inc+간삼)		●1990 삼양사 연구소 (Perkins & Will+정림)				

4. 1990년대

1990년대는 혼돈의 시대이다. 동아시아가 치열한 자본 각축의 시장이 되고, 그 대표적 시장으로서 한국이 부상되게 된 것은 매우 놀랄만한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특히 자본의 축적과 정치적 변혁기를 거친 후 적절한 정도의 자유경쟁 체제는, 국내 건축시장을 UR이니 WTO니 하는 선진국을 위한 게임의 룰에 끌려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3S를 이용한 우민화 정책과 泥田翻狗의 이익다툼을 감추기라도 하듯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산발적으로 기획, 발주되기 시작한다. 정부 주도의 사업인 정부종합재3청사 현상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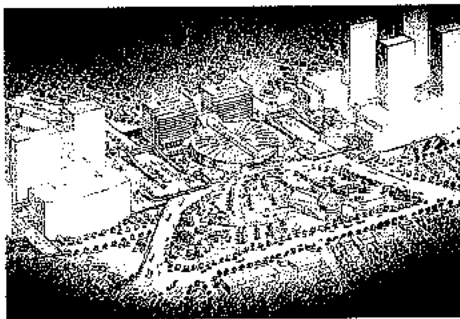


동부그룹중앙연구소(Perkins & Will + 한동훈)

(1991), 수도권 신공항 여객터미널 현상(1992), 국립중앙박물관 현상(1995), 고속철도 역사 현상(1996), 신공항 복합교통센터 현상(1996) 등을 통하여 외국 건축가의 국내 진입의 전성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특별한 기술적인 노

(표3) 1990년대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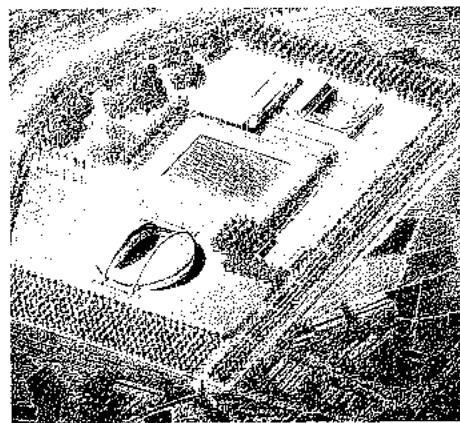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업무 시설	1991 부산시청사 현상 -Anderson & OH, Hano Weber+일신건축 1991 대구 대우센터 (R.T.KL+범건축) 1991 정부재3청사 현상 -Anderson & OH+종합	1992 동양시멘트 사옥 지명현상 -니켈세케이+원도시 -Perkins & Will+삼우설계 -T.S.Kim+창조건축(당선)	1993 벽산복합빌딩 (Perkins & will+서울건축)	1994 동부산업 사옥 (KPF+범건축) 1994 상업은행 본점 (니켈세케이+선진) - KBS 수월방송센터 (日本設計+간삼)	1995 대구무역회관 및 전시장 -Leonard Parker+한국건축(당선) 1995 한라그룹 분당사옥 (S.O.M+정림) 1995 대원빌딩 본부사옥 (AJLA+화산건축) 1995 여의도센타빌딩 현상 -Hano Werber & 1995 한국통신목동사무현상 (Ellerbe Becket+정림) 1995 종로 혁신빌딩 (Rafael Vinoly+삼우설계) 1995 서초동 패션센터 (K.P.F+삼우설계)	1996 국민은행 본점 현상 -Kaplan, McLaughlin Diaz+희림건축(당선) -디켄세케이+간삼 Ellerbe Becket+원도시 1996 동양 마포프로젝트 (R.T.KL+범건축) 1996 동부화재사옥중 개축 (K.P.F+범건축) 1996 SBS방송센터 현상 -Richard Rogers+일신(당선) -K.P.F+창조건축 -Ellerbe Becket+정림건축
병원/ 호텔		1992~4 안화대 부속병원 (S.O.M+산한건축)		1994~5 연세대 새병원 (Ellerbe Becket+정림)	1995 건국대 민중병원 국제현상 -HOK+부림(당선) -Ellerbe Becket+이공 1995 신계주관관호텔 (RTKL+범건축)	
유통관련시설			1993 테크노마트21 (S.O.M+삼우설계)	1994 문당뉴로포에이백점 (HOK+동도건축) 1994 중곡기법전공백점 (Chaix & Johnson+간삼)	1995 이도파 영동점 변경 및 대수선 공사 (Chaix & Johnson+간삼)	1996 부산수협백화점현상 -Hano Werber+일신건축 1996 부산동부권 농산도매장 -Callison+일신건축
연구소	동부그룹 중앙연구소(1995년 준공) (Perkins & Will+한동훈)				1995 서울대 백신연구소 -Payette+삼우설계 -HLW+범건축	1996 대우전자 목동 연구소 (Norman Foster+원진,서용석)
교통관련시설		1992 수도권 신공항여객터미널 행정 -McCler, C.W.Fentress 정림, 원도시, 화림, 빔(당선) -ADP+이카프랜, 신한건축 -SOM, OAP+창조건축 -Burns & Donnell, Scott+간원, 국제, 바로 건축 -Fluor Daniel, Leo A Daly+선진, 교우 -Perkins & Will, TRA+삼우 -HOK, Greiner+서울건축 -KBI, Louis Berger+알건, 우보 엔지니어링 -니켈세케이, Parsons Brinckerhoff+간삼, 유신 -DMJM, TCI+정일엔지니어링	1993 서울정비기지 (Borns & McDonald +선진)	1994 속초비행장 (AJLA+정일Eng.)	1996 고속철도 동대구 역사 -Nicholas Grimshaw, OVE ARUP, Richard Elliot, UNIT22+건원 -Chernietov, Huidobro+동우 -Callison, SWNB, Flack & Kurtz+해안건축 -Rafael Vinoly+POS-A.C	1996 고속철도 부산역사 -Richard Rogers+Pos A.C(당선) -Terry Farrell+삼우설계 -Kaplan+McLaughlin,Diaz+화림 -AJLA+정일엔지니어링 -Eason, Earl+서정건축 1996 신공항 복합교통센터 -Terry Farrell+삼우설계(당선) -APG, ADP+이카프랜, 대우엔지니어링 -K.M.D.+POS-A.C, 포스코개발 1996 청량리 민자역사 (미노루다케시마+이카프랜)
문화시설	1991 부산시립미술관 현상 Hano Weber+일신건축	1992 대전 EXPO POSCO 소재관 (Anderson & Oh, Inc+세아) 1992 대전 EXPO 자동차 (HHCP+한승)			1995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현상 -Christian de Portzambarc+선진 -Werner Christen+곽영훈, 이승우 -Laurent Salomon+김홍일 -Hano Werber+일신 -H.O.K+부림	1996 한남동 복합문화단지 (Terry Parrell, Jean Noubel, Rern Koolhaas, Mario Botta +삼우설계) 1995 삼성미술관 (Frank O. Ghery+삼우설계)
체육관련시설		1992 대전 EXPO 자동차관 (HHCP+한승)		1994 태릉국제 스케이트장 지붕공사 (AJLA+정일Eng)	1995 용인 Water Park (White water & HHCP +임이건축) 1995 용인 비자 (Duwell+임이건축)	1996 2002 아시아 경기대회 금정권 일반현상 (우규승+일신건축) 1996 전주랜드 현상 (Duwell+임이)



동대구통합역사 현상설계 당선작(서한건축)



동대구통합역사 현상설계 우수작
(Nicholas Grimshaw 外+건원건축)



2002 아시아경기대회 금정권 당선작 현상설계
(유규승+일신건축)

5. 공동작업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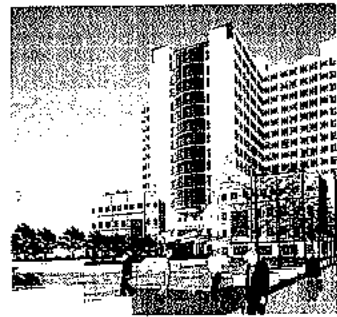
외국 건축설계사무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는 최근 3~4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으며,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의 일본중심의 연계성으로 부터 1980년대 미국중심으로, 그리고 1990년대는 유럽으로 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건축가들이 지난 수년동안 외국에서의 유학 및 설계실무를 통하여 그 연계성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 설계사무실 국내 참여는 Becket, K.P.F., Perkins & Will, K.M.D., CRSS, H.O.K., AJLA, DMJM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니켄 세케이(일본)를 통한 일본과 지속적인 협조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 TGV 선정에 따른 고속철도역사설계,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 등을 통하여 그 협조관계가 유럽으로 다

하수가 없는 신공항, 고속철도 등은 사실상 외국 기술의 이입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보면,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 및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외국 건축가의 국내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대구 무역회관 및 전시장 현상(1995), 국민은행 본점 현상(1996), SBS 방송 센터 현상(1996), 대우전자 목동연구소(1996) 등 최근 1년 사이에도 굵직굵직한 업무시설들이 외국 건축가들의 참여속에 설계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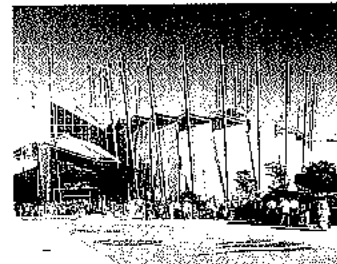
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Terry Farrell, Norman Forster, Richard Rogers(영국), Jean Nouvel, Christian de Portzambarc, ADP(프랑스), Mario Botta, Werner Christen(스위스), 그리고 Rem Koolhaas(네덜란드) 등의 작업이 국내 무대에 선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설계사무소와 국내 설계사무소간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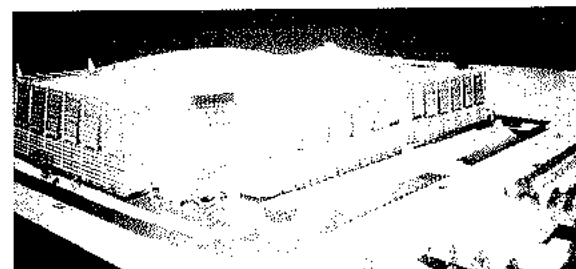


인하대병원(S.O.M+신한)



대전 Expo소재관(Anderson & Oh, Inc+세마, 종합)

별 관계를 분석하면, 몇몇 국내 사무실에서 보이는 그나마 지속적이고 일관된 연관관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따라 離合集散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년내에도 동일한 외국설계사무실이 국내의 우수 설계사무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현상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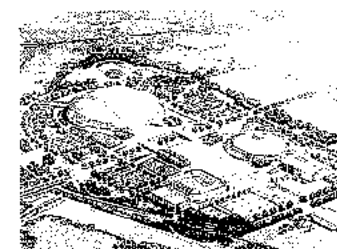


서울정비기지(Borns & McDonald+신한)

즉,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기술적인 협력이나, 외국 설계사무실의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에 근거한 계약관계의 설정보다는 黨利黨略적이고, 유행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맺는말

1990년대는 개방과 변화의 시대이다. 건축계의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한 가운데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



2002 아시아경기대회 금정권 현상설계
우수작(세진설계+서울건축+대우(엔))

해 고민하고 있다. 외국 건축가의 국내 입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몇몇 설계사무소는 그나마 공동작업을 통하여 한줄기 기약을 잡았다는 것에 안도하는 것 같다. 건축계의 여건이나 상황이 어떠한든, 자본가의 입장에서서는 외국제품의 수입이 철저히 차단되었던 시절 외제품에 대해 가졌던 무조건적인 선호 만큼이나, 외국의 건축가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박물관에 조각이나 그림을 사 모으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축가의 작품을 하나씩 국내에 사 모으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복사판이나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외국 건축가를 실물로 볼 수 있고, 그들의 작품을 직접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1990년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분명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이 실무에 나아갈 무렵, 자본가의 가슴에 대고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외국 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작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한 특성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필자의 글을 통하여 확인되었지만, 전술한 공동작업 경향에서 보여지는 '현상설계 당선'을 위한 일방적인 관계지움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호 교감과 참여를 통하여 국내 건축설계 분야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표4〉 외국설계사무소와 국내 설계사무소의 협력관계

외국설계사무소	국내협력업체	프로젝트명	연도	비고
Welton Becket	삼우설계	삼상생명사옥	1981~85	사무소
	삼우설계	중앙일보사옥	1981~85	사무소
	삼우설계	신세계영등포점	1982	백화점
Ellerbe Becket	원도시	쌍용투자증권	1987	사무소
	정림	한국통신목동사옥현상	-	사무소
	원도시	국민은행본점현상	1996	사무소
	정림	SBS 사옥 현상	1995	사무소
	정림	연세세병원	1994~95	병원
	이공건축	건국대 부속 민중병원 현상	1995	병원
나켄세케이	원도시+정림	한국무역센터 무역회관	1984~88	사무소
	간삼	POSCO 21서울	1988	사무소
	원도시	동양시멘트 사옥 현상	1992	사무소
	선진 Eng.	한국상업은행 본점	1994	사무소
	간삼+유신	수도권 신공항 여객터미널 현상	1992	교통관련시설
	간삼	국민은행 본점 현상	1996	사무소
S.O.M	예건축	신동아 63빌딩	1979~86	사무소
	창조건축	락기금성 트윈타워	1983~87	사무소
	삼우설계	테크노마트21	1993	-
	신한건축	인하대 부속병원	1992~94	병원
	정림건축	한리그룹 본당사옥	1995	사무소
	창조건축	수도권 신공항 여객터미널 현상	1992	교통관련시설
K.P.F	범건축	동부산업역상동사옥	1994	사무소
	범건축	동부화재사옥증개축	1996	사무소
	삼우설계	서초동패션센터	1995	사무소
	창조건축	SBS 방송센터 현상	1996	사무소
H.O.K	동도건축	분당 뉴토피아 백화점	1994	백화점
	무림건축	건국대 부속민중병원 현상	1995	병원
	아키텍스	마포로 재개발 빌딩	1996	사무소
	서울건축	수도권 신공항 여객터미널 현상	1992	교통관련시설
Perkins & Will	삼우설계	동양시멘트사옥 지명현상	1992	사무소
	정림	삼양사 연구소	1990	연구소
	삼우설계	수도권 신공항 여객터미널 현상	1992	교통관련시설
Kaplan, McLaughlin, Diaz	희림	국민은행본점 현상	1996	사무소
	희림	고속철도 부산역사	1996	교통관련시설
	Pos-A.C	신공항 복합교통센터	1996	교통관련시설
	정일 엔지니어링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치봉공사	1994	체육관련시설
AJLA	정일 엔지니어링	전력문화회관	1995	-
	정일 엔지니어링	고속철도부산역사 현상설계	1996	교통관련시설
	화산건축	대왕빌딩본부사옥	1996	사무소
	삼우설계	고속철도 부산역사	1996	교통관련시설
Terry Farrell	삼우설계	신공항복합교통센터	1996	교통관련시설
	삼우설계	한남동 복합문화단지	1996	-
	삼우설계	정부제3청사 현상	1991	사무소
Anderson & OH	종합건축	부산시청사 현상	1991	사무소
	세마, 종합	대전 EXPO 소재관	1992	-

공공건축 설계경기에서 외국업체 공동참여 규정의 문제점

The Issue of Regulation which demand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esign Competition
of Public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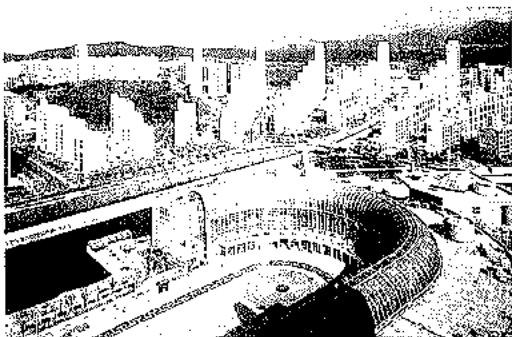
최찬환 / 서울시립대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사회가 점점 복잡화, 고도화 됨에 따라 건축물
에 대한 요구도 대형화와 기능 복합화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 박물관, 청사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건
축물도 과거와는 달리 단일기능의 추구에서 종합적인 공공공간
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도 전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설계과정도
복잡한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자본재적 성격이 강한 공공건축물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
출, 지역 이미지제고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질적인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최근에 발
주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우수한 건축물의 배양과 다수 설계사
무소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안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제적인 건축물을 창조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국제현상설계 및
외국업체(설계사무소 및 건축가)와 공동참여를 통한 설계경기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업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민간부문에서만 행해졌던 수법이나 지금은 공공부문의 프로젝
트에서도 보편화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업체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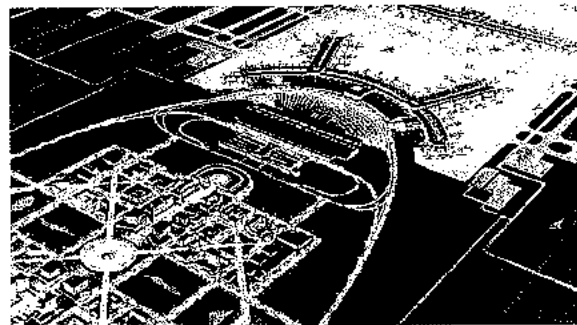
토록 하는 설
계경기는 이
로 인해 국제
현상설계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대부
분의 중요한
공공 프로젝
트가 외국업
체들을 중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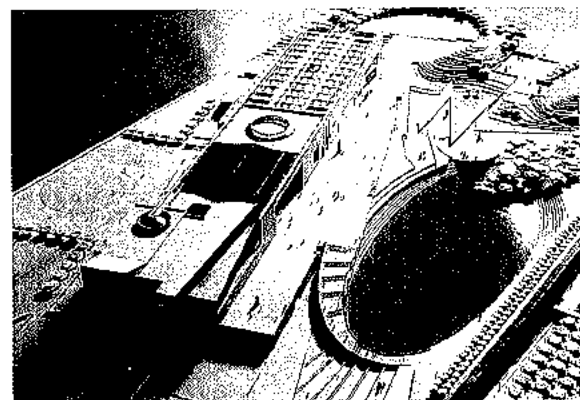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983)



영종도 신국제공항 현상설계 당선작(1992/정림, 희림, 원도시, 범진
축, McClier, C.W, Fentress 공동)

으로 한 국제설계경기처럼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
계경기의 당락이 외국업체중 어떤 사무소와 협력을 하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유입과 새로운 아이디
어의 도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외국업체의 국내 유
입이 확산되면서 건축설계분야에서 국내 건축사무소의 시장잠
식이 예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는 1997년 시장개방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로 건축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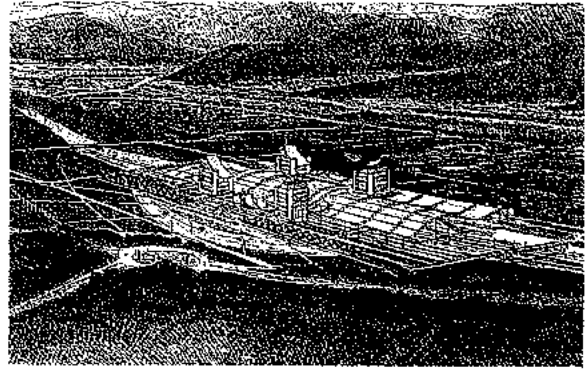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국업체가 공식적으로 참
여하고 있는 설계경기에 대한 실상을 통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진단해 보고 국내 설계사무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현상설계 당선작(1995/정림건축)

2. 공공건축의 설계경기 도입 배경

공공건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민이나 시민의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지닌 공공건축은 기능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자산이며 역사적으로 후대에게 전승되어야 할 시대적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유물이나 유적과 같이 영원한 가치로서 보존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가는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발전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건축재화이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은 건설과정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설계안 선정방식은 주로 입찰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현상설계 실시를 통한 발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입찰에 의한 선정방식은 최저가 입찰이라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공비(公費)의 공정한 운영을 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이러한 입찰에 의한 설계방식은 완성될 내용까지 설계시방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동일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단¹⁾으로서 설계의 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입찰에 의한 설계방식은 사용주무부서가 발주하기 보다는 별도의 발주부서(예 조달청 등)가 있으며, 공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해당 발주 부서내에 건축관련 전문가가 없어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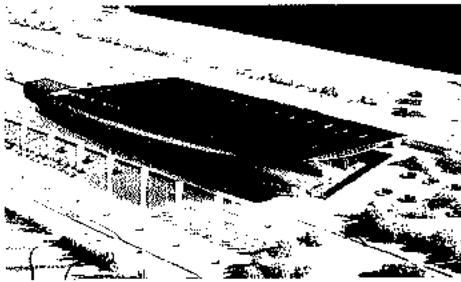
경부고속철도 남서울통합역사 현상설계 당선작(무영건축)

안에 대한 선정 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관계로 건축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된다고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건축물이 지역성과 입지성에 따라 주문형식의 특성있는 맞춤형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표준설계방식으로 획일적, 일률적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이렇게 건설된 학교, 철도역, 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등 여러 공공건물에 적용되고 있어, 이와같은 건물은 단순한 기능만을 담은 건물로서 전국 도처에 같은 모양으로 흩어져 있고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공프로젝트의 입찰방식이 공유 재산으로서 가치 절하를 유발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의 확산과 함께 이권개입이나 담합이 행해질 가능성 등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후 특혜시비 등의 소문이 무성하게 일게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일부 공공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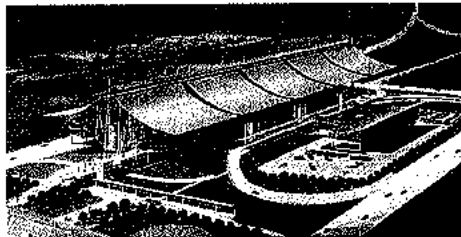
1) 최영배, 신태양, 임영배, "설계선정방식과 설계경기의 유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 권 12호 통권 74호, 1994. 12

표1. 공공건축 설계경기의 외국업체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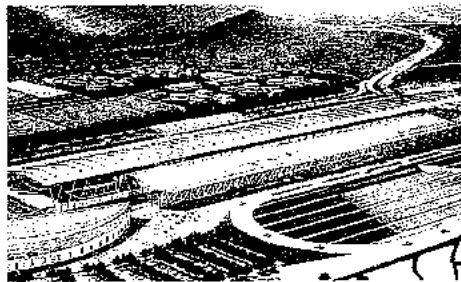
구 분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영종도 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건설목표	• 대회기간중 선수단 및 기자단에게 숙식 및 위락공간 제공 • 대회후 일반주거지화 • 88올림픽 기간중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예술품으로서의 가치 발휘	• 올림픽 기간중 선수단 및 기자단에게 숙식 및 위락공간 제공 • 대회후 일반주거지화 • 관광명소화 • 주거단지 선진화를 위한 시범주택단지	• 동북아의 중추공항역할 담당할 미래형 공항 • 한국적 관문으로서 공항 • 외국과의 협작을 통한 기술이전	• 국제화시대에 맞는 세계적 박물관 건설 •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시킬 수 있는 건축물 창조
설계경기성격 및 자격요건	국제현상설계 - 국적 불문, 외국인 참가할 수 있음(참가자격에 명시)	국제현상설계 - 외국인 참가 할 수 있음(참가자격 명시)	국제현상설계 - 국내외 유능한 공학기술진 및 건축가 참가(공모지침 목적에 명시)	국제현상설계 - 국내건축사 및 외국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참가(응모자격 제한에 명시)
설계경기 시행연도	1983년	1984년	1992년	1995년
설계경기지침 범위	• 일반개요 • 기본목표 • 프로그램제시 • 단지계획방향	• 건설계획의 일반개요 • 추진경위 및 대상주변 여건 • 도시계획지침 • 시설배치기준	• 개요 • 설계경기 범위 • 설계 프로그램 • 시설배치기준 • 건축계획기준	• 개요 • 추진경위 및 설계경기설명 • 박물관 프로그램 • 시설배치기준 • 도시 및 환경기준
응모작품현황	내국인 26, 내외 합동 2, 재외 3, 외국 2	국내 30, 내외합동 9(이중 재외동포와 합동 3)	지명설계 10팀(내외 합동)	국내 78, 국외 263(국내외 합동인 것도 있음)
당선작	우수작 6팀 중 내외합동 2, 외국 1, 국내 3	내외합동(국내+재외)	내외합동작	국내작
심사위원구성 중 외국인 참가현황	국내 분야별 전문가	국내 분야별 전문가	11인중 4인 외국인	7인중 4인 외국인



경부고속철도 남서울통합역사 현상설계 우수작 (동우건축)



경부고속철도 남서울통합역사 현상설계佳作 (삼민건축)



경부고속철도 남서울통합역사 현상설계佳作 (정림건축)

젝트에서 설계경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설계경기는 제3자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입찰에 의한 설계방식보다 우수한 질의 설계안을 채택할 수 있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공프로젝트에서 이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설계경기의 종류는 지명설계경기와 일반공개경기가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능한 설계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설계경기가 있다. 설계경기는 공개적이고 합리적

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부 설계경기에서 심사위원의 부정과 발주자측의 부정 등이 드러나자 설계경기의 공개성 및 투명성이 문제시 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4년도 건설부 고시로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운영지침"을 고시하게 되었다. 이 고시에서는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에서 설계경기를 시행할 때 설계경기 운용방식, 심사위원 선정방식, 심사과정의 공개성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계경기가 공공프로젝트에서 일반화 됨으로서 설계경기에 대한 건축가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설계경기가 과열되자 좀더 특색있고 창조적인 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게 되고 국제화의 요구에 따라 건축계에서도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자 대형프로젝트에서는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는 예가 증가되었으며 국제설계경기가 아니더라도 일반공개경기에서도 협력업체로서 외국업체와 협동으로 응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계에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편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계경기에 국내 설계사

무소가 외국업체와 공동참여를 할 경우 문제발생의 개연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설계경기의 외국업체 공동참여에 대한 문제점

1) 설계경기의 외국업체 참여 원인 및 공동참여에 의한 효과

설계경기에 외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앞서도 말했듯이 UIA의 후원에 따른 국제설계경기과 일반 설계경기에서 국내 설계사무소가 외국사무소 및 건축가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이다. UIA의 후원에 의한 국제설계경기는 그 규준에 의하면 두 나라 이상의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개설계경기 및 지명설계경기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UIA의 후원에 의해 국제설계경기를 진행하려면 설계경기를 개최하기 전에 많은 절차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UIA의 공인을 얻지 않고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²⁾ 신태양은 앞의 논문에서 UIA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최이전에 일정표, 참가 등록비와 심사위원의 명단을 포함한 설계경기 구성조건들에 대한 UIA 서면 승인을 받도록하여 운영과 프로그램, 심사위원 구성, 상금 등에까지 미치고 있으므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설계경기외에 외국업체가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공개설계경기에 국내사무소의 협력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국내에 외국설계사무소와 건축가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이유는 변화해가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 설계사무소들의 경험과 기술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건축주의 막대한 외국선호에 따라 상표에 대한 상당한 금액(로열티)을 지불하면서 외국업체를 끌어들이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서구의 사무소들이 철골이나 유리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건축물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력에 있어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설계사무소는 현대건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대형의 복합건물을 설계할 때 좀 더 우수한 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설계경기에 외국사무소 및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협력업체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수도권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새 국립중앙박물관, 고속

2) 신태양은 앞의 논문에서 UIA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최이전에 일정표, 참가 등록비와 심사위원의 명단을 포함한 설계경기 구성조건들에 대한 UIA 서면 승인을 받도록하여 운영과 프로그램, 심사위원 구성, 상금 등에까지 미치고 있으므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기술하고 있다.

철도 남서울역사와 부산역사 등 대형프로젝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설계경기를 통해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올림픽아파트선수촌과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기존의 국내 아파트단지가 평형배치의 획일적 단지환경과 표준평면도에 의한 획일적인 주호평면에서 벗어나 아파트 건축의 발상전환과 국제적 행사를 세계에 알린다는 의도하에 국제설계경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올림픽아파트의 방사형 배치나 녹도축에 의한 외부공간 조성, 필로티를 통한 단지내 연결 통로 등 단지계획기법의 모범사례로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으며 내부 평면에서는 복층아파트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이후 분당 신도시 시범주택단지 등에 파급효과를 미쳐 도시 주거환경 조성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의 전제가 남아 있는 구(舊) 총독부 건물을 사용하던 중앙 박물관을 해체하고 우리문화의 독자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세계건축가들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유물을 알리고 외국의 참신한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UIA의 후원에 의한 국제설계경기를 개최하였다. 당선작은 정립건축으로 국내 단독으로 출전한 작품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선작의 대부분은 외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작품을 출품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박물관문화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계로서도 근세기에 들어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로서 관심의 대상으로서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기념성을 표현하고 기능복합화로 인한 새로운 박물관 건축의 개념도입에 따른 소위 인텔리전트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인 영종도국제공항은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동원한 대형공공프로젝트로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다하기 위해 특수한 최신시설에 대한 세계시장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영종도 국제공항은 공항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의 유능한 설계사무소와 국내 사무소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력을 이전 받은 첨단기술의 개가로서 평가되어 지고 있다. 몇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 설계사무소가 설계경기에 국내사무소와 공동작업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새로운 기능에 맞는 기술력 도입과 국내 건축가들에게서는 얻기 힘든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2) 공공건축설계경기지침의 외국업체 참여 규정 및 실태

이러한 배경에 따라 설계경기에 참여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예시한 올림픽선수촌, 아시아선수촌, 국

립중앙박물관, 영종도 국제공항, 고속철도 남서울역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몇가지 사례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각 프로젝트의 건설목표를 보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나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행사유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설계경기라는 이벤트를 통해 국제적 행사를 홍보하는 효과를 제고 시킴과 동시에 경기후 행사에 대한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경기를 수행하였다. 영종도 신공항의 경우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아시아 물류센터의 거점으로서 활용될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한국의 관문적 성격과 첨단기술을 수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경기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는 국제화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 건설과 외국에 국내 문화유산을 소개한다는 목표로써출발하였다. 이러한 각 프로젝트의 건설목표를 살펴보면 중심적인 사안은 “국제화에 대한 대응”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제설계경기를 치루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외국설계자의 참여는 초기에는 외국에서 활약하는 교포건축가가 국내 설계자와 인연에 의한 참가가 많았으며, 이를 점차 확대하여 국내설계사무소가 외국 설계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업무부담을하여 대체로 기본설계를 외국에서, 실시설계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계약방법에 따라 외국설계자의 파견, 실시설계의 공동참여 등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해외의 건축불황이 장기화 되어 일감부족과 잉여인력이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물량이 많고 디자인 및 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이 부족한 때에 발주자의 외국선호까지 가세한데다 시장개방이란 빗장까지 열려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국제현상설계의 경우 외국인 참가에 대한 규정은 설계용모지침서에 참가자격이나 응모자격의 제한 등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설계경기에 참가하거나 공동작품으로 출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의 4가지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제설계경기이므로 공식적으로 참가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영종도 신공항의 응모자 제출서류를 보면 「국내 건축사사무소는 국내외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실적 및 외국건축사사무소와 기술 제휴 실적」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및 외국건축사 사무소 현황에는 「공항설계실적 및 과업에 참여할 인원의 공항설계경력을 더 중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국내에서 공항설계가 빈번하지 않았던 관계로 각 참가 사무소마다 공항설계실적이 풍부하고 공항전문설계인력 확보도 용이한 외국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시행되는 설계경기의 경우 참가자격의 제한에 있어 국제설계경기가 아니더라도 외국 설계사무소나 건축가의 참여는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995년 8월에 끝난 (남서울 역사 설계경기)에서는 응모자의 요건으로서 「건축사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에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에게 응모자격이 주어지며 등록된 건축사 1인을 설계경기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다수가 합동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와 연합하면 누구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설계경기는 물론이고 국내공개설계경기에도 대부분이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고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을 보더라도 올림픽선수촌 및 아시아선수촌은 모두 국내 각 분야전문가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 개최된 영종도신공항이나 중앙박물관의 경우는 외국 심사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선작의 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국내외 협동작품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작이 당선) 고속철도 남서울역사나 대전역사, 부산역사 등도 모두 내외협동작이 당선되었으며 입선작의 대부분도 국내외 협동작품이 당선되었다. 이외에 1991년도에 시행한 정부제3청사 설계

경기 공모나 1996년 8월에 시행한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에서도 외국인 공동참여에 의한 작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우리문화를 소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3) 설계경기 지침 분석을 통한 외국업체 공동참여의 문제점

설계경기에 외국설계사무소나 건축가가 참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외국인이 설계경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설계경기지침상의 문제라든가 설계경기후 당선작에 한해서 실시설계를 수행할 때 협력의 범위 및 참여주체간의 역할 분담 등 설계과정을 둘러싼 운영상의 문제, 사회 문화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문제의 원인중 하나로서 각 설계경기에서 건축가들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과 지침이 너무 추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설계경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계경기 일정 및 참가자격, 설계경

표2. 설계경기 지침 비교

구분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촌	영종도 국제공항	정부 제3종합청사	국립중앙박물관	고속철도 남서울역사
기본목표	상징성, 합리성	상징성, 편의성, 기념성	신기술도입, 효율성, 상징성, 국제성	상징성, 기술성	문화성, 기술성, 기념성	상징성, 기능적, 신기술 도입
프로그램	숙박, 업무, 휴식 등 필요시설 및 소요면적	숙박, 업무, 휴식 등 필요시설 및 소요면적	항공운행시간, 항공운행노선, 항공수요, 동선, 필요시설	기관별 기능 및 조직체제	-유물현황 및 전시 프로그램 -관람자의 동선 및 접근 등 건축 프로그램	-고속철도 남서울역사 공간프로그램 -필요시설 및 업무
단지계획방향	-단지내 시설 및 동선의 합리적 배치 -단지내 녹지체계 도입	-	-합리적인 동선처리 계획	-	-확장성 고려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 -옥외공간 조성 계획 등	-순환교통체계의 편리성
일반적 사항	대지면적, 소요시설 등 계획개요	대지면적, 소요시설 등 계획개요	-설계경기 범위 -대지면적, 소요시설 등 계획개요	대지면적, 소요시설 등 계획개요	대지면적, 소요시설 등 계획개요	대지면적, 소요시설 등 계획개요
시설별 세부지침	규모, 실의 개수, 설치시설, 시설배치 계획시 인동간격 및 응적율, 건폐율 등	규모, 실의 수, 설치시설, 시설배치 계획시 인동간격 및 응적율, 건폐율 등	수용시설내역	-	-	-내부공간의 연결 방법 -환승시설 -옥외공간, 보행자 통로 등 기능 및 규모
도시계획지침	-	-섬적존재로서 단지 -자연축과 인공축을 고려한 계획 -자연과 인공이 상징성과 편의성 가지도록 계획	-	-	-	-도시적 맥락 고려한 계획

기 개요, 주변환경 여건, 필요기능에 따른 규모산정 및 실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 등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열거해 놓아 면적만 다를 뿐이지 모든 설계경기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같은 설계경기 지침은 국내 사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국내 건축가들에게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건축이나 도시관련시설 건축물에 있어서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는 외국건축가들에게는 다소 불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각 설계경기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① 첨단기술에 가려진 문화성

설계경기의 지침에 나타난 계획목표는 모두 국가적 상징성과 기능적인 합리성, 첨단기술의 도입 등에 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올림픽선수촌 및 아시아선수촌은 국제적으로 국내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서 기념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영종도 국제공항이나 정부제3청사, 고속철도남서울역사 등은 신교통체계로 인한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물만큼 상징성보다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제3종합청사는 설계경기 목표에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면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문화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기능주의적이고 기술주의적인 설계경기는 각 프로젝트에 외국의 첨단기술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술성에 가려져 우리 고유의 문화성이나 역사성은 다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서울역사의 설계경기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은 배치계획에서는 진입체계의 편리성, 역사와 부대시설의 기능에 따른 적절한 배치, 주차장 규모 및 배치의 적절성이고 건축계획 평가사항으로는 기능적 타당성과 기능별 면적의 정밀성 및 기술지침 적용여부와 제안사항의 기술적 타당성에 두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기능의 합리적 해결이 주 심사기준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설계경기 심사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계획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문화성의 표현은 전통건축의 언어를 사용한 형태만들기에만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공항으로서 한국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지침이 명시되어 있는 영종도국제공항 당선작은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조체의 벽, 바닥, 천장 등에 역사적인 문양과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인 지붕곡선을 사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당선작은 한국적 정서를 재현하기 위해 건물벽에 옛 성벽을 시대별로 재현하고 있다. 또한 남서울역사도 대부분의 당선작을 보면 전통적인 지붕형태의 도입 등 외관을 통해 한국성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계경기에 공동작품으로 출품을 할 때 외국 사

무소나 건축가들이 기본계획을 주로 담당하여 그들이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속성은 몇몇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지붕이나 기둥의 형태들로서 디자인에 사용할 있는 설계어휘가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한국적 문화성을 건축에 표현한다는 문제는 비단 외국인이 참가하는 설계뿐 아니라 국내 건축사들이 설계하는 건축물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적인 문화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시도들을 거듭 반복한 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프로젝트에 외국업체가 주도하는 계획안들에는 이러한 한국적인 내면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소화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설계프로그램 및 건축지침의 기획력 부족에 의한 한국적 정서의 파괴

설계경기 지침에 나타나 있는 설계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공공시설의 기능 및 필요시설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제3청사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 조직도 등을 나열해 놓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프로그램은 박물관에 소장될 유물의 종류 및 전시시설의 동선체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서울역사는 교통의 흐름에 따른 공간 프로그램 위주로 작성되어 있다. 세부 시설기준 및 단지계획기준 등 건축적인 지침은 규모, 필요시설, 각 시설물의 적정 규모 및 실의 개수 등 계획 각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각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정서를 고려할 만한 건축적 문맥이라든가, 옥외공간의 시설기준 등 설계기본방침과 같은 성격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기획력에 의존하지 않은 이러한 설계경기 지침의 내용은 참여하는 외국 건축가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간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평면계획 중 복층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대부분 입주후 통층(通層)하도록 뚫은 부분을 막아 거실 및 침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공간감보다는 면적의 확보에 관심이 많은 국내 거주자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되어 지고 있다. 한국적 정서를 살린 전시동선 및 전시관람길이에 대한 해결이 문제시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한 전시품의 배치 등 방대하고 복잡한 전시프로그램의 문화적 이해와 해결이 프로젝트의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으로서의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문화성을 바탕으로한 건축프로그램의 확보와 기획력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한국적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에서 한국적 정서를 올바르게 획득할 수 없다.

③ 기술이전 및 실시설계의 문제

문화성이나 한국적 정서외에도 외국업체와 협동작업을 출품할 경우, 당선된 후 실시설계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설계경기에 당선된 후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면 협동작업을 수행한 해당 외국 건축가 및 설계진은 실시설계 완료후까지 장기간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상주하는 데 드는 비용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협동작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업무분담을 통해 자국에서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의견차이의 조정이나 교환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FAX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실정은 국내에서는 주로 실시도면만을 담당하게 되고 외국사무소에서 기본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외국사무소와 협동작업을 통한 디자인 기술의 이전이라는 측면은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이전은 기술유입을 통한 기술양도로 그나마 기술지식에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에 타국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줄이게 해줌으로써 충분한 기술적 자립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러한 이유로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시설계과정에서 기본설계에서 사용된 디테일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재 및 재료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나 기본설계자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부득이하게 외국의 자재 및 시공기술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공공프로젝트의 성격상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시공력과 부품개발을 위해 노력을 통해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이나 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새로운 디자인 기술유입을 통한 다른 부분에서의 국내 건설시장의 잠식이라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4. 결론

공공건축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와 함께 건축의 질에 대한 요구도가 증대함에 따라 공공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서도 탄키방식이나 설계경기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의 도입을 위해 외국건축사와 함께 협동설계를 수행하여 설계경기에 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설계경기에 외국건축사가 공동참여했을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문화적 가치의 상실이나 프로그램 미비로 인한 한국적 정서의 파괴, 기술이전의 한

계 등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97년도의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발주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주체는 건축사 및 설계안을 선정하는데 있어 무조건 외국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좋다는 시대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국내건축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건축사는 방대한 자원과 경험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국내건축사보다 능숙한 게 사실이지만 프로젝트마다 외국건축사에 의존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면 그에 대한 기술축적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국내건축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경험이 쌓여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와함께 국내 건축사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공이 시행하는 설계경기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기획·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여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의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설계경기를 통해 의도한 바대로 설계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마다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사업시행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과정 전반에 걸친 조정력 등 건축기획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넥서스 월드도 6인의 유능한 외국건축사를 기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의 기획력을 통해 외국건축사와의 협동작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외국설계업체와의 제휴와 협력이 디자인과 기술이전 등 긍정적인 면은 도외시키고 외국회사의 국내설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거나 길잡이가 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서는 안된다.

이외에 국내 전문가와 외국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기준 및 윤리규범을 공식화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져 외국건축사와의 협동작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건축사와 외국건축사가 상호 이해와 협조하여 환경계획 및 설계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건축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과 대응방안

How to Face the Opening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임창복 /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by Yim Chang-Bok

금년부터 우리는 다른 상품시장과 같이 건축 설계시장도 개방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정부가 벌인 그동안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가트(GATT)협상에 따라 건축설계분야에서도 국제간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국내건축사무소와 합작형태를 참여하던 외국의 건축사무소가 이제는 상당히 그들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우려와 함께 펼쳐질 게임의 규칙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염려하듯이 우리의 건축설계 시장이 일방적으로 잠식당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곤 그런대로 버텨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본 글에서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른 건축설계분야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아야하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선 외국설계업체에 의한 국내시장의 잠식정도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비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화의 수준」을 언급하는 「문화의식」이야말로 외국설계의 범람을 막아주는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방초기엔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리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프로젝트에 따라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곧 그들이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부족, 이곳의 재료나 공법에 대한 미숙, 계약 관행의 차이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대다수 건축주들은 외국회사에 직접 설계를 의뢰하려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건축에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보다 깊은 문화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동태적인 것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고, 또 경계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자세가 그들의 양식답습을 주저하지 않을 때 건축분야가 외국인들의 시장으로

전락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흔히 건축시장의 개방은 고급문화라 생각되는 고급빌딩의 디자인만을 생각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작금 우리 사회에서 번져가는 건축현상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층문화라 할 수 있는 일반주거문화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아니라 소위 목조건축문화를 내세운 서구식 건축이 신도시나 전원 주택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만년의 우리식 목조기술문화는 어디로 가고 이제 후손들은 사는 집하나 자기식대로 짓지를 못하게 되었는지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죽 이러한 이중적 가치관이 이 시대 우리들의 진정한 자화상이라면 건축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더욱더 일방적 수용만을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 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기층문화가 흔들릴 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급건축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일반건축문화의 육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건축문화를 가꾸어 가려면 우리 내부의 체제정비가 보다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우리 건축분야의 취약점은 아직은 현장과 설계가 동떨어져 있고, 설계와 산업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며, 전문화된 업체의 형성이 미비하다는 점들일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 볼때 우리의 설계작업은 아직도 시공의 내용과 주체가 모호한 가운데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만이 꼭 잘못되어서라기보다 변화무쌍한 의사결정과 반복과정, 게다가 건축산업이 아직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현장이 반영된 설계, 설계가 반영되는 현장의 흐름을 갖추어 주도록 각종 제도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와 각종 산업의 체계화도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마도 우리의 설계분야에서 제일 낙후된 분야가 있다고 하면 건축산업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체계화가 미흡한 점일 것 같다. 외국과 비교할 때 개별 산업경제의 낙후성도 있겠지만 각종 산업정보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점은 건축설계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하고 하더라도 각종 자재업자들이 새로운 자재가 나오면 사무소에 들려 자기회사 파일을 정리(Up date)해주고 설계사무소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통례다. 산업제품과 설계를

연계시켜 주는 가교역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형 설계 사무소는 물론 캐나다나 유럽의 중소규모 사무소에 들러 보더라도 가장 인상적인 곳은 자료실이다. 각종자재와 관련업체의 정보없이 수준높은 설계, 경제적인 설계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찌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설계 사무소의 자료실은 아직은 그 정비 상태가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연하고 싶은 점은 잡지나 이콘서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아마도 건축설계가 「외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외국의 사례를 재빨리 참조하는 것이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염려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시방서 협회」(Specification Writers Association) 등을 만들어 설계실무인력이 보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의 경우 건축사가 되려면 디자인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실무과정에서 반드시 시방서 작성의 경험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더욱이 대규모 건축물을 설계하는 조직의 경우 시방서에 정통한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더없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공업국가임에도 아직 변듯한 「건축자재 카달로그」가 없는 것을 볼 때 각종 정보의 체계화가 얼마나 미진한가를 알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도 우리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방편이자 우리의 건축문화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자재 카달로그」 작성 작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건축분야도 엔지니어링과의 협업관계는 물론 선진국에서처럼 도시분야와의 협업관계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과업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설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업이 점차 복잡해지면서부터는 기획단계의 일이 많아지고, 또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타당성 검토나 각종 기획단계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설계과업의 수주는 점차 어려워져가는 것이 추세다. 따라서 우리는 기획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무소의 체제를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는 건축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학문을 숭상하던 사회라 그런지 건축분야에서도 術(art)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學을 더 높이 사려한다.

건축분야의 본질이 설계능력이라는 기술을 연마한 전문인(Professional)의 양성에 있음에도 유독 우리는 학문의 연마를 강조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그 결과 현행 건축과 교과과정이 설계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다기보다 서로 다른 분야와 병치된 가운데 하나의 교과목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학생자질의 불균형, 학과선택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학교 스튜디오 수준의 발전이 요원하게 현실이다. 이것은 구조나 시공분야도 마찬가지다. 구조나 시공분야가 보다 전문화된 과정의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설계전공자도 지금보다는 발전된 설계

중심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수준을 앞서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현행의 교과과정을 학문중심에서 전문가 양성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그동안 논의되었던 「인증제도」를 대학과 대학원에 연계시켜 적용해 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이 뒤따라야 건축가들의 개체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긍지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정비를 체계화하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성숙된 우리 건축문화를 가꾸어가는 기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한마음으로 통합된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국제설계공동작업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환경에 대하여

Our Attitude to International Design -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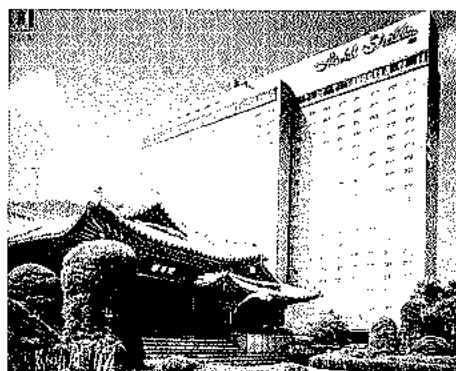
이범재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Beom-Jae

어느시대 어느 나라나 외국의 기술과 외국의 영향하에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시대적으로 보아도 우리 백제의 장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사찰을 건립하는데에 영향을 주었다든지, 또는 백제의 장인들이 신라로 가서 석가탑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예를 볼 수가 있다. 당시의 이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국제적인 교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항상 문화나 문명이 앞선 지역에서 뒤진 지역으로



LG트윈타워(S.O.M+ 창조)

로 기술과 사상과 문화적 요소가 흘러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당연한 일이다. 더우기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당연히 보일 수



호텔신라(박준명 + 다이세이 건설)

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인위적으로 막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막는 것은 시대의 조류와 국제적 안목으로 보아도 어색한

일일 뿐이다. 프랑스 파리에 미국인 건축가가 설계를 한다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또 스페인 올림픽이 열린 바르셀로나에 일본인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이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중국 북경에 아이엠 페이(물론 중국계라고 해도)라는 미국인이 호텔을 설계를 해서 건립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건축가가 말레이시아에 대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설계하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안심이고 자부심이 생긴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제화라는 현세기말의 특징이며 앞으로의 세기에 이루어질 당연한 질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유독 우리는 왜 국제설계공동작업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민족이 유별나게 민족적 차별성(identity)을 중요시하는 것인가? 또는 우리의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지난 시대적 국수주의의 헛세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다행이고 외국사람이 우리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리고 국제화된 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이해된다. 외국인의 지휘자가 우리나라 약단의 상임으로서 기여하는 예도 있으며 우리의 미술가가 외국 화단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또는 기업으로서 국제적 무대를 통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외국인 건축가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상할 것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건축가들도 외부로 향한 진취적인 자리에 공동으로 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제설계공동작업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인가? 결국은 공동으로 작업하게 되는 동기나 그 과정 또는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제설계공동작업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우리나라의 건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60년대이후로 보여진다. 45년 해방이 된 다음 우리 건축가들의 손으로 건축에 있어서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며, 50년의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열되어 새로운 건축에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진 이후 주로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해진 관계로 활발한 건축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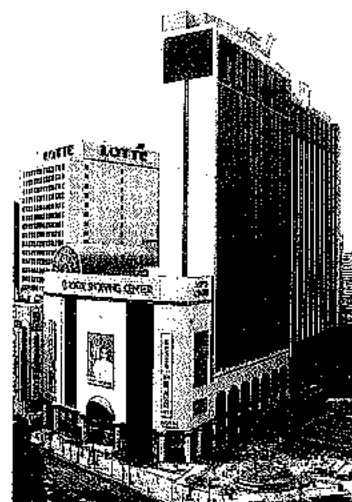
개발의 과정이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건축에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미국대사관과 문화체육부가 들어있는 쌍둥이 건축물이 미국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로 세워진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많은 건축물이 외국의 건축가들의 손으로 설계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외국건축가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국내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행정적 처리를 위하여 국내 건축설계사무소와 어떤 형태로든간에 상호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국내법의 적용을 위하여는 어쩔 수 없는 관계의 존속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런 관계를 가진 외국설계자와 우리 국내설계자와의 어정쩡한 관계설정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후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내건축에서 다루어보기 힘든 새로운 용도의 건축-호텔, 대규모 사무소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외국의 자본이 대량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외국자본이나 한국계 외국자본-특히 일본-과 연계있는 외국의 건축설계사무소 등이 음성적으로 우리 건축설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자본의 유입형태인 국제기술협력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오래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그들의 설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한 것들이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의 호텔건축물들, 대한교육보험빌딩 등의 대규모 사무소들이다.

그이후 기술협력이라는 대외명분을 가지고 많은 건축물들이 실제로 외국의 건축가나 설계사무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설계사무소나 우리 건축가들이 공동의 작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의 건축가나 설계사무소의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안을 가져다가 우리의 법규에 맞추는 행위를 하거나 실시설계만을 진행하는 패턴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우리 국내건축가나 설계사무소들이 참여하여 기술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설계경계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거나 용도가 새로운 건축물인 경우는 외국의 건축가들에게 의존하여 수행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역시 실질적으로는 외국의 건축가나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우리는 대부분 실시설계를 시행하거나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한 것이 사실이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는 경우



호텔 롯데(임이건축+호다건설)

도 있으나 어쨌든 그 것이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제설계경기라는 형식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변칙적(?)인 공동설계라는 형태에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경험이 많은 건축가나 설계사무소를 파트너로 한 국내 건축가나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명한 영종도 국제공항의 설계경기가 국제설계경기의 기본형이 되었고, 이 뒤를 이어서 많은 설계경기가 국제설계경기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영종도 이후의 것들이 영종도것과 같이 반드시 외국의 건축가와 협동하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후 국제설계경기인 경우는 적나라하게 외국의 건축가를 초빙하거나 외국의 설계사무소와 협동으로 안을 작성하는 데에 적극적이 되었다. 말이 그렇지 사실은 외국 건축가들에게 안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주고 국내건축가나 설계사무소는 이들이 작성한 안을 그대로 가져다가 포장만 해서 제출하는 행태까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그야말로 국제설계경기인 경우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국내설계경기에도 이런 일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건축시장은 그야말로 외국 건축가들의 대리 전쟁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사무실에서 솔선수범하여 외국의 건축가나 설계사무소를 서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들쪽에서 보면 힘안들이고 한국의 설계현장에 입성하게 되는 형상이 되고 우리의 설계사무소나 건축가들은 결국 외국체인의 수퍼마켓 주인으로 전락되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가지를 들면, 우선 건축가 자신들의 자질의 문제점일 것이다. 이는 분명히 서구를 위주로 한 다른 나라의 건축에 종속된 개념-교육을 서구중심의 건축관으로 받았으므로 이 지배적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와 정반대인 편협한 시각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를 비하하고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을 설계로서만 인식하고 설계자로서, 경영자로서의 역할로 국한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라고 하겠다. 건축주의 의지를 실행해 주는 일종의 서비스직종이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바탕을 갖고 문화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서구의 건축가들에게 주눅이 들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낮추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건축계의 삭막함속에서 스스로의 질을 높이는 데에 게을렀기에 우리가 맞게된 상황이라고 하겠다.

두번째의 이유는 사회전반적인 건축에 관한 편협된 시각의 결과라고 하겠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건축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우리나라 건축주그룹을 이루는 계층이 이제는 어느정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적인 정보에 밝은 젊은계층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외국의 문물을 접하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외국을 사업상 자주 다니면서 외국의 건축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외국의 건축에서의 소위 상업적 요소에 매력을 가진다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건축가나 설계사무소를 비하하여 보는 관점은 역시 건축가들 자신이나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상업적 부가가치가 돋보이는 외국의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들에게 자신들의 허영적 상상력을 의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하다는 건축가들을 모이다가 고가의 설계비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건축물의 설계를 맡기는 것이다. 자기 재력과 위상의 과시라고도 할 이러한 행태가 결과적으로는 국제설계공동작업을 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국내 건축가나 설계사무소를 희생시키는 경우는 허다하다. 결국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거나 이를 거절할 용기가 우리 건축가나 설계사무소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국제설계공동작업의 방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상기한 두가지의 원인이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왔고 사회적인 여건을 이렇게 조성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적어도 건축가나 설계사무소측에서 외국의 체인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불평등한 조건에 처하여도 그들에게서 정말 배울 것이 있다면 철저히 배웠으면 한다. 그들의 후광을 업고 비즈니스만을 하지 말고 우리의 후배나 젊은 건축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용하였으면 한다. 즉 스스로의 다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독특성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보편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가 여러차례 제기되어왔고 여러번 문제를 삼았으나 항상 말의 무성한 잔치로 끝나고 말곤 하였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이 논의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리라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자신들의 역할과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 정도는 되었으면 한다.

바람직한 국·내외 설계협력의 방향

How and where should we go from here, in search
of a more prudent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foreign and Korean architects on domestic projects

김병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by Kim, Byung-Hyun

1. 건축작업의 협력관계와 경쟁력

오늘의 건축은 그 규모, 기능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이미 구상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건축으로 완성하는데는 폭넓은 전문지식, 능력 그리고 경험을 가진 인력과 조직이 소요된다. 한사무소가 이를 두루 갖추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한 사무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다. 이럴경우에 한 사무소가 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요즘 건축계에서 크게 공론화되고 있는 우리 건축계의 경쟁력 향상도 어느정도는 지금 이미 우리주변에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인 협력체계로 좀더 많은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기업 멘탈리티의 기업문화속에서 자란 우리의 기업개념은 가능한 외부의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자체조직에 보유하는 조직의 크기와 다변화를 주목표로 하여 기업을 키워왔고 건축사무소도 그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양적으로만 조직을 성장시켜온 일부 국내사무소가 가진 문제점은 우리 국내건축계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지 않나 싶다.

80년대초에 중동건설경기로 구미의 건축사무소가 바쁘게 움직일때, 당시 소속된 미국사무소의 디자이너로 스위스의 한 건축사무소와 같이 일한 적이 있었다. 처음 소개받은 내용과는 좀 달리, 막상 그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니 그 규모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조그만 사무실에서(직원 10명정도) 외부의 여러 사무소를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협력관계로 집합시킨 콘소시움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여기에 소속된 인력은 스위스 최고의 구조학자 등이 포함된 강력한 팀이었고, 대표로 추대된 프로젝트 관리인의 일사불란한 운영에 최선의

협력을 보여주어 그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그 비용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과 실시설계도면을 남겨주었다. 스위스의 국내 시장여건으로는 대형사무소를 유지함이 불가능하나, 필요에 따라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내외의 특수·대형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건축환경은 우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국내에서도 대형프로젝트를 위하여 둘 또는 몇 사무소가 합작한 선례는 있으나 그 내용은 건축의 합작이라기 보다는 사업이해에 따른 합작으로 건축의 협력관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미국의 사무소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자. 전문영역이 분명한 사무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이를 지원해주는 외부협력 사무소의 도움없이 유지할 수 없다. 사무소의 전문성을 그 건축가의 디자인 특성에 두고 있는 많은 사무실도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하지만 특히 시자페리나 프랭크 게리 같은 사무실은 사무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는 그 지역에 상관없이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협력사무소에 의존하게 된다. 이 두 사무실은 그 시장영역이 미국 전국에 확산되어 있으므로 그 지방의 사무소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현지 사무소도 높은 수준의 건축으로 잘 알려진 사무실이기도 하지만 그 수준만큼 협력분야도 분명하고 관계는 철저히 제안된 건축디자인이 건물로 완성되기까지 협력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 사무소는 실시설계와 감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관리에 그 정력을 낭비함이 없이 건축디자인 중심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 작가와는 좀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형사무소도 필요에 따라 외부의 협력을 더 많이 얻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restructuring)을 통하여 자체내의 특수전문인력을 더 경쟁력이 있고 수준높은 외부협력인력으로 대체하던가 특수인력을 하나의 지사에 통합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한다.

2. 국내사업 참여 외국사의 유형

선진강대국이 막강한 힘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세계 특허, 개발도상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 건축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건축사무소의 집요한 한국시장 개발노력에 힘입어 이미 상당히 개방된 우리 건축시장이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전문능력이나 지명도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도 그 서비스 수준과 신뢰도, 실적 등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외국사무소를 찾는 기회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사업에 참여한 외국사의 건축사무소로서의 유형을 살펴보면

면 이들 사무소를 불러온 우리 건축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첫째유형은 프로젝트가 대규모 이거나 매우 복잡한 기능의 건물일 경우 신뢰할 수 있고 전문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무소를 찾게되는 경우이다. 이런 건축은 보통 그 사업의 도가 문제의 해결처원을 벗어나 이 사업이 그사회의 초점으로 서 상징적 위치를 가질 수 있을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건축가의 능력도 건축을 단순히 건축디자인 위주가 아니고 그사업 이면에 있는 사회, 정치, 경제의 복합적 힘을 파악하고 이에 교묘하게 대응할 때에 사업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복합적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고도의 능력을 갖춘 다양한 전문인력, 건축과 기술적 제작능력에다 각종 전문 서비스 능력(대형프로젝트 관리능력, 특수엔지니어링, 감리 등), 화려한 실적까지 갖춘 대형사무소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미국의 SOM, HOK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이 유형의 사무소들이 남긴 건축은 매우 차이가 심한 내용과 질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기업체의 사옥 등 비교적 성공한 도시내의 건축을 남긴 것도 있으나 우수한 건축을 만들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사 역할에 그치고 만 것 또한 많이 볼 수있다.

둘째유형은 한 건축가의 독특하고 창의적 디자인 또는 건축 스타일을 건축주가 선호하여 이 건축가에게 기본설계 또는 그 이상의 용역범위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중소형 사무실을 가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축가일 경우가 많다. 이들 건축가는 우리가 많이 보아온 대형사무소가 가진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 건축적으로 좀더 획기적이거나 의미가 있는 건축을 보여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그 사업지의 사회적 환경과 건물이 기존 도시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이름에 너무 쉽게 집착하거나 건축주 개인의 선호만으로 선정하게 하기 보다 선정과정에서 좀더 높은 건축적 식견과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 이런 건축가중심의 건축작업은 그 건축디자인의 독특함과 작가의 전과정에 걸친 철저한 참여요구로 국내사무소의 협력범위는 비교적 제한된 편이다.

셋째유형은 사업의 특수성을 다룰 수 있는 전문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무소가 참여하는 경우이다. 병원, 공항, 특수산업시설에서부터 호텔, 리조트, 대규모 상가건축, 복합건축, 대규모지역 또는 단지계획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한 유사한 사업의 경험으로 국내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참여시킨 예가 많다. 이런 사무소는 그 전문영역의 지식과 그사업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는 있으나 반면에 지역환경과 문화까지를 의식한 건축을 만들기에는 소홀한 점도 쉽게 볼수 있다. 이들 외국사의 건축으로 뜻밖에 외국에 있는 건물을

옮겨놓은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책임은 우리한테도 있다. 건축주의 사업위주의 좁은 식견과 무조건 외국 스타일을 팬타시로 찾는 우리의 범사회적 문화수준도 문제인 것 같다.

넷째유형은 건축기술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외국사무소가 국내사무소와 협력관계로 국내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인데 그 참여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조경, 구조, 기전설비 등은 물론이고 조명, 음향, 실내설계, 특히 국내건축계의 가장 큰 취약점인 건축을 만드는 기술(디자인을 실제의 건물로 현실화하는 능력이다) 디테일 제작능력과 특수구조물, 외벽, 지붕구조, 실내시설물 등의 건축물의 특정부분을 막연히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아니고 새로운 디자인이나 공법으로 이를 개발하는 능력을 가진 사무실 등이 국내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건축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전문지식도입의 당연한 추세이고 국내사무소도 그만큼 그동안의 성장과 수준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3. 외국사의 참여동기와 국내사와의 관계

여러다른 유형에 속하는 외국사무소가 국내사업에 참여하는데는 몇가지의 다른 동기가 연유되어 있고 국내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건축주가 한 사무소의 디자인 능력, 특수한 사업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경험 등을 기준으로 외국사무소를 자의로 선정한 경우이다. 그 건축주의 의욕,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외국사의 업무범위가 결정되고 국내사는 그 나머지를 맡게되는데 크게는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작게는 형식적인 도서관리, 행정업무, 공사중의 설계지원 정도의 소극적 지원업무에 그치는 범위의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둘째는, 국내사무소가 타사와의 수주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능력과 지명도를 갖춘 외국사를 협력사무소로 초빙하는 경우이다. 경기설계에 이러한 동기로 참여한 예가 많이 있고, 건축주가 아예 설계참여조건에 이를 제시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도 지방의 주요사업에 그 지방의 유력한 사무소가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를 협력관계로 초빙제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같은 수주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로 그 지방의 사무소가 가진 능력 이상의 건축을 이 지방에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우리 국내사업도 같은 배경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제휴협력상대가 탁월한 세계적 수준의 건축가이면서 그 사업을 다룰 수 있는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추었고,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각 단계의 철저한 협력이 뒤따라야 하는 전제하에서만 받아들

여야 할 것이며 건축주는 이에따르는 높은 비용부담을 각오하여야 한다. 화려한 경기설계 제출을 제작에 끝나는 상업적 경기설계 대행 행위는 철저히 규탄되어야 할 비전문인적, 비도덕적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셋째는, 외국사가 자체홍보와 사업개발노력으로 국내사업에 선정된 예로서 국내시장에 자체경쟁력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이미 외국의 대형사무소 뿐만 아니고 중형사무실도 상당한 시장개척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폭넓은 유형의 각종 사무소가 진출시도를 할 것이다. 이 사무소들은 일반적으로 자국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그 노력에 강도를 더하여 국내사무소의 능력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건축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영역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건축계에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할 점은 여기에는 우수한 사무소도 많은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시장에는 들어놓지 않아야 할 쓰레기도 묻혀와 질 낮은 건축주들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국내외 설계 협력의 문제점

외국사의 국내설계 참여는 그 결과의 건축물이 우수한 건축으로 남게 될 때에만 그 의의가 있다. 가끔 해외 여행 특히 가까운 동남아 지역의 도시에서 발견하는 점인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외국사무소의 건물이 우리 국내에 남겨놓은 것들 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이들 사무소가 내어 놓은 작품집이나 사무소 소개 책자에도 국내 작품이 포함된 경우는 매우 드문점을 보게된다. 다시말하면 자신들이 해 놓고도 별로 자랑스럽게 내어 놓지 못한 것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작품에서 많이 보인다. 물론 저명한 사무소라고 하여도 때로는 태작이 부득이하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지만 왜 이런것들이 국내에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서구식 도시를 만드는 전통을 우리보다 동남아에서 일찍 받아들여 범사회적 건축환경이 우리보다 좋아서 인가? 아니면 국내사업이 이 사무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축적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거나 건축주의 수준이 좋은 건축을 낳기에 미흡한가? 처음서부터 국외건축사무소의 선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국내 건축가가 여러 단계의 설계과정에서 본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의 우수한 건축의도가 현실화되지 못한 것인가? 등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가능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이는 국내외사무소의 협력관계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축설계를 위한

협력관계는 마치 우리생활에서 부부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분명한 책임, 역할, 신뢰가 있어야 하고 모든설계과정에서 충분한 대화(communication)를 통한 상호이해, 자원이 있을때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축에 대한 공감과 상호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기 보다는 두 사무소간의 오해와 불필요한 충돌이 있게 되고 결국 건축이 그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이미 지나간 사업들의 협력상대들을 보면 이러한 예가 적지않았음을 볼 수 있다.

상당한 수준으로 완성된 기본설계도 이를 완성하여 시공도서를 제작한다는 것이 제도작업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초기단계의 건축디자인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그 뒤에 오는 디자인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건축으로 만들고 이를 건축물로 탄생케 하는 것이다. 많은 건축이 실패로 끝나는 초기과정의 잘못보다 후기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의 작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건축인들이 그것도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이 후기과정을 좀더 충실히,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현실에서 많은 국내건축인들과 사회 일부에서 외국에서 좋은 기본설계만 해오면 국내에서 다소화하여 처리해 준다는 분위기에 젖어 있다. 물론 그동안의 지속적인 인력, 조직의 양성과 설계협력경험으로 이미 수준급의 전,후기과정을 다룰 수 있는 사무소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되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수준의 사무실을 요하는 협력사업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우리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지각한 건축주나 수주경쟁에 눈이 어두운 국내사무소가 외국사의 이름값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슬픈 개념설계를 사와서 이를 국내외 설계협력작품이라고 위장하여 내어놓는 경우를 볼 때이다. 이는 비윤리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할 일로 우리사회와 건축계를 위하여 지양되어야 하겠다.

5. 바람직한 협력관계

외국 건축가가 왜 국내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왜 국내에서 수준급의 건축을 제작할 수 있는데 꼭 외국사에 좋은 기회를 주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등의 논쟁에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가담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많은 주요 국내사업에 국외사가 참여하여 왔고 앞으로의 시장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사의 참여기회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건축설계사 선정과정에서 그 대상을 국외로 돌리는 결정은 사업주나 사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건축계가 여기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국산

품, 우리 고유문화, 지역성의 이해도 호소력이 별로 없어졌다. 외국건축가들도 그동안 우리 문화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우리에게 높은 관심을 가진 우수한 외국건축가도 많아졌다. 국가, 민족이라는 분류로 경계선을 긋고, '너' '나' 하는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건축인도 이제는 동포로서가 아니고 전문 건축가로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 사회에서의 지위를 추구하여야 되겠다.

현재의 국내외건축사무소의 협력관계는 건축설계의 협력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문업무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상대와 철저한 협력과정을 요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와 막연히 외국사를 앞장세웠다가 던져주는 공을 받아 달리면 된다는 정도의 의식으로 수주에만 바쁜 일부사무소의 행태때문에 우리사회에 매우 우려되는 건축현실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우리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매우 주요한 건축물을 만드는 일이고 온전치 못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건축계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대한 국내 건축계의 폭넓은 의식개혁과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관행처럼 보이는 외국사가 디자인을 주도하고 국내사가 실시설계위주의 설계를 한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잘못된 것이리던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하다는 사무소가 외국사의 실시설계나 한다고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협력관계는 선진 외국에서도 저명한 국내외 사무실 사이에서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처지로는 협력관계로 실시설계를 제대로 소화, 완성할 수 있는 사무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그만큼 취약하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협력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관계로 의도하는 우수한 건축을 만드는데는 협력상대로서의 능력과 자질, 단계별 협력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먼저 다루지 않는 우리의 관행이 문제이다.

설계의 후기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과감히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 변경작업도 원만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건축의 모든 부분, 부품의 디테일 디자인을 개발하고 투입된 모든 전문영역의 설계도를 통합관리하는 능력, 이모든 설계과정, 인력, 일정, 전문협력업체 등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만족한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면 우리의 건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건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과정에서도 필요한 전문영역의 지원을 과감히 국외설계자를 통하여서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국내사무소가 초기 설계과정에 적극 참여함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건축예술이란 회화나 조각과 달리 작가가 무한한 자유속에서 창작하기 보다는 많은 현실적 제약조건(사회, 도시, 문화, 환경, 법규, 프로그램, 건축예산 등)에 대응하여 이에 좌절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창조적 과정을 거쳐나오는 것이다. 외국사가 프로그램과 대지현황도만 가지고 너무 쉽게 건축제안을 하게 하여서는 안되겠다. 지금까지 국내사무소의 법규해석위주의 초기협력을 지양하여 우리가 가진 특유의 제약조건과 대응해야 할 이슈 등을 철저히 거론하여 이에 도전시키는 노력이 앞서야 하겠다. 물론 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유지하자면 대화능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건축가로서의 소양과 식견도 마땅히 갖춘사람이 상대(counterpart)가 되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건축가가 협력상대로 과업을 수행하는 한 국내사무소는 국외사무소의 심부름꾼으로 행정수속대행의 역할에 그치고 말거나 아니면 초기설계자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또하나의 건축제품을 만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국내 건축사무소도 전문영역에 따른 협력자를 국외에서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국내의 협력을 통한 건축기술의 전수 기회와 이를 통한 우리건축의 경쟁력 향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건축인이 더욱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특수시설물을 다루는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건축의 주요한 부품을 좀더 독창적으로 만들수 있는 능력과 기술, 대규모단지나 시설의 계획(planning)능력,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 등 전문영역을 대형 외국사가 일괄해서 보내줄 때 보다 우리가 따로 하나하나 챙겨 찾을 때 그 기술내용과 전수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건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실력이 될 것이다.

외국 건축가와와의 실시설계 위주의 협력관계를 이야기 할 때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 돌아가신 건축가 김수근은 롯데호텔 등 일본 건축가의 기본설계에 따른 후속설계를 위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단호히 포기하였다고 한다. 20년전과는 너무 다른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이와같은 자세만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역시 이는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어쨌든 그든 주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도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당당시에도 이미 외국건축을 너무 많이 보고 그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가졌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우리주변에 이런 건축가들이 많이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국내의 협력사업을 찾는 많은 건축가가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고집장자들이 또 있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힘이 될지 모른다.

설계시장개방과 우리의 자세

Our Attitude to the Opening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정기용 / 기용건축
by Chung ki-Yong

설계시장개방이라는 문제는 캘리포니아 쌀이나 불란서 포도주, 독일산 벤츠 승용차가 이 땅에 물려오는 것과는 다른차원의 사고를 요구한다. 설계시장의 개방이라는 당면한 사항 앞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란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한 사람들의 변명적인 수세적인 말들이다. 어떻게하면 개방을 늦출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새로이 설계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외국건축가들의 입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한국의 건축가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에앞서 이러한 세계적인 개방의 흐름속에서 반드시 짚어 보아야할 것들은 이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한번 돈독히 하는 일이다.

공식적인 시장개방의 신포이전에 들어올 것들은 이미 다 들어와 우리 도시의 일상을 이미 형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양건축의 여러 모델들은 한국의 건축가들과 건축주 등에 의해 공공연히 모방되어 변형, 차용되고 있다. 이 공공연한 '밀수' 행위가 30여년동안 이름없이 이미 자행된 마당에 외국건축가들이 오리지날리티와 원조의 얼굴을 하고 몸소 '천하' 한국 땅에 왕립한다는 것은 새삼 기뻐날필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려워 할 일도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기회에 우리들이 한국의 건축문화를 보다 공고히 할 토대를 만든다든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나, 건축의 공공성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할 나위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적 기류속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진 이 기회는 바로 이 현상의 근원, 즉 질서의 자유시장으로의 개편이라는 미명속에 잠복해 있는 선진국들의 전 지구적 '신식민주의'의 야심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의 적절한 기회인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명성이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나 혹은 이름은 없다 할지라도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외제라는 프리미엄을 달고 있는 외국 건축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이땅에 심어놓는 그 사실에 분노하거나 기뻐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떠한 경로로,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떤 개념의 건축을, 누구를 위해서, '제작' 하는가 하는 점들을 질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과연 그들이 한국이라는 이땅의 나라에 자신들의 작품이 있다는 자만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올 것인가, 또는 역으로 자신의 회사 건물이 세계적인 건축가 X모씨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자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외국건축가를 불러 올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러 올 것인가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오직 한국의 건축주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아마도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을 할 기회가 생겨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건축하려는 이들이 제대로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들과 한국의 건축문화 내지는 보편적인 건축에대해 교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다수의 상업 자본이 유치하는 상업적인 건물들은 그것이 도시적 맥락에서 기존의 도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주거움을 제공하는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수준에서 그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나 검증, 다시말해서 외국인의 인력이 한국 땅에서 건축하는 목적이 한국 건축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들은 그들이 훌륭하게 그들의 건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의 건축문화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은 이미 '우리들' 즉 건축설계사무소의 조직과 능력 생산성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객들이 한국건축가들에게 갖는 불만까지도 이미 면밀히 조사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한국의 설계시장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건축하거라는 관청업무가 진행되는지, 시공회사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되는지 까지 면밀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보고서를 보면 낯 뜨거운 정도의 묘사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하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협력해야 할 건축인들은 또 다른 오해를 낳지 않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밖에서 밀려오는 외세에 대한 준비나 태도정립 보다도 우리들 내부에 뿌리깊은 선입관과 불신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건축개념의 양태에서부터 그것의 실현까지 끊임없이 개입하는 온갖 규제와 심의절차들이 그 본래의 목적에 이성적으로 부합되는 관행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각자 맡은 역할의 과잉적인 태도와 오해로 점철되거나, 때로는 지난친 요식행위만으로 그저 많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좋은 건축의 실현마저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의 보편적인 질을 높이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의 형식적인 관행과 책임회피와 좋은게 좋다는 식의 느슨한 관행을 옹호하는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법과 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운용없이 건축문화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아무리 해외의 용병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요원한 일이다. 한국의 건축가들을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신하는 데는 '좋은 건축'이 이루어질 근본적인 토대가 박탈되는 사회적 구조에도 요인이 있다.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세워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진지하게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만 해준다면, 다시말해 적어도 모든 설계경기에서 모두가 수궁할 만한 좋은 작품이 공정하게 당선되고 그것이 실현이 보장된다면 외국이 아니라 외국의 건축가들이 몰려온다 한들 무엇이 문제일 것인가?

따라서 설계시장 개방에 임하여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부에 요지부동한 병폐들을 제거하여 창작의 물고를 트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의 여러 고라들중 그 하나라도 여는 열쇠를 쥔 것은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건축가, 건축주, 관에 종사하는 모두의 일이다. 문제는 바로 우리를 전부의 문제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건축가들이, 아니 마땅히 건축인들로서 각오해야 할 일 이 있다면, 바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발언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서서히 좋은 건축이 태어날 올바른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건축가들의 출현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라면 외국 건축가들이 이땅에서 일할 수 있듯이 한국의 건축가들 또한 해외에서 일할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건축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든가, 한국적인 건축이 완성된 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한다든가, 외국건축가들은 한국을 모르면 비한국적 건축을 할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든가, 그들이 들어와야 한국 건축이 깨어난다든가 하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모두 허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으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한국건축문화에 희망은 있다. 건축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고급서비스업만도 아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건축'이기 위해서는, 한 사회가 요청하는 진정한 문화와 그 정신의 결집체로서 기능할 때일 것이다. 설계시장개방에 임하는 우리들 모두의 자세는 바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개방인가, 무엇을 위한 개방인가를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능하는 것이다.

외국 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작업, 그 실상과 허상

The St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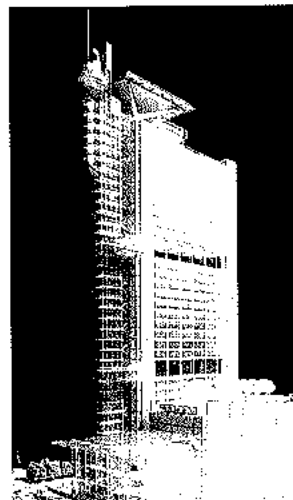
최동규 / 서인건축
by Choi Dong-Kyul

필자는 사무실을 철없는 시절에 일찍차린 나머지, 큰 사무실에 있었으면 겪어 볼 수도 있었을 외국설계사무소와의 공동작업의 경험조차 없다. 다만 지나가는 그리고 흘러나오는 소문들로 그 실상을 상상할 뿐이다. 나와 관계없이 즉, 나와 무관한 일들에 대한 느낌과 또 내가 직접 경험한 2건의 외국사무실과의 협력작업에서의 느낌을 이야기 해볼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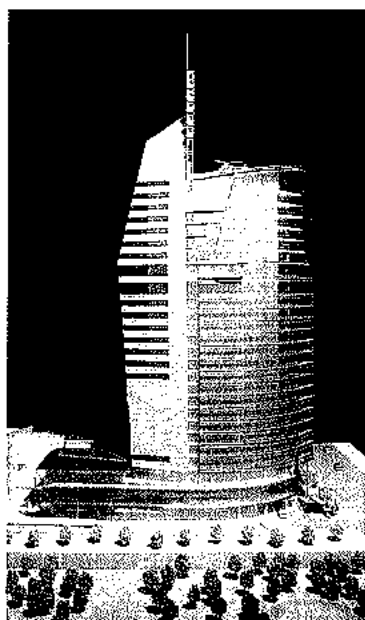
어느 누구나 자기가 처해있는 자리에서 바깥 일을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 피상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를테면 물위에 개구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맞아 다치게 됐다 해도, 다친 개구리의 입장은 심각한 비상사태이지만, 멀리서 이를 바라보는 주변 개구리의 심정은 덜 심각하고, 더러는 아주 무관심할 것이다. 특히 에고이즘의 정수라 할 예술계, 그리고 그중 일부인 건축가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대개 외국건축가에게 발주되는 일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로 큰일을 할 기회가 없는 사무실 입장에서 무관심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돌건데 큰 설계사무실에서 국내 재벌 기업들에게, 무분별하게 해외에 일을 맡기지 말아주기를 사무실 차원에서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책에서 볼 수 있었던 유명건축가들의 작품을 국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몇가지 기억나는 것만 추려봐도 삼성



SBS방송센터 현상설계 당선작(일견엔씨+리처드 로저스)



SBS방송센터 현상설계 참가작(정림건축+엘레베 벤키)

원에 짓게될 미술관 건물들, 목동에 짓게될 Norman Foster가 계획한 대우전자사옥, 또 같은 지역에 경쟁하듯이 짓게되는 Rogers가 계획한 서울방송사옥, 그리고 최근에 고속전철 부산역시는 영국건축가 Grimshaw가 했다던가? 나는 머지않아 2~3년후에 그 실체를 보게될 날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포철본사 준공에 자극받은 현대가 짓는 60층짜리 현대산업개발사옥은 오랜만에 Kevin Roche가 계획했다고 한다. 아마 다른 재벌회사와 관계없는 사무실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나보다. 이렇게 속속 외국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건물들이 세워질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보면, 공공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되는 대중들에게 불거리, 또 고급공간체험의 기회가 확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계에 큰 소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건축교육을 시키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또하나 부가적으로 얻게될 효과는 민간인,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기설계를 통하여 지어진 건물들이 재평가될지 모른다는, 아를테면 일반 민간재벌기업이 자율적으로 짓는 건물과 공공건물의 설계경기를 통하여 지어진 건물들이 비교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경기설계를 치르는 방법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좋은 한국건축이 세계건축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굳이 이야기 하자면, 솔직히 말해 실력있는 외국건축가들이 속속 밀려들어 올까봐 겁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국내 설계사무소들에게 기회가 줄어들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룹에서, 과거 방송국을 소유했던 시절의 운형궁 스튜디오 오에 Frank Gehry가 계획한 미술관을 비롯해 도곡동에 Rem Koolhaas가 계획한 105층짜리 삼성전자사옥이 있다. 이밖에도 Jean, Nouvel, Terry Farrel, Mario Bota, Rem Koolhaas등이 사이 좋게 계획하고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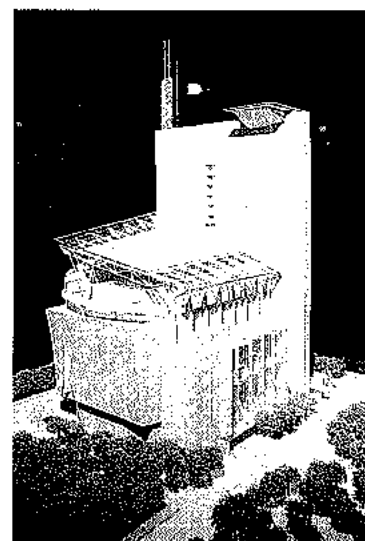
시 삼성그룹이 이태

바로 앞서 이야기한 긍정적 영향의 그늘진 뒷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없는 외국건축가는 능력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한다고 한다. 의식있는 건축가들은 이러한 경우에 반응이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필자의 생각은 실력있는 건축가들이 와서 멋진 건물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뭐 잘못된 것 있느냐는 식이다. 민간 재벌기업 건축주들의 안목이 드디어 해외 유명건축가들을 초빙해서 본사사옥 및 문화시설들을 지어야만 되겠다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나 할까?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한다면, 고급미술품, 골동품을 선택하는 큐레이터의 안목을 가졌다고나 할까? 어쨌든 그들 마음에 드는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건축가를 초빙해야 되는 것이니, 그들의 수첩에 세계최고 건축가들의 이름이 없을리 있겠는가? 마치 좋은 그림이나, 골동품을 수집하듯이 말이다.

나는 도심지에 있는 어느 대지에 설계할 때 주변 콘텍스트를 너무 따지는 건축가들이 처음엔 싫었다. 그러나 지금은 훈련이 되어 그 중요성을 조금은 안다. 여기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이들 초빙건축가들께서 성미급한 우리 건축주들의 독촉에 못이겨 평소 유창하게 부르는 노래를 그냥 한국 뽕고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다. 이왕 초빙했으면 한국문화, 역사에 대한 부분을 주입시킴 후에, 솜씨를 발휘하게 한다면 조금더 가치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나 한국건축계에, 또 거시적으로 세계건축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또 한편의 의식있는 건축가들은 무분별한 외국건축가의 수입을 못내 싫어하면서도 우정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알기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나의길을 가려나 하는 자의식이 뚜렷한 건축가들이다. 이런 건축가들의 모습에서도 나는 적절한 자존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적절한 자존심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새로운 지식의 흡수에는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에 하게된 나와 관계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SBS방송센터 현상설계 참가작(창조건축+K.P.F)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초대대통령 이승만박사가 세운 하와이 한인교회인데 일제시대 세운 건물로 전면에는 광화문 스타일의 정문이 그리고 그뒤에 교회가 붙어 있다. 너무 오래되어 붕괴의 조짐까지 있어서 개축을 하게끔 되었는데, 나는 이일을 부탁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해외에 세워지는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기쁨에 괜히 흥분했었다.

그래서 멋모르고 실시설계까지 다한다고 계약까지 했다. 여러 이유로 계획이 흐지부지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 다시 계약하게 되었다. 나는 교회부분은 기본계획을, 전면의 전통 한옥식 건물부분은 실시설계를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조심스럽게 구분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나중에 하와이 쪽에서 실시설계할 현지 건축가도 왔었고 서로 의견조정이 잘되어 진행중이다.

나는 이 작은일에서 큰 교훈을 깨달았는데 각자 자기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처음 계약한 것처럼 했다면 법규도 모르고 또 영어로 표기도 해주어야만 하는 일도 있어서 무척 힘들뻔 했다. 얼마전 친한 선배 한 분이 중국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 설계경기에 당선됐다고 했을 때, 나는 한편으로 축하를 해주면서도, 또 한편으로 잘못하면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는데 하고 생각했다.

내가 근본적으로 중국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은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하고 손을 떼라고 충고했었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의 대답은 “아니야, 작품이 되게 하려면 디테일까지 다해야돼.”라고 했다. 시간이 한참 지났으므로 그에대한 득실은 이미 결판이 났겠지만, 누군가 해보지 않은 직업에는 손도대지 말라고 했던가? 새로운 종류의 직업 아니, 새로운 종류의 작업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말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 살림살이가 넘쳐지 못한 건축가들이 갑자기 들어온 행운에 너무 들뜨지 말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두 번째 작업은 우리나라에는 조금드문 노인 복지시설을 캐나다 건축가와 같이 하게 된 것이다. 의사인 건축주가 우리나라에는 처음인 노인의료시설을 경기도 양평 숲속에 건립하게 되었다. 미국에 오랜기간 있을동안, 미국의 노유자시설들에 마음이 끌리다보니, 그리고 한국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건축가에게 설계맡기기가 부담스러웠나보다. 그래서 노인시설만 전문으로 설계한 캐나다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겼다. 설계를 맡긴 후에 여기저기 물어보고 나서는 혼란스러웠는지 내게 왔다. 자기가 캐나다에 맡긴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나는 잘했다고 했다. 진심으로 한 이야기였다.

계약금까지 치르고 진행된 일에 새삼 초를쳐서 좋은일이 무엇있겠는가? 그 이후 캐나다에서 직접 건축가들이 왔다. 다행히 그 사무실에 오래전에 이민간 한국건축가가 있어 그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 노인시설이 처음인데, 자기네들이, 그일을 맡았다는데 대해 아주 흥분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시설계까지 다해야겠다고 의욕을 펼쳤다. 아마 허가도 그들 도장으로 찍을 수 있으면 허가까지 낼 기세였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진행중이다. 이 경우에도 느껴지는 점은 어느 누구라도 과욕을 부리면 손해본다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외국건축가들의 작품이 한국에 많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건축주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을 철저히 활용해서, 정말 훌륭한 건물을 세워보라는 것이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한국건축계에도 자국이 되거나 이익이되면 뭘지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실제로 몇 명의 세계적 건축가들의 작품은 도저히 흉내도 못낼 것 같은 요소가 있는데, 이들의 작품이 국내에 몇 개 있다고 해서 나뻐게 무엇 있겠는가?

또 프랑스 파리를 생각해보자. 파리 시내에 있는 많은 유명한 건물들이 프랑스 건축가의 작품이 아닌데, 누구든 훌륭한 건축가의 작품을 선택해서 파리의 도심환경을 구성해가려는 그들의 정책과, 결국 이러한 정책이 더 큰이익, 즉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함으로써 얻는 부가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논리가 서울에도 적용될 지는 모르나 나는 요즘음 부쩍 늘어난 외국건축가들의 프로젝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더욱 마음을 실어본다.

바람직한 국·내외 공동설계작업의 방향

Desirable way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허승희 / 재미건축가
by Heo Seung-Hoi

처음원고를 부탁받았을 때 우선 기쁘면서도 또한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역시 가끔 느끼는 일이지만 이런 글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과장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개인의 의견을 일반화하여 강조함으로써 읽는 분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불편함을 느낄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글도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쓴것이 아니고 필자 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한국에 계신 건축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램에서 쓴 것이기에 위에서 말한 범주에 속할 수도 있음을 우선 서두에서 밝혀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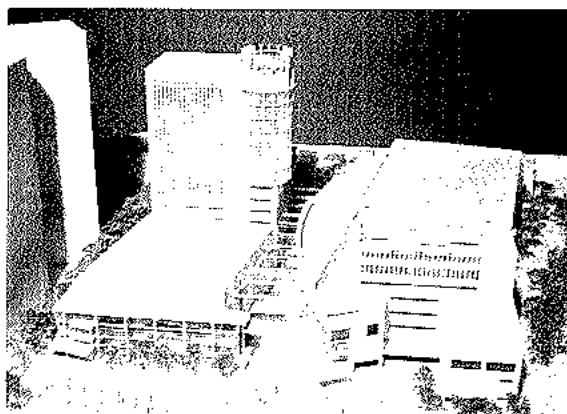
필자는 대학졸업후 문교부에서 차관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1971년 유학생으로 도미하여 1972년부터 현재까지 레오나드 파카 설계사무소(The Leonard Parker Associates, 약칭 TLPA)에서 일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TLPA는 지난 1993년말부터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작, 현재 4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의 건축설계사무소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원고 부탁도 받게된 것 같다.

1997년 올해부터 한국의 건축 및 건설 문호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이야기는 국내외 건축사면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약칭 AIA)에서는 한국 시장개방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에대한 구체적 시장개척방법 등을 많은 세미나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해 10월 연사로 참여했던 캐나다 밴쿠버의 국제 건축법규 및 표준 회의(International Code and Standards Conference)에서도 아시아의 시장(Market)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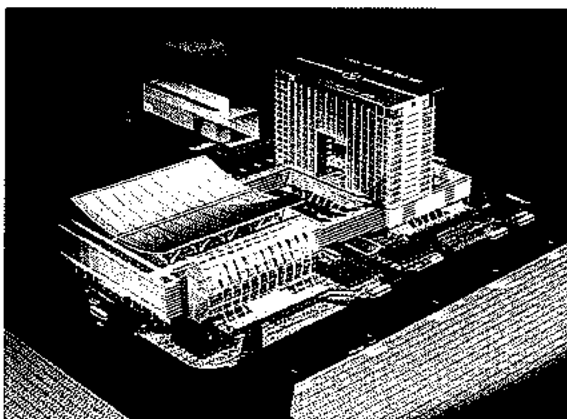
물론 한국건축사들도 한국시장개방에 대한 대처는 물론, 역으로 한국건축사들의 외국시장개척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활발할 것이라 믿는다. 시장이 개방되면 한국건축계

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하는 예측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 예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요사이 일본을 방문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동경의 건물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일본 건축주들이 외국건축사들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설계비가 적고 외국 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왜 주저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럼 한국의 건축주들은 일본 건축주와 이런 점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자. 필자는 한국의 건축주들은 한가지 덧붙여 외국 건축가들의 철저한 서비스(도면작성, 고객관리, 풍부한 정보활용 및 제공 등)까지 얻는데 왜 고용하지 않겠느냐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들이 한국 건축가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고 외국건축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며, 이에대해 연구, 홍보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일종의 하나라고 본다. 물론 건축기술 및 서비스 면에서도 외국과 빠른 시간내에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들 것이 우수하다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중의 하나가 그들과의 공동설계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미국에서의 공동설계작업의 추세와 필자가 소속된 회사(TLPA)의 경험, 그



한국전력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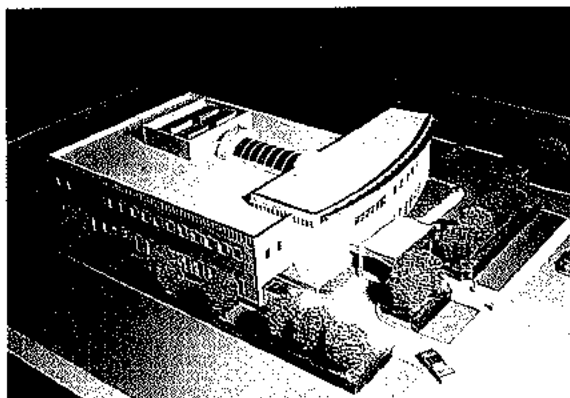


대구 컨벤션 / 무역센터(TLPA+한국건축)

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동설계작업의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

미국에서 공동설계작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였다고 생각된다. TLPA의 경우도 현재 70%이상의 프로젝트들이 공동설계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요즘은 꽤 미국에서 공동설계가 성행하고 있다. 그럼 왜 이처럼 공동설계가 성행하게 되었는가? 우선 건축주(Owner)들이 공동설계작업의 잇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요사이 대부분의 건물설계가 점점 전문화되어 이들 전문화된 회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활용인력(Man Power)면에서도 상호보완을 할 수 있으며, 정보(Information)를 얻는데도 유리하고, 더우기 중요한 것은 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협력회사가 문제를 최소화하며 역할을 대행(Cover) 또는 보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같은 설계비(Professional Fee)로 2개 내지 3개 회사를 얻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 이전에는 건축주들의 주된 걱정이 공동설계작업의 경우 각 회사간의 협조(Coordination)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다. 이것이 잘 안될 경우 프로젝트를 망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낳게 된다. 그러나 건축주가 주설계회사와 단일계약을 하고 협력회사의 책임을 계약에 포함시킴으로써 둘 내지 세개의 회사를 얻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기에 그러한 우려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큰 공헌을 한 것이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에 셋 내지 10개이상까지 활용되었고 또 성공적 결과를 보아온 설계전문자문(Professional Consulting)회사들이라 하겠다. 그래서 두개 또는 세개의 설계회사가 공동설계작업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건축주들에게 설명되었고 또한 좋은 결과를 보고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어떤 건축주에게도 통용되는 방법이 되었다.

공동설계작업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설계회사와 건물이 세워지는 곳의 지방 설계회사(Local Architects)와의 공동설계가 있고, 건물이 세워지는 곳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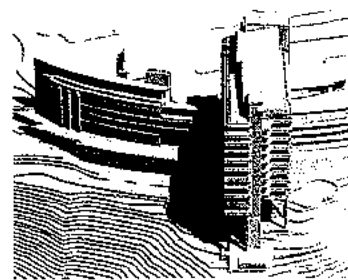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주설계회사가 자기의 약한 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른 설계회사와 공동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자인에 뛰어나다든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설계한 경험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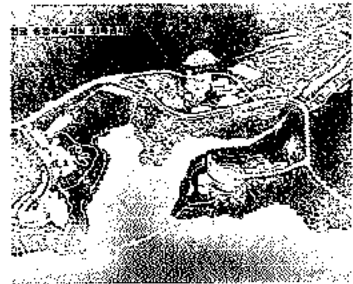
다든지 하는 회사는 건물의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설계 요청을 받게되며 어떤 경우는 바쁜 스케줄(Schedule) 때문에 또는 설계규모(Size) 때문에 2개 또는 3개 회사가 공동설계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소속된 TLPA의 경우도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는 거의 다 공동설계에 의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 몇개만 예로 들겠다. 필자가 유학을 시작하기 전인 1969년부터 지금의 소속사인 TLPA와 일본의 건조탕계 회사는 당시 미네소타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미네아폴리스박물관, 예술대학, 어린이극장 설계를 공동작업하고 있었다. 디자인(Design) 책임을 탕계회사가 맡고 미네소타의 건축법규 검토, 자문협력회사들과의 협력(Coordinating) 및 실시설계책임을 TLPA에서 맡아했다. 그 후 1987년부터 91년까지 조가발주(Fast Track)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는 1973년 완공됐다. TLPA와 두개의 다른회사인 SLL 및 LMN과 공동설계로 미네아폴리스무역센터 설계를 공동작업 했다고 한다. 당시 디자인은 TLPA사가, 실시설계는 SLL사가 그리고 프로그램은 LMN사가 담당했다. 이 밖에도 철리미대사관, 워싱턴주(시애틀 근교에 있는) 노동공암청 및 미조리주의 법과대학 공동설계를 보면 TLPA사가 디자인부터 실시설계까지 책임을 맡고 지방건축가가 법규 코오디네이팅(Coordinating)과 감리(Construction Administration)책임을 맡아 공동으로 작업한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요사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력문화센터, 대구컨벤션/무역센터, 주캐나다한국대사관 등도 역시 공동설계형태로 참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밝혀둘 점은 TLPA원칙(Company Policy)은 컨셉디자인(Concept Design) 또는 스키메틱디자인(Schematic Design)만 하고 프



국민연금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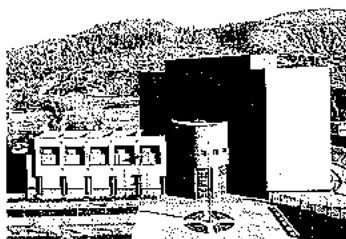
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것은 절대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믿고있는 파카(Leonard Parker)교수의 철학에 따른 것이라 하겠



국민연금종합 휴양시설



미네아폴리스 박물관, 예술대학, 어린이극장(美 TLPA+미켈조장계)



칠리대사관

그들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한국의 국내외 공동설계작업의 방향이겠는가를 알아보겠다. 현재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설계작업의 목적을 수주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보지 말고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보아 줄것을 강조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앞으로 다가올 외국에서의 공동설계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설계방법/순서(Design Process), 설계운영방법(Design Management), 설계접근방법(Design Approach Method), 공동설계 계약서류 작성방법, 각종 시스템 선정에 관한 정보, 상세도(Detail)개발 및 작성방법 등을 완전히 이해하여 우리의 지식(Know-how)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한국 건축가들의 해외진출이 일본에 비하여 많이 늦어졌지만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5년내에 달라지리라 확신한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더라도 반드시 두명 이상의 일본건축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 한다고 한다. 물론 일일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이 오늘날 많은 일본건축가들이 외국에서 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건물설계를 수주할 수 있게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2년전 미네소타 예술고등학교 설계권 경쟁에서 필자가 소속한 사무실을 비롯한 몇몇 유능한 미국 건축가들을 제치고 일본의 이소사키가 선정되었을 때 이를 더욱 실감나게 했다.

현재 한국에서의 공동설계작업은 일반적으로 외국건축회사가 설계컴페(Compe)디자인을 맡고 한국건축회

사. 그동안의 예를 보면 TLPA의 강점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S.D.(Schematic Design)단계에서 80%, D.D.(Design Development)단계에서 50%, C.D.(Construction Document)단계에서 20%의 참여로 총 건축설계부분에서 30%내외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래야만 설계(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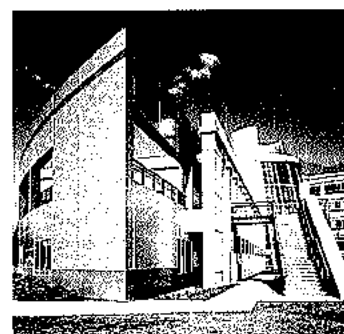
sign)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가 법규와 실시설계를 담당하는형태가 대부분의 경우로 알고 있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계경쟁만으로 외국 건축사의 임무를 끝내지 말고 실시설계가 끝날때까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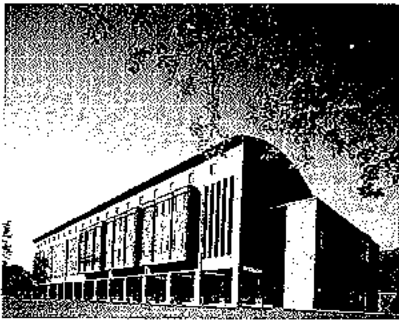
노동공업청

가능하면 감리까지 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실질적인 그들의 설계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한국에서의 설계감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경우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못하게되면 설계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도 안들어줄 정도로 하자위험성이 크기때문에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법으로 막고있더니 정말 고쳐야만 될 것 같다. 물론 책임감리자(Construction Manager)와 함께 일하는 것이야 미국에서도 대형공사에서는 늘 사용되는 방법이나 그것을 타하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일해온 설계자를 빼고 공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다 하겠고 설계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힘들 것이다. 어느 누구의 설계도면도 완벽할 수 없기에 감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시 공동설계로 돌아가, 어떠한 형태의 공동설계간간에, 예를 들어 외국건축가가 디자인 담당이건 기술자문 담당이건 간에 공동작업을 할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한국건축사가 함께 일하며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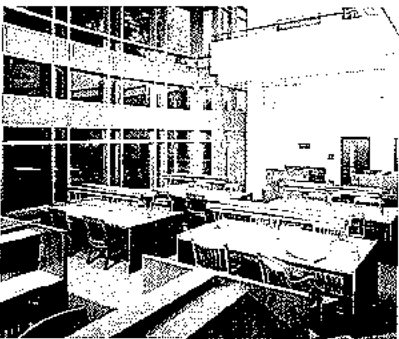
또 한가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공동설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각사의 책임이 정해지면 이를 100%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 점은 반드시 지켜지는 규칙(Rule)이고 이것이 깨지면 공동설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건축가들이 자기의 주장이 한국실정과 한국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포기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최선의 안이 아니고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 이점 유의해 말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좋은 디자인회사는 풀기 어렵고, 많은 구속들(Restriction)이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디자인의 좋은기회(Design Opportunity)라고 생각하기에 법규상, 기능상, 우리의 정서상, 문화특성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말해주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한가지 공동설계에 서명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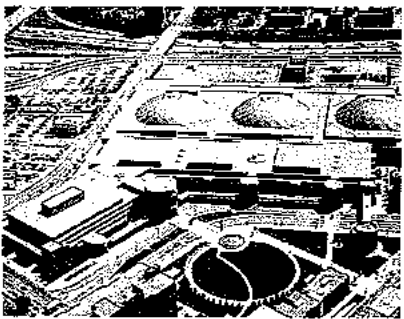
노동공업청



드레이크대학 도서관



드레이크대학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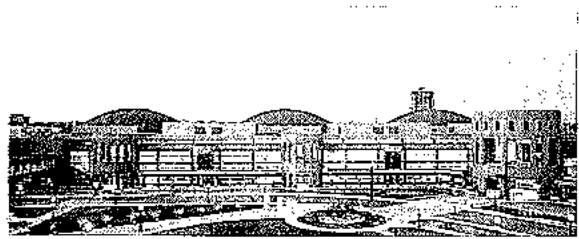
미네아폴리스컨벤션센터

마자 두개회사가 합쳐 일
하건 세개 회사가 합쳐 일
하건 간에 하나의 팀
(One Team Concept)
이 되었다는 개념을 잊어
서는 안된다. 그 프로젝트
의 성패는 모든 참여회사
가 함께 저야 하기 때문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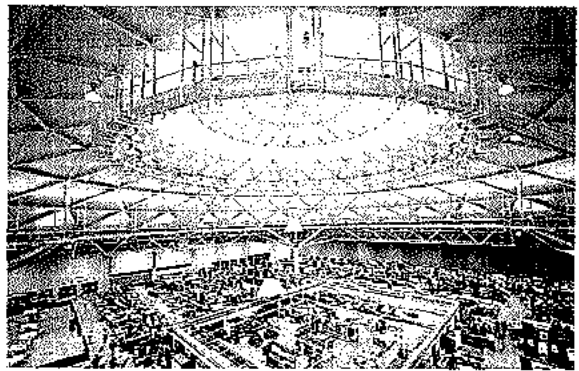
많은 한
국건축사들이 왜 우리는
외국건축사들의 뒷처리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한
다고 들었다. 필자는 이것
을 필요한 과정이라고, 또
큰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
보고 싶다. 이의 빠른 탈
피를 위하여 평소 필자가
가졌던 다음의 몇가지 생
각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한
국건축설계회사중 많은
회사가 노하우(Know-
how) 및 경험을 축적하
며 그것이 회사내에서 좋

은 전통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도 60년대, 70년대까지 영웅중심(Star Architect)주
의였고 영웅이 쓰러지면 회사도 쓰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존 설계회사들의 영속적 존
속을 위한 소유권이전(Stock Transfer)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하여 창업주들이 없더라도 같은 이름으로 존속되는 경우를 많
이보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건축사협회(AIA)의 주선과 협조가
큰 몫을 했다. 물론 필자의 소속 회사도 예외는 아니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능한 건축가들이 기존회사를 떠나서 자기회사를 차
리지 않고 기존회사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유리하도록 구조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보험을 통하여
은퇴하는 주주는 은퇴후 경제적 보장을 받고 인수받는 주주는
개인이나 회사의 경제적 큰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인수받는 방
법도 그중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20세기 중반으로 들어서며
건축설계에서도 서비스쪽이 강조되면서, 영웅중심(Star
Architect Centered) 보다는 조직(Organization Centered)
중심을 선호하는 건축주가 많아져 1,000여명이 넘는 설계사무



미네아폴리스 컨벤션센터



미네아폴리스컨벤션센터

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한다. 물론 영웅중심의 건축회사가 없어
질 수 없음은 사실이다.

두번째가 한국의 건축물, 한국의 건축사들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물론 그 방법은 여러가지고
재외건축가들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도 영문으
로된 건축잡지가 일본처럼 발간이 되어 세계의 건축가들이 매
달 받아 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는가?

세번째가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 중 몇분을
세계적으로 영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웅
을 역지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영웅은 주위에서 만드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 수는 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이런 영웅이 생기면
한국건축사들 모두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따른 덕도 볼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듯이 한
국도 공동설계작업을 외국 건축가들과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건축사들끼리도 활성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가장빠른 시일내에
세계화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설계작업에 있어 적극적인 참
여와 철저한 연구 및 노하우(Know-how)의 축적에 힘써주시
기 바라며 모든 한국건축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
러 외국에 사는 한국계 건축가들에게도 한국의 건축설계 발전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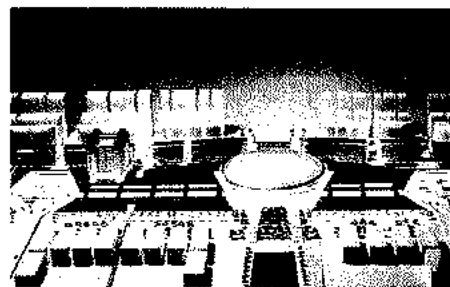
판단은 우리가 We Make the Decisions

황두진 / 재미건축가, 티에스케이건축
by Hwang Doo-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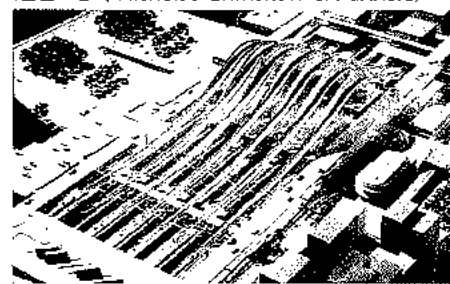
필자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교를 마친 후 재미건축가 김태수의 미국 사무실에서 지난 4년간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7월부터 김태수의 서울사무실에 티에스케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해외경험이 있는 국내건축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구별이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치 않으므로 그냥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보면 의외로 필자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건축가들이 많은 것 같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했거나 혹은 그외의 다른 상황에서 외국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결과이다.

한편 국내의 정보유입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으므로 한국에 앉아서 외국건축에 대해 논하는 경우 적어도 사진, 글 등의 자료는 모자라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 같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면 외국설계사무실에 다니면서 한국일을 많이 하는 한국건축가, 그리고 국내에 있으면서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해외건축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연구를 경주하는 한국건축가라는 두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 두 부류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놓고 해외파, 국내파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있는 구분방식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결국 이것은 작가론, 작품론의 몫이다. 건축가가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의 사람이건, 어떤 경로를 거쳐 교육, 훈련을 받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생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의 내용이다. 자기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유명 해외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대리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국내에서 잔뼈가 굵아왔어도 의미있는 국내파라고 보기 힘들고, 반대로 역사적 조건도 시대의 요구도 다른 상황에서 나온 여러가지 해외의 조류들을 직접가서 배워왔다는 이유로 수입할 것을 종용하는 사람이라면 별 필요없는 해외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건축가의 국적이 문제되지 않는다.

얼마 전 고속전철부산역을 하면서 체험한 것을 소개한다. 워낙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국내의 한 대형 사무소와 협동작업을 하였다. 도면, 모형 등 마무리단계의 대부분의 일들을 그 사무소에서 하였으나 우리 사무실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이끌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그 사무실과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설계안이 결정되곤 하였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기차역이기 이전에 도시속에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당선작
(건원+영국 Nicholas Grimshaw &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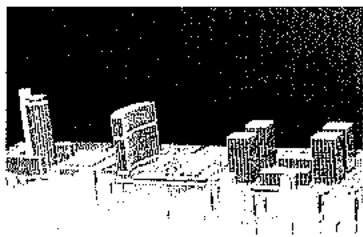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우수작
(포에이씨+영국 Rogers Partnership의 1개사)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가작
(서강+미국 Eason, Earl & Associates의 1개사)

지어지는 건물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케일,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 무엇보다 가까이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바다와 도시를 연계시켜 주는 것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알게된 것은 소위 한국의 '현상성'이란 것에 대해서였다. 현상에 붙기 위해서는 건물이 어떠한가 한다는 내용이 꽤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소신껏 설계를 했다. 뚜껑을 열고보니 우리는 입선이었고 상위 입상작들은 역시 기본적으로 현상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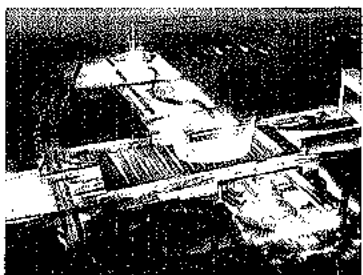
특히 거대하고 매끄러운 유리의 도움으로 구성된 당선안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했던 기억이 난다. 어쩔 수 없이 덩치가 큰 프로젝트였으나 그래도 도시 스케일에 맞게 분절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우리였다. 전혀 그 반대의 설계안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그 안 나름대로의 우수성은 인정하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김태수의 사무실이나 당선작을 설계했던 영국 건축가나 다 외국 건축가라는 자격으로 참여했던 것인데 설계의 경향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점이다. 국내의 건축계에서도 이 정도의 의견차이는 쉽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결국 설계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가작
(일신설계)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가작
(외림+미국 KMD, OVE ARUP)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가작
(정림+미국 OVE ARUP)

기본적 접근의 태도에 있어서
는 국내 건축가나 해외건축가
나 하는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
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역설적이지
만 건물이 기본적으로 어떠해
야 한다는 판단은 설계능력과
는 다소 무관한, 주제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
다. (그래서 비건축인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우
리는 이런 예를 많이 알고 있
다. 조선의 건국공산들은 건축
전공자들이 아니었지만 한양
이라는 도시를 구상해 낼 수 있
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과
일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판
단까지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명확한 문
제의식이 있으면 그 이후의 문
제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건축가와 협력을 하는데 있
어 필자는 한가지 의문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 건축가와 협동으
로 일할 때 그 취지로서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선진 건축설
계 기술을 습득하고자'라는 것인데 그 말의 실체가 무엇일까 하
는 것이 궁금하다. 설계가 기술일까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백번 양보하여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습득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무의미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필자는 기술이건, 생각이
건, 예술이건 간에 가장 바람직한 습득과 전달의 과정은 구체적
인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때론 부딪히고 때론 서로 통하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배움
을 주고 받는 것이지, 작업의 결과만이 오고 간다고 해서 무언
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작품집을 사서 집중 연구
를 하는 편이 더 빠를 것이다. 단순히 일을 진행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맺는 것과 배우는 것을 전제로 일을 하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역사속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해 정말
로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편안하게 앉아 리모콘을
누르고 있지 않았다. 직접 현지에 뛰어 들어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다 체험하고 때로는 그 땅에서 일생을 마
감하곤 하였다. 백제의 왕인이 그러했고 슈바이처가 그러했고
그밖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무수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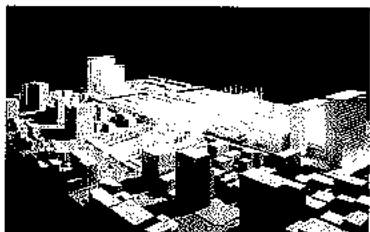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개인과 개인 사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건 가르침
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것이 못된다.) 우리나라의 일을 하고 있
는 많은 해외 건축가들이 혹시 자기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는 환상에 빠져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건축계와 건축가들에 대
한 일체의 투자와 애정이 없이 그냥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 뿐
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우
리나라에 대해서 의미있는 건축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외국 건
축가가 있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만사를 제쳐두고 몇 달 여행을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지 해서 한국을 알고자 하는 자
기의 노력이 안락의자위의 책 몇 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
여줄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한 두권의 책을 읽고 아는척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방법인가!) 그 정도의 노력을 보여줄 의사가
없으면서 한국 건축계에 무언가 영향을 주고자 한다는 말을 하
는 사람은 그저 장사꾼일 뿐이다.

필자의 이런 말이 이상스럽게 생각되는 사람들
은 반대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어렵게 공부하
고 일하고 하면서 체험을 통해 배워왔는지 생각해 보라. 외국
건축가들도 의지만 있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법규검토, 대관
업무 같은 것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을 설계계약의 조
건으로 한번 삼아 볼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법
의 단어, 온갖 콤플렉스의 근원인 '선진'이 있다. 순전히 기술적
인 의미에서 선진의 의미는 명확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설계에
있어서 선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감탄하면서 보는 유명 해외
건축가들의 작품들 중에 기술력이 모자라 지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로 선진적인 요소는,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
은 무엇인가? 의외로 대답은 소박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하고 싶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 하고 싶을 때 이를 가능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축가가 이야기하면 안되는 일이 해외 건축가가 같은 소리를
하면 받아 들어지는' 바로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의 내용이 정말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대건축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덜 축적되어있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
이라면 모르겠는데, 의외로 너무나 단순한 것들일 경우도 많다
는 것이다. 단순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까지 외국의 힘을 빌려
야 할 정도로 우리는 판단능력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가.

우리의 판단과 식견으로 보아 우리에게 없다고 생
각되는 능력이나 물자를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은 적어도 종속
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종속이면 자유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
들이 서로 종속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종속은 우리가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가작
(삼우+미국 Terry Farrell & Partners+영국)



부산통합역사 현상설계 가작
(김태수+미국 T.S.K Partners)

판단까지 남에게
맡길 때 일어난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
단할 권리가 있다.
세상없이 유명한
건축가가 '한국에
는 이런 건물을 지
어야 하오' 라고 해
도 우리가 판단해
서 필요없으면 그
만이다. 만약 그
의견을 받아들여
서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지만, 나쁘

다고 해도 그 건축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
이다. (훌륭한 경영자라면 경영부진의 책임을 경영 컨설턴트에
게 떠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근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운명
을 대신 판단해 주었는가.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의 그 판단이
옳았으며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형편이
다.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능력에만 자신이 있으면 상대가 국내
건축가 이건 해외 건축가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능력
만 있으면 댓가를 지불하고 의뢰를 하면 된다.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해외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며 국내 건축가들에게도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
다. 따지고 보면 해외 건축가의 힘을 빌리는 것 그 자체보다,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조건지워지는 것 자체
가 종속인 것이다.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것을 아까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부는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렇게 해서 잘 배우면 우리가 판단능력도 덩으로 얻게 되
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역사, 현
실, 문화 등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판단의 총체적 결과물들을
갖고 있다.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우리처럼 사무치게 경험한 나
라도 별로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체험의 보고를 충분히 갖고 있는 셈이다. 국내건
해외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빌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워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회에서 어떠한 환경
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
이다. 이것이 밀려오는 외국 건축가들에게 건축시장을 빼앗기
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 앞서서 생각되어야 하는 문제
이다.

국제공동설계 - 혼란과 초점

Chaotic Situation of International Design - Cooperation and it's Mediation

김진구 / (주)정립건축
by Kim Jin-Goo

다양화, 다변화라는 개념이 가치를 얻고 있는
요즘 개방, 세계화라는 국내 현실적 상황이 맞물려 상당한 혼란
이 우리 건축설계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러가지 명분하
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외국 설계사무소와 공동작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결과 또는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발주처, 건축주들의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건축사들의
무분별한 업무제휴도 그 이유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
한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이러한 연유들을 좀더 냉정히 생각해 보고 앞날의 우리 건축문
화를 위해 그간의 생각과 경험들을 정리하였다.

1. 현실의 인식

국제 공동설계의 대상이 되는 Project들은 복
합적이고 대규모적인 경우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능의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공공, 민간 Project 구분없이 건
축주들은 한결같이 그 목적을 좋은 Design을 얻고, 기능을 해
결하며, 투자가치 증대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두고 있으며,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들에 대한 불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외국 설계사무소들의 우수한 업무능력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좋은 개념, 개성 또는 특징있는 건축적
디자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듬어진 프로그램, 전문 분야별 능력
있는 Consultant들에 의한 각종 ENG. 분야의 설계품질보장
등 여기에 건축주를 설득시키는 표현 및 설명 능력의 우수함이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 설계사무소들의 능력과 여건에 비해 국
내현실에서 부족한 부분(특히, ENG. 분야의 업무지원능력
및 특수분야 설계) 있다는 것이 국내 설계사무소들에게는 괴로
움이 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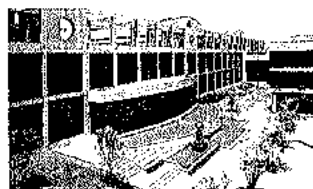
여기에 건축주측의 자세나 역할 및 의무수행에도 문제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 공공프로젝트들의 경우 대부분이 현상설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주들은 명확한 평가기준 및 설계목표와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고 각종 물리적인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건축가들은 구체성을 갖고 실현가능한 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심사위원들도 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부정적으로 이해된다. 발주처의 의무인 위 내용들의 불충분한 준비와 계획안 제안 자체를 설계자의 추상적 상상력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존 환경을 무시하거나 현란하고 과장된 디자인으로 심사위원의 안목을 흐리게 하거나 당선이후 설계과정에서 대폭적인 설계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 Project들의 경우에도 건축주측의 상황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비전(vision)없이 외국설계사무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여 잦은 프로그램 변경,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설계의 질저하에 의한 당초의 기대미달도 어렵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사무소라고 다 좋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설계사무소라면 항상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큰 잘못이며, 발주처 스스로 좋은 건축주라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중 중요한 것은 건축디자인에서 근본이 되는 우리의 자연, 도시, 문화 및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외국 설계사무소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우도 크게 나을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상설계의 경우 공동설계는 커녕 디자인이나 기술적 소화능력 없이 당선의 목적을 위해 “디자인 사모기” 등 스스로의 자존심을 없애고 무분별한 협동설계 등을 거리낌없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경쟁적으로 외국사무소와 손을 잡으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 설계사무소의 업무능력 및 행태에도 문제는 있다. 특히 순수건축설계 분야에서 그러 한데 국내프로젝트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거나 창의적 Idea보다 기존의 것들을 재생 반복하거나 겉만 포장하기도 하며, 국내현실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국제공동설계는 건축주, 국내 및 해외 설계사무소의 역할이 서로 엮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것이다.



선경그룹종합연구소 전경 (정림건축 +미 CRSS, LAB, Consultant)



선경그룹종합연구소 전면

2. 경험한 사례들

국제 공동설계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위해 유형별로 사례가 될 수 있는 Project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선경그룹종합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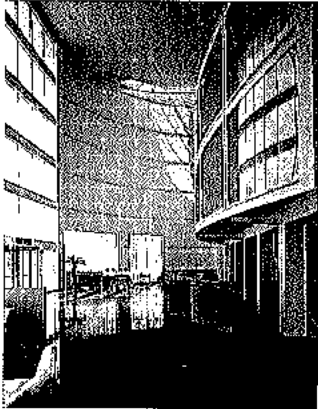
본 연구소는 석유화학계열 연구소로서 건축주가 미국의 설계사무소(CRSS)를 먼저 선정하고 국내 설계사무소를 추후에 선정하여 협동설계를 하도록 추진한 경우이며, 진행과정에서 당초 의도가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작업과정은 2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1단계는 미국의 CRSS사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작업하였으며, 정림건축은 마스터플랜을, CRSS는 마스터플랜 프로그래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1년후 재개된 2단계에서는 CRSS사의 업무가 연구소 설계경험은 있지만 LAB, Consultant의 협조를 전제로 한 건축설계에 국한되게 되어 연구소 전문설계사무소라는 의미가 없어짐으로써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정림건축이 직접 LAB, Consultant의 협력을 받아 구체적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LAB, Consultant는 미국의 E.W.A.사로서 루이스 칸과 공동으로 Salk Institute를 설계한 이후 현재까지 이 분야의 전문업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다. 주요 업무내용은 연구소의 주요개념인 실험실의 융통성, 적응성, 확장성을 최대로 갖기 위한 단위공간계획, 각종 Utility 공급체계 수립, 연구실과 실험실의 관계를 설정하는 평면의 유형개발 등이 있으며, 특히 실험실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 개발된 Interstitial System(이 System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시도된 경우이다)을 선정하였다.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현재, 사용하는 연구원들에게 연구환경으로써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사시설 관계자들에게 견학대상이 되고 있다. 설계당시의 작업방법은 국내에서 2회, 미국에서 3회에 걸쳐 공동작업 및 사용자들과의 워크숍(workshop)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건축 설계사무소와 LAB, Consultant의 협동이 잘 이루어져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삼양사 중앙연구소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본 연구소는 미국의 P.W.사와 계획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작업은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건축주와의 수시 협의에 의해 계획안이 진행되고 결정되어졌다. P.W.사의 업무는 우리와 같은 건축가로서의 역할이었으며, 작업은 짧은기간



삼양사중앙연구소 로비

인 1.5개월동안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정림건축 자체의 DESIGN REVIEW 및 건축주측의 관심사였던 풍수지리의 합리성에 대한 인정 등 서로의 견해와 문화가 이해된 효율적인 진행이었다. 이러한 공동설계를 통하여 정림건축의 설계팀은 스스로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연세의료원 새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부지에 신축되는 이 병원은 1,000개의 병상을 갖는 규모가 큰 병원이다.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갖기 위한 건축주측의 의사에 부응하여 병원건축의 경험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림건축에서는 미국에서 병원건축 실적이 많은 E.B사를 공동설계자로 선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작업진행은 건축주가 제공한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서울에서 2개월간 공동으로 기획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병원측 관계자와 워크숍(workshop)을 시행하여 기본개념을 충실히 정리하였다. 계획설계는 5개월의 기간동안 전후반 1.5개월씩 정림건축 설계팀이 미국에서 작업하였고, 중간에는 서울에서 건축주와의 워크숍(workshop)을 통한 협의가 있었다. E.B사의 주요업무는 병원의 업무기능, 시설, 장비, 운영방침 등과 관련한 Medical Plan을 주로 담당하였고 공동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정림건축 설계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후 단계는 정림건축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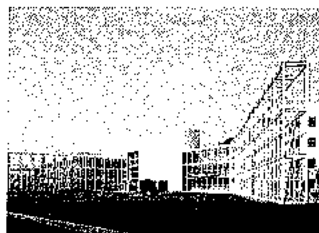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의 개방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설계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동설계의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가는 스스로의 작업에 대한 가치기준 설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라는 행위를 경제적 가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문화행위로 인식함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과 내용의 공동설계일지라도 스스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설계의 모든 단계를 수행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스스로의 입지와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배움이 있어야 한다. 계획설계를 외국사가 주관적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라도 국내팀을 공동으로 작업 또는 참여토록 해야 그 단계에서 외국사의 장점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며, 다음 단계에서 국내사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명실상부한 공동설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외국의 특정한 협력분야를 설계조직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서 해당 협력분야는 국내의 기존 협력사의 업무능력이 약하거나 전문조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외국 협력사는 상당한 업무능력과 경험이 축적된 업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업무에 대한 매우 치밀한 분석과 아예 다른 문제점 이해 및 설계목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당초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설계를 진행하게 될 경우라도 해당 국내설계사무소의 업무능력이 이에 걸맞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상당한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 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주도적이거나 상호 대등한 상황에서의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그들의 Know-how 등을 우리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공동설계와 관련하여 다시한번 정리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며, 그래야 당시 뿐 아니라 앞날에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 건축의 발전을 위해 배움이 필요한 부분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검허하게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매진해야 하며 세계를 향하여 항상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연구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면 우리 건축계는 좀더 건실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내 프로젝트가 아닌 외국의 프로젝트들을 공동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빨리 갖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삼양사 중앙연구소
(정림+Perkins & Will)



연세대 새병원
(정림+Ellerbe Becket)

공동 설계 작업의 실례와 바람직한 공동설계

A Collaboration between Foreign Architects and Korean Architects

정영균 / (주)희림건축
Jeong Young-Kyoon

1. 서론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내의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외국건축사무소가 단독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공동설계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공동설계를 수행하는 목적은 물론 우수한(?) 설계능력과 특수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많은 실적과 경험을 갖춘 외국 유명 설계사무소와 국내의 사정에 밝은 국내 설계사무소가 협력하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이 경우 설계작업의 배분이 양측 국내 사무소와 외국사무소 간의 중요한 협상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국내의 설계사무소에겐 뜻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과연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설계작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1996년에 이루어진 국민은행 본점의 현상설계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국민은행본점 현상설계에서 공동설계 수행의 성격

국민은행 현상설계는 지침에서부터 국내사와 외국사의 합작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명현상으로 수행된 이 현상에서 지명 받은 3개 사무소는 각기 기존의 공동작업의 경험이 있는 외국사(미국 2개사, 일본 1개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작업의 방법은 2개사의 경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고, 본 설계사무소는 보편적인 다른 공동설계와 그 성격을 달라하였다고 본다.

현상설계의 진행은 크게 지침의 분석, 계획설계, 프리젠테이션의 세 단계를 거친다. 공동설계의 경우, 여기에 계약의 단계가 추가되는데, 계약의 단계에서 바람직한 공동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진행의 전반에 걸친 국내와 외국설계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은행 본점 현상의 경우 대부분의 핵심적인, 중요한 작업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입면의 디자인은 외국설계사무소에서, 모형제작과 투시도제작은 본 사무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또 다른 외국의 전문업체에서 이루어졌다.

- 계약의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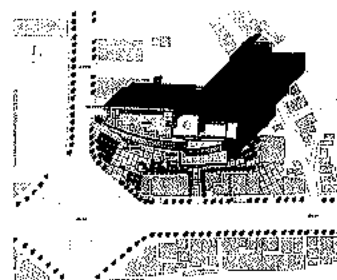
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의 주체를 정하는 일이 시작된다. 이 계약서에는 단계별의 포괄적인 업무분담과 책임이 규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단계의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내의 여타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공동설계가 거의 전적으로 외국사에 맡겨지는 것은 계약서상의 업무분담내용에 의해서인 것만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일임하고자 하는 사고(思考)가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

- 지침 분석의 단계

설계지침은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스스로 혹은 전문운역기관에 의뢰하여 현상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의 프로그래밍부터 법규의 검토, 규모의 산정, 형태계획 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가 현상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설계지침에 대한 확실한 이해 및 해석이 현상설계의 성공여부로 직결된다. 이 단계에 있어 국내설계사무소와 외국설계사무소의 이해도의 차이는 극명하다. 특히 건축주의 취향, 국민적 정서, 주변환경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법규 등에 대한 이해에 있어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무소가 그 역할을 전담하고 있으며, 그것은 국민은행 현상설계의 경우에서도 3개 참여사무소가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 계획설계의 단계

계획설계는 지침의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지침에 대한 명확한 건축적 해석이 없는 경우, 현재의 제반 상황을 외면하고, 형태만을 추구하는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 국내설계사무소와 외국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가장 좋지로는 국내의 능력있는 건축가가 지침을 숙지하고 그것을 계획에 효과적



국민은행본점 배치도

로 반영하는 것이며, 가장 나쁜 지침의 분석과 디자인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이다. 많은 경우, 이 단계의 역할을 외국의 설계사무소에 전담을 시키며, 국내사무소의 역할은 법규의 검토 정도에 국한되어 아무런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의 실패가 현상안의 실패로 드러난다.

국민은행 현상설계의 진행에 있어 계획설계단계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으로 나누어졌다. 1. 계획안의 제안, 2. 제안된 계획안의 검토, 3. 계획방향의 결정이 그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업무에서 본 설계사무소가 배제된 경우는 없으며, 특히 계획방향의 결정과 계획안의 제안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안과 방향의 결정이야말로 계획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완성된 계획안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국민은행의 설계에 대해서 이 건물의 설계자가 본 설계사무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전달과 정보의 교환이다. 예전 같은 경우, 팩스와 전화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우편이나 인편이 아니면, 작업내용의 직접적인 전달은 힘들었을 것이어서 외국업체에 작업을 일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강력한 정보교환의 수단인 인터넷이 있으며, 전자우편, 즉 E-MAIL을 사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서로의 작업내용을 주고받으며 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면 정말로 본격적인 공동작업이 가능할 것이며, 실제 국민은행의 현상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작업은 이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적어도 1일 1회 이상의 팩스와 전화, 그리고 전자우편의 이용으로, 서로 설계의 진행을 검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교환하였다.

-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모델과 투시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설계사무소나 외국전문업체의 노하우(know-how)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수행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아이디어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항상 본 설계사무소의 몫이었다. 외관에서 표현되는 건물의 분위기 역시 설계안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며, 국내의 실정과 정서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면의 디자인과 모델, 투시도 작업은 각기 외관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그 성격이 거의 비슷하며, 각 작업자간의 긴밀한 업무의 연락과 협조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외국설계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설계를 진행하는데 있어 국내사무소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국내사정에 적합한 건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내사무소가 외국사무소에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3. 국내사무소와 외국사무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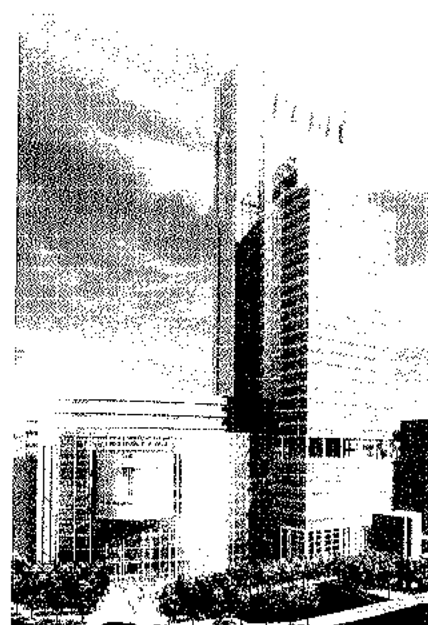
공동설계 작업을 통해 현상에 당선하고, 1996년 12월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느낀 국내사무소와 외국사무소의 특징을 간략히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설계사무소

- 강점
 - 국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며 건축주의 의도를 잘 안다.
 - 문제점
 - 특정한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 설계를 전달할 경력자가 부족하다.
 - 작업의 분업화되어 있지 않다.
 - 대형사무소의 경우도 영세한 사무소와 같은 방식의 운영형태를 취한다.

2) 외국설계사무소

- 강점
 - 많은 경력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화/분업화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작업의 경우 효율성이 높다.
 - 특정분야의 특수한 건축물에 대한 경험과 건축실적이 많다.
 - 문제점
 - 그들은 우리의 건축적 실정을 잘 모른다. 기획단계에서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주위의 환경을 무시한 설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본점
(히립+Kaplan, McLaughlin, Diaz)

특히, 외국설계사무소가 국내의 사무소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 설계진행과정의 체계화

설계 진행과정의 체계화야말로 외국설계사무소와 국내설계사무소의 가장 대별되는 특징일 것이다. 외국의 설계사무소,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는 미국의 설계사무소가 되겠지만, 그들이 설계과정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본받을 만하다. 프로젝트가 착수되면 먼저 그에대한 열정이 전해지고 예산이 할당되며 정해진 계약과 스케줄 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배경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건축사협회, 즉 AIA의 지침서에는 계약서에 관한 내용, 프로젝트의 일정관리 등에 대한 내용도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팀워크

외국설계사무소가 모두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점 중의 하나는 팀워크이다.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와 프로젝트 디자이너는 직함상의 구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의 대별 또한 놀라운 점이었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전적으로 매니저가 하며, 디자이너는 프로젝트의 설계에만 완전히 전념한다. 팀워크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누군가 만약 작업진행과 디자인을 병행한다면 그것이 효율적일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애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건축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은 이들을 분리하는 것에 어느정도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본과 기술이 없는 건축사무소는 도태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혹자는 빨리 개방되어 낙후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한다. 어떻게 건축시장은 개방되고 있다. 무엇으로 살아남고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어려운 물음이지만 우리나라의 건축사무소가 설계진행과정을 체계화하여 쓸모 없는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팀워크로 효율적인 운영을 지금보다 배가한다면 할로는 열리지 않을까?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엔진을 포함한 모든 부품이 국산화된 차를 원한다면 지나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최소한 상표자체는 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햄버거에 국산이름을 붙여 팔지는 류의 이야기는 아니다.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설계작업을 진행하지는 이야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든 현재의 대부분의 건축주는 서양이 일류, 우리가 이류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외국의 저널리즘에 알려진 건축가들

이 대거 입성하는 마당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시장이 그들의 상품시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4. 바람직한 공동설계의 방향

많은 국내의 사무소들이 현상설계시 현재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설계권을 떠내자고 하는 것일 것이다. 외국 유명설계사무소의 이름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작품에 '무게'와 '신뢰'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그 설계가 좋은 작품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힘들며, 설계권을 확실히 떠내는 것도 아니다. 외화낭비의 차원을 떠나서 국내 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해외 선진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은 국내설계사무소가 빠른 시일내에 해외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작업의 노하무를 습득하여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해외와의 합작설계는 행정상의 허가자가 국내건축사라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설계의 경우 이런 상황을 국내건축가가 앞장서서 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땅에 우리의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현재와 같은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 그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면 공동설계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국내사무소는 법규, 대관청 행정, 실무와 관련된 조정업무 등의 기존의 모니터링 업무를 넘어서, 설계초기의 개념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의 건축계가 체계적인 조직운영 및 특수 협력업체와의 협업방식에 있어서 아직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협업과정을 통하여 국내 설계사무소는 디자인 감각에서부터 설계 프로세스 운영 및 전문 컨설턴트의 협력과정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노하무를 축적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소의 운영, 조직의 구성 등에서도 많은 참고와 개선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경험의 축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과 설계업무진행의 개선을 통해서 당당히 단독으로 외국의 설계사무소와 경쟁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건축시장 개방과 우리 건축가 찾기

The opening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and Korean Architect

신재순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
by Shin Chae-Soon

1. 서 언

몇해전 쌀시장 만큼은 개방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며 마땅히 그렇게 되리라고 장담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주무부서의 장관은 개방할 수 없는 우리의 속사정과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개방을 유보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자간 국제회의로 향했지만 그가 귀국하기도 전에 쌀시장의 개방결정이 발표되었다. 시민단체와 사회여론이 비등했고 서울 거리는 연일 농민들의 성토장이 되다시피 했었다. 농민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각계의 전문가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막상 품질로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명한 결론에 먼저 도달한 측은 최대의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의지는 아픔을 겹고 경쟁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발전되었다. 이에따라 농산품의 대부분에는 농사지은 사람의 실명과 연락처까지가 표기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우리의 농산품들은 고급으로 인식되고 있고 수입상품보다 비싼 값을 치뤄야 함을 알고 있으며, 농민들 또한 소비자들의 기호와 입맛의 민감한 변화 등을 경쟁적으로 연구하여 자신의 상품을 찾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무역환경의 새질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기본원리에 대한 우리정부의 무지에 의해 초래되었던 우리 농촌의 질곡과 홍역에 비해, 우리 건축설계 및 건설시장의 개방은 훨씬 전부터 감지되고 예고되어 왔다. 즉 개방의 논의가 시작되기보다 훨씬 전부터 외국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다수의 대형건축물들이 서울 시내에 들어선 바 있으며, 그때마다 법으로 정해진 울타리를 거뜬히 넘은 외국건축가들의 작품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러한 논란은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우리의 건축설계분야에 이들이 등장토록 한 건축주에 대한 비난과 자성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기 일쑤였으며, 법적 울타리의 높이를 좀 더 높히자는 정도가 대안제시

의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설계사무소의 대형화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즈음부터 한국의 설계사무소 이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건축가의 아이덴티티보다는 규모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여기에 공정거래와 같은 경제논리 등이 가세된 나머지 정부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설계의 발주와 수임의 경로에 건축가의 이름이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건축계에 설계를 위임하는 방식은 다음의 몇가지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데, 이 방식들은 건축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묻고 갔으며,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훼손하고 있다.

2. 건축가 선정 방식

가장 흔한것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다. 이는 건축설계를 맡아 할 건축가를 찾는데에 목적이 있다고는 해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최악의 것이다. 즉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건축사 또는 그 대리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해진 규칙에 의해 경쟁을 하는 것인데, 민망스럽기로는 이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 고만고만한 예정가격 열 개를 열 개의 쪽지에 적어 통속에 넣고 이중 세 개를 뽑아 평균한 것을 그 프로젝트의 비밀스런 기준설계비로 삼은 후, 법으로 정한 하한기준선 위로 제일 가깝게 맞춘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설계할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무전판 동경보다 낫다고 할 것 없는 불성 사나운 일이 하루에도 몇번씩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한 참여가 있기 때문인데도 '건축사는 어떠한 경쟁입찰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 건축사협회의 공식입장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격경쟁을 통한 것이지만 이 방식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 참여의 폭을 줄인 것이다. 앞의 방식으로 시행하니 너무 많은 희망자가 있어 여러가지로 소란스럽기도 하고, 발주자의 의도와 달리 능력도 없는 낙제생이 고르기 문제를 심심치 않게 맞춰대는 아변을 깊이 염려함에 이르러 고안한 것이라는 주최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낙제생만을 가리켰다는 이 기준도 보기 고약하기론 못지 않다. 이 변별의 방법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실적제한이다. 이를테면 대학교육시설 -3,320㎡, 병원 -1,980㎡이상의 건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을 것을 명시하는 것 등인데, 염려함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으면 한두가지 제한이 더

따를 수도 있다. 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구조, 상하수도,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분야를 신고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사무소의 위치가 어떤 특정지역에 등록되어 있을 것의 조건을 더해 놓으면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무소는 전국을 통털어 많아야 대여섯에 불과하게 돼버리므로 차라리 계모임이나 비밀결사와 닮은 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긴 이름을 지어 갖고 있어야 하지만, 계모임과 비밀결사의 운밀한 질서를 모르는 한 낙제를 면할 수 없음을 마친가치다. 몇십m의 면적도 기감할 셈법도 모르고 용도가 달라지면 설계능력 자체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워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한다. 각방 쓰면서도 얼마든지 조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인데도 기어코 응색한 한집 살림을 처리하게 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곡절이 있어서이고, 미리 살피는 해안의 발로라는 것이 배경설명이다.

즉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형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므로 앞쪽부터 그렇게 되도록 포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문을 열고 겨루어 보기로 한 이 글로벌 시대에는 규모와 경제의 힘겨루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문화적 힘겨루기도 있음이 문제이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시절서부터 이미 우리마당을 지나 안채까지 드나들고 있는 글로벌 건축가들 중 수백명의 규모와 수백억의 경제를 앞세워 담장을 넘어온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규모와 경제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문화의 교섭과 삼투원리에 의해 언제나 정중하게 초대되어 들어선 것이며, 몇번을 파산한 끝의 곤궁함이 이룰데 없어 고정적 세명에 임시직 두세명으로 일을 하는 글로벌 건축가의 작품도 서울에 속속 세워질 것이다. 이렇듯 글로벌 시대의 세상이치가 경계 허물기인데도 울타리 고쳐치기로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살핌을 개방된 이 세상에까지 업고 오기엔 너무 큰 짐이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의 방식에 또하나의 관문을 세운 것으로, "설계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평가서 제출안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 수행을 원하는 사무소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심사하여 우열을 가려 등수를 정하고 가격경쟁을 시키는 것이다. 현상설계처럼 설계안을 두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위원의 필요는 애당초 없으며, 주최자가 산술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몇몇가지 사항들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대체로 공통적인 사항들로는 사무소의 재산상태를 비롯해 등록된 경력년수, 같은 용도의 건물을 설계한 경험과 횟수, 사무소의 인원과 자격의 등급 등이다. 각각의 항목을 계량하여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주최자는 제 나름대로 갖고 있기 마련이지만, 계량과 환산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지경이고 보니 그 점수와 설계능력에 진실된 함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원초적 의문을 갖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된다. 필요에 따라 합종연횡하여 재산과 경력에 허세를 도모하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획안의 내용과 수준 역시 부분점수로만 계량되므로 그 탁월함이 돋보인다 해도 으뜸자리에 앉는다는 보장은 없다.

전제점수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설계비와의 기묘한 산술적 메카니즘을 모르고서는 으뜸가는 점수로도 끝자리로 실족할 수 있고, 포기상태의 끝자리가 으뜸자리로 올라와 설계권을 거머쥐는 이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참가하는 사무소들은 대개 이 메카니즘에 해박한 전문가까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규모는 커지게 마련이다.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건축가를 찾는 이 세가지 유형의 방식에는, 자세히 알면 서로 안스러울 것임을 짐작한 나머지 쓰여지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 즉 건축설계의 본질과 참여자를 잠시 접어두고 건축설계에 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며, 울타리를 없애기로 약속함을 민방에 알리고서도 될 수 있는 한 울타리의 잔상속이라도 모여 건축가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익명의 다수가 되라는 것이다.

3. 설계경기에 대해

이렇듯 건축설계의 본래 모습과 건축가의 아이덴티티를 접어두고 이루어진 건축이 작품의 반열에 들어선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자극히 당연하다. 또한 애당초 건축주와 건축가의 대화와 믿음없이 작품을 만들기란 불가능한 것임을 모르지도 않았으므로, 명령에 따라 색깔없는 유니폼으로 준비뻘서기를 일삼았던 건축계 전체의 탓이 작지 않다. 프로젝트의 공급과 건축가의 선정과정에 정신이 갇들게 해야 함은 우리의 권리 이전에 의무라는 인식에서의 대안모색이 설계경기 또는 현상설계 방식이다.

설계경기는 일단 건축주가 건축가와 보다 건축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힘주어 강조한 것으로서, 시작부터 꿈을 펼쳐보려는 건축가에게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건축가 모두에게 늘 환영받을 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건축가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배움의 지평이 선보여지기를 기다리게 만

드는 커다란 힘이 있다. 이렇듯 설계경기가 꿈과 기대를 모으는 힘이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우선 건축주의 의사를 설계경기지침서로 분명히 밝혀 다수의 건축가에게 미리 전달함으로써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어느 한쪽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축가의 창의적인 노력의 발휘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즉 건축주와 사회의 건축적의사에 동시에 근접하는 안이 작성되어 건축주와 건축가에게는 물론 우리의 환경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둘째, 학계나 건축계의 지도적 인사들이 심사 과정에 관계하기 마련이므로 오늘날 우리사회의 건축적의사와 건축적기준이 자연스럽게 개진되고 이러한 건축적 의식의 교환이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며 내일의 좌표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기능할 것을 믿어서였다.

셋째, 건축주와 건축가가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긍정적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면에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앞선 세가지 유형의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설계경기는 보다 많이 장려되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건축과 건축가들이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졌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기대중 어느 하나도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한국건축의 내일을 낙관하지 못하게 한다.

얼마전 국립중앙박물관의 설계경기 지침서처럼 상당한 노력이 선행된 설계자료가 배포된 일도 없지 않지만, 건축가의 상당한 노력으로 당선된 프로젝트가 규모의 대폭적인 변경이나 설계지침의 변경으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건축가가 건축주로부터 우여곡절을 당하거나 현상설계를 통해서 설계업체와 그대표자를 선정한 것이지 건축가와 계획안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수모스런 말을 듣게되는 경우도 있다. 즉 발주방식의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상설계의 방식은 취하되, 당선자가 선정된 후 협의껏 설계프로그램이 다시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이다.

계획안과 건축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무모한 논리는 설계경기에 대한 첫 번째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두 번째의 기대 즉 건축가의 건축적의사와 심사자의 건축적 기준들간에 빚어지는 비평적 평가의 공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건축에 대한 가장 치열한 의식이 교섭하는 장이 되어야 할 설계경기가 등위를 정하는 단순한 절차로 왜곡되기 때문에, 건축계 전반은 물론 사회의 시선을 유도해 내지 못한다.

건축에 대한 사회의 기대수준과 이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과 변용의 시도 및 심사위원의 평가가 서로 함수의 관계로서 널리 알려지지 못함으로써,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있다. 건축가는 그들이 빚어내야 할 사회의 건축적 의사를 알지 못하며, 건축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교섭과 대화의 언어를 상실한다.

4. 결 언

이러한 실어증은 우리사회의 건축과 건축가들이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여겨졌던 설계경기의 내용을 상당부분 왜곡시키게 되는 배경이 된다. 즉 이방의 건축가들에 의한 대리발언이 활발해진다. 우리 건축가들은 이런 과정속에서 보다 하드웨어적인 역할로 후퇴함으로써, 조형의지의 발언 차원에서는 익명으로 남는다.

이러한 우리 건축가의 실어증과 익명화 과정을 깊이 성찰하지 않은 체로 개방과 그 대응방안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건축가의 이름을 다시 찾아 발언하도록 자극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부의 등에 업혀 있거나 이방의 건축가에게 플러스 된 이름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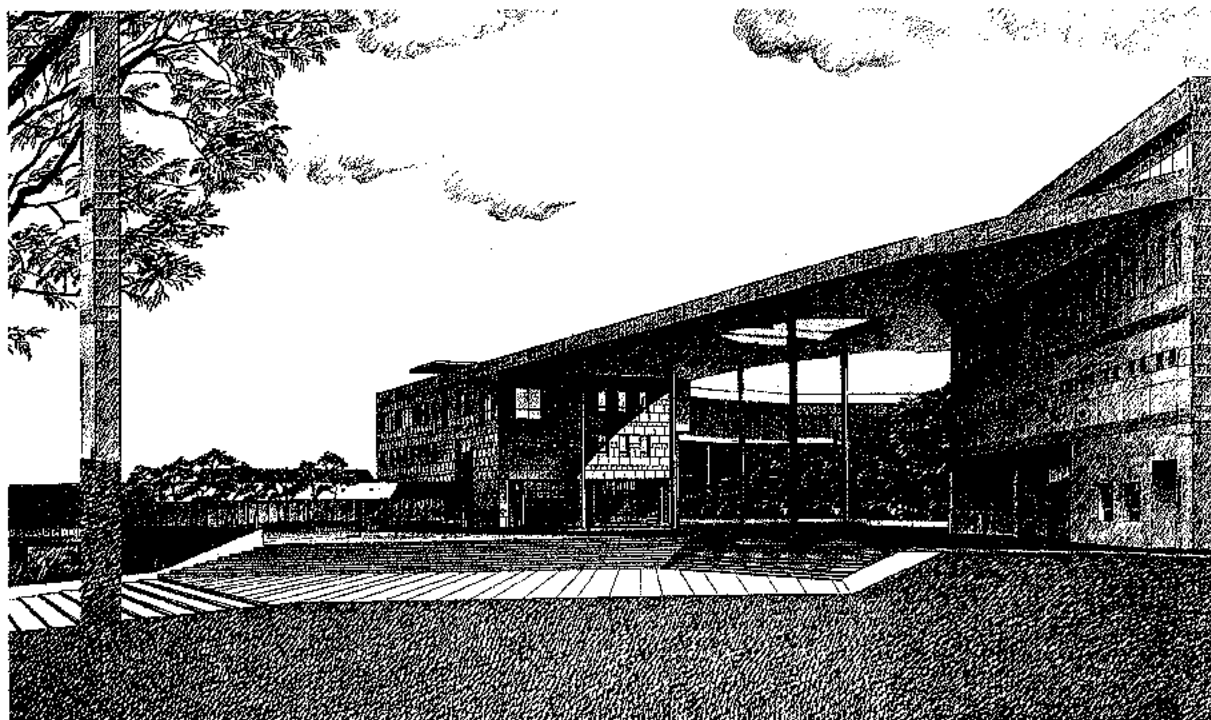
성남여성복지문화회관 및 중앙도서관 Seongnam Women's Welfare Center & Library

이성관 / (주)한울건축 건축사사무소
by Lee Sung-K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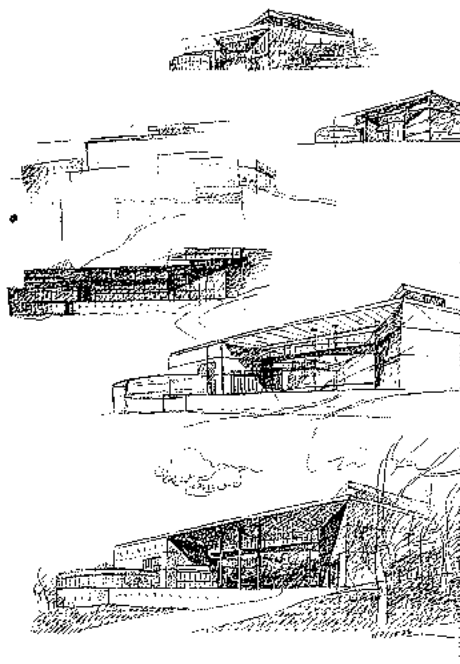
현상공모란 참여자 모두에게 무한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그것은 마치 복싱경기에서 12회전의 한정방식 대신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진행시키는 무한게임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한동안 현상참여를 가급적 자제해 왔었다. 물론 참여한다고 쉽게 우리안이 선정될지도 만무했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줄곧 도심속에서 단일 오브제로 '서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인지라 근자에 와서는 「땅위를 기는」 건물설계를 무척이나 하고 싶어했던 터였다. 그러던 어느날 서초지역건축사회로부터 FAX 한장이 날아왔다! 우리구 회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사실 나는 이 점이 맘에 들었고 늘상 그 수고를 고맙게 생각해 왔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이 세상과 교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도해 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참여신청을 하였다. 서울과 근접한 성남시이기에 상대적으로 지방색(?)이 좀 덜하리란 피상적 기대도 있었고, 기존지형과 수목의 보존을 지침서상 누누히 강조한 점 등으로 보아 주최측이 보다 아카데미한 제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여겨져 안심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였지만, 그 이후 성남시로부터의 전화벨은 결국 울리지

않았다. 건축에 있어 미완의 작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에 대한 아쉬움에서 기억속으로 저장될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최측의 결과를 따지기전에 이러한 지적 게임속에서 상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추측, 추리하며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일련의 시간과 주어진 룰속에서 최선을 다하였기에 우리의 성과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여러번을 차지하고 결국 현실성의 경쟁에서 밀렸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미완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싶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지에, 여성복지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의 두가지 기능으로 배치안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전체대지는 경사면으로 기존녹지가 조성되어있고 대지 중심부에 언덕이 형성되어 자연적인 경계요소로 대지를 가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격과 주어진 대지의 공통적인 '이분성'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크게 여성복지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으로 2개의 기능군을 2개의 지형축에 따라 분리하여 기존 지형과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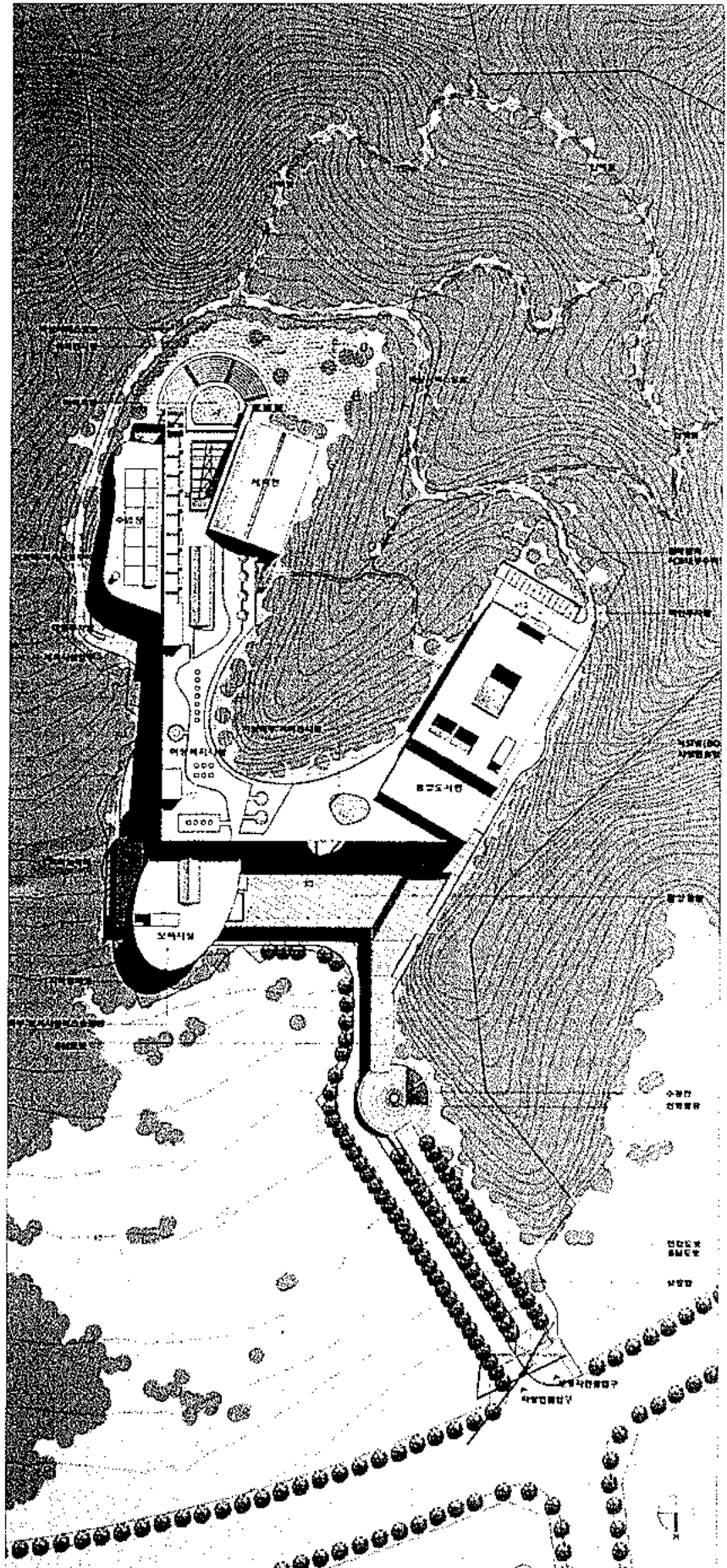
전면 광장 투시도



부분 스케치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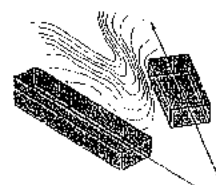
위 치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산 151-1 번지의 29필지
대지면적	94,934평(28,718㎡)
지역지구	보존녹지지역
건축면적	9,068㎡(2,748평) 여성복지회관-6,289㎡(1,906평) 중앙도서관-2,779㎡(842평)
연 면 적	28,099㎡(8,514평) 여성복지회관-10,877㎡(3,296평) 중앙도서관-12,451㎡(3,773평) 공동부분-4,771㎡(1,445평)
건 폐 율	9.56%
용 적 륜	29.60%
층 수	여성복지회관-지하 1층, 지상 3층 중앙도서관-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철골트러스조
정 화 조	부패탱크방법
외부 마감	T30mm 화강석버너구이+알미늄 복합패널
주차대수	193대(옥내 : 176대 옥외 : 17대-대형버 스 주차장 : 15대, 승용차 주차장 : 12대) 주차대수 지침 : 법정주차대수×2 84.3×2=168.6(193대)
설계담당	구만일 정규백 양길수 김서균 이재익 김현조 한동석 박경웅 황환진 조주희 서영주 김영상 이홍주 차종연 엄덕훈
C.G.	변상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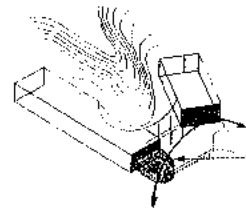
배치도

기본배치의 개념이었다. 주어진 계획의 지침상 2개의 프로그램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함께 묶어 줄 수 있는 건축적인 연출도 고려하게 되었다. 2개의 공유부분을 많게 하여 프로그램이 서로 겹치게 하는 대안도 제시되었으나 서로 상이한 두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섞이기에는 두개의 건물의 이용자의 성격과 활동의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상 2개의 프로그램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끌어내었다. 그러나 공유할 수 있는 관리시설부분은 지하 하부에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이점을 파악하였다. 분리되어진 두개의 프로그램을 전체대지에서 하나로 읽힐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지자체를 바탕으로 둔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단지로 상징화할 수 있는 시도였다. 구분되는 프로그램을 큰 고민없이 이격하여 각각의 성격으로 소화할 수도 있겠으나 별도개념의 디자인이 이루어지기에는 전체 대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미 중앙부의 언덕이라는 자연요소로 충분히 두 프로그램의 구획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이러한 자연요소를 더욱 건축적 요소로 묶어주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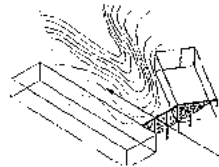
전원도시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열린문 형상의 정면 연출은 이러한 고민끝의 시도였다. 분리되어진 두개의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기능면에서는 각각의 독립체로 운영되지만 서로가 통합되게 보이는 정면의 연출은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열린 문 형상의 피로티와 함께 전면 중앙광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앙광장은 입체적인 건축화된 대지이며 하부에는 주차장과 관리의 기능을 담고 있으며 표면은 비워둔 평탄면의 장소로 야외 이벤트시 약 10,000명의 수용이 가능한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한편 후면의 문형상의 피로티를 통해 후면의 녹지와 하늘의 자연요소를 진입자로 하여금 더욱 더 가까이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을 의도하였다. 또한 기능상이 정면의 피로티 하부를 통해 각 시설로의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분배되어진다. 이러한 보행자 동선에 대한 고려는 전체 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진입시부터 성남 상징탑의 하부를 통해 독립적인 보행로를 확보하여 차량동선과 구별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보행동선의 흐름은 단절되지 않고 건물 안으로까지 이끌어진다. 즉 여성복지문화회관에서는 거리의 개념을 가진 주 동선이 건물내부를 관통하면서 동선과 서비스를 분배하며 천창과 주변산으로 열린 공간을 구성하고 서측면의 도서관의 주동선은 메이저 스페이스인 중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동선이 배분된다. 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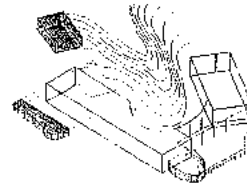
채나눔(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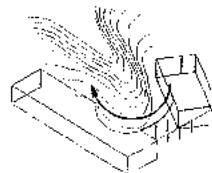
정면성(FA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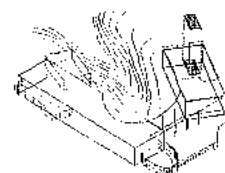
연결(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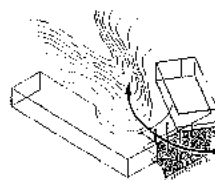
첨가(AD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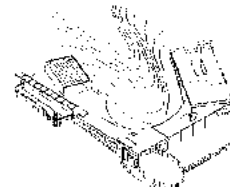
순용(ADAPTATION)



중정(COU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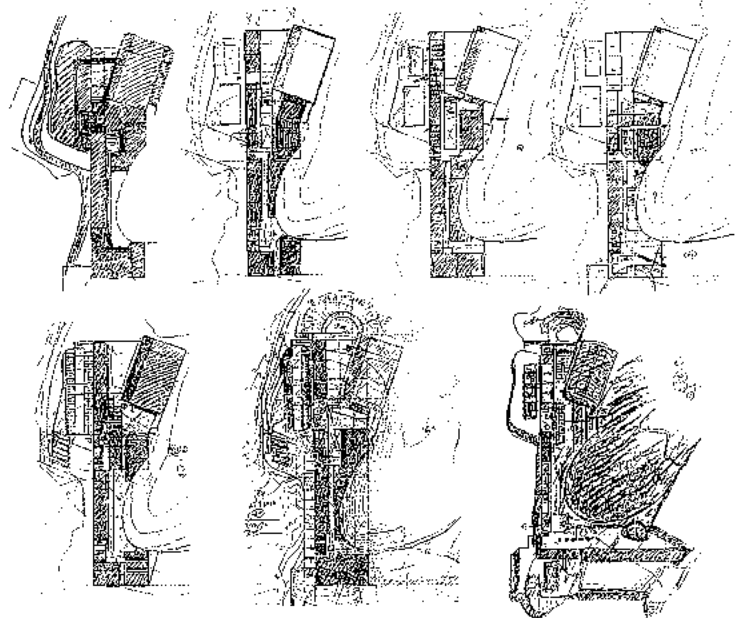


중앙광장(PAL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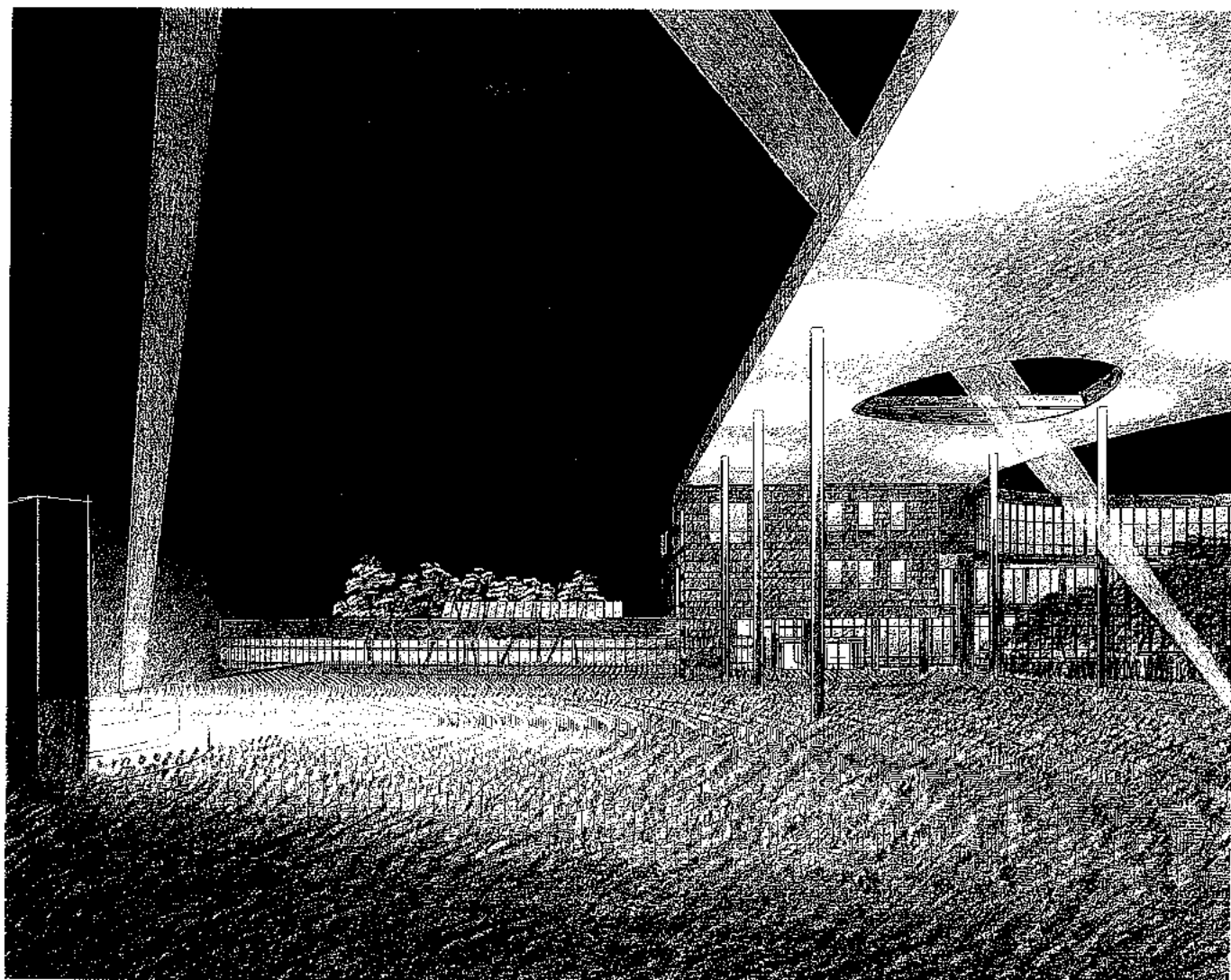


완성(COMPLE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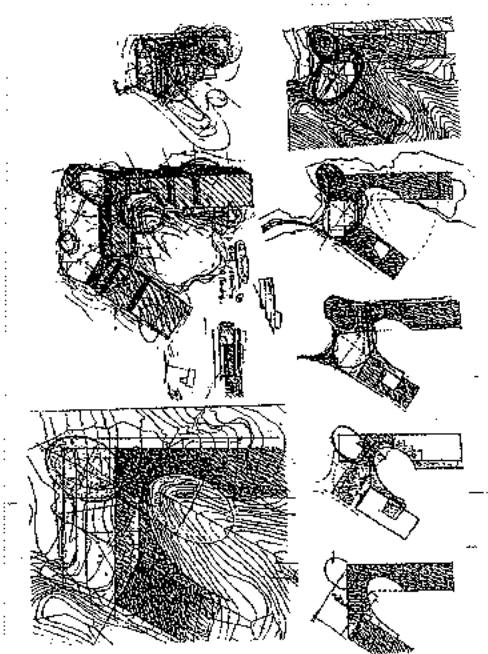
배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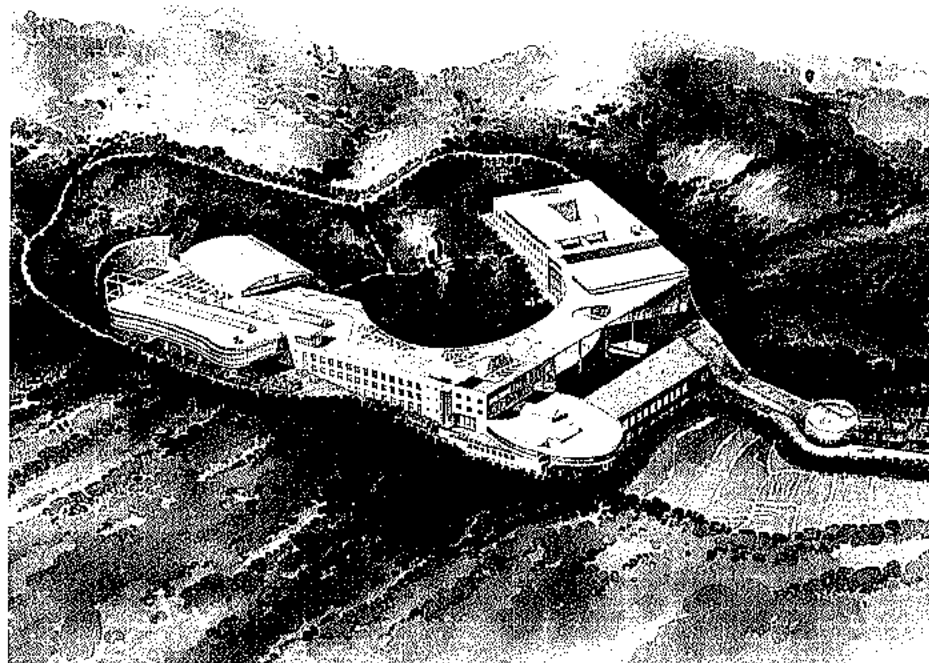
부분스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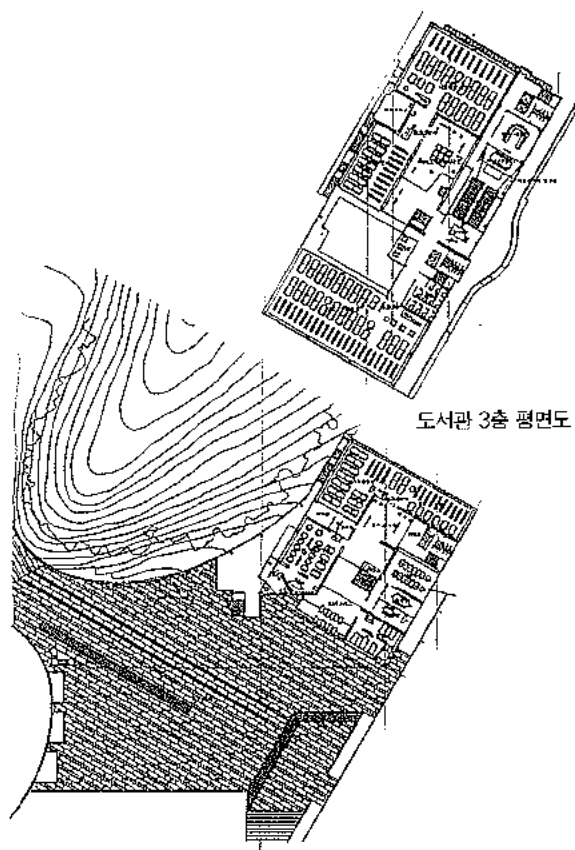
전면광장-올림픽악회



부분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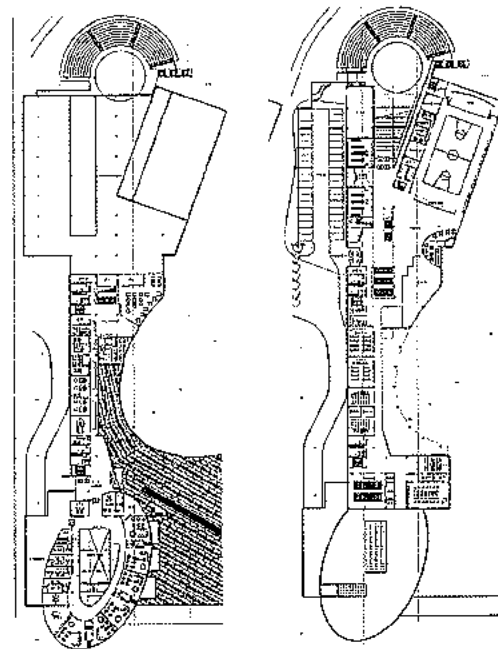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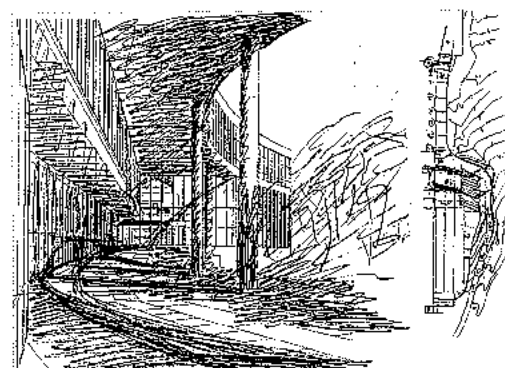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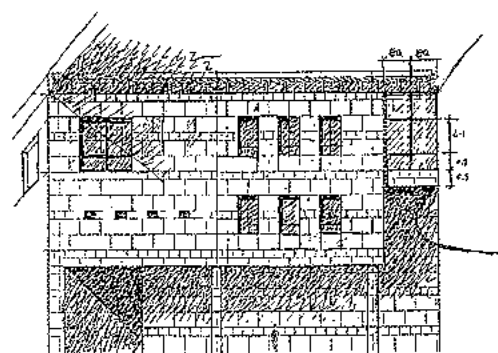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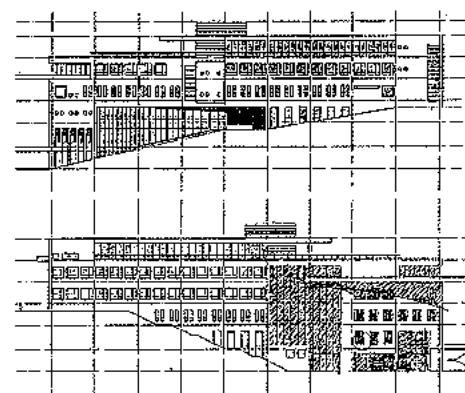
도서관 3층 평면도

도서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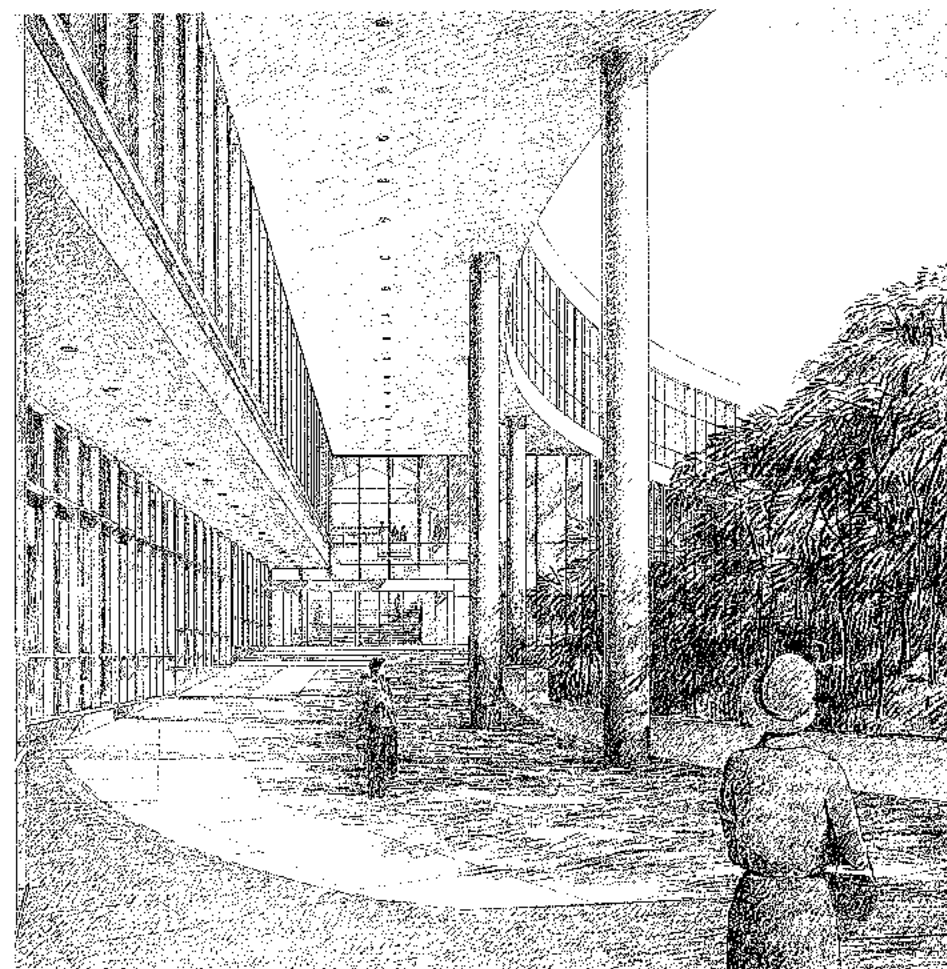


회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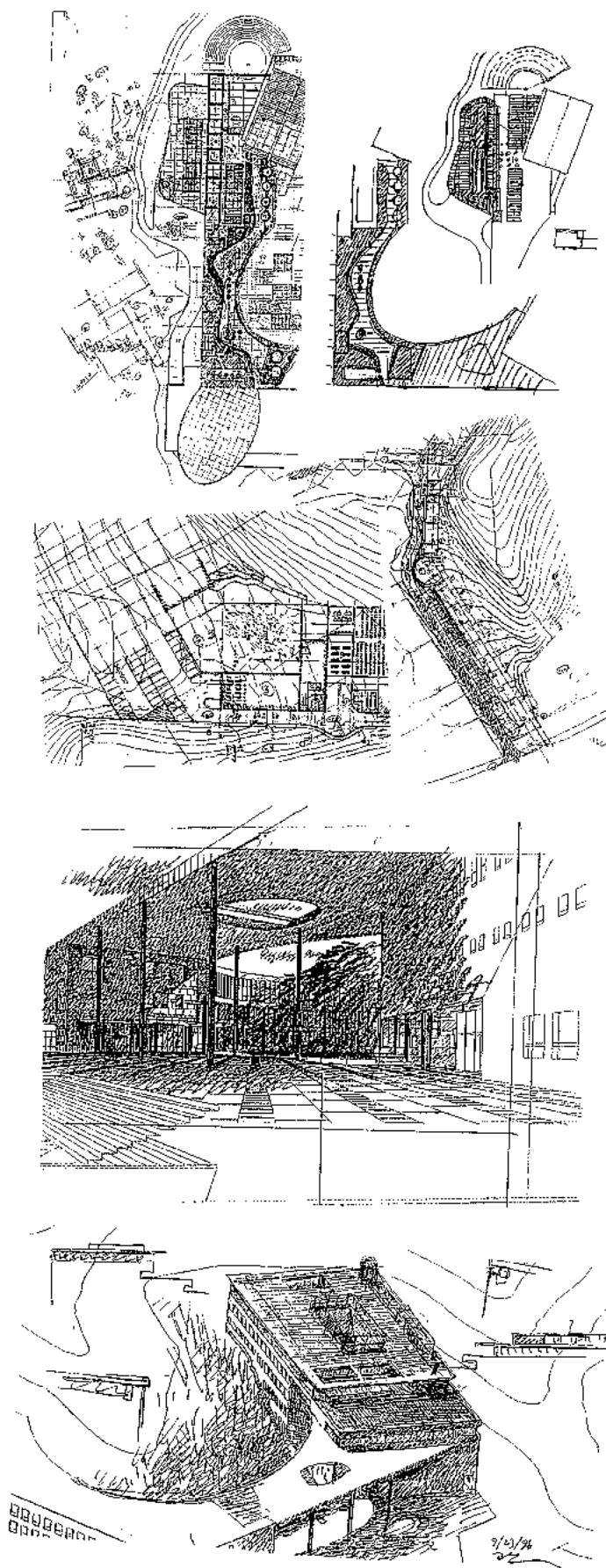
회관 2층 평면도



부분스케치



여성복지문화회관 진입부 투시도



부분스케치

설별로 볼 때 여성복지문화회관은 시설 이용면에서 다목적의 건물의 특성을 감안, 주된 목적별, 시간대별로 3가지 시설로 grouping하여 배치하였다. 즉 보육 시설은 제일 전면에 위치하여 야외시설과 근접시키고,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특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 제일 후방에 배치하며 독립된 트러스 구조형식으로 구성, 자연채광을 적용하였다.

중앙도서관은 수직적으로 기능을 분배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메인로비는 2층으로 각 시설로의 동선이 유리하게 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부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1층에 관련시설을 배치하였다. 상층부에는 열람실을 두어 방해받지 않는 학업 공간을 의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내부에 2개의 중정을 계획함으로써 채광과 환기 면에서 유리하게 하였으며 기능과 동선의 흐름을 한눈에 읽히게 하는 중앙 계단을 중정에 위치시켰다. 한편 공간의 가변성과 융통성이 부합되는 모듈러 시스템을 도입(9X12m), 종축 및 장래의 변화에 쉽게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층축을 고려하여 남측면에 여분의 면적을 확보하였다. 또, 계단형식의 단면 계획으로 기존 경사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설계의 성격상 이전의 동국대학교의 현상설계와 연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정된 도심의 대지속에서 최대용적이라는 주어진 볼륨의 한계점을 갖는 여타의 작업과는 차별되는 대지와 프로그램의 여러 조건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었던 '대지에 순응하는 건축'에 대한 또 한번의 시도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상설계의 마감은 9월 30일 추석연휴 직후였다. 전직원은 추석당일을 포함하여 전 연휴동안 모두 사무실에 나와 자기에게 주어진 마무리 작업을 하였으며 이런 과정속에서의 단합된 노력은 가히 감동적이었다. 처음 망연히 구름을 헤쳐가다 점차 윤곽을 찾아기는 막판 즈음에는 구석구석이 이미 눈에 훤히 다가서 있게 되고 이쯤되면 정 또한 이미 들쭉 들어 있게 마련이다. 지금 이 곳만을 위해 빚어진 이 미아는 땅 한번 디디지 못하고 망각의 해연으로 침잠해가 는걸 보기만 해야하는게 못내 아쉬기만 하다. 나래퍼 창공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번데기인 체로 삼켜지는 그 신세와 뭐가 다를까? 아! 이 판국에 같이 참여했던 동료 B君的 黨이 보고싶어 안달나는 이 지적 호기심은 나의 무슨 낙천스러움일까?

한국의 건축가 8 - 이천승(1)

Korean Architect, Lee Cheon-Seung

성장배경과 건축활동

권태문 / 공학박사, 건축사
by Kwon Tae-Moon

◇ 연 재 목 차 ◇ (게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 성장배경과 건축활동
- 한국건축계의 리더



이천승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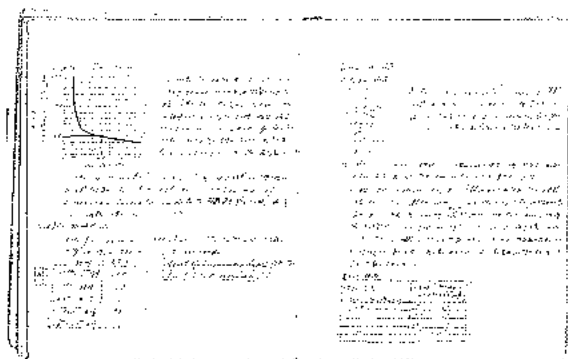
성장환경

선생은 한일합방이 체결된 1910년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한국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제일고등보통 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은 성장기부터 강한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하였고, 논리적 사고력, 예리한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 등 우월한 개인적 능력을 배양시킨 토양이 되었다.

건축수업

당시 한국에 설치되어 있던 고등교육기관은 경성고등공업학교였으므로 선생은 이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원래 회화에 관심을 가졌던 선생은 일본 게이오제국대학으로 유학하려 하였으나 부친의 사망으로 포기하고, 미술수업이 가능했던 이 학교 건축과를 택하게 되었다. 당시 건축가로는 박길룡선생과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수 이균상선생이 계셔서 이 분들의 활동과 가르침에 배움이 컸다고 회고하였다.

엘리트 의식과 재기가 넘치는 선생은 학창시절 건축 전공과목만이 아니라 일반과목도 열심히 하여 이 학교 졸업시 한국인으로서는 경이롭게 전교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교 1등을 하려면 한국학생에게는 금기시 되던 사격술 학점을 확보해야 되었는데, 선생은 집념으로 일본인 교련선생을 감동시켜, 그의 배려로 사격연습을 더 할 수 있었고, 높은 점수를 받아 대망의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건



경성고등공업학교 학생때의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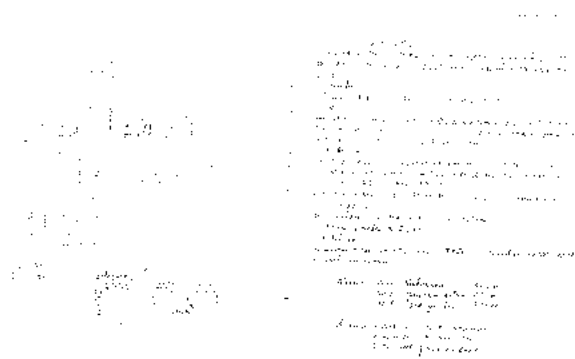
축수업기인 1931년, 경성고등공업학교 2학년때 박길룡선생의 배려로, 화신백화점 동관 설계의 실습생으로 참여하면서 건축을 이해하게 되었다.

건축실무

1932년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인 193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취직되어서 만주로 떠나게 되었다. 졸업후인 1932-33년의 5~6개월 동안 경성박길룡건축사무소에 근무하였다. 이 사무소에는 한국 건축계의 선배들이 많이 모여서, 선배들의 친목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선생은 일본인 중심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을 극복하고, 좀더 넓고 새로운 현대건축의 지식을 수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지원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본격적인 건축실무는 193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지방부 공사과의 설계팀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만주는 만주국건설이라는 일본정부의 거점 건설사업장이었으며,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주체였으므로 사업규모가 매우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축계 엘리트(동경제대, 와세다제대 및 게이오제대 등) 및 외국 건축인들도 상당수 활동한 국제화 작업장이었다.

선생은 그때부터 동경제대 출신의 엘리트 동료들에게 책과 노트를 빌려서 일본에서 가르치는 건축학 전과목을 외우다시피 열심히 탐구하여 건축의 지식을 높아갔으며 전력을 다하여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회고하였다. 입사 후 5년이 지난 1938년 회사내의 현상설계로 만주대련역사의 설계안 공모가 있었다. 남만주 철도주식회사에는 설계를 맡은 부서가 3개 있었는데, 선생은 지방부 공사과의 계획안 작성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 응모안이 당선되어서 실시설계와 공사감독을 하게되는 기회를 얻었다.



「남만주 철도주식회사」 시절 일본인 동료에게서 빌려 공부한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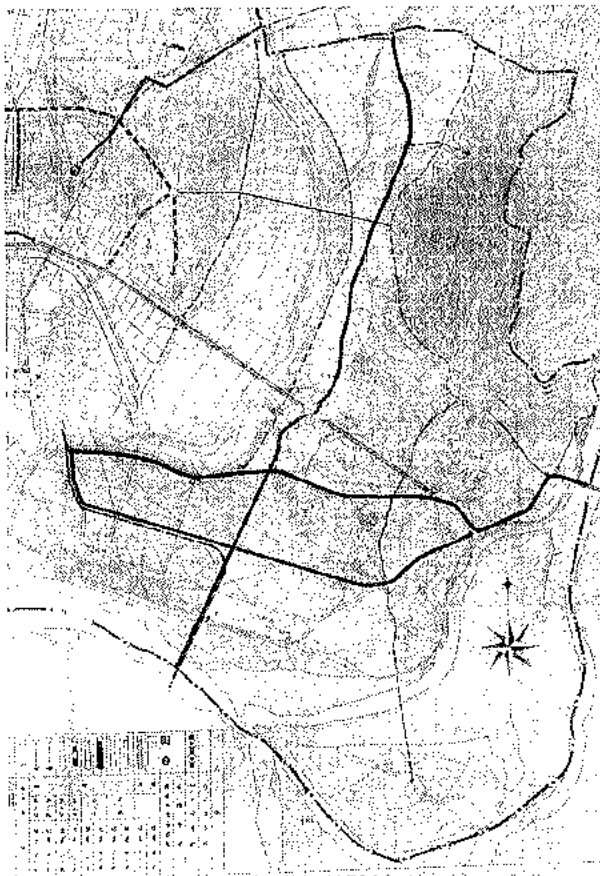
대련역사의 규모는 현 서울역보다 몇배 크고, 동경의 우에노역 처럼 승하차객 동선을 총별로 분리한 안이었는데 선생 자신도 자기의 대표적 건축작품이라고 회고하였다.

이 작품을 계기로, 선생은 당시의 요구상인 만능기술자적 건축가상에서 벗어나, 건축의장 중심의 건축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선생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의뢰된 만주국 수도新京(장춘)의 도시계획을 위한 종합데이터보고서 작성 작업팀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인 도시계획의 전문분야 기술자들과의 협력과 도시계획학의 독학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인 도시계획 이론도 습득하게 되었다. 선생의 이와같은 현대건축 및 도시계획이론과 실무경험은 해방 후 한국 건축계 및 국가재건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만능 건축가

제2차대전 말기로 만주지방이 어수선해진 1943년, 선생은 서울로 귀향하였다.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가상은 건축의 모든 분야 즉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등을 완전히 마스터한, 건축에 관해서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건축기술자였다.

선생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10년간을 통해, 일본에 수용된 현대건축 및 도시계획이론을 습득하고, 실무를 통해 그 이론을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한국의 현대건축 수용에 주역이 될 수 있는 만능 건축가로 발전하였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도 서울의 화신동관, 영보빌딩의 설계 등 한국의 건축계와 교류하여 왔다. 선생의 귀경당시 서울의 경제계도 어려워 건축계가 불황이었으므로 1942년 화신산업 창업자 박흥식사장이 추진한 조선비행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안양 비행기 제조공장 및 격납고 등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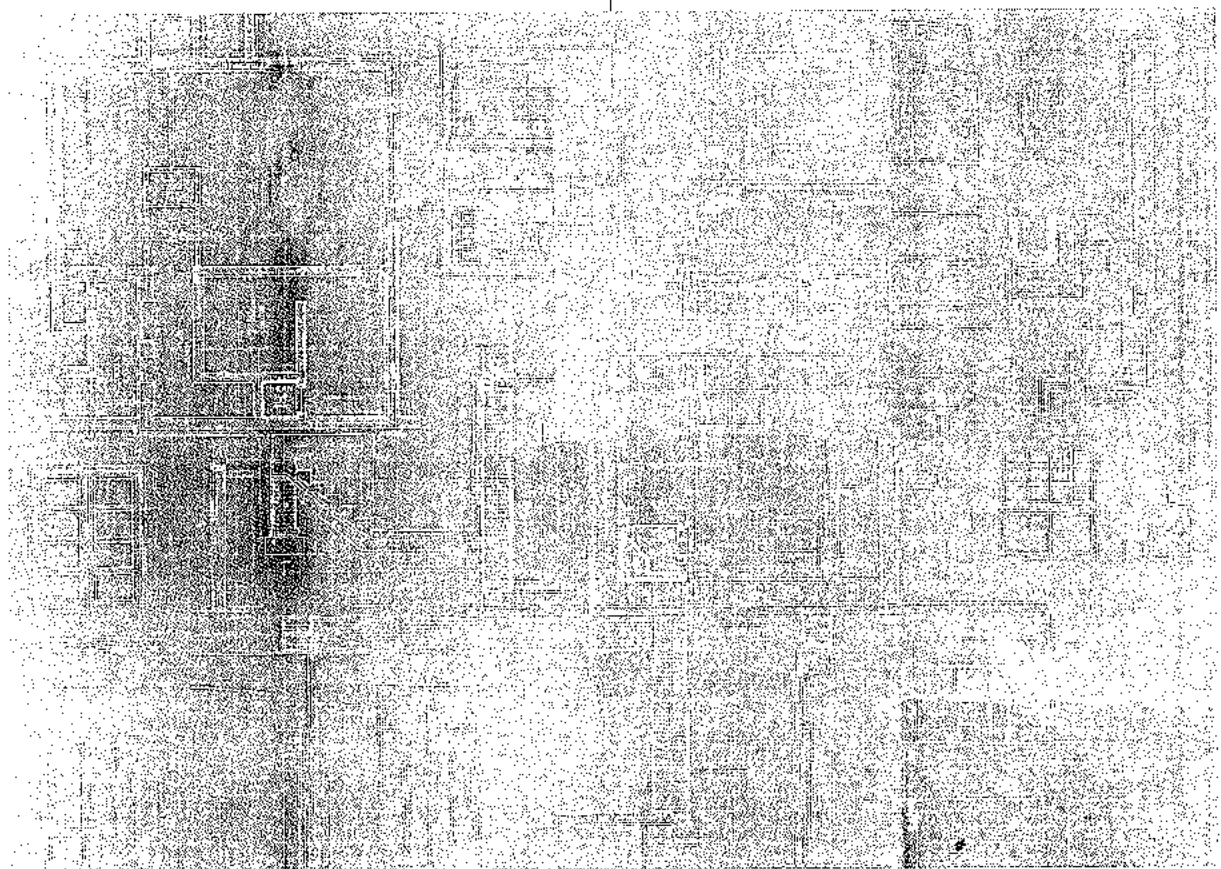


당시 서울시 마스터플랜(강남)

계하였는데 이 회사는 정용면제 혜택이 있어 김태식, 김종업씨 등도 재직하였다.

건축활동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국은 모든 면에서 새로 시작하는 국가가 되었다. 건축가로 활동을 시작한 선생은 1946년 한국 최초의 건설분야 연구소인 『도시계획연구회』를 이회태씨와 개설하여서 도시계획문제, 특히 주택문제(주택개량, 문화주택, 주택건설 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후 서울공대 토목과, 건축과에 도시계획과목이 개설되어 선생이 그 강의를 맡았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 피난 시절을 맞는다. 이 기간동안 주원씨(전 건설부장관)를 만나고,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던 전예용씨의 도움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을 착수하여 현 서울시 마스터플랜의 근간을 이루었다. 1950년 국회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 최초의 건설관련법인 건축법, 건축시법 및 도시계획법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현 건설관련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3년 환도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약하였고, 당시 정부의 끈질긴 교섭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을 고사하고 건축가로 자유분방하게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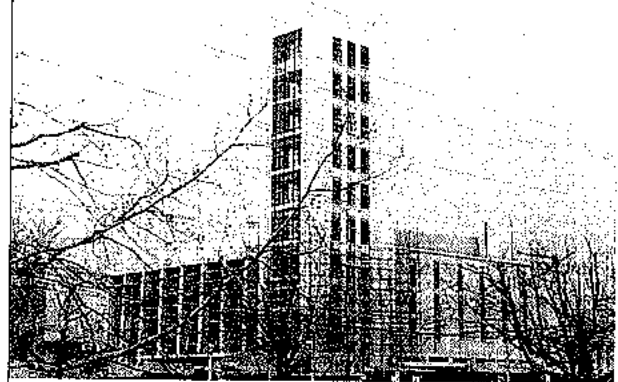


「남안주철도주식회사」시절 작업한 선생의 씨안이 있는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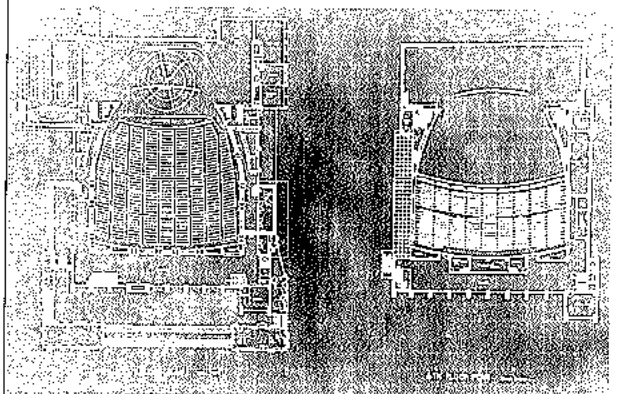
건축설계 외에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 강사로 출강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종합건축연구소』를 김정수씨와 같이 개설하였는데, 박길룡선생 작고 후에 그 사무소에 남겨진 모든 업무를 정리하였으므로 박길룡건축사무소를 잇는 건축연구소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건설에 따른 주요건물 등 많은 건축설계를 수주하여, 한국 건축가에 의한 본격적인 현대건축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우남(시민)회관, 조폐공사, 공군본부,
- 신신백화점, 국제극장
- 이화여고 교사, 진명여고 3·1당
- 삼양사 전주공장
- 동아일보 사옥 및 여의도 공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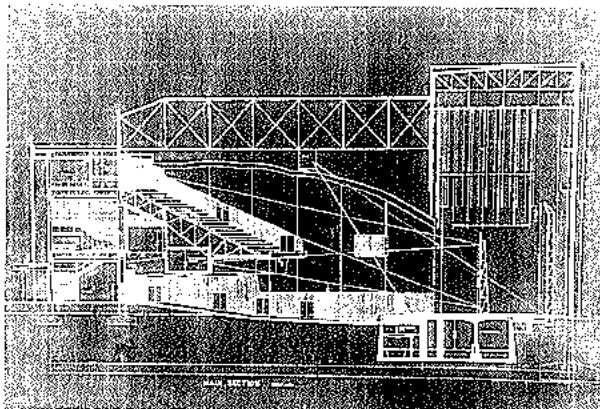
특히 주요 관공서 건축설계는 현상설계로 공모하였는데 『종합건축연구소』용모안의 당선과 그 현상설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선생의 위치에 대해서는 건축계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불모지인 한국 건축계에서 한국의 엘리트들의 작업에 의해 창출된 건축작품들은 한국 현대건축의 정착에 바탕이 된 중요한 업적들이었다. 1955년부터 준비된 국회의사당 건설을 위해 선생은 세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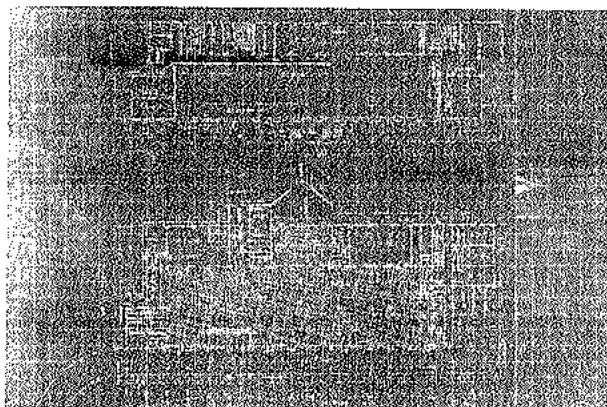
우남회관



우남회관 평면도



우남회관 단면도



만주 대련역사 평면도

개국 국회의사당을 시찰 조사하였고, 국회사무처의 위촉으로 1959년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공모작업을 주도하였다. 이 현상설계는 일본에서 응모한 김수근씨 등의 응모안이 당선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1960년 전후의 일본건축 수준을 알 수 있었고 한국건축계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1960년 5·16군사혁명으로 모든 정부관련직에서 떠난 선생은 부동산회사인 흥한도시관광주식회사를 화신산업 박흥식사장과 설립하고 현재 강남지역을 대상으로한 남서울 도시계획을 최경렬, 김윤기, 이봉인, 전세경씨 등 건축, 토목계의 거인들과 함께 진행시켜, 현재의 강남지역 도시계획에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홍익개발주식회사의 사옥설계 및 감독을 하였고, 말년에는 동아일보 김상만회장의 초청으로 동아일보 본사의 설계 및 감리를 하였고, 고려대학교 안암동병원 신축공사의 감독을 끝냈다. 선생은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자랑하면서 건축계의 후배들과 교류를 즐겼으며, 건축관련 업무에는 양보없는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1992년 초 겨울 82세로 그렇게 즐겨오던 바둑을 두면서 타계하였다.

강릉시청사

Kangreung City Hall

강릉시에서는 지역사회의 중심기구로서 행정기능과 지역역사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시청사를 건립키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한국조형건축(이영현) + 한터건축(박항섭) 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96년 11월 21일 발표했다. 우수작은 성림건축(임장렬) 안이 선정됐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공사비는 약 3백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석원(건축가협회장), 최창익(강릉대 교수), 김호남(관동대 교수), 한기원(삼척산업대 교수), 이학동(강원대 교수), 박경립(강원대 교수), 김선일(영동전문대 교수), 최재석(한라공대 교수), 심기섭(강릉시장), 최주혁(강릉 총무국장), 김병선(강릉 건설국장), 강릉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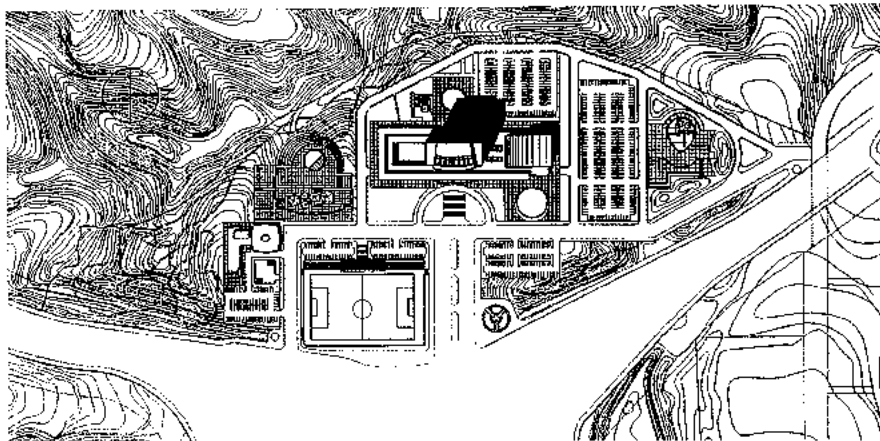
최우수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조형(이영현) +
건축연구소 한터(박항섭)

관공서 건축물은 그 지역의 얼굴이자 그 지역 문화의 종합이며 이는 과거와 미래의 문화와 행정, 시민을 이어주는 가교적 건축물이다. 또한 앞으로 세워질 건축물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중심기구로서의 행정기능과 지역역사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로서 강릉 시청사는 예측가능한 강릉시 미래에 대한 건축적 제안으로부터 시작한다. 영동 고속도로의 강릉 진입 도로와 동해 고속도로의 교차지점 서측 구릉 대지로서 동측으로 강릉 시가지가 전개되는 대지로서 멀리 동해가 조망 가능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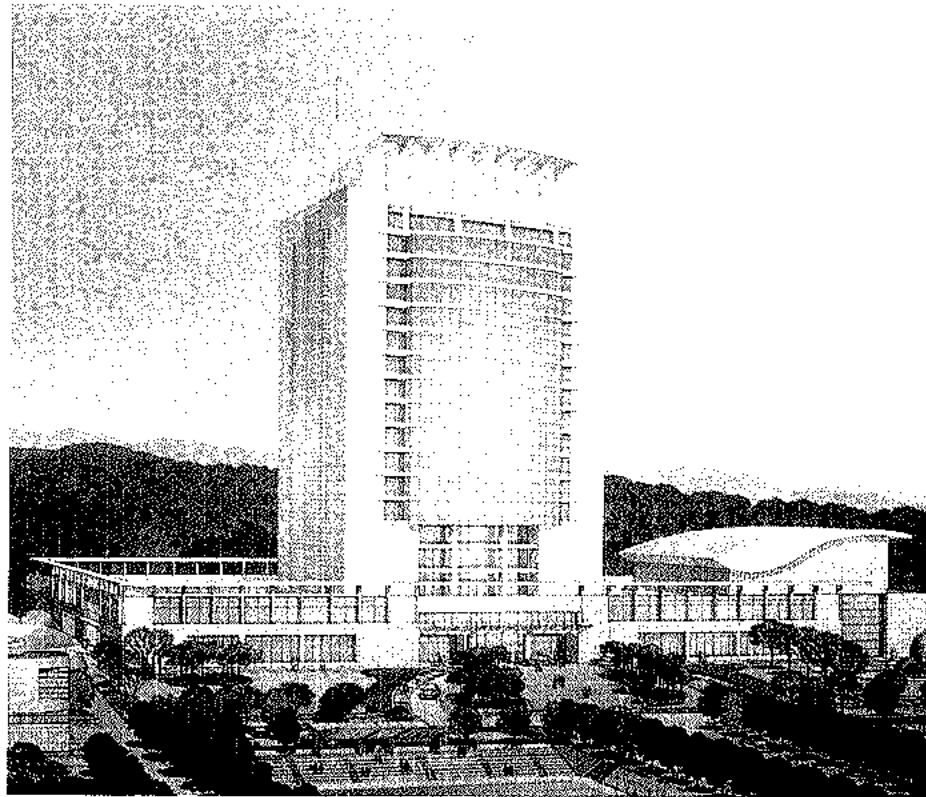
역이다. 대지전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단계 단계마다 적절한 건축적 프로그램이 유발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로 진입되는 과정마다 단계별 과정공간이 형성되게 배치 계획하였다. 강릉시의 동서간 주축을 도시의 상징축으로 설정하여 이와 대응하게 시청동을 배치하였으며 저층부는 가벼운 지붕을 가진 건물을 계획하여 수평성과 커의 문화적 의미를 가시화 하였다. 시청사와 의회동 사잇공간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시민 광장을 형성시켜 다양한 이벤트가 행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시청사와 의회동의 외부적 중심은 시민이라는 의

미의 건축적 표현이기도 하다. 관공서 건축의 상징성 및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인식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고층 및 가능한 한 좌우 대칭으로 정리하였으며 관공서 건축물의 권위적인 형태가 완화된 수 있도록 공동형 형태와 고층부분 가벼운 지붕을 계획하여 친근감 나며 현대적 의미가 표현되도록 계획하였다. 지역성은 배치계획의 단계별 과정 공간에 접목되어 형상화되며 형태, 공간계획에도 형태적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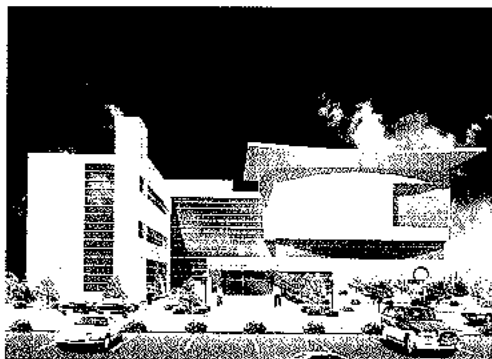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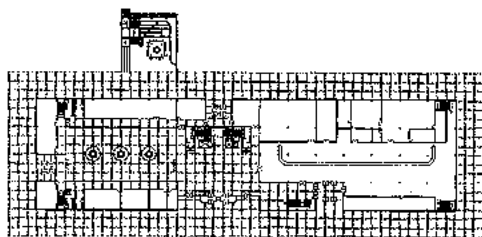
위치 강릉시 홍제동 553번지와 180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지역
 대지면적 128,000㎡ (38,720평)
 건축면적 시청사-5,733.00㎡
 의회청사-1,203.30㎡
 연면적 시청사-31,470.75㎡
 의회청사-3,837.70㎡
 건폐율 5.4%
 용적률 24.8%
 규모 시청사-지하 1층, 지상 18층
 의회청사-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시청사-93.6m
 의회청사-20.8m.
 주요설비방식 중앙 냉·난방방식
 주요용도 시청사-종합민원실, 행정부서, 강당, 회의실
 의회청사-대회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주요마감재료 외장재-화강석, 24mm 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내장재-화강석, 아크릴 페인트, 암면흡음텍스
 주차대수 지상-767대
 지하-106대(합계: 873대)
 계획 및 설계담당 박항식, 이영현, 박덕식, 서승하, 김창
 덕, 공재영, 이성철, 민기홍, 양재건, 김
 성진, 박병주, 정수일, 문정원, 구본재,
 장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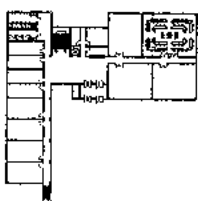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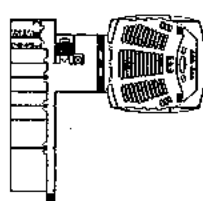
의회동 CAD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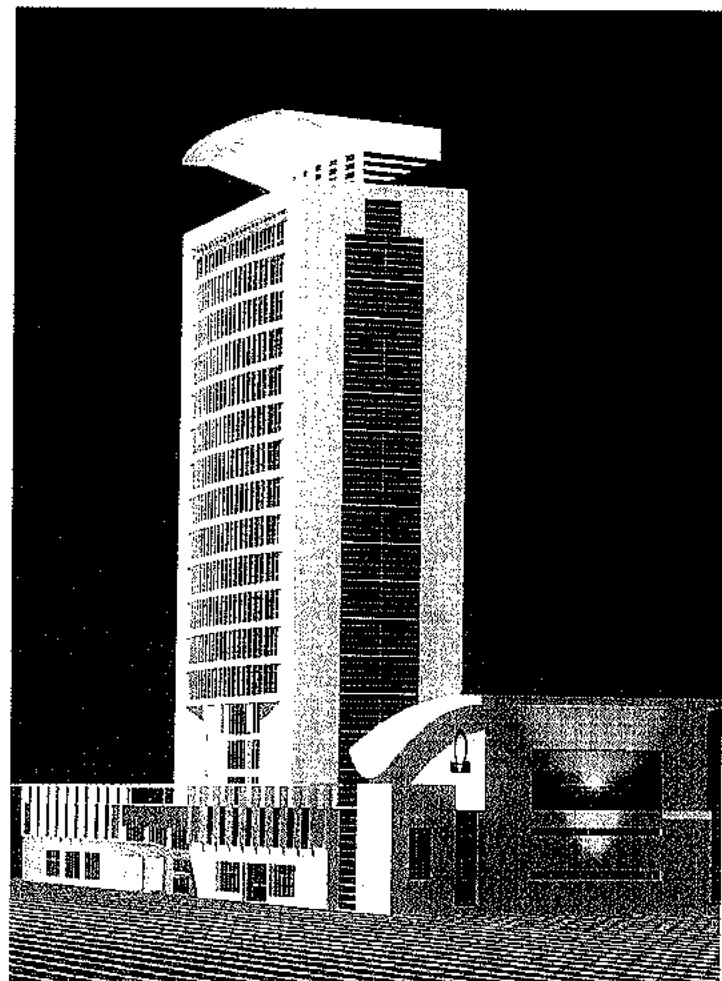
1층 평면도(청사동)



1층 평면도(의회동)



3층 평면도(의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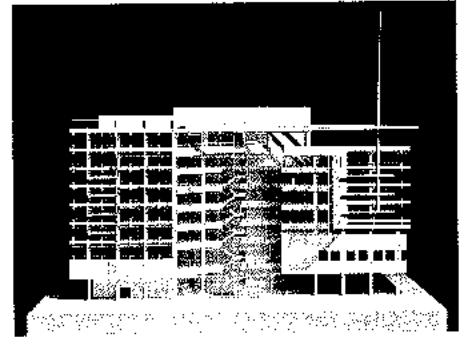


청사동 CAD 시뮬레이션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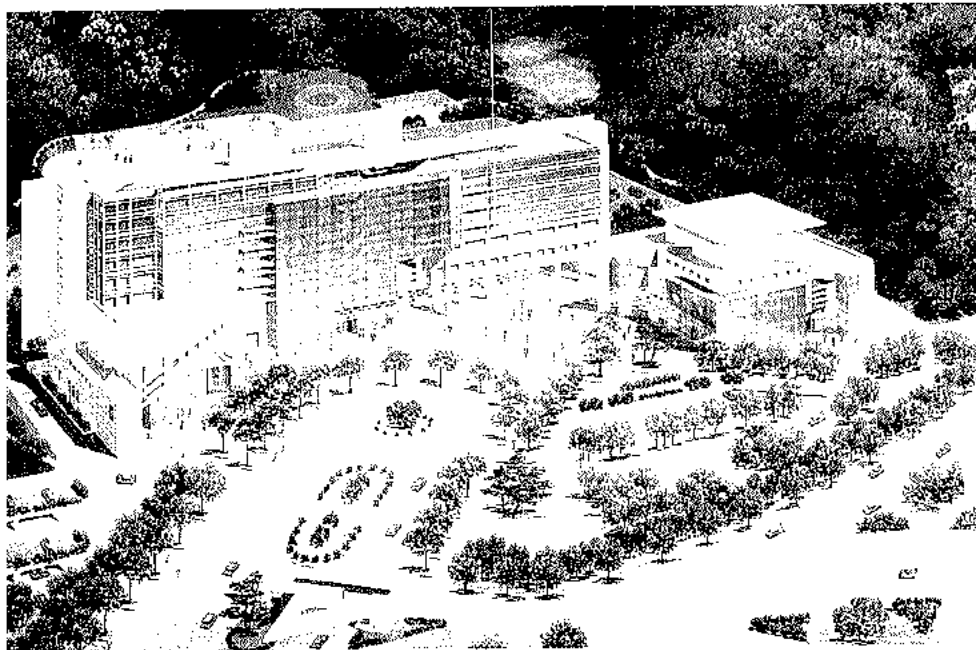
성림건축(임장렬)

-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종합 행정 서비스 장소 추구
- 관광 산업 도시로서의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건물계획
- 시민의 이용성 : 대지의 공원화, 문화공간 구성, 시민 만남의 광장, 체육시설 조성
- 지역성 :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청사건립주위환경과의 조화(자연 지형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고려
- 공공성 : 대중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대한의 주차시설 확보와 공공의 외부공간 제공 및 동선의 간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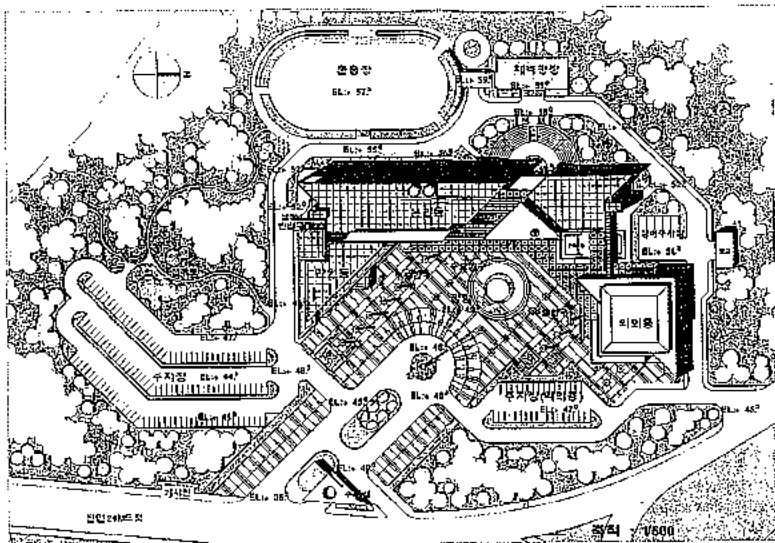


해제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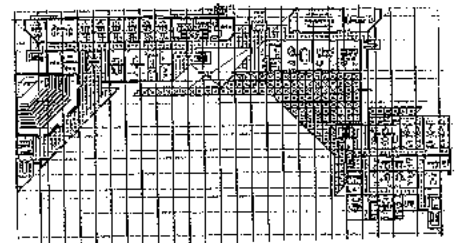
대지면적	128,000㎡ (38,720평)
대지조건	지목-임야, 전, 담 주변 도로보다 20~30m 이상 고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지 내 20~30년생 소나무 밀식 주택 3~4채 산재 계획 부지 앞쪽으로 강릉 I.C가 있다 계획 부지 앞쪽으로 강릉종합버스터미널 위치
대지규모	본관동-지상 8층, 지하 2층 의회동-지상 3층
건축면적	5,563.50㎡
연면적	32,697.00㎡
건폐율	4.35%
용적률	19.82%
층고	3.9m
주차대수	법정 : 218대 계획 : 279대(대형주차 포함)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 일부철골구조
주요외장재	24THK 파스텔 컬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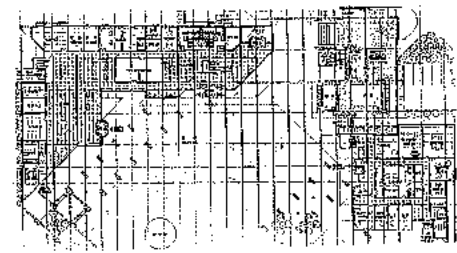
조감도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김해종합운동장 Kimhae Sports Complex

김해시는 지난 96년 8월 20일 김해종합운동장 기본설계(안) 현상공모를 실시, 총 4개 작품이 접수된 결과 각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일건건축(황일인)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11월 23일 발표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일건건축안은 녹지축의 연결로(풍유~조만강)를 두어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공간 이용계획을 고려한 점, 체육시설과 시민 이용 녹지공간 이용을 잘 연계한 점, 평야의 황량함을 없애기 위하여 지형변화를 준 것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2016년 도시인구 70만에 걸맞는 종합 문화·체육공원으로서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설계경기의 최우수작에게는 기본설계 및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에게는 상금 5백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작은 일신설계(정태복)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일건건축(황일인)

토지 이용 계획

- 효율성의 극대화: 각 기능을 지역단위로 구분 조성
- 녹지체계의 구성: 녹지축을 외부공간의 축으로 구성
- 제약조건의 효과적인 적용: 조만강축의 지질구조 고려, 외부 체육, 녹지 공간 이용

배치계획

- 공간구성의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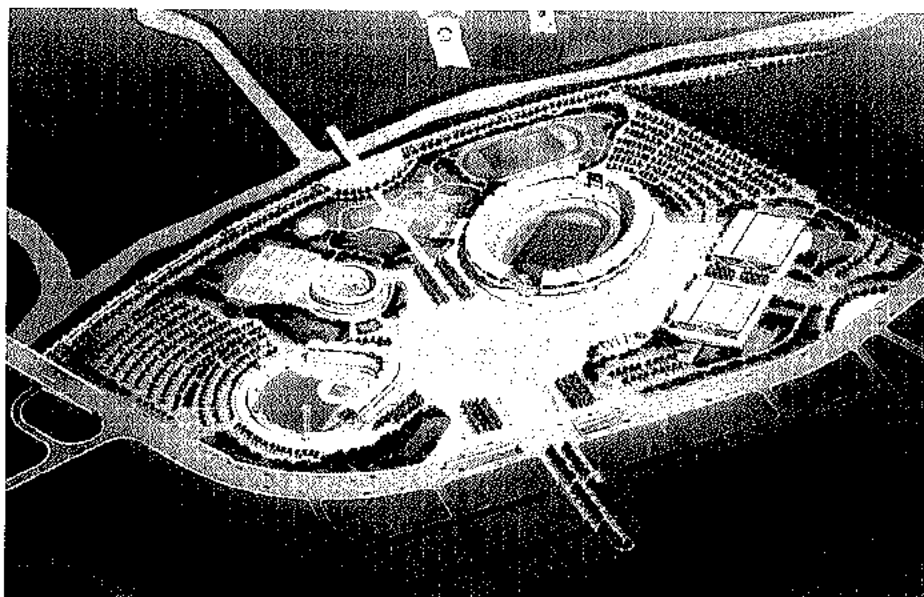
- 완충공간: Buffer용 식재와 앞마당

주 공간: 주요 경기장과 중앙광장

녹지공간: 시민체육공원과 수변녹지 조성 소동, 산책로등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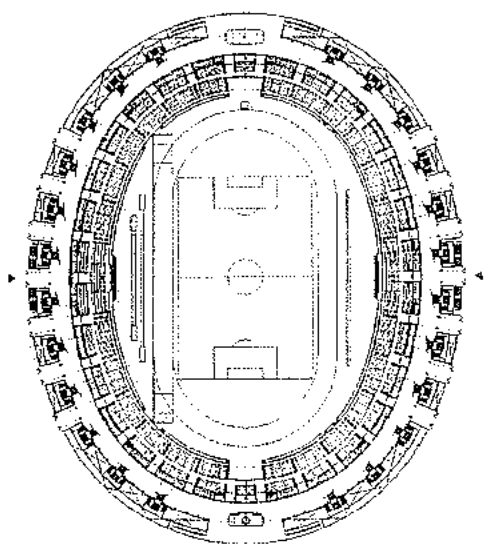
- 외부공간구성의 연속성: 풍유공원-진입부-중앙광장-수변공원의 쾌적한 외부환경 조성

- 배치축의 합리성: 각 경기장의 배치는 경기장의 일조 등의 배치축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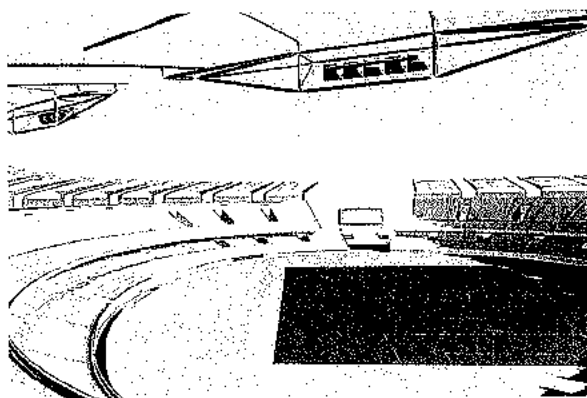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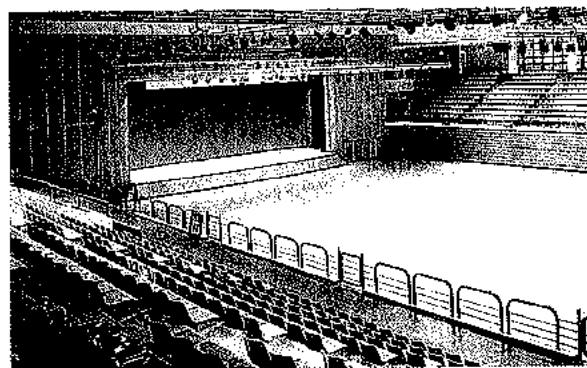
위 치	경남 김해시 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130,000평
지역지구	생산녹지 지역
건축면적	62,886㎡
연 면 적	122,738㎡
주차대수	2,808대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워 에폭 시페인트, 저반사 컬러복층유리, 화강석 버너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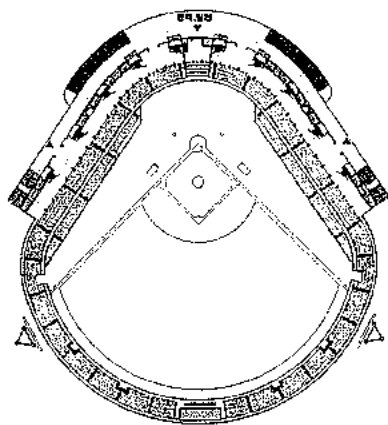
주경기장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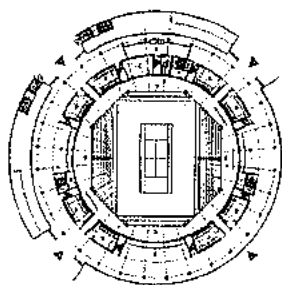
주경기장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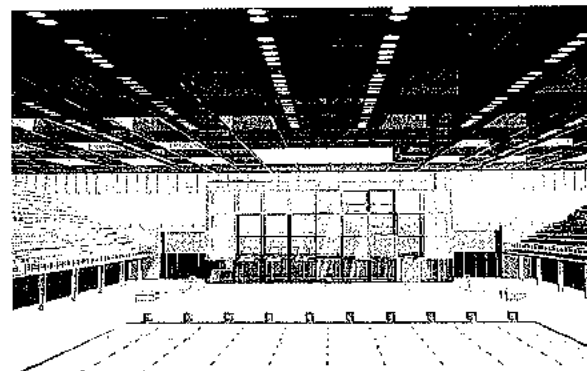
실내체육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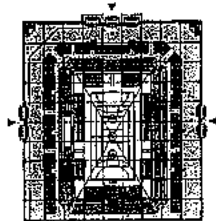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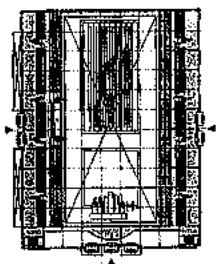
야구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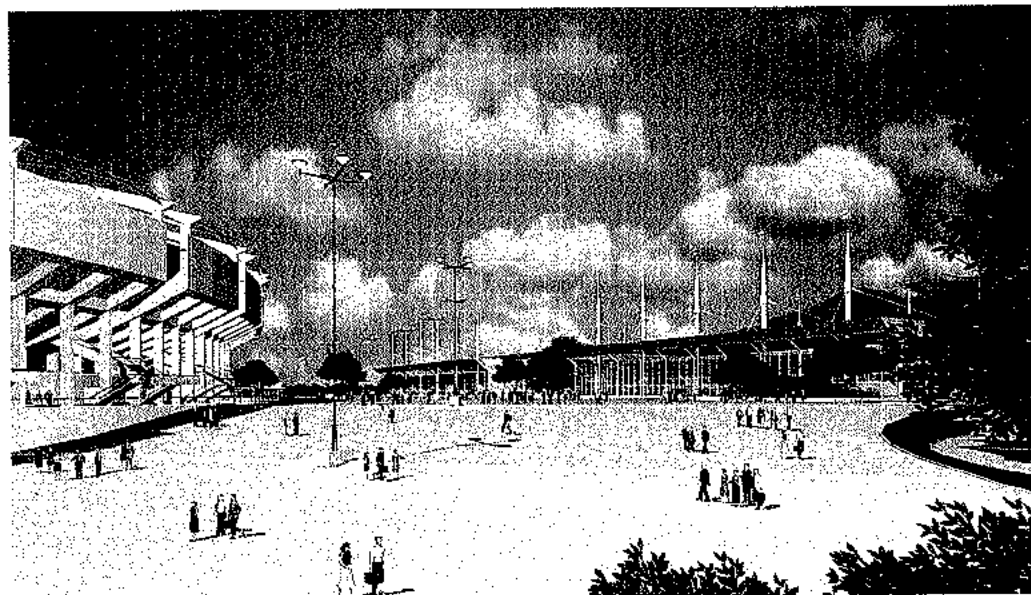
체육관 · 테니스장 1층평면도



수영장 투시도



수영장 · 체육관 1층평면도



주경기장 부분 투시도

우수작

일선설계(정태복)

· 접근을 위한 고민

계획부지는 너무 부정형이다.

8가지의 각 요소들을 배치하기 위해 주어진 13만평이라는 부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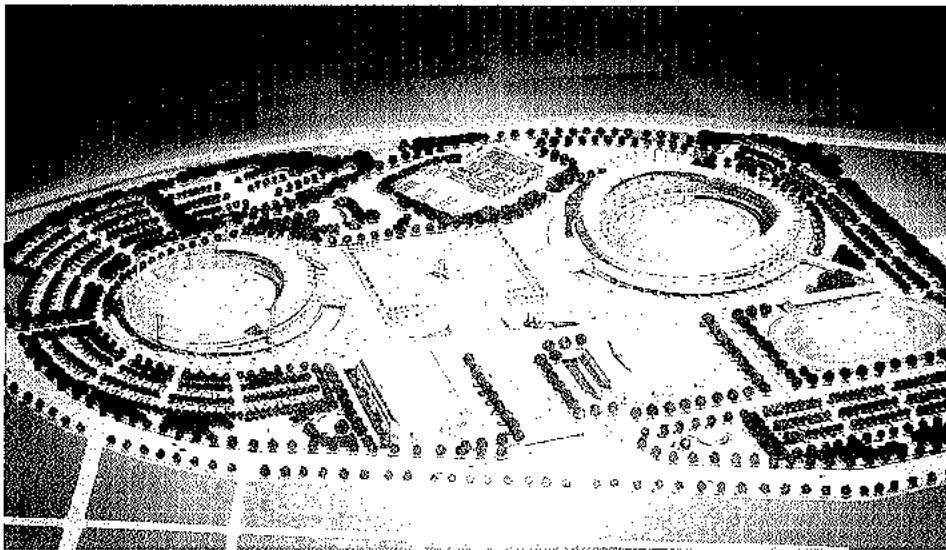
· 접근방법의 모색

각 요소들의 배치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다. 대지외부와 연계 되는 축선을 찾아내는 대신-사실, 근거를 부여시킬만한 축은 강제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한 찾을 수 없었다. -부정형의 대지내에 새로운 틀을 생성시키는 작업을 택한다. 여기서 틀의 의미는 대지

내 질서의 정립으로, 틀의 기능은 내부 순환도로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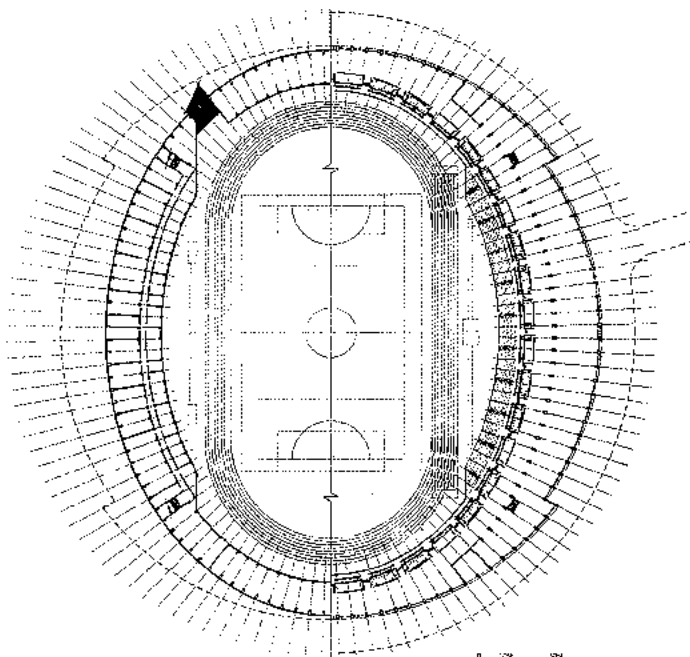
· 흔적 감추기

동시 이용빈도수가 높고 평시 이용빈도수가 낮은 주경기장과 야구장은 대지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좌우배치를 유도하고 평시 이용빈도수가 높은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순환도로 외부 주진 입부에 배치하여 이동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외각부에 각요소별 필요 주차구역설정과 녹지공간을 배치하여 틀이라는 구축적인 흔적을 우리는 감추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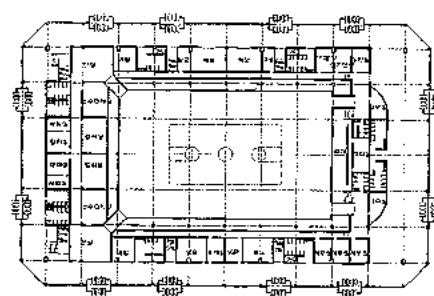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남 김해시 철산동(명법동, 동유동)일원
대지면적	441,454㎡
건축면적	47,669.7㎡
연면적	52,807.6㎡
건폐율	10.8%
용적률	11.9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 일부 Tention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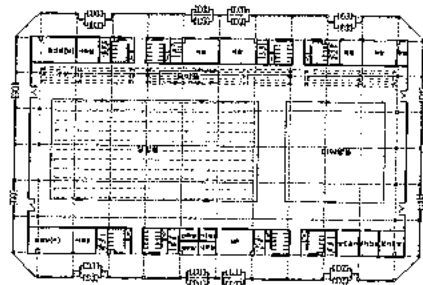
조감도



주경기장 2층평면도



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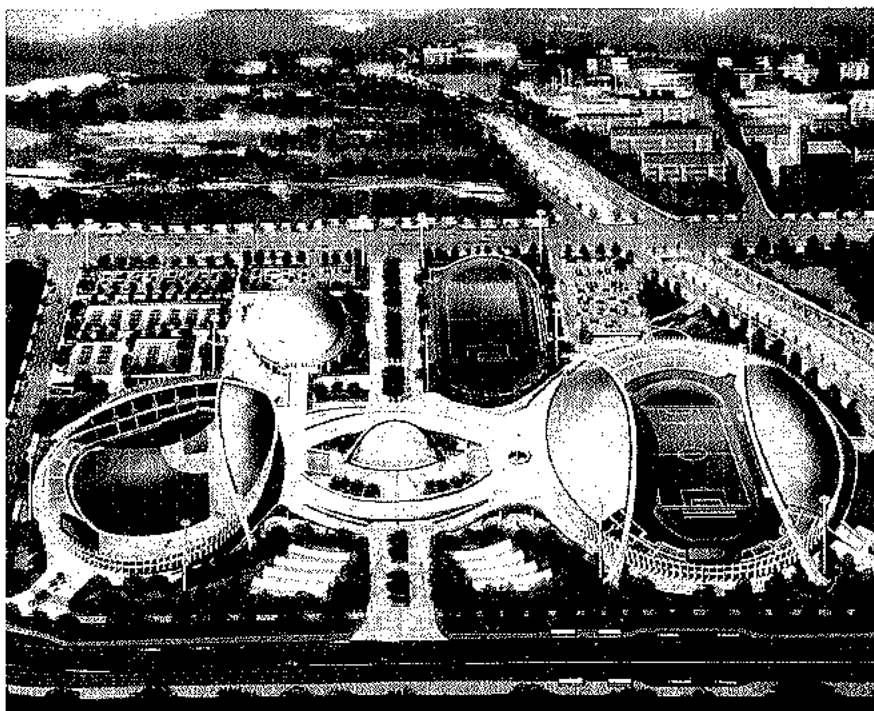
실내 수영장

안산시종합운동장 Ansan Sports Complex

안산시는 시민을 위한 사회, 문화적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사회체육활동 공간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장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96년 10월 16일 아도무건축(장석웅)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가작으로는 공간건축(정종영)안과 유신건축(김지덕)+제일건축(정원심)안이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가작 중 공간건축안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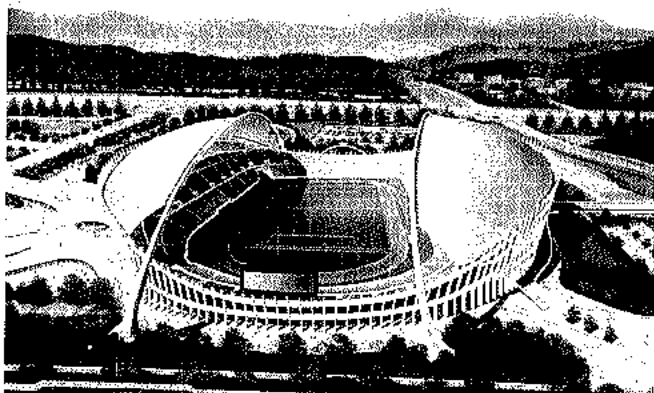
당선작

아도무건축(장석웅)



조감도

대지위치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용 도	관람집회시설 (운동경기관람장)
대지면적	266,170㎡ (80,516.43평)
건축면적	45,191.87㎡ (13,670.54평)
연 면 적	187,760.79㎡ (56,797.64평)
용 적 륜	24.2% (법정 : 60%)
건 폐 율	16.98% (법정 : 20%)
조경면적	40.5% (107,790㎡). (법정 : 40%)
공개공지 확보	대지면적의 8% 이상
부대시설	경기장내 광장 및 상징조형물
주차대수	- 계획 주차 대수 : 3,699대 • 지상 : 475대(대형 : 53대, 장애인지용 : 54대 포함), • 지하 : 3,224대 - 법정 주차 대수 : 795대(수용인원 100인당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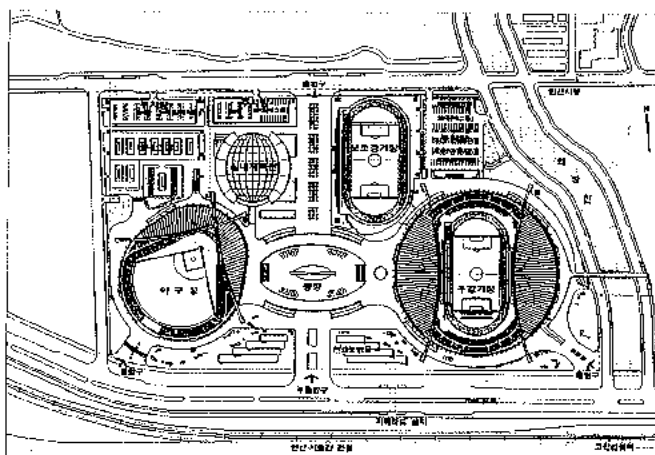
주경기장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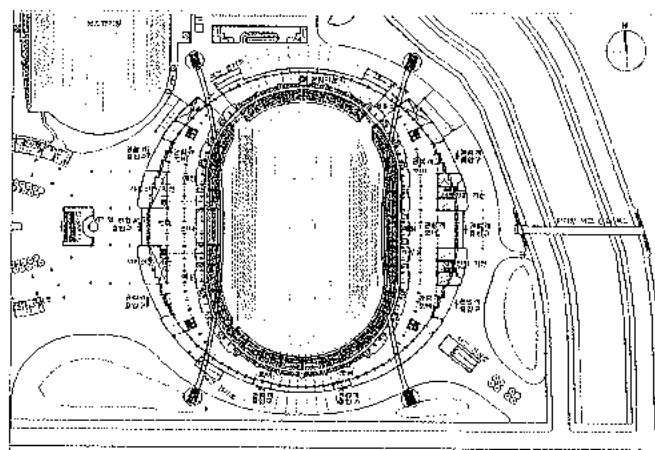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서측 입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안산 신도시는 임해 공업도시이자 21세기 Hi-Tech 산업의 주역이 될 지역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깊은 도시적 입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시적 맥락에 따라 안산시민을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사회체육활동 공간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장소적 요구인 동시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부지의 현황은 동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따라 문화회관이 건립되며, 서쪽은 구청 및 보건소, 그리고 남쪽은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은 기존의 운동장 개념에서 탈피하도록 하였다. 우선 훌륭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적인 해결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성 뿐만 아니라 화랑유원지로 이르는 매개 공간의 역할을 연출할 수 있는 공원의 성격을 부여되도록 계획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운동장의 조형적 이미지는 지역적 Identity를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형태 구성으로 구조적 Design 요소인 지붕트러스와 기둥을 외부로 표출하여 구조미를 강조하였으며, 반원형 트러스 아치와 광장벽크의 조화는 리듬과 통일감으로 거대 스케일에 대한 인간적 스케일을 느끼도록 하였다. 주변의 화랑유원지, 문화회관과 연계를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 시설을 갖추고 Deck를 설치하여 평면 동선을 입체화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 진입 동선과 차량 동선을 완전 분리하여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보하였다. 즉, 차량은 부지의 남쪽 중앙로(70m)에서 진입을 배제하여 간선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북쪽 도로에는 2차선을 추가확보하여 정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화정천변 도로를 일반통행으로 유도하고 서쪽에 20m 도로를 신설하여 부지 외부에서 차량 동선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을 확보한 동선체계를 갖추었다. 보행자의 주진입은 중앙 광장으로 유입되어 방사형으로 분산되어 경기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퇴장시에는 Deck층에서 부지에 접한 도로변으로 분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 광장은 화랑유원지를 연계하는 강한 축상의 연출 공간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안산시의 상징적 장소성으로 부각함과 더불어 유원지를 암시하는 은유적 공간으로써 주변의 모든 환경을 내포하는 중심성을 가진다. 경기장 활용 계획은 체육 행사 이외에 문화예술 공연과 집회 시설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비경기시에 계절적 농수산물 유통 시설을 유치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운동장으로 계획하였다.

가작

공간건축(정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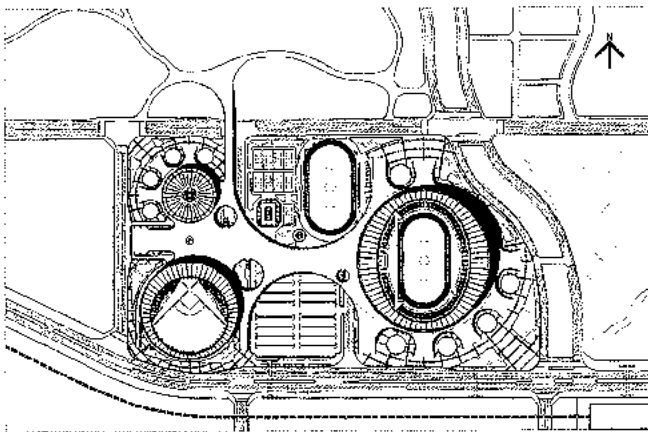
계획의 주된 개념은 안산시민의 체육시설 및 주변지역과 연계된 이용과 국제규모의 경기대회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안산 중앙로에 위치함으로써 나타나는 상징성을 고려하였다.

각 경기장의 배치를 동서축으로 연결된 보행자 데크를 따라 분산함으로써 동선의 집중을 제한하였으며, 경기진행시에는 보행자 데크를 이용한 명확한 동선의 분리로 원활한 경기진행 및 관중의 안전한 입장과 퇴장을 우선 고려하고, 평상시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시설과 연결된 시민체육활동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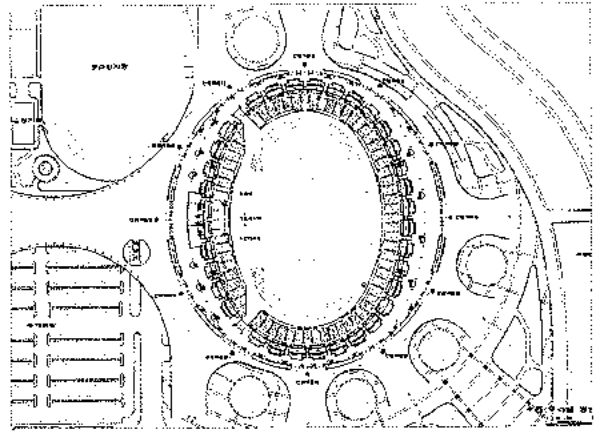
안산시민의 적극적 이용을 제한하였다.

경기진행 및 서비스동선은 보행자데크 하부층으로 분리하여 신속한 경기진행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데크상부 보행자 동선과 하부 차량동선 및 주차장을 구분하여 단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주경기장의 조형은 자연적 상승감을 고려한 곡선적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안산시의 대표적 운동시설로서 지역의 성장과 High Teck Image를 표현하려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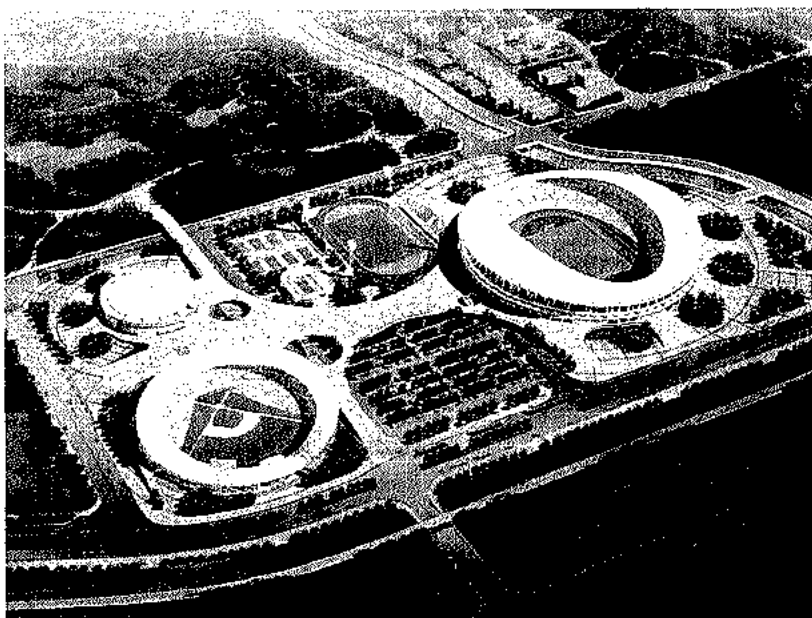
주경기장 평면도



주경기장 동측 입면도



횡단면도



조감도

대지위치 지역지구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자연녹지지역, 도시설계구역(운동장)
대지면적	266,170㎡(80,516평)
건축면적	49,024㎡(14,829평)
연면적	99,407㎡(30,070평)
건폐율	18.4% (법정: 20% 이하)
용적률	37.3% (법정: 60% 이하)
주차대수	1,304대 • 관람객 959대(소형: 902대, 대형: 38대, 장애자용: 19대) • 선수 및 임원, 보도, 위빈, 관리: 345대(소형: 260대, 대형: 75대, 장애자용: 10대) (법정주차대수: 808대 ← 100인당 1대)
공개공지	29,200㎡(8,833평), 11% (법정: 21,293㎡ 이상, 8% 이상)
조경면적	110,460㎡, 41.5% (법정: 106,468㎡, 40% 이상)
수용인원	80,800명

경기도청사

K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경기도는 다가오는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96년 11월 6일 총 14개 작품이 접수된 결과 무영건축(안길원)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심사는 경기도청 각실 국장 4명과 교수 9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으며, 우수작으로는 진우건축(김동훈)안이, 입선작으로는 건축이상건축(김춘배)안과 태경건축(김명준)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의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우수작에게는 상금 2천만원이, 입선작에게는 상금 1천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당선작

무영건축(안길원)

현대의 건축적 전통이 내재되어 있는 수원시내에 위치한 경기도청사의 대지는 팔달공원을 배경으로 15m 정도의 고저차를 갖고 관청사라는 이미지와 21세기의 첨단시설, 다단계 개발 등과 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특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 전통성, 상징성, 기능성 등의 의미가 어떻게 건축적으로 창조될 수 있을까? 감렬한 외피적 표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과시되는 기존의 건축적 상황을 탈피하여 현실에 주어진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해결점이라 생각하였다.

가람배치에 의한 전통건물을 체험하는 방문객이 느낄 수 있는 시각과 동선을 배치의 개념에 부여하여 상승의 계단, 상징의 문, 전이적 공간, 중정, 체험의 공간, 자연으로의 전이라는 위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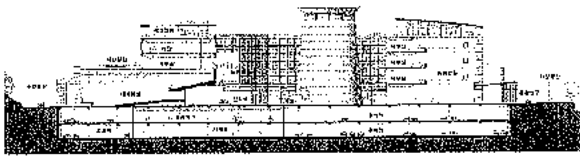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시민 광장 및 중정을 중심으로 자유스럽게 Mass 를 조합시키고 High-Tech한 이미지를 주면서 안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Metal과 유리 화강석을 조합한 입면 및 단면을 창출하였다.

정면과 후면에서 보여지는 진입부의 양면성, 후면진입부의 웅성과 원형타워의 봉돈같은 전통적 이미지 부여, 청사의 기능, 시민의 편리성에 따른 내부공간의 불력별, 총별 기능분화 그리고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시민광장, 선문가든, 지하주차장 등을 연계시킨 점들이 초기에 제시된 복합적 의미를 건축적으로 풀어 놓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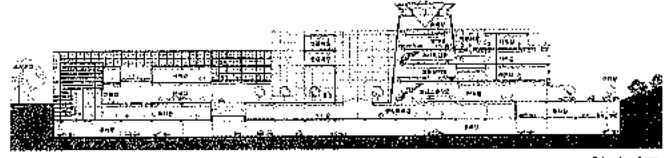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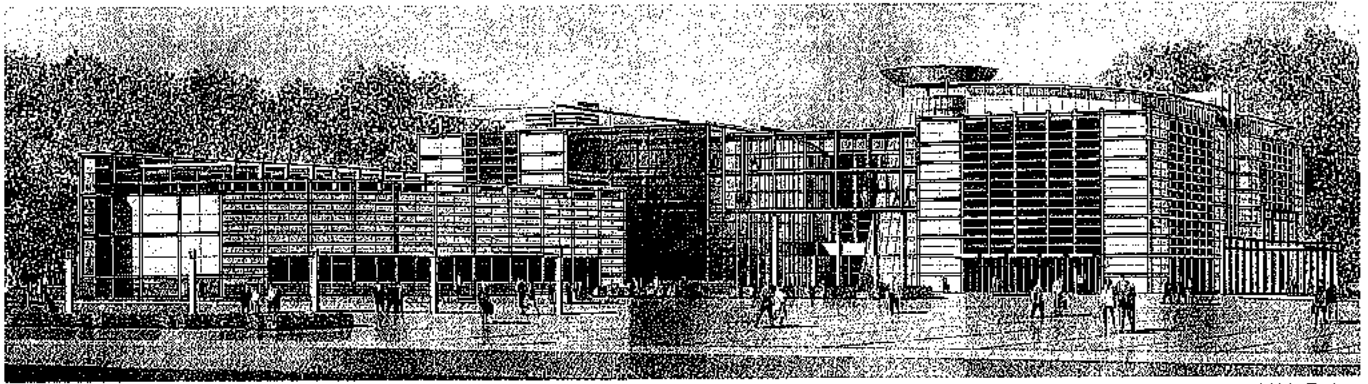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제3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70,595.0㎡
건축면적	7,030.6㎡
연 면 적	50,552.1㎡
건 폐 율	8.8%
용 적 륜	34.6%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화강석, 복층유리, 메탈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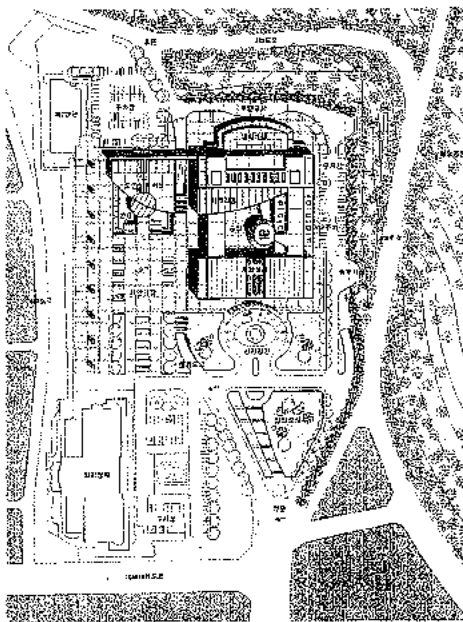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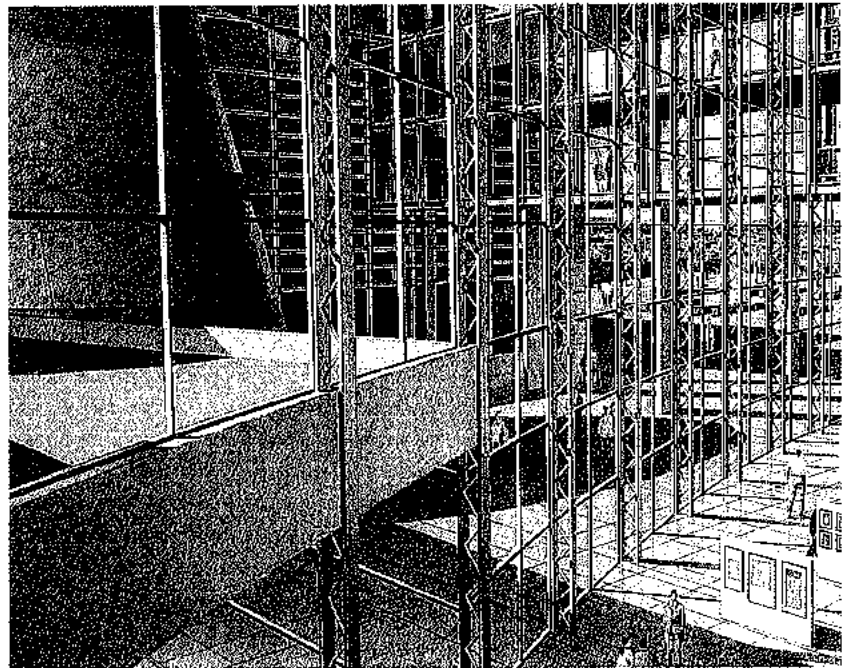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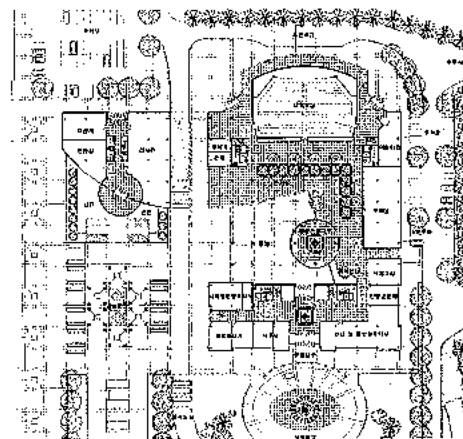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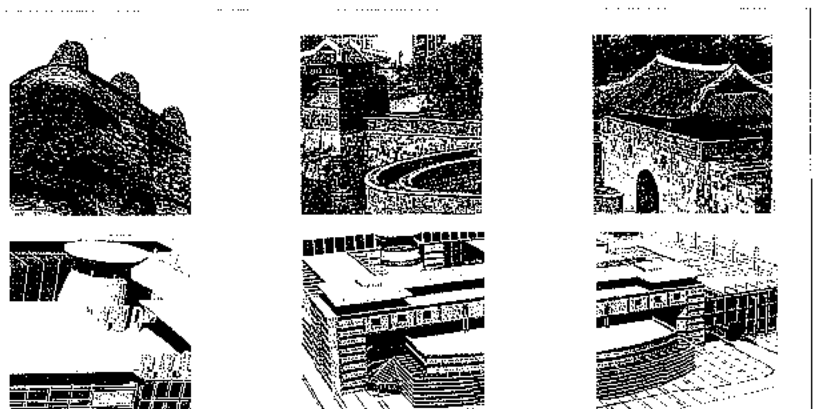
배치도



내부 투시도(아트리움에서 본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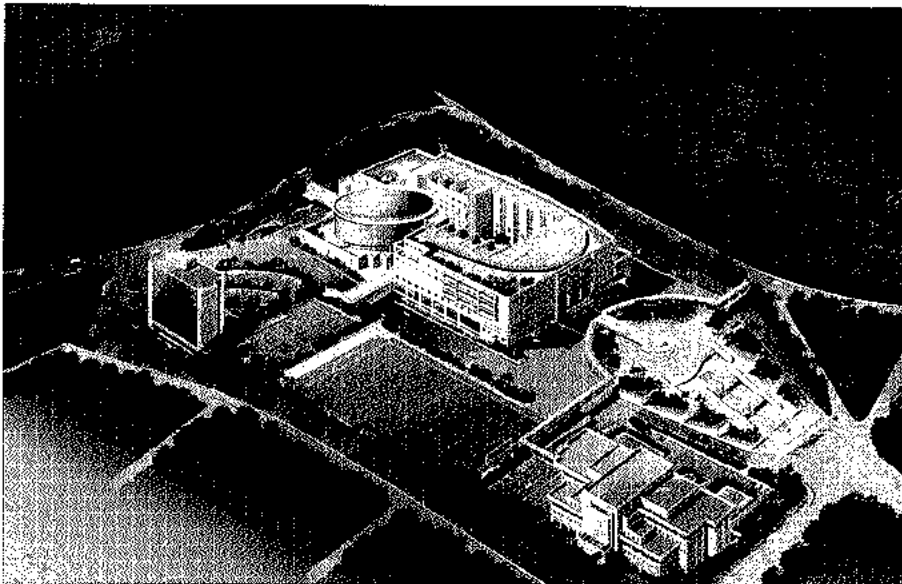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조형이미지

우수작

진우건축(김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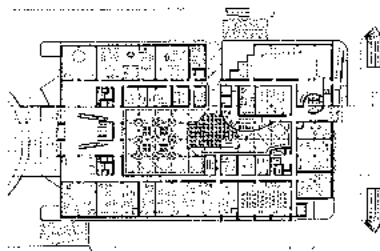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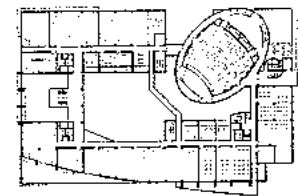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1외 6필지
대지면적	70,595.0㎡
건축면적	7,805.7㎡
연면적	54,294.8㎡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옥내 753대, 옥외 226대 - 제안주차대수 390대 (광장지하) - 총주차대수 : 1,369대
최고높이	28.8m(해발 70m 기준)
주요외장재	화강석 버너구이+두께 18mm복층유리(열선반사 유리) 일부 스페이스 프레임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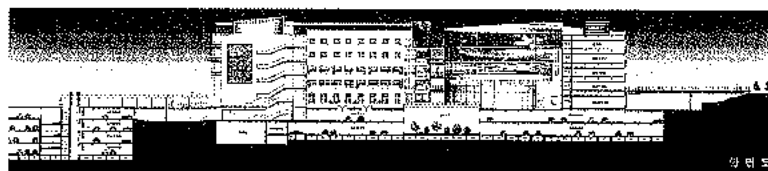
- 도민을 위한 시설로 개방성과 공공업무 시설로써의 신뢰감 부여
- 인접도시와 팔달공원과의 적극적 유입(Desk 또는 Over Bridge설치)
- 의회동과 제2별관동과의 공간적 연계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적극적 분리(Level차 분리)
- (차량동선은 광장 외곽으로 보행동선은 광장 내부 동파로 침사 진입)
- 사무실 부족과 주차난의 해결을 위한 장내 증축 공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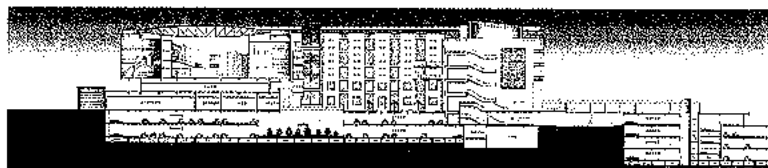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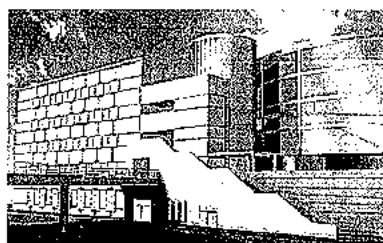
단면도 1



단면도 2

평면계획

- 기능적인 평면구성으로 독립성과 통합성 유지
- 쾌적한 환경, 후생복지 향상 등을 위한 중정 또는 선린 휴식공간 계획
- 정보화 시대에 맞는 사무자동화(O.A)와 건물 자동화(B.A)를 위한 계획
- 안정감있는 Mass처리로 공공업무시설로써의 신뢰감 형상화
- 중정 형식의 건물배치로 정신적 안정도모 진입 용이



외부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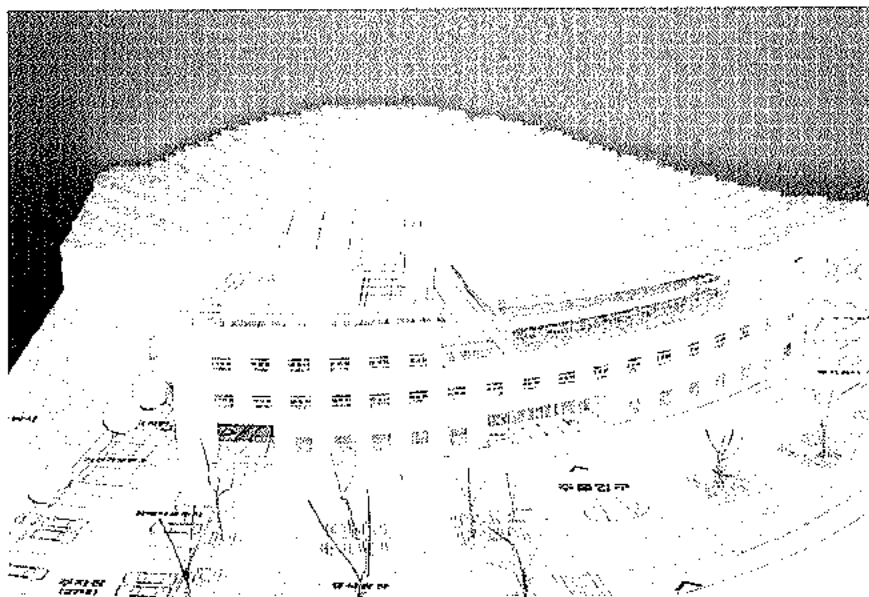


실내투시도

수원영통 · 용인수지2지구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y of Yeongtong & Suji 2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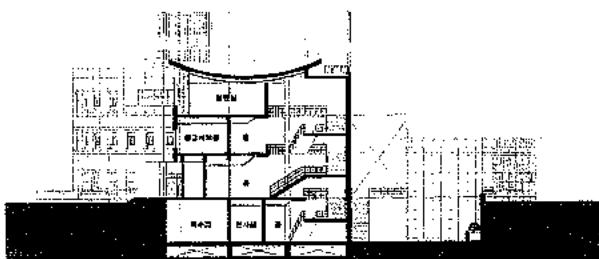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수원영통지구와 용인수지2지구의 근린공원 안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5개 작품이 접수된 결과 두 프로젝트 모두 에이텍 건축(김상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96년 10월 21일 발표했다. 수원 영통 지구의 우수작은 엑시트건축(이강호)안이, 가작으로는 기인 · 건웅건축(이성우)안이 각각 선정됐으며 용인수지2지구의 우수작은 기 인건축(안상훈)안이 선정됐다.

수원영통지구 당선작 에이텍 건축(김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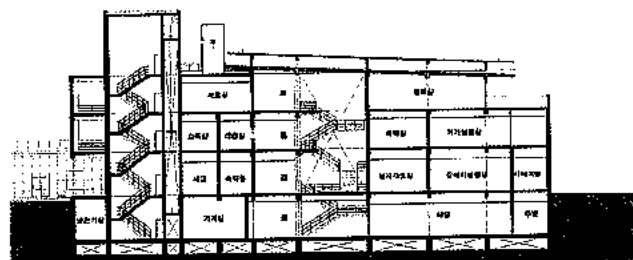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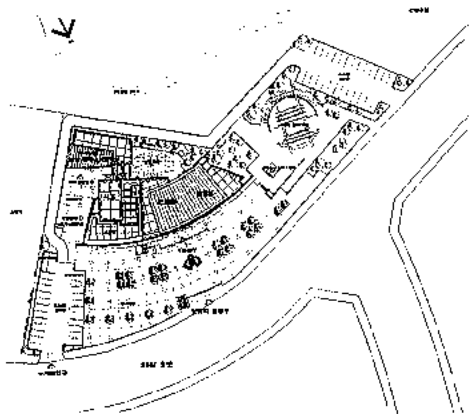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지구 (근린공원) 4호내
지역지구	자연 녹지 지역
대지면적	공원면적 142,402.00㎡ (43,076.00평) 부지면적 7,318.00㎡ (2,214.00평)
건축면적	1,161.20㎡ (251.26평)
연 면 적	3,797.01㎡ (1,148.59평)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열 람 석	810석 -일반열람실 : 282석 -아동열람실 : 160석 -참고열람실 : 146석 -자유열람실 : 86석 -자료열람실 : 76석 -장애자열람실 : 60석
조경면적	법정-664.29평 계획-법정면적이상확보
주차대수	지상 50대
사 업 비	35억 6천 9백
사업기간	'96. 11. ~ '9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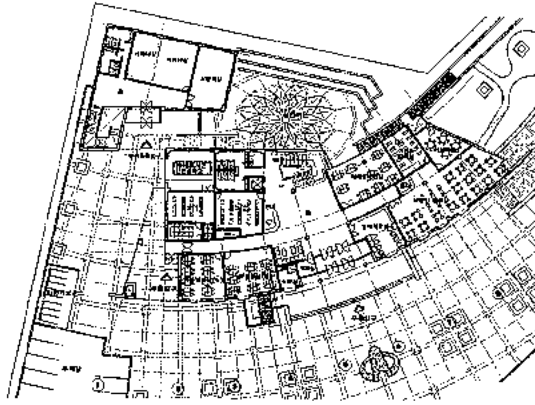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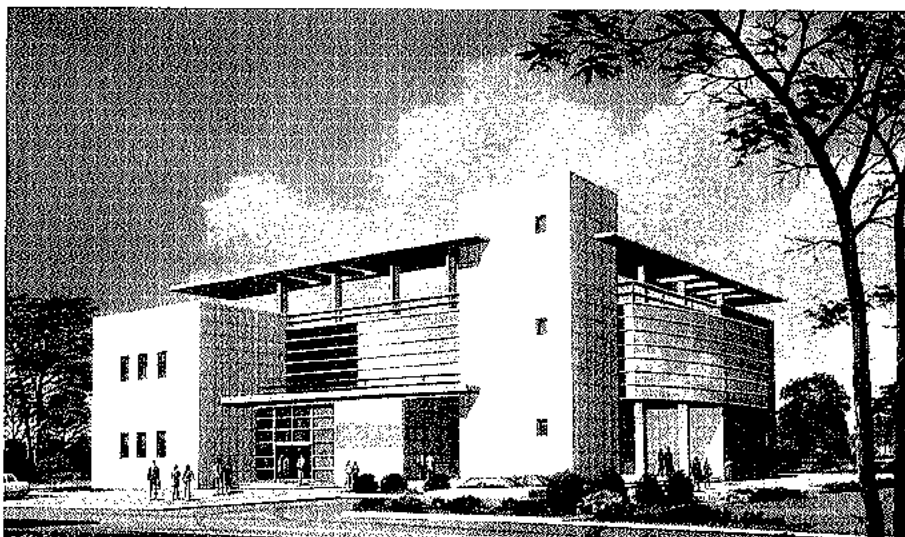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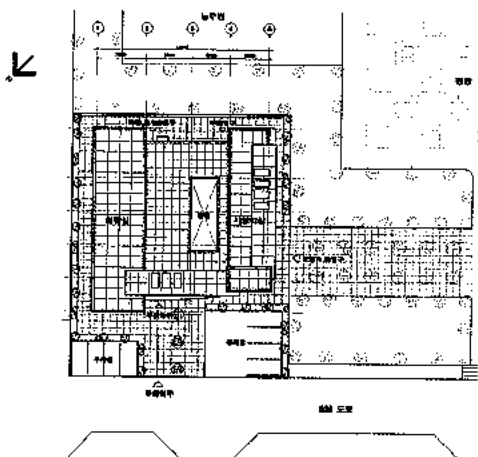
용인 수지2 지구 당선작

에이텍 건축(김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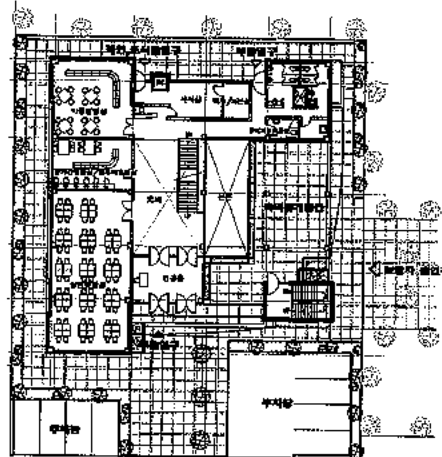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군 수지2지구 (근린공원)2호내
지역지구	자연 녹지 지역
대지면적	공원면적 15,543.00㎡ (4,071.00평) 부지면적 1,156.00㎡ (350.00평)
건축면적	503.89㎡ (152.43평)
연 면 적	1,149.66㎡ (347.77평)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열 람 석	218석 -일반열람실 : 60석 -아동열람실 : 29석 -참고열람실 : 25석 -개가열람실 : 84석 -자료열람실 : 20석
조경면적	법정-235.09평 (부지내 조경-25평)
주차대수	지상 8대
사 업 비	9억 7천 5백
사업기간	'96.11 ~ '98. 2.



배치도



1층 평면도

96년도 11월분 설계도서 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 9백8십9만2천3백24㎡ 보다 7.5%(7십4만5천9백29㎡) 증가한 1천6십3만8천5백53㎡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월누계 1억1천2백7십4만7천6백70㎡ 보

다 3.3%(3백6십9만2천3백93㎡) 감소한 1억9백5만5천2백77㎡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0월분 1천1백5십9만4천6백1㎡보다 8.2%(9십5만6천3백48㎡) 감소한 1천6십3만8천2백53㎡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분		1995년도	1996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4,857,315	4,928,909	71,594	1.5
감소지역	대구	714,956	1,028,559	313,603	43.9
	광주	169,416	443,259	273,843	161.6
	충북	164,653	434,620	269,967	164.0
	충남	109,851	224,674	114,823	104.5
	전북	155,359	303,695	148,336	95.5
	경남	616,138	640,060	23,922	3.9
	부산	970,525	753,075	(217,450)	-22.4
	인천	448,004	402,728	(45,276)	-10.1
	대전	285,769	268,964	(16,805)	-5.9
	경기	873,356	748,843	(124,513)	-14.3
	강원	175,293	160,270	(15,023)	-8.6
	전남	105,110	103,422	(1,688)	-1.6
	경북	174,956	160,873	(14,083)	-8.0
	제주	71,623	36,302	(35,321)	-49.3
합계		9,892,324	10,638,253	745,929	7.5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용도별		10월분	11월분	증 감	비율(%)
단독주택		734,358	454,030	(280,328)	-38.2
다세대주택		230,100	226,637	(3,463)	-1.5
연립주택		276,473	115,983	(160,490)	-58.0
아파트		5,715,144	5,148,670	(566,474)	-9.9
근린생활시설		1,156,437	1,107,297	(49,140)	-4.2
종교시설		111,585	58,353	(53,232)	-47.7
의료시설		42,209	165,842	123,633	292.9
교육연구시설		265,145	270,011	4,866	1.8
업무시설		463,117	636,850	173,733	37.5
숙박시설		151,681	176,350	24,669	16.3
공장		867,563	899,914	32,351	3.7
기타		1,580,789	1,378,316	(202,473)	-12.8
계		11,594,601	10,638,253	(956,348)	-8.2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1월분)

구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도별											
단독주택	2,340	2,432	685,643	1,603	1,684	454,030	(737)	(748)	(231,613)	-33.8	
다세대주택	506	541	230,381	411	443	226,637	(95)	(98)	(3,744)	-1.6	
연립주택	83	96	123,617	85	93	115,983	2	(3)	(7,634)	-6.2	
아파트	130	312	4,805,849	115	257	5,148,670	(15)	(55)	542,821	11.8	
근린생활시설	2,583	2,750	1,186,587	2,338	2,482	1,107,297	(245)	(268)	(79,290)	-6.7	
종교시설	98	115	90,817	88	97	58,353	(10)	(18)	(32,464)	-35.7	
의료시설	14	15	57,364	22	24	165,842	8	9	108,478	189.1	
교육연구시설	106	108	232,856	144	163	270,011	38	55	37,155	16.0	
업무시설	106	116	410,910	97	98	636,850	(9)	(18)	225,940	55.0	
숙박시설	111	124	300,322	171	188	176,350	60	64	(123,972)	-41.3	
공장	712	932	852,920	654	867	899,914	(58)	(65)	46,994	5.5	
기타	861	1,012	1,115,058	1,030	1,184	1,378,316	169	172	263,258	23.6	
합계	7,650	8,553	9,892,324	6,758	7,580	10,638,253	(892)	(973)	745,929	7.5	()=미아·손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1월분)

구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9,466	40,216	10,333,159	35,758	36,592	10,697,879	(3,708)	(3,624)	364,720	3.5	
다 세 대 주 택	7,566	8,487	3,638,026	6,878	7,333	4,048,453	(688)	(1,154)	410,427	11.3	
연 립 주 택	1,137	1,203	1,659,128	1,133	1,186	1,674,923	(4)	(17)	15,795	1.0	
아 파 트	1,710	5,630	42,095,209	1,169	2,562	41,876,266	(541)	(3,068)	(218,943)	-0.5	
근린생활시설	35,934	37,179	16,610,001	33,384	34,822	15,751,965	(2,550)	(2,357)	(858,036)	-5.2	
종 교 사 설	1,183	1,340	934,495	1,077	1,236	976,686	(106)	(104)	42,191	4.5	
의 료 시 설	254	270	819,846	228	262	827,715	(26)	(8)	7,869	1.0	
교육연구시설	1,270	1,438	3,179,163	1,198	1,332	3,354,187	(72)	(106)	175,024	5.5	
업 무 시 설	1,177	1,233	5,373,824	960	1,014	5,108,139	(217)	(219)	(265,685)	-4.9	
숙 박 시 설	1,351	1,516	2,047,512	1,491	1,592	1,545,812	140	76	(501,700)	-24.5	
공 장	8,943	12,245	13,207,358	7,133	9,473	10,150,338	(1,810)	(2,772)	(3,057,020)	-23.1	
기 타	10,738	12,903	12,849,949	10,498	12,303	13,042,914	(240)	(600)	192,965	1.5	
합 계	110,729	123,660	112,747,670	100,907	109,707	109,055,277	(9,822)	(13,953)	(3,692,393)	-3.3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365	1,365	4,857,315	1,230	1,237	4,928,909	(135)	(128)	71,594	1.5	
부 산	785	1,058	970,525	587	800	753,075	(198)	(258)	(217,450)	-22.4	
대 구	1,077	1,110	714,956	356	356	1,028,559	(721)	(754)	313,603	43.9	
인 천	265	298	448,004	219	224	402,728	(46)	(74)	(45,276)	-10.1	
광 주	231	254	169,416	416	496	443,259	185	242	273,843	161.6	
대 전	157	158	285,769	212	213	268,964	55	55	(16,805)	-5.9	
경 기	1,152	1,282	873,356	1,168	1,335	748,843	16	53	(124,513)	-14.3	
강 원	387	425	175,293	306	348	160,270	(81)	(77)	(15,023)	-8.6	
충 북	351	375	164,653	341	435	434,620	(10)	60	269,967	164.0	
충 남	250	250	109,851	317	272	224,674	67	22	114,823	104.5	
전 북	190	190	155,359	216	216	303,695	26	26	148,336	95.5	
전 남	252	278	105,110	232	261	103,422	(20)	(17)	(1,688)	-1.6	
경 북	320	423	174,956	361	464	160,873	41	41	(14,083)	-8.0	
경 남	747	948	616,138	690	808	640,060	(57)	(138)	23,922	3.9	
제 주	121	141	71,623	107	115	36,302	(14)	(26)	(35,321)	-49.3	
합 계	7,650	8,553	9,892,324	6,758	7,580	10,638,253	(892)	(973)	745,929	7.5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1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6,973	17,051	26,505,064	24,490	24,551	52,262,971	7,517	7,500	25,757,907	97.2	
부 산	9,829	11,634	7,991,215	7,289	9,797	9,234,430	(2,540)	(1,837)	1,243,215	15.6	
대 구	13,229	13,751	7,417,315	7,640	7,684	7,864,157	(5,589)	(6,067)	446,842	6.0	
인 천	3,987	4,237	5,385,748	3,628	3,709	4,244,628	(359)	(528)	(1,141,120)	-21.2	
광 주	3,079	3,942	3,903,359	3,265	3,871	2,617,665	186	(71)	(1,285,694)	-32.9	
대 전	2,680	2,857	3,037,278	3,019	3,067	1,848,573	339	210	(1,188,705)	-39.1	
경 기	19,757	22,142	21,007,514	18,064	19,883	11,241,103	(1,693)	(2,259)	(9,766,411)	-46.5	
강 원	5,822	6,803	4,095,852	4,597	5,023	1,850,860	(1,225)	(1,780)	(2,244,992)	-54.8	
충 북	5,252	5,931	4,066,549	4,074	4,699	2,905,975	(1,178)	(1,232)	(1,160,574)	-28.5	
충 남	4,365	4,683	5,922,016	3,362	2,930	2,006,108	(1,003)	(1,753)	(3,915,910)	-66.1	
전 북	2,826	3,155	3,868,517	2,393	2,395	1,823,753	(433)	(760)	(2,044,764)	-52.9	
전 남	4,013	4,735	2,972,886	3,211	3,552	1,482,669	(802)	(1,183)	(1,490,217)	-50.1	
경 북	6,354	8,338	6,304,845	4,603	5,673	2,536,573	(1,751)	(2,665)	(3,768,272)	-59.8	
경 남	10,505	12,221	9,373,170	9,716	11,164	6,420,514	(789)	(1,057)	(2,952,656)	-31.5	
제 주	2,058	2,180	896,342	1,556	1,709	715,300	(502)	(471)	(181,042)	-20.2	
합 계	110,729	123,660	112,747,670	100,907	109,707	109,055,277	(9,822)	(13,953)	(3,692,393)	-3.3	()=마이너스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Domus

A+U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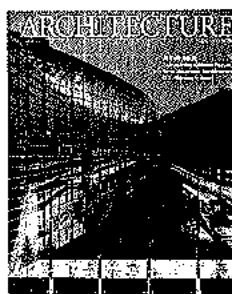
건축문화

Architecture

96년 10월호

10월호 디자인 특집은 최근 일본 건축을 주제로 거품경제의 여파가 사라지고 있는 최근 동향과 더불어

아미니멀리즘 계열의 요시오 타니구치의 작품과, 특이한 재료, 구조, 형태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시게루 반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 라파엘 비놀리의 도쿄국제포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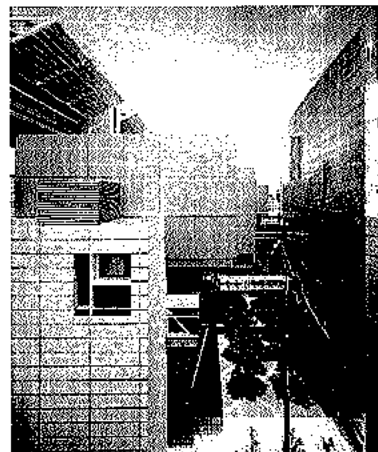


최신 일본건축

▶ 일본의 거품경제시대에는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현실화하였다. 2차대전 이후 꾸준히 누적되어 온 노력들이 결실화되면서 최고의 경제적 부흥을 도래시켰기 때문이다. 노트르담 성당을 연상시키는 두 개의 높은 탑 형상을 한 Kenzo Tange의 도쿄시청, Arata Isozaki의 미토문화관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2차대전의 패배에 기인한 듯한 일종의 열등감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외국 건축가들에게 맡기는 결과를 낳았다. Philippe Starck, Peter Eisenman, Nigel Coates, Norman Foster, Renzo Piano 등 많은 건축가들이 최고급 대우를 받으며 사치스런 건축물을 일본에 남겼다. 하지만 이제 이들 건물은 초인간적인 스케일과 높은 공사비로 시민의 세금만 높인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품시대가 마감된 후, 이들 건물 중

에는 도산하여 그 용도가 바뀐 것도 있고, 텔레포트 타운과 같이 시공 도중 계획이 취소된 예도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소규모의 작품을 배출해내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목할만한 작품으로 ▶ 순수한 요소들의 엄격한 질서가 돋보이는 Yoshio Taniguchi의 작품으로 도쿄의 카사이 린카이 뷰포인트 방문객 센터, 도요다 미술관, ▶ 종이라는 재료를 통해 고오베에서 구조적 실험을 하고 있는 Shigeru Ban의 종이교회, 종이주택이 소개되어 있다.

▶ 최근 완공된 도쿄국제포럼은 우루과이 태생의 Rafael Viñoly의 설계로, 8200평에 달하는 대지에 16.5억불의 공사비를 투자한 20세기의 최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일본의 거품경제가 창조한 마지막 작품이다. Viñoly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컨셉트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념비적인 동시에 일반인에게 친근감을 주는 거대 건축물군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도심 삼각형의 대지에 위치한 국제포럼의 디자인은 기능적으로는 명확한 프로그램의 분배를 이루고 있으며, 80년대 미국, 유럽 건축가들의 일본내 작품에서 보이던 과격성이 제거된 침착함, 겸허함이 강조되어 있다. 내부에서의 투명성과, 그것을 잇는 동적인 형태의 연결로가 점근 동선을 원활하게 하면서 전통적인 외부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초대형의 스케일과 외부와 차단되는 입면, 그리고 갖가지 자유로운 행위들을 제한하는 프



도쿄국제포럼(Rafael Viñoly작)

로그랩은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용, 연극 공연, 연주회용 홀 4개와 대규모 회의장과 만찬홀로 구성된 대규모 건물군으로, 각 홀에 대한 도면과 정보도 소개되어 있다.

테크놀로지

▶ 도쿄국제포럼의 복합적인 시공 절차에 대한 기술적 설명, ▶ 목조 구조의 다양한 가능성, ▶ 미국식 목조 주택의 일본에서의 효용성, ▶ Lightscape Visualization System에 의한 컴퓨터 렌더링 등이 소개되어 있다.

기타

▶ 자연 경관이 뛰어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증가하는 관광객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미국의 국립공원, ▶ 미국의 한 교외지역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목적으로 계획된 초대형 쇼핑몰과 그 입면에 대한 비판이 다루어졌다.

Architectural Record

96년 11월호

〈근작 소개〉

에서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건축된 수정궁, 미국 워싱턴 주의 올림픽 컬리지 셀튼, 세



인트 루이스의 에릭 P. 뉴만 교육회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종류에 따라 최근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에서는 특수한 요구사항이 부가되는 건축물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최근 미국건축이 외국에 점점 뒤쳐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게재되어 있다.

근작소개

▶ 구 동독지역에 들어서 그 지역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노이에 메세 라이프치히는 대규모 종합박람회장으로 도로체계, 조경, 연못, 박람회장들, 수정궁이 체계적으로 조합된 프로젝트이다. 램 볼하스, 리처드 로저스 등도 참여했던 국제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Von Gerkan, Marg & Partner(GMP)의 계획안은 조직적이면서도 공원과 같은 느낌을 주는 분산적인 배치가 돋보이고 있다. 특히 Ian Ritchie가 설계한 수정궁은 계절에 따른 열, 채광, 통풍 관리가 과학적으로 고려되어 있으며, 디테일은 19세기의 수정궁들을 연상하도록 설계되었다. ▶ 미국 워싱턴 주의 숲 속에 자리잡은 올림픽 컬리지 셀튼은 경제성과 주위 경관과의 조화가 관건인 학교계획이다. Miller/Hull Partnership의 설계는 주위 자연과 잘 고려한 인테리어가 특히 돋보인다. ▶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의과대학 내에 위치한 Cannon의 에릭 P. 뉴만 교육회관은 다이내믹한 볼륨의 형태가 자연 채광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 작품이다.



노이에 메세 라이프치히 종합박람회장

연속기획 - 특수 기능의 건축물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증가하면서,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회관 등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특수한 기능적 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일반적인 건물들로부터 유리되고자 하지는 않기에,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건축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을 사회 일반 주류에 재편입시

키고자 하는 것이다. H.J.C. 보우덴 양로원, 노스이스트 벨리 다목적 양로원, 켈로그 회관, 크리스토퍼 플레이스, 뉴올리안즈 대학 자원 훈련 및 보조기술 회관, 유니언 구호 회관 등의 예를 소개하였다.

비평 - 왜 미국 건축은 외국에 뒤쳐지고 있는가?

근래의 미국건축과 동아시아, 유럽의 건축을 비교하자면 후자가 훨씬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건축자체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확연히 차이가 있다. 베를린에서는 건축의 정치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건축유산의 영원성을 역설하였으며, 마드리드 일간지의 문화란에는 건축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설계경기를 활발하게 개최하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30대에 의미있는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건축주의 끝없는 참견과 일반인의 무관심에 지치고 50대에 비로소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미국의 건축가와 상반된다. 미국은 영화와 컴퓨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더욱 관심이 있는 듯하며, 이러한 경향은 건축에도 보여 일부에서는 시공보다는 출판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드웨어 분야인 건축도 분명 문화적 수준의 중요한 척도이며, 그렇기에 더욱 분발해야만 한다. 과감성, 자유로움, 창조력, 열망 등이 건축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예술이 분명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며, 그래야만 자국과 타국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타

▶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도시계획 국제 설계경기 결과, ▶ 뉴욕시에 등장한 Rem Koolhaas 설계의 소형 미술관 레만 모핀 갤러리, ▶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에 시공 중인 Adriaan Geuze의 프로젝트들, ▶ 1996년 건축업계의 각종 통계값과 97년의 전망, ▶ EIFS(외부 차단 및 마감

시스템)에 의한 효과적인 방수, 절연 디테일, ▶ 컴퓨터 소프트웨어 Architrion VI 와 Lightscape 2.01의 비교, ▶ 미끄럼 방지용 바닥 마감재, ▶ 사무실의 방음설비 계획 등이 소개되어 있다.

Domus

96년 10월호

근작 소개

이번호에서는 근작소개로 서아프리카의 한 보건소 및 빌라, 일본건축가 Ar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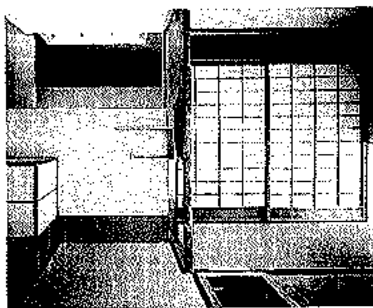
Isozaki의 작품, 스위스 쥐리히의 IBM 빌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늘날 건축에 있어 문화적으로 연관된 유사한 요인들을 혼합시키고자 하는 초문화성에 관한 비평이 실려있다.

▶ 핀란드 건축가 Mikko Heikkinen과 Markku Komonen이 서아프리카에 설계한 보건소와 빌라는 그 지역의 재료와 건축법을 사용하여 범세계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낸 예를 보여주고 있다.

▶ 일본 Arata Isozaki의 두 소규모 작품인 우지-안과 요보-칸은 전통적인 차의식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공간, 재료로 전환시킨 것으로, 그의 건축철학을 재속고해보는 작품이기도 하다.

▶ 그 외에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Mario Campi와 Franco Pessina의 IBM 오피스 빌딩,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의 Emanuele Fianco, Stefano Guidarini, Pierluigi Salvadeo가 설계한 집합주거,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Vincente Gualart의 원통형 주택,

Renzo Piano의 카나 문화관, 프라하 궁에 대한 Borek Sipek의 부가 디자인, Elsa Prochazka가 설계한 비엔나의 베로벤, 오펜바르트, 슈베르트, 스트리우스, 하이든 등의 음악과 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다. ▶ 건축 외 분야의 디자인으로 Nanni Strada의 직물 작품들, Marc Sadler의 인체 공학에 기반한 스포츠웨어 디자인, Vespa 경오토바이사의 50년사 등이 다루어졌다.



우지-안(Arata Isozaki 作)

행사 - UIA(국제 건축가 연맹) 바르셀로나 '96

1992년의 올림픽을 위해 재조직된 바르셀로나는 성공적인 건축 및 도시계획의 좋은 예이며, 그렇기에 UIA를 개최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도시였다. 공무원들의 회합이었던 기존의 UIA와는 달리, 바르셀로나 UIA는 문화로서의 건축도 강조하여 약 60여명의 '스타' 건축가들을 초빙하였다. Gaudi전, Dali와 건축, 미니멀리즘 건축전 등 18개의 전시회가 시 전체에 산발적으로 열려 관객의 분산을 꾀했지만, 건축가들의 강연회로 사람들이 몰렸으며, 그또한 강연보다는 사인회에 더 비중을 둔 것이었다. 바르셀로나 UIA는 점점 더 오락문화사업화 되어가는 건축계의 모습과 그 폐해를 잘 보여준 행사였다.

비평 - 초문화성에 관하여

오늘날 문화에 관한 담론은 각 문화권의 독자성이나 그들 사이의 교류, 복합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초문화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내적 연계, 혼합, 상호교류를 강조하는 초문화성은 그러나 개별 문화권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영역이 뚜렷한 문화권들의 병치에서 서로의 특징이 나타났다면, 오늘날에는 서로 연관된 유사한 요인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국제화시대에 국경을 넘어 프로젝트를 맡는 건축가들에게 이러한 초문화성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 인체 시뮬레이션

역사를 통해 인체의 재현은 형태의 인식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어왔다. 영화와 비디오가 촬영을 통해 존재하는 인체의 운동을 재현할 수 있었다면, 컴퓨터 디지털 그래픽은 과거의 회화와 같이 촬영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체를 재현하고 운동시킬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장애가 되는 것은 엄청난 정보 처리량을 감당할 컴퓨터의 부재와, 관성, 중력, 탄성 등에 관계된 인체 움직임에 대한 물리적 이해의 부족이다. 그렇기에 인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은 기술과 관계된 것만은 아니며, 현상과 그것의 인식 방법에 대한 이 시대의 보다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둔 문제이다.

미술 - Antoni Miralda전

1996년 바르셀로나와 이어서 발렌시아에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Miralda는 오락과 예술의 경계에 위치한 소비-예술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일상 공업품, 민속물, 종교용품들의 접합을 통해서 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타

▶ 독일 아스펜에서 열린 제46회 국제 디자인 회의에 관한 비평 ▶ 인체의 변형에 기반하여 컴퓨터로 디자인된 Andrew Martin의 가구들 ▶ 서양의 전통적인 투시도적 재현 기법을 부정하는 헝가리의 컴퓨터애니메이터 Tamas Waliczky의 작품들 ▶ 멕시코 화가 Fernando Leal Audirac의 반추상회화들 ▶ 포르투갈에 있는 Alvaro Siza의 작품들과 그 위치 등이 다루어졌다.

A+U

96년 12월호

12월호의 주제는 리노베이션으로 특히 프랑스 알비나 카를로 스카르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스페인 작가들은 Josep Linás Carmona / José Antonio Martínez Lapeña & Elías Torres Tur / Guillermo Vázquez Consuegra이며, 이탈리아 작가로는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이 소개되었다.



건축가의 활동 영역에서 리노베이션이 점하는 위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테마는 특히 유럽에서 중요시되며, 이에 상응하는 나라들을 꼽자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의 상황은 매우 상반되는데, 현대건축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스페인은 다소 그 활기가 수그러진 감은 있으나 그들의 건축은 아직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들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현대건축이 瀕死상황에 이른 국가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상황에서 예외적 인물이 렌조 피아노(Renzo Piano)로 그의 작품은 건축계의 어프로치면에서나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그의 활동의 장으로 보나 나머지 이탈리아인들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아노는 기술적 가능성을 넓혀가는데도 정령이 나 있지만, 첨단 기술과 자

연과 역사의 산물을 조화시켜 나가는데는 그에게 견줄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페인의 건설산업은 유럽에서도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는 편으로, 전통적 소재를 사용한 수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페인 건축의 매력은 이러한 전통적 공법과 전통적 형태를 추상화시킨 의장을 입힌 현대적 형태사이의 긴장 관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유럽에 있어서 인기있는 이들 두 나라의 매력은 사실은 서로 반대의 이유에 기인한다. 피아노의 경우는 기술달인의 측면에 의한 것이며 스페인의 경우는 기술의 미개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과거와 현재의 소재와 형태를 원만히 융합, 주변에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견지하고있는 건축을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 호세 안토니오 마르티네 라페냐(José Antonio Martínez Lapeña)와 엘리아스 토레스(Eliás Torres)는 스카르빠의 영향이 명백히 보이는 작가들로 비교적 다작을 한 그들의 작품은 즐겁고 시적인 창의력에 가득차 있다. 소개된 작품은 Baldiri Reixach School의 리노베이션이며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에 있는 이 건물은 원래 가우디의 손이 간 작품이기도 하다. 이들의 작품은 일관된 작품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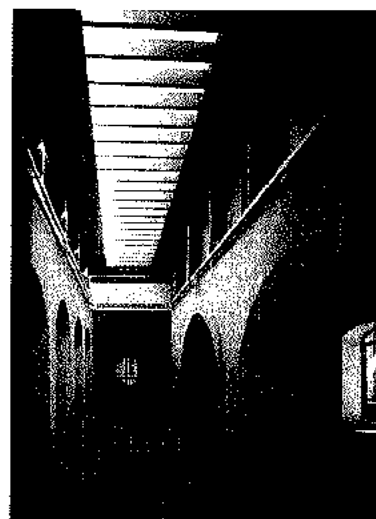
반면 ▶ 조셉 지나스(José Linás)의 경우 기존의 건물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작품의 차이가 확실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기존의 작품이 명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원안에 충실하려 하는 반



메트로폴 극장(조셉 지나스 작)

면 기존의 건물이 수준이하라고 판단 될 때에는 그는 다른 방침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소개된 작품은 Teatro Metropol(메트로폴 극장)개수이며 여기서 그의 방침은 가능한 충실히 修復하는 동시에 현대의 연출수준과 법적 규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따라서 무대부분은 완전히 새로 디자인 하였다.

▶ 길레르모 바스케스 콘세그라(Guillermo Vázquez Consuegra)는 그의 활동지역인 Andalucía의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소개된 작품인 Andalusian Heritage Institute "The Monastery of Seville"에서는 기존의 수도원 건물중 비교적 건축적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는 상대적으로 좀더 자유로운 작업을 하였다.



Seville 수도원
(길레르모 바스케스 콘세그라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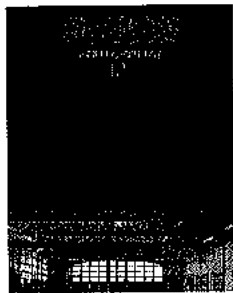
▶ 렌조피아노의 건축은 유기적 기술의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기적 기술은 푸진과 비올레르의 디자인이나 이론서에 그 맥이 닿아있다. 즉 네오 고딕인 것이다. 이러한 네오 고딕은 영국에서 그 절정을 이루어 지금의 하이테크건축에 이르고 있는데 피아노와 영국건축사조와의 관계에 대한 배후를 살펴보면 풍파두 센타의 설계경기에서 그의 파트너였던 리처드 로저스와 영국의 천제적 구조 엔지니어였던 피터 라이스와의 관계가 있다. 또한 그 이전에 밀라

노 대학시절 당시 교수였던 프랑코 알비니의 영향을 들 수 있겠다. 소개된 그의 세 개의 작품 중 피아트社의 Lingott 공장의 재생은 모더니즘 건축의 대명사였던 기존의 거대한 공장건물을 탈공업화 시대의 도시의 축소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상부에 설치된 양파모양의 유리로 씌워진 회의실은 스페인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피아노의 기술을 나타내기도 한다. Cultural Center Jean Marie Tjibau는 리노베이션은 아니지만 이번호에 소개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문화에 대한 수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그의 유기적 관계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상은 Peter Buchanan의 권두 논문 'The Renewal of Building Culture'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신건축

96년 12월호

이번호 특집에서는 나무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목조를 이용한 공간의 이용에 대한 유용성과 현재



그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4개의 목조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나무를 내장재가 아닌 구조재로서 사용한 작품들로 1987년 이후로 계속됐던 일본에서의 목조 붐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기사에서는 하이퍼 빌딩에 대해 지적으로 손라리와 램 쿨하스의 오프로젝트와 조지오프 대두고 있다

특집-나무의 공간

4년전 '나무의 공간-신목조건축의 디자인과 니테일'이라는 제목의 (신건축의) 임시증간호가 발행되었었다. 1987년 관계법령이 바뀜에 따라 대규모 목조건축이 가능하게 된 일본은 목조건축의 붐을 맞이하게 되었다. 4년전엔 그 붐의 결과 많은 목조건축물들이 완성되었던 첫 번째 피크에 해당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여전히 그 기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목조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하나는 목조를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또 하나는 좀 더 건축적인 사고에 있어서 철, 유리와 같은 재료에 대한 대체물을 찾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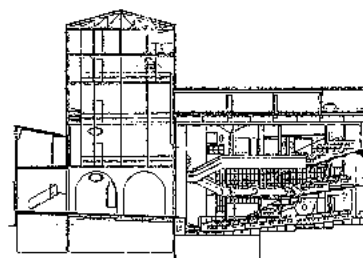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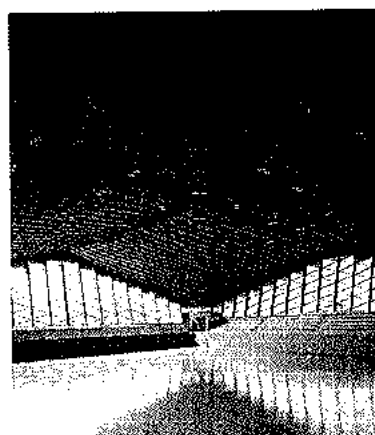
•대담 : 왜 목조인가-애매한 재료의 가능성을 살핌

현재 일본에서의 목조건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목조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이 대담에서는 먼저, 새로운 목조(일본의 전통적인 목조가 아닌 목조-이것도 일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연구되다가 잠시 단절이 있은 후 최근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에 대한 생각은 독일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일차대전 이후 철재가 부족했던 독일에서 대응품으로 목재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스마닝의 무선 목탑'과 같은 것이 모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그와는 또다른 방식의 목조건축이 활발히 이루어 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목재의 유통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공(세공의 반대 개념)기술에도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목재의 애매성에 대한 지적에서 지금의 일본인들은 너무 목재를 철재와 같이 굳은 재료로써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목재는 그 특성상 변형이 일어나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 반면 현재 쓰여지는 목재는 철제구조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 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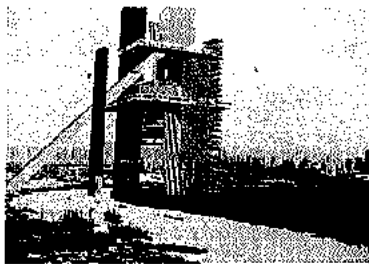
트의 연결방법 등을 거론하였다.

앞으로의 목재의 이용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목재사용에 있어서 집성재 등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가진 목재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목재 고유의 특성에 맞는 이용방법 모색의 필요성, 그리고 독일에서와 같은 공업적 생산에 의한 목재 가공 방법의 도입 등을 언급했다.

목조 작품으로는 ▶ 府中시립 종합체육관 (市浦도시개발건축 컨설턴트+第一工務)의 체육관 건물 2개와 ▶ JR二條역과花園역 ▶ 마벨스타 伊王野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一色건축설계사무소)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府中시립종합체육관(市浦도시개발건축 컨설턴트+제일공방 作)



하이퍼빌딩(렘 콜하스+OMA 공동설계)

특별기사-하이퍼 빌딩

하이퍼빌딩은 21세기를 서포트할 10여 만명의 초고밀도를 상징한 도시적 규모와 기능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높이 1000m, 연면적 1000ha, 이용年數 1000년의 장수명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4년 12월에 '하이퍼빌딩 연구회'가 발족한 후 13개의 부회로 나누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바, 전체 기본 구상을 정리하기 위해 古谷誠章, 렘 콜하스, 파울로 솔레리 3인에게 올해 4월 위탁, 10월 17일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의 일환으로 프리젠테이션이 행해졌다. 파울로 솔레리의 프로젝트는 미국 모하비사막에 세우게 될 거대한 탑으로 'Arcology Major'라는 제목을 지녔다.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rcology(완전환경계획도시)가 주요 개념을 이룬다. 렘 콜하스의 하이퍼 빌딩은 타이의 방콕에 계획되어진 것으로 그는 건설의 과정도 8년에 완공하는 단기 시나리오와 70년간에 완성하는 장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古谷誠章의 하이퍼 스파이럴은 동경에 계획되어졌으며 나선형의 구조체가 도시의 도로망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문화

96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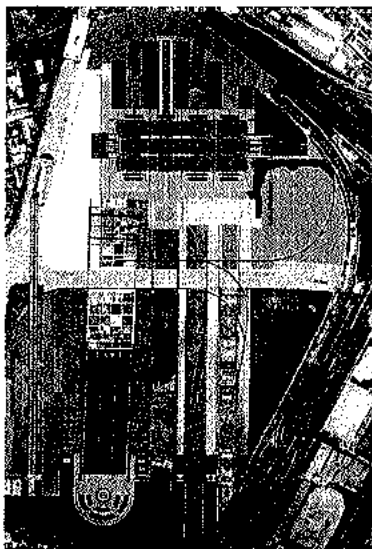
12월호에서는 7.9월호에 이어 장 누벨의 이어지지 않은 100개의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점으로는 '틀뢰즈의 사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7개의 아티클을 소개

하고 있다. 연재물로는 공간의 시네마토그라피-퍼플러 아방가르드와 근대건축 / 초현실주의 제3회 '근대적 상상력' / 구조가 열전 최종화-산티아고 카라트라바가 소개되었다.

장 누벨의 미완의 프로젝트 100

소개하기로한 100개의 프로젝트중 남아 있던 No.0-No.25까지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장 누벨의 최초기서부터 1996년까지의 미완의 프로젝트인 이들은 다양한 빌딩 타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되지 않은 계획안의 관계로 그의 논리의 절도를 잘 알 수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다. 300여개에 이르는 프로젝트 중 엄선된 100개의 프로젝트는 누벨 그 자신도 애착을 갖는 것들이기도 하다.



장 누벨의 미완프로젝트들 가운데 한 작품인 Parc De La Villette

특집-질 들뢰즈

작고 데리다의 작업에 의해 촉발되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의 디컨스트

럭티비즘의 기세가 약해졌을 때에, 피터 아이젠만이나 제프리 키프니스를 중심으로 하여 소위 變 的인 건축이 디자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건축의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는 주로 일리아 프리고진에 의한 散逸構造理論과 질 들뢰즈의 (變-라이프니츠와 바로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철학자라는 것은 개념의 차원에서 창조하는 사람, 즉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개념이라는 것은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true=도구인 것이다. 미셀 푸코와의 대담에서 이와같이 말한 들뢰즈는, 이미지의 사고를 깊이 깨닫고 現 働化하는 개념을 차례차례 창출해 나갔다. 그는 생물학이나 지질학, 화학,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영역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인데, 건축도 건축이외의 여러 영역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건축사고를 창출해 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 들뢰즈의 텍스트에서 (컨셉트)를 차용하거나 인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들뢰즈는 시장논리에 속한 (컨셉트)를 엄격히 비판한 적이 있다. 반면 건축가의(컨셉트)가 되는 것들의 다수가 시장논리에 속한 케치 프레이즈로서의 기호인 것이다.

쉽게 유통 가능한 (컨셉트)로서 기호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개념)을 단련시키는 일과, 텍스트의 이미지를 복사한 것으로서의 건축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축이라는 지도를 그려내는 일이 건축에 있어서 들뢰즈를 읽는데서 오는 유일한 가능성일 것이다.

- 後藤武의 「들뢰즈의 사상 키워드」 중에서 -

〈번역/강상훈, 최원준〉

이사회 개최

건설회사의 설계·시공 겸업 요구 강력 대처

충북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수료식

서울시 건축상 출품작 공모

「'97 문화유산의 해」 선포

이사회 개최

협회발전위원회 신설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구랍 3일(제13회)과 27일(제14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13회

- 제1호 의안 : 협회발전특별위원회 신설 승인의 건

- 협회발전특별위원회를 협회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함

- 협회발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키로 하되, 위원추가 여부 및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와 서울과 지방의 회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회장에 위임함

위원장 : 부회장 중 1인

위원 : 이사 1인, 감사 1인, 시·도건축사회 회장 15인, 서울지역건축사회 회장 5인이내 등

- 특별대책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하되, 내년 임시총회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함.

- 제2호 의안 : 97년도 위원회 구성 및 선임 승인의 건

- 특별전형대책위원회와 건축설계표준화 위원회는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3호 의안 : 중국방문대표단 구성 승인의 건

- 한·중·일 건축교류협의회 설치 협의를 위한 중국방문대표단을 원안대로 승인함.(대표단 : 회장, 김규태 고문, 이정근 국제위원장)

- 제4호 의안 : 연금정산대책위원회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 연금정산대책위원회 운영지침(안)중 제1조(목적) 및 제6조(임기)에 명시된 '세무'라는 용어를 '업무'로 수정 승인함.

- 제5호 의안 : 예산 목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산 목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 의안 :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 비상근 부회장으로 서울건축사회 회장을 선임함.

- 협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회장 1인을 추가하여 서울과 지방 이사중 각 1인씩을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서울건축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검토하여 내년 임시총회시 상정키로 함.

○ 제14회

- 제1호 의안 : 건축설계표준화지침 연구용역 승인의 건

- 건축설계표준화 추진에 따른 실무교재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의함.

▶ 연구용역명 : 건축설계표준화지침 작성

▶ 작성자 : 건축설계표준화위원회 위원장 김우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용역금액 : 10,225,000원

- 제2호 의안 :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용역 승인의 건

-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의함

- ▶ 연구용역명 :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 'WTO와 양허각서를 중심으로'
- ▶ 용역수행자 :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 최찬환 교수
- ▶ 용역기간 : 발주일로부터 2개월
- ▶ 용역금액 : 28,850,000원
- 제3호 의안 : 경남건축사회 소속 진해 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경남건축사회 소속 진해지역건축사회를 원안대로 설치하기로 결의함
- 제4호 의안 : 임의적립금 사용 또는 반환기일 연장 승인의 건
- 96년도 건축사시험회계 운영을 위하여 '96. 1. 12일 일시차입한 임의적립금 4천만원에 대하여 '97. 12월말까지 반환기일을 연장하기로 결의함.
- 제5호 의안 : 건축사연금정산금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대리인 선정 및 수입보수 결정의 건
- 건축사연금정산금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대리인 선정 및 수입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결의함.
- ▶ 조세불복청구 대리인 : 정판영(협회 자문사무사)
- ▶ 수입보수 : 수입보수는 3천만원으로 하되, 일반회계 지도사업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출하기로 함
- 제6호 의안 : 예산목간전용 승인의 건
- 96년도 일반회계 지도사업비 예산의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조사연구비 5백만원을 지도사업비로 목간전용하기로 결의함.
- 제7호 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추가 및 수수료 결정의 건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수행에 따라 추가되는 참여기술자 추가(P.P · P.Q) 확인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결의함.
- ▶ 참여기술자 경력(P.P · P.Q) 확인서 : 3,500원/인

건설회사의 설계 · 시공 겸업 요구 강력 대치

임원 ·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에서
대책마련에 나서

우리 협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된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중 '건축사의 사업 활동 제한(건축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건과 관련해 구합 27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우리 협회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경쟁제한법령 개선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검토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반대논리와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법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회사는 건축사를 보유하더라도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설계시장 진입이 규제될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의 사업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설계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당하고 있으며, 건설회사가 보유한 우수 설계인력의 활용이 제한되어 시공을 통한 경험 및 기술이 설계과정에 환류되지 못하여 종합적인 건설기술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됨에 따라 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구합 18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18일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내용에 대한 기본방침에 잠정 합의(단, 건교부 · 정보통신부 · 통상

산업부 중 건교부만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쟁제한 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재경원 · 공정위 · 건교부 국장급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 12월중 첫 회의를 개최기로 했다. 이후 27일 회의에서는 우리 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교부측의 반박자료 제시를 통해 건축사의 설계 관련 조항이 법률상 하자가 없음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정위 주관으로 설계 · 시공겸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협회는 이번 안전과 관련해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 반박자료와 대안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94년 10월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통해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한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한편 건설회사의 설계 · 시공 일괄수행 요구에 대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쐼지를 박고말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대책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는 이달중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7년도 시무식 거행

본부 · 서울건축사회 · 서울건축사산업협동으로



시무식 광경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3일(금) 오전 10시 협회 1층 세미나실에서 97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산업협동조합 임 ·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합동 시무식에서 김영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도 많은 난제들이 예상되니 만큼 이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전 임직원이 하나로 결집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며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시무식 후에는 간소한 다과회가 열려 임직원 서로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건축사」지 디자인 개선

홍대 안상수 교수가 복디자인 맡아

정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 협회지인 월간 「건축사」가 달라졌다. 본지 편찬위원회에서는 세계화의 진전 등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른 건축사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하는 협회의 위상을 나타내고자 월간 「건축사」의 복디자인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 디자인은 국내 복디자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안상수 교수가 맡아 하였으며 제호도 종래 한자체에서 탈피하여 우리 고유의 한글체로 바꾸고 표지 및 내용디자인도 새롭게 개선하였다. 본지는 앞으로 이 같은 외양적 변화와 함께 내용적으로도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알찬 내용을 담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독자제현께 약속한다.

서울건축사회 조찬강연회

이달 24일에 「건축·건설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세훈)는 오는 1월 24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오크드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년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방향과 WTO 체제하에서의 건설 및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과 실천자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회에는 김

수한 국회의장이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연사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6회 부산건축사화우회展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회관에서

부산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의 미술동호회 임인 부산건축사화우회(회장 김종문)가 오늘 1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부산건축사회관 전시실「예당」에서 여섯 번째 작품전을 갖는다. 지난 8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작품집발간과 전시행사를 벌여 온 화우회는 현재 22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인데 올해 전시회에서는 회원들이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히 준비해온 유화 등의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회안내 : 051) 552-2023,

809-6969

충북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수료식

구은실씨 등 75명에게 수료증 수여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는 구립 5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제2기 시민건축대학 종강식 및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2기 수료식에서는 지난해 10월 17일 총 12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축과 문화」, 「풍수지리와 건축」, 「건축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총 8개 강

좌가 실시되는 동안 이중 5개 강좌 이상을 마친 구은실씨 등 75명이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한편 이 자리에는 오제세 청주시 부시장과 최호진 전임회장 등 각계 인사와 수료자 가족, 협회 임직원들이 함께 자리해 수료자들을 축하하였다.

서울시건축상 출품작 공모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관내에 건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제15회 서울시건축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응모작품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예정)된 관내 모든 건축물(규모 및 용도 제한 없음)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접수받는다. 제출자료는 응모원서 1부, 작품패널(규격 90cm×90cm) 2매, 작품사진(5"×7") 20매, 작품설계설명서(건축개요 포함) 1부 등이며, 응모작 중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장려상(5점)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각각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또 수상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건축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행정처분의 경감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 서울시 건축지도과

(02-731-6381~4)

정부,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

'문화유산 알기운동' 등
연중 다양한 기념 사업 추진

문화체육부는 우리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범국민적 애호운동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내실화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고 오는 1월 21일(화) 오후 4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정부가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것은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특히 지난 95년에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의 우리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을 계기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주체의 관리능력을 한차원 높여야 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7문화유산의 해 사업목표를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제의 합리적 개선 등에 두고 이를 위해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 문화유산 찾기 사업,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힌 사업내용중에는 내고장 문화유산 알리기운동(1월~12월)을 비롯해 문화재연구 학술대회(9월), 청소년 백일장 및 문화학교 운영(5월), 문화유산 관련 도서발간(8월~11월), 기념전시(2월~12월), 문화재 관광지도 제작(10월), 세계문화유산 등록 문화재 기념표지 설치(5월) 등 40여건의 다양한 세부 추진 사업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96대구건축 심포지움

「도시·건축」을 주제로 주제강연과 토론회 열려

예총대구지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등 대구지역 건축3단체가 주관 및 후원을 한 '96대구건축 심포지움'이 구립 17일 오후 2시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내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유결(유결건축연구소 소장), 김병현(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대표)씨가 각각 '새로운 도시공간의 태동'과 'Urban

Obligation'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이어 이종우(계명대)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재(경북대 교수), 김무권(현대건축 대표), 임팔암(동인건축 대표), 현택수(경북산업대 교수)씨 등이 참가한 토론회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유결씨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태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서울·명동성당 현상설계를 사례로 들어 혼돈되어 보이는 서울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가능성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우리가 유산을 보존하는데서 끝내기 보다는 적극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할때 도시공간은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Urban Obligation'을 주제로 강연한 김병현씨는 「오늘날 소멸되어가고 있는 도시가로를 되찾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급선무의 하나이며 이 과정에서 모더니즘 개혁의 추상적 접근방식-도시란 하나의 계획된 실체(Entity)이고, 여러 체계의 합성체임-을 벗어나 도시는 여러장소의 집합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97 POSCO 강구조작품상 현상공모

준공 사용 중인 국내 강구조물 작품 대상

한국강구조학회에서는 강구조 기술의 발전과 철강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도모하기 위한 '97 POSCO 강구조작품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포항종합제철(주)가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어 사용 중인 교량, 철탑, 해양구조물, 고층건물, 주택, 특수건축물, 플랜트 등의 강구조물 작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들 중 작품성이 뛰어나면서도 신강재의 사용 혹은 강재 이용기술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한 작품을 선정, 작품의 설계자(계획 및 구조설계자) 및 시공자(제작자) 그리고 건축주(발주기관)를 시상한다. 응모요령은 신청서 1식, 기본설계도면(10매 이내)

1식, 작품사진(5×7인치 컬러판 3매) 1식 등의 제출서류 및 자료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강구조학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되고 수상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97년 5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상(1점) 수상작의 설계자에게는 상패 및 6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은상 2점에는 각 상패 및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지며, 동상 4점에는 상패 및 20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또한 각 수상작의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게는 건물부착용 동판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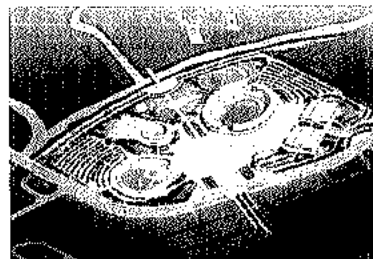
문의 : 한국강구조학회 사무국

/ 02-568-7636

김해종합운동장 현상설계 공모 결과 발표

당선작에 일건건축 황일인 회원 작품

경상남도 김해시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김해종합운동장 기본설계(안) 현상공모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회원의 작품과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정태복 회원의 작품이 각각 최우수작과 우수작에 선정되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황일인 회원의 작품은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공간이용계획이 뛰어나고 체육시설에 있어 주민활용도 및 각 공간별 관계설정이 뛰어난 점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최우수작 당선자에게 기본설계용역권을 부여하고 2016년 인구 70만의 도시로의 성장에 걸맞게



당선작 조감도

종합문화·체육공원으로서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본지 현상설계란 참조)

제주시민문화회관

신축 기본설계 현상공모

등록마감 이달 17일

제주시는 21세기 제주시민의 문화복지요람이 될 「제주시민문화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현상공모한다. 1단계 사전서류심사와 2단계 작품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는 이번 현상공모의 등록마감일은 1월 17일이며 5개업체이내를 우선선정하는 1단계 사전서류심사 결과는 1월 31일에 발표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이 주어지며 그밖의 입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064-50-7541)

제2회 비평상 공모전

건축·도시계획·디자인 등
6개 부문별로 응모

현실비평연구소가 한국 현대 건축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참신한 신인발굴을 위해 주최하는「제2회 비평상 공모전」의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공모전은 응모 자격에 대한 제한없이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무대예술, 조경, 디자인 분야로 응모부문을 한정해 실시하며 주제는 자유이다. 또한 응모작의 대상이 될 작품과 작가는 자신이 바탕을 두고 한정된 구역을 반영하고 봉사하는데 주요 목적을 둔 현실의 건축적 전유를 소재로 삼아야 한다. 응모작은 미발표작으로 200자 원

고지 70매 분량의 원고를 오는 1월 20일까지 현실비평연구소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는 박길룡, 서보광, 정길협(건축부문)씨를 비롯해 조영무, (도시부문), 권혁수(디자인부문), 윤정섭(무대예술부문), 전시형(실내건축), 양병이(조경) 씨 등 부문별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아 대상 1편을 포함해 가작 3편, 입선작 다수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수상작 작가에게는 해외건축연수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 현실비평연구소

/02)304-6539, 376-7775~6

세네갈 GOREE기념관

국제현상설계

국제건축가연맹 주관, 유네스코 후원

세네갈 정부가 다커의 만델라이네스灣에 들어설 Goree기념관과 박물관단지, 정보연구센터 등의 시설물에 대한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다.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주관하고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이 국제현상설계의 참가신청 접수마감은 오는 2월 20일까지로 참가자는 7월4일까지 파리에 있는 국제건축가연맹 사무국장에게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1등에 미화 5만달러, 2등에 3만달러, 3등에 2만달러가 각각 수여되는 이번 국제현상설계에는 특히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외에 미국·프랑스·이집트·케냐·슬로베니아·세네갈 등 각국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맡게된다. 한편 Goree 기념관이 건립될 만델라이네스灣은 과거 역사적으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주요 이주장소로 이곳에 지어질 건축물들의 성격 또한 자유정복의 표현물이자 자유와 인내를 갈구하는 이들의 문화적 상징이 되도록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발주국가인 세네갈 당국의 뜻이다. 따라서 이같은 의도의 현상화 여부가 이번 국제현상설계의 당선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신간 안내

『살고 싶은 집...』

◇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건축을 찾아서

현역기자와 건축사(서용식/수목건축 대표)가 함께 엮은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에 연재되어 온 건축기행 시리즈물들을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살고 싶은 집...」은 건축에 대한 대중적 접근과 더불어 건축에 대한 새로운 흥미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책에 수록된 국내 유명 건축가들의 30여 작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어울리는 건축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쉽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기본도면과 사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전문서적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건축물 약도나 건축주·건축사에 대한 연락처가 첨부되어 있어 새로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서용식, 연기홍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발행 / 신국판 / 267쪽 / 1만2천원
문의 : (주)수목건축 02)578-3777



회원등록변경 현황(11/1~11/30 기준)

신입회원

김상연 : 1962년생/중앙대/우림건축사사무소/375-7575/경기도 오산시 원동 750-9
 김시현 : 1962년생/경남공전/두성건축사사무소/582-8104/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3-2
 김찬주 : 1967년생/연세대/A&D건축사사무소/514-0211/광주시 북구 유동 117-13
 김철조 : 1962년생/경남대/플러스건축사사무소/637-1040/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7
 박범영 : 1964년생/한양대/종합건축사사무소 공·시·건/546-8981/강남구 청남동 100-4 청담빌딩 4층
 서정영 : 1965년생/영남대/건축사사무소 계림/744-4650/대구시 동구 신천 4동 292-24
 손병숙 : 1959년생/서울산업대/건축사사무소 모우재/518-9093/강남구 삼성동 101-6 성창빌딩 2층
 신창현 : 1957년생/고 졸/(주)삼도종합건축사사무소/585-01225/서초구 방배동 1001-8
 안창훈 : 1960년생/부산대/(주)시공 건축사사무소/582-7940/부산시 금정구 부곡 3동 225-62번지
 이기철 : 1964년생/전북대/시공건축사사무소/565-0793/강남구 역삼동 736-44 건축문화빌딩 3층
 이영신 : 1958년생/전남대/소라건축사사무소/564-0257/강남구 역삼동 788-2 임성빌딩 303호
 이은식 : 1957년생/서울대/(주)건축사사무소 기오현/744-7366/종로구 동숭동 31-33
 이종복 : 1961년생/인하대/(주)건축사사무소 우양환경/501-0285/강남구 역삼동 840 삼영빌딩 4층
 장명희 : 1956년생/성균관대/(주)연미건축/525-6324/서초구 방배동908-8 삼익빌딩 402
 정정원 : 1956년생/한양대/(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549-2101/서초구 잠원

동 28-1
 천상호 : 1962년생/경희대/지인건축사사무소/922-5948/성북구 삼선동 5가 276 대명빌딩 5층
 홍영준 : 1960년생/명지대/(주)에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522-0600/서초구 방배동 901-5 원촌빌딩 201

등록변경

강봉원 : (주)서림종합건축사사무소/780-8942/영등포구 영의도동 12-5
 강신량 : (주)태신종합건축사사무소/569-7662/강남구 역삼동 682-23
 고기성 : 건축사사무소 그린/226-0035/중화산동 2가 659
 권영철 : 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425-0666/동구 신천 1동 783-2
 김경희 : 연희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783-2283/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두일빌딩 708호
 김기영 : 가인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14-6
 김대진 : 대진 건축사사무소/982-8020~2/강북구 미아동 734-61
 김상길 : (주)건축사사무소 무원/561-6238/강남구 삼성동 162-24
 김상호 : 성진건축사사무소/(0522)71-2872/울산시 남구 달동 1328-7번지
 김성용 : 정선건축사사무소/75-6840/진북2동 1034-3
 김수덕 : 건물건축사사무소/(0522)45-9371/울산시 중구 교동 190-4번지
 김수학 : 한전종합건축사사무소/676-4141/영등포구 당산동 3가 168
 김연홍 : (주)세기건축사사무소/525-8118/서초구 서초동 1580-10 서정빌딩 3층
 김영길 : (주)빌라건축사사무소/203-7571~3/송파구 송파동 19-10
 김용석 : 건축사사무소 예토/538-5796~7/강남구 역삼동 773-7 백신빌딩 6층
 김용학 : (주)가미 건축사사무소/845-4819/영등포구 신길동 222-1 동화빌딩 6층
 김인규 : 부산건축사사무소/(0558)32-1086/거제시 신탄림 고현리 95

1-47번지
 김재범 : 범건축사사무소/534-4643/대전 서구 갈마동 377-19
 김종민 : 건우종합건축사사무소/(0522)45-9371/울산시 남구 신정5동 158-10
 김 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다/337-8721/마포구 상산동 52-1
 김호종 : 김호종건축사사무소/553-1551/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329-1
 도원희 : 정림건축사사무소/425-9222/동구 신천동 우방푸른타운 상가빌딩 201호
 문경민 : 신도건축사사무소/52-3796/1가 83-12
 문상식 : 건축사사무소/52-3304/익산시 남중동
 문용수 : 가원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안수동 921
 민원기 : (주)한국파사드건축사사무소/563-4483~4/강남구 역삼동 652-3 해전빌딩 3층 303호
 민현식 : (주)건축사사무소 기오현/744-7366/종로구 동숭동 31-33
 박기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성/555-6064~5/강남구 대치동 943-12 금원빌딩 701호
 박상기 : 건축사사무소 상기/717-8703/마포구 연리동 168-40
 박상락 : 아크만 건축사사무소/419-6511/송파구 석촌동 2-5 은주빌딩 2층
 박승주 : 한성건축사사무소/인천시 서구 연희동 388-7L
 박일영 : 건축사사무소 삼영/226-2413/중화산동 2가 643-1
 박점만 : 이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554-5948~9/강남구 대치 4동 894-3 대치빌딩 5층
 박진태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인/538-2986/강남구 역삼동 682 남전빌딩 6층
 박창연 : (주)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547-4985/강남구 논현동 74-22 불이빌딩
 배효숙 : 건축사사무소 건축공방/575-6218/서초구 양재동 68-7 중앙빌딩 4층
 손병길 : 창대건축사사무소/817-9460/부산진구 부전동 426-7
 송기성 : (주)조광삼대기술단건축사사무소/633-4434/영등포구 당산동 2가 6성지빌딩 205호
 송영주 : (주)거화종합건축사사무소/596-3491~5/서초구 방배동 795-25
 송 웅 : 대주건축사사무소/766-7360/성북

구 성북동 130-2
신대섭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축원/511-0234/강남구 삼성동 41-19
심창식 : 태광건축사사무소/547-4985/강남구 논현동 74-22 불이빌딩
안득수 : 수도건축사사무소/52-0335/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17
안병연 : (주)해강건축사사무소/583-2228/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84-3
양경석 : (주)건축사사무소 무원/561-6238/강남구 삼성동 162-24
양영호 : (주)홍진종합건축사사무소/701-8524/마포구 도화동 22 창강빌딩 1611호
이경혜 : 연희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783-9273/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두일빌딩 708호
오관식 : 세기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13-3
오금열 : (주)한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511-2220/강남구 창당동 124-5
우순곤 : (주)신성건축사사무소/3436-3740/광진구 자양 2동 216-6 301호
원재종 : 에네스 건축사사무소/3472-4025/서초구 서초동 1605-5 서광빌딩 201호
유인호 : 동인건축사사무소/(0522)74-7171/울산시 남구 옥동 1405-23번지
윤덕원 : 호석건축사사무소/(0522)73-0064/울산시 남구 신정동 167-15
윤동진 : (주)신호건축사사무소/동구 초량동 1153-14
윤종수 : 아라건축사사무소/953-2346/성북구 삼성동 4가 324-2
이강호 : (주)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515-0844/강남구 논현동 74-22 불이빌딩
이판희 : (주)청산기술공단/(0522)258-1040/울산시 남구 삼산동 삼산 2지구 15B/13N(신기빌딩 4층)
이교진 : 세진건축사사무소/인천시 부평구 효성동 622-56
이규환 : 메타인 건축사사무소/793-4030/용산구 서빙고동 198-8 대원빌딩 4층
이남신 : 건축사사무소 한양건축/661-0663~4/강서구 공항동 60-173호 대성빌딩 302호
이남표 : 예송건축사사무소/538-5138/강남구 역삼동 708-30 정인빌딩 301호
이병현 : (주)일신포럼 종합건축사사무소/549-5383/강남구 논현동 206-17
이세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종현/529-4455~7/강남구 도곡동 423-2

이순미 : 건축사사무소 명신/548-5535/강남구 논현동 89번지 혜성빌딩 202호
이순형 : 건축사사무소 우리/985-6900/강북구 번동 437-26 진취빌딩 201호
이영진 : 종합건축사사무소 산공간/동구 초량 3동 1162-9 보림빌딩 202호
이운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원/563-3011~3/강남구 대치동 911-7 삼정빌딩 3층
이은수 : 건축사사무소 문화/601-0949/강서구 화곡 8동 891-17
이용목 : 건축사사무소 새한/252-8611~2/중구 신당 4동 341-10 하나로빌딩 3층
이재호 : 신원건축사사무소/57-0005/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1-3
이정선 : 정선건축사사무소/254-9100/진북 2동 1034-3
이조원 : (주)세기건축사사무소/525-8118/서초구 서초동 1580-10 서정빌딩 3층
이종두 : 신화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 동구 용전동 143-21
이종수 : 이태아 건축사사무소/417-1722/송파구 석촌동 52-1
이주형 : 가람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31-23
이진석 : 권우영 : (주)공간건축사사무소/(0562)75-5959/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3
이철재 : 건축사사무소 한협건축/798-0950/용산구 한남동 1-301
이태중 : 건축사사무소 가람/(0542)71-5467/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1-6
이판용 : 남경건축사사무소/722-8639/가장군 읍교리 343-2
임종선 : 일건축사사무소/254-8886/진북 2동 1034-3
전봉수 : (주)전우구조 건축사사무소/562-8745/강남구 삼성동 156 미전빌딩 3층
정국주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종현/529-4455~7/강남구 도곡동 423-2
정병연 : (주)건축사사무소 예우/(0561)772-3800/경주시 동천동 813-5
정 소 : (주)홍진종합건축사사무소/701-8524/마포구 도화동 22 창강빌딩 1611호
정은기 : 명인건축사사무소/(0685)393-4080/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05-7
정철영 : (주)해강건축사사무소/583-2228/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84-3
조년순 : 건축사사무소 조년순/722-8639/사하구 당리동 317-47
조성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텔/501-0300/강남구 역삼동 637-9 시몬빌딩 2층
조용조 : 한일건축사사무소/362-4511/서구 화정동 723-18
조재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인/538-2986/강남구 역삼동 682 남전빌딩 6층
조태정 : 가원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인수동 921
조환영 : 모토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11
주영삼 : (주)건축사사무소 한협도시건축/798-0950~2/용산구 한남동 1-301
주용식 : 정림건축사사무소/425-9222/동구 신천동 우방푸른타운 상가빌딩 201호
천재홍 :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562-1724/강남구 역삼동 790-15
최대식 : 건선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6-1
최성규 : 건축사사무소 화성건축/514-0235/강남구 논현동 244-6 방주빌딩 1층
최승연 : 자인건축사사무소/558-1661/강남구 도곡2동 180-12 우백빌딩 3층
최영철 : 건축사사무소 한집/515-9916/강남구 신사동 577 다보빌딩 501
최인성 : 남광건축사사무소/577-1041/서초구 양재동 120-10 지덕빌딩 3층
한동석 : 신화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 동구 용전동 143-21
한언태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인/538-2988/강남구 역삼동 682 남전빌딩 6층
허 남 : (주)한아름 종합건축사사무소/3443-8044/강남구 논현동 33-23 삼유빌딩 301호
함해인 : (주)홍진종합건축사사무소/701-8524/마포구 도화동 22 창강빌딩 1611호
홍갑순 : (주)세기건축사사무소/525-8118/서초구 서초동 1580-10 서정빌딩 3층
황규신 : 신우건축사사무소/485-2345/대전 서구 둔산동 1122
황용연 : 현진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14-16
황종원 : 건우건축사사무소/(0522)45-9371/울산시 중구 교통 190-4번지